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제31회 정기 학술 대회

- ❖ 주제 : 목회와 교리
- ❖ 일시 : 2016년 5월 7일(토) 오전 10시 ~ 오후 2시
- ❖ 장소 : 대한교회 (서울시 양천구 은행정로 29/ 02-2603-0054)

안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목 차

일정표.....	5
알리는 말씀.....	6
1부 예배 순서.....	7
주제발표 I/ 한국교회 위기상황과 교리 설교의 회복/ 정창균 박사.....	9
주제발표 II/교회를 세우는 교리/ 윤영민 박사.....	29
자유발표1/ 설교작성에 있어서 비유 활용의 중요성과 방법/ 박성환 박사.....	53
논평1/ 박태현 박사.....	81
논평2/ 김대진 박사.....	83
자유발표2/ 삶을 변화시키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위한 소고/ 이우제 박사.....	87
논평1/ 박현신 박사.....	114
논평2/ 임도균 박사.....	117
자유발표3/ 교회성장의 정의를 통해 살펴본 교회의 성장 방향에 대한 소고/ 허준 박사.....	121
논평1/ 김선일 박사.....	139
논평2/ 임채남 박사.....	141
자유발표4/ 개혁주의생명신학 회개용서운동 실천에 관한 설교학적 모색/ 황빈 박사.....	145
논평1/ 신성욱 박사.....	174
논평2/ 채경락 박사.....	176

일 정 표

시간/ 내용/ 제목/ 담당	장소
10:00 - 10:30 [예배]	
■ 개회예배 사 회: 양병모 목사 (침신대) 기 도: 이승진 목사 (합신대) 설 교: 윤영민 목사 (대한교회) 축 도: 김상구 목사 (백석대) 광 고: 박성환 목사 (웨신대) [예배 중 공로패, 감사패, 우수논문상 수여]	3층 대예배실
10:30 - 11:00 [주제발표 I]	
■ 한국교회 위기상황과 교리 설교의 회복 발 표: 정창균 박사 (합신대) 사 회: 현유광 박사 (고려신대원)	3층 대예배실
11:00 - 11:30 [주제발표 II]	
■ 교회를 세우는 교리 발 표: 윤영민 박사 (대한교회) 사 회: 오현철 박사 (성결대)	3층 대예배실
11:30 - 11:45 주제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사회: 오현철 박사)	
11:45 - 12:00 기념촬영, 휴식, 분반이동	
12:00 - 12:50 [분반 자유발표/ 발표-25분, 논평-10분, 질의응답-15분 예정]	
제목/ 담당	부속장소
■ 자유발표 1: 설교작성에 있어 비유 활용의 중요성과 방법 발 표: 박성환 박사 (웨신대) 좌 장: 신현광 박사 (안양대) 논평1: 박태현 박사 (총신대) 논평2: 김대진 박사 (고려신대원)	3층 대예배실
■ 자유발표 2: 삶을 변화시키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위한 소고 발 표: 이우제 박사 (백석대) 좌 장: 김순성 박사 (고려신대원) 논평1: 박현신 박사 (총신대) 논평2: 임도균 박사 (침신대)	2층 2-5교실
■ 자유발표 3: 교회성장의 정의를 통해 살펴본 교회의 성장 방향에 대한 연구 발 표: 허준 박사 (침신대) 좌 장: 김상구 박사 (백석대) 논평1: 김선일 박사 (웨신대) 논평2: 임채남 박사 (하늘씨앗교회)	2층 영아부실 (신발벗고 입장)
■ 자유발표 4: 개혁주의생명신학 회개운동 실천에 관한 설교학적 모색 발 표: 황빈 박사 (강성교회) 좌 장: 문병하 박사 (KC대) 논평1: 신성욱 박사 (아신대) 논평2: 채경락 박사 (고신대)	지하 예배실
12:50 - 14:00 [중식 및 교제]	
식당	

• 알리는 말씀

1.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제31회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장소와 중식을 제공해 주시고, 원활한 학회 진행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대한교회 운영민 담임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회에서 감사패를 드립니다.
3.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의 논문집, 「복음과 실천신학」 제38권과 39권이 발행되었습니다. 본 학술지에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투고해 주신 모든 분들과 논문집 발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 본 학회의 12-13대 회장으로 수고하신 김상구교수님께 학회에서 공로패를 수여합니다. 그 동안의 헌신과 섬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5. 본 학회가 추천한 우수논문상으로 권순달 목사님(박사논문: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의 논문과 이민철 목사님(석사논문: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의 논문이 선정되어 학회시간 중 시상합니다.
6. 주제발표 II와 질의응답을 마친 후 전체 기념촬영이 있습니다. 이어 지정된 장소로 4개 분반으로 이동해 자유발표 시간이 이어집니다. 참석자들은 듣고 싶은 발표를 찾아서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7. 자유발표를 마친 후, 오후 12시 50분부터 별도 식당에서 중식을 제공합니다.
8. 본 학회의 입회비(회원 가입비)는 5만원이며, 회원의 연회비(연1회납부)는 3만원입니다. 회원 중 아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등록처에 참가비를 내실 때 함께 납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9.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에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처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한복실 홈페이지(<http://kept1997.kr>)에서 논문검색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온라인을 통한 논문 검색과 학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바랍니다.
10. 「복음과 실천신학」 제40권에 투고하실 분들은 5월 15일까지 논문투고신청서를 학회 공식 이메일(keptmail@daum.net)로 보내주시고, 6월 15일까지 논문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과 실천신학」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개회 예배

사회: 양병모 목사 (침신대)

찬 송/ 32장[통48] “만유의 주재”
기 도/ 이승진 목사 (합신대)
성경봉독/ 계 22:18-21 / 사회자
설 교/ “성경의 결론” / 윤영민 목사 (대한교회)
광 고/ 박성환 목사 (웨신대)
찬 송/ 505장[통268] “온 세상 위하여”
축 도/ 김상구 목사 (백석대)

▷ 찬송가 32장[통48] “만유의 주재”

1. 만유의 주재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2.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3. 광명한 해와 명량한 저 달빛 수 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 할 수 없도다 아멘

▷ 설교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8절-21절

- 18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 19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 20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21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 찬송가 505장[통268] “빛의 사자들이여”

1.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해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2.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3.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입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후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주제발표 I]

한국교회 위기상황과
교리 설교의 회복

발표



정창균 박사
(합신대)

사회



현유광 박사
(고려신대원)

한국교회의 위기상황과 교리 설교의 회복¹⁾

정창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들어가는 말 : 힘 있게 선포되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힘 있게 선포되면 교회는 흥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가 병들었으며, 병든 교회는 그 사회가 암흑의 시대로 접어드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지난 이 천 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얻는 중요한 통찰이다.²⁾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힘 있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 두 가지 현상이 설교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첫째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요, 둘째는 그 진리가 교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강단의 설교가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이 교인들의 삶의 현장을 향하여 효과적으로 소통이 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힘 있게 선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듣는 교인들을 아무리 흥분시키고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을지라도, 성경의 진리를 그 내용으로 하지 않는 설교는 “힘 있게 선포되는 설교”는 아니다. 동시에, 아무리 성경의 심오한 진리를 담고 소리쳐 외칠지라도, 그 내용이 교인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설교도 “힘 있게 선포되는 설교”는 아니다.

한국교회는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현실이다. 이 논문은 한국교회의 현실을 위기상황이라는 전제 아래 관찰하여 그 위기상황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상황은 근본적으로 교회와 신자의 정체성의 상실로부터 초래된 것으로 규정한 다음 교회의 교회다움과 신자의 신자다움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방편으로 교리 설교의 회복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교리 설교의 본질과 실제로 강단에서 교리 설교를 수행하고자 할 때 직면하는 문제, 그리고 효과적으로 교리 설교를 수행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 등을 제안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1. 현상학적 관점에 본 한국교회의 위기상황

1) 양적 성장의 쇠퇴

교회의 양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여러 곳에서 제시되어왔다. 한국교회는 이미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다. 이러한 진단은 일차적으로는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작된 한국교회의 숫자적 침체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한국교회의 제일차적인 위기상황으로 지적해왔다. 실제로, 2005년 11월에 통계청이 조사한 국민주택 총 조사에 의하면 종교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종교 인구는 2005년 11월 1일 현재 국민 전체의 53.1%

1) 이 논문은 필자의 신학정론 2014년 가을호 기고문, “위기상황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 현실과 교리 설교의 회복”과 목회와 신학 2014년 가을호 기고문, “효과적인 교리 설교를 위한 제안” 등을 기초로 수정 보완한 것임.

2) P. T. Forsyth, *Positive Preaching and the Modern Min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3.

인 2497만 명이다. 이것은 1995년 이후 10년 동안 238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불교 인구가 약 1,072만6000명으로 1995년부터 10년 동안 40만5000명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개신교 인구는 861만6000명으로 전체의 18.3%였으며 1995년 인구주택 총 조사 때보다 14만4000명이 감소하였다. 가톨릭 신자는 514만6000명으로 전체의 10.9%이며, 1995년 인구주택 총 조사 이후 10년 동안 219만5000명이 증가한 수치이다.³⁾ 한국의 3대 종교 가운데 불교도 성장을 기록하고 특히 천주교는 급성장을 이루고 있음에 비추어 개신교만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청은 그로부터 10년 후인 지난 2015년 말에 다시 국민주택 통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 기준의 통계가 발표되면 아마 개신교 인구는 더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기독교 신자의 수가 500 만 명 대가 무너지고 400 만 명대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들도 있다. 개신교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위기 상황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는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⁴⁾ 아무튼 1960년대부터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급성장을 누려오던 한국개신교가 이렇게 성장 침체를 거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현상 자체가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 도덕성 상실로 인한 사회적 불신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적 성장의 침체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은 도덕성 상실로 인한 대사회적 영향력의 쇠퇴와, 더 나아가 교회 안팎으로부터 받는 불신과 비난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한국교회에 대한 한국사회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행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받는 신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큰 위기상황에 처해있는지를 잘 보여준다.⁵⁾ 이 조사에서 기독교는 카톨릭(35.2%), 불교(31.1%)에 훨씬 못미치는 신뢰도(18.0%)를 얻고 있다. 특히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가장 신뢰하는 종교로 기독교회를 선택한 응답자는 겨우 7.6%에 그치고 있는 반면 카톨릭 교회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37.9%, 불교는 29.0%를 얻고 있다.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자 곧 한국사회의 신뢰도가 다른 종교들에 비하여 훨씬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저조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봉사 및 구제 활동(47.6%), 윤리와 도덕실천 운동(29.1%)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서, 신뢰 상실의 결정적인 원인이 도덕성의 상실 혹은 도덕적 부패에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교회의 도덕적 실패가 앞에서 지적한 양적 침체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사실, 교회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목회자나 혹은 교회가 범한 도덕적 문제가 원인이 되어 교인들이 떠 지어 다른 교회로 옮겨가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아예 신앙생활을 중단해버리는 교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것이 더 심해져서 이제는 아예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도 하다.

“교회 때문에”라는 말의 핵심적인 내용은 개인 신자들과 그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교회들이 이 사회가 그들에게 걸어온 기대에 부응하는 “신자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음에 대한 실

3) www.kosis.kr 국내국제통계> 인구가구>인구총조사>총조사인구(2005)>종교별인구...

4) 한춘기 교수는 그의 논문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 복음주의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에서 한국교회의 양적성장이 감소추세로 돌아선 원인을 외적인 원인과 내적인 원인으로 구분하면서 다양하게 그 원인을 규명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cf.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제60차 정기논문발표회 논문집, 70-74)

5)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08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서울: 기윤실, 2008).

망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 안에는 이미 반기독교운동을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펼치는 그룹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시민단체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반기독교 그룹이나 시민단체들이 내세우는 반기독교적 주장의 내용들은 대부분 한국교회의 도덕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⁶⁾ 그리하여 이제는 교회 밖의 시민단체들이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소리를 높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야말로 교회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능욕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과격한 반기독교운동들은 다분히 그동안 한국 기독교인들이 불신 사회에 대하여 보여준 윤리적 실패로부터 기인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말하자면, 신자들이 신자가 아닌 것처럼 살고, 교회들이 교회가 아닌 것처럼 처신해온 것의 결과인 것이다. 물론 한국교회의 도덕적 실패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는 별도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와 신앙인들의 도덕적 실패가 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3) 사회와 타종교로부터의 반기독교적 압력

한국교회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는 또 다른 양상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나라의 반기독교 운동은 반교회운동으로 나아가다가, 이제는 반그리스도운동, 그리고 반유일신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신앙,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라는 믿음을 버리라는 강하고 과격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배타적 교리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독선적 교리를 버리고 종교간의 화합과 상생의 장으로 나아가서 다른 종파들과 손에 손을 잡고 화합하여 이 사회의 화합과 평화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다원주의의 도전이야말로 근래에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이 사회와 타종교로부터 당하는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수의 교인들,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도, 이제 우리도 사회의 화합과 종교간 상생을 위한 이러한 요구들에 부응해야 하며, 그것이 한편으로 기독교가 이 시대에 이 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침체와 소외의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의견을 스스로없이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일부라고는 하지만 위와 같은 반기독교적 도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반응 자체가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양상의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사회의 윤리와 도덕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종파들이 함께 협력하여 캠페인을 벌이고 계몽운동을 할 수 있다. 빈곤 문제를 구제하기 위하여 종파를 초월하여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구제 사업을 펼치는 것은 가능할 뿐 만 아니라,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종파가 자기됨의 독특성을 포기하고 한데 섞여 혼합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논리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운동을 위하여 반드시 그 운동을 주도하는 종교의 장소에 모여서 모두가 그 종교방식의 제사나 예배를 드린 후에야 행사를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반기독교적인 저항들에 대하여 기독교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독교만의 독특한 신앙고백이나 구원관을 버리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것을 드러내놓고 강조하는 것을 삼가고 서로 화합하자는 생각을 기독교인 자신들이 스스로없이 하는 것은 이 나라 교회가 처한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이다.

6) 최승락, “반기독교 운동, 그 실태와 대처”, 제주지역 3개교단 연합 신학포럼(2012. 6. 15), 고려신학대학원, 미발간 강의안, 1-12.

4) 이단에 대한 무방비 상태

이단들은 기성교인들을 대상으로 교리논쟁과 독특한 성경해석을 통한 기성교인들의 호기심 충족이나 기성교회에 대한 비판이나 불만해소, 기성교회의 윤리적 비리 등에 대한 비판을 주요 도구로 사용하여 정통교회의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자기들의 집단으로 빼돌리는 일을 왕성하게 벌이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교리적 이탈 즉 전통적 교리에 대한 왜곡이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 예를 들어, 근래에 한국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치며 주목을 받고 있는 신천지 이단은 황당한 본문 해석과 이만희 중심의 어이없는 교리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집단이다.⁷⁾ 그런데도 수많은 기존의 정통교회의 교인들이 신천지 이단에 끌려들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천지에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기존의 정통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심오하고 깊이 있고 철저하게 성경중심적인 가르침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한다. 이렇게 기존의 교인들이 이단의 미혹에 쉽사리 빠져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 예배와 봉사에 열심히 참석하던 교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 이단에 모든 것을 바치며 헌신하는 데로 가버리는 현실이 정통교회의 설교와 설교자에게 던지는 도전이 무엇인가? 신자들이 어느 가르침이 성경적인지 반성경적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허약한 체질이 되어버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들의 개인적인 무책임과 무지함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그동안 교회와 신자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어떤 가르침이나 주장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분별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나게 하는 설교를 듣지 못하며 교인 생활을 해온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기존 교회의 설교와 설교자들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신천지 이단에 대한 대응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설교하며, 교회와 신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목적을 둔 설교를 소홀히 해왔다는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만희가 그렇게 황당한 알레고리 해석과 억지 해석 그리고 말도 안되는 자의적 해석을 일삼는데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정통교회의 신자가 아무런 이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존 교회 목사에게서는 들어보지 못한 심오한 성경중심 설교라고 좋아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기존 교회에서 그러한 알레고리 해석과 자의적 해석 등에 익숙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단의 문제는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이래 언제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있어 온 문제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안에 신천지 이단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단이 극성을 부리고 있거나 혹은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당 입구에 “신천지 이단 출입금지”를 알리는 인쇄물을 붙여놓고 있다는 사실이 신천지 이단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2. 위기상황의 본질 - 신자의 정체성의 상실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이 초래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양상이 어떠하든지 한국교회의 위기상황의 본질적인 요인은 교회의 교회 다움과 신자의 신자다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신자와 교회의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도덕성의 상실로 말미암은 대사회적 신뢰도 추락의 위기든지, 기독교만의 신앙을 버리라는 압박으로부터 오는 위기상황이든지, 기독교인 스스로 다른 종교에 대하여 상생적, 화해적이기

7) cf. 정창균, “신천지 이단의 성경해석과 설교적 대응”, 설교한국, (서울:한국설교학회), vol.4 no.1, 30-64.

위하여 자신의 신앙고백을 타협함으로 직면하는 위기상황이든지, 영적, 성경적 분별이 없이 반성경적인 이단의 가르침들에 빠져드는 위기상황이든지, 가장 본질적인 요인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성의 상실, 혹은 정체성의 혼란으로부터 야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체성이란 신자의 신자다움과 교회의 교회다움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이나 유혹에 직면하곤 하였다. 그리하여 때로는 억울한 비난을 감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자청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기도 하였다. 혹은 당대의 사회로부터 한편의 소외그룹으로 따돌림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던 근거에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 곧 신자가 신자 아닌 것으로 될 수 없고, 교회가 교회 아닌 것으로 변질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자기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위기 상황의 본질은 교회와 신자의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한국교회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을 놓고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것은 그동안 한국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신자답게 살지 않고, 교회답게 행동하지 않아서 벌어진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로부터의 불신 현상이 계속되면서 교회를 염려하는 의식 있는 지도자들과 단체들이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운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교회재정의 투명한 운영, 목회세습반대운동, 구제활동의 확대, 사회복지들을 위한 적극적 참여, 교회운영의 민주적 방식도입 등등 다양한 운동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들은 모두 한국기독교가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을 만큼 회복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실제로 여러 단체나 개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위기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결을 위한 대안들은 주로 도덕성 혹은 윤리성 회복과 사회적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도덕성을 갖추고 사회적 효용성을 충족시키는 특정의 행동양식들을 실천하는 것에 궁극적인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신앙단체인 교회에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교회는 단순히 도덕수준이 높은 단체나 혹은 사회구호단체에 머물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신자가 신자답게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면 반드시 도덕성이 뛰어나게 되고, 구제활동이 활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도덕성이 뛰어나고 구제활동이 활발하게 되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질과 외형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외형이 아니라, 그 외형을 만들어내는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이것은 신앙과 도덕성을 이분화 하고, 도덕성은 별 것이 아니고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둘은 같이 가게 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극도로 강조한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행위들이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믿음과 관련지어 말하고 있다. 행함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러므로 행함을 만들어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야고보의 이러한 강조에는 행함이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행함이라는 열매를 보려면 믿음이 참 믿음 혹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해야 하지, 그 행위 자체를 하나씩 어디서 갖다가 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셈이다. 출애굽기 1장의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한다. 히브리산파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왕명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죽이지 않은 것은 그들이 휴머니스트들이어서가 아니었다. 생명에 대한

경외심 때문도 아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다(17절, 21절). 본문이 일관되게 우리가 주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사느라고 왕명을 어기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고, 그들의 그러한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 아이들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도덕성이나 인간존중의 문제이기 전에 신앙의 문제였다고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은 것도 그의 높은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의 신앙의 발로에서 온 결과라는 것이 창세기 39장의 선언이다(9절).

한국교회가 비난받고 있는 도덕성의 문제는 교회답게, 그리고 신자답게 살지 않아서 초래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신자를 신자답게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름 아닌 교회 혹은 신자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여 그 정체성에 걸 맞는 신자생활과 교회생활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실현되는 문제이다.

3. 신자의 정체성 확립과 교리

신자의 정체성의 준거들은 다름 아닌 성경으로부터 얻게 된다. 신자는 성경을 통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또 그 정체성에 맞는 신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신자는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그리고 영원에 대하여, 그 밖의 모든 사항과 주제들에 대하여 중요한 신학적 이해와 안목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나아가 신자는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고백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가 하는 신앙과 삶의 준거들을 확립하게 된다.

성경이 제시하는 이와 같은 신학적 가르침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제시하는 교리적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교리는 성경 전반을 통하여 드러나는 다양한 방면에서의 중요한 항목들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리와 성경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교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의 삶과 무관한 형이상학적 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교인들의 구체적인 삶과 뗄 수 없는 관련성 아래서 제시된다. 결국 신자는 교리를 통하여 자기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확고한 기준과 지침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교리는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게 해준다.”⁸⁾ 패커와 패럿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교리 교육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에 뿌리를 둔 믿음과 실천을 가르쳐 교리와 헌신과 규범과 신앙생활의 기쁨을 일깨워주는 교회의 사역이요, 신자들에게 기독교의 신앙과 실천을 가르치는 것이다.⁹⁾ 그러므로 교회는 신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세기의 위대한 교회사가로 알려져 있는 라토렛(Kenneth Scott Latourette)이 그의大作인 “기독교 확장사”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의 장구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한 말은 교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한 증언이자 경고이기도 하다. 그는 “시간과 공간 속에 얽매이지 않은 자신의 정체성을 희생하고 주변의 환경에 순응하였던 교회들은 결국 자신들이 그렇게 순응했던 시대와 사회, 그리고 기류가 바뀌면서 모두 소멸해 버리고 말았다”고 단언한다. 그는 “다만 예수의 유일성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와 역사상 발생한 사건으로서 예수의 탄생과 생애, 가르침, 죽음과 부활에

8) 다니엘 도리아니, “적용, 성경과 삶의 통합을 말하다”, 정옥배 옮김, 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118.

9) 제임스 패커 & 게리 패럿, 복음에 뿌리를 내려라, 생명의말씀사, 2010, 40,48.

대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계시와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예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믿음의 진리만이 영속적인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결론짓는다.¹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리가 무엇이며 그 역할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교회가 교리를 가르쳐야 하고, 기독교 신자는 기독교 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지당하고도 필연적인 일이다.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전제로 주어지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나 혹은 그 가르침들에 대한 요약이 교리이기 때문이다. 교리야말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구성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¹¹⁾ 이러한 관점에서 특별히 작금의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한국교회야말로 교리교육 특히 교리 설교의 회복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처해있는 다양한 양상의 위기 상황은 그것이 양적 침체의 문제이든지, 도덕성 상실로 말미암은 교회 안팎으로부터의 불신과 비난의 문제이든지, 사회와 타종교로부터의 반기독교적 혹은 종교다원론적 압력이든지, 창궐하는 이단의 문제로부터 오는 위기상황이든지 공통된 본질은 바로 기독교회 혹은 기독교 신자의 정체성의 문제로 집약되기 때문이다. 강단의 설교가 교리를 힘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신자와 교회를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중대한 요인이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교회도 “교회사 속에서 어느 시대 못지않게 오늘 날에는 더더욱 교리가 중요해졌다”.¹²⁾

4. 교리 설교

교리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교리는 설교 보다는 교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가르쳐 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타당성이 있는 주장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설교야말로 목회자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이라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회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전교인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하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초신자들은 상당한 세월이 흐를 때까지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에 쉽사리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설교는 몇 사람의 자발적인 신청자가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일시에 듣게 되는 강력한 가르침의 기회이다. 그러므로 강단의 설교를 통하여 전교인이 자연스럽게 교리를 접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점에서 김병훈 교수가 교회의 교회다움, 곧 교회의 영적, 신학적 정체성은 교회의 설교를 통하여 회중에게 전달되며, 불경건과 거짓된 교훈에 맞서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양육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수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라고 강조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고도 정확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¹³⁾

그런데도 강단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교리를 설교하는 것을 기피해온 것이 현대설교의 경향이다. 교회성장이 목회의 궁극적 목적이 되고, 청중의 문제 해결에 부응하는 데에 설교의 초점이 맞추어지면 강단에서는 문제해결(problem-solution)식 혹은 “how to” 설교 방식이 설교를 주도하게 되고 자연히 강단에서 교리 설교가 사라지고 성공으로 이끄는 주제별 혹은 치료적 설교가 압도하는 현상을 빚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다. 이

10) Millard J. Erickson & James L. Heflin,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리설교*, 55에서 재인용.

11) 밀라드 에릭슨 & 제임스 헤플린,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리설교”, 이승진 역, CLC, 2005, 30.

12) 밀라드 에릭슨 & 제임스 헤플린,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리설교”, 56.

13) 김병훈, 신학이 없어도 좋은 설교가 가능한가, “주는 영이시라”, 성산 박형용 박사 은퇴 기념논총, 합신대학 출판부, 2009, 400.

런 상황 아래서 설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설교를 들어 온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 채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중심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 그 과정에 신자는 점점 신자가 아닌 것으로,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으로 변질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단의 설교가 교리를 힘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신자와 교회를 위해서 언급한 바와 같은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중대한 요인이 된다. 윌리엄 칼 3세는 현대 북미교회를 신학적 정체성의 위기에 처한 것으로 진단한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된 원인을 세속적인 다원주의의 증가와 성인을 위한 교회 교육의 축소, 그리고 20세기 내내 건전한 교리 설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한다. 그의 이러한 분석은 현대 한국 교회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통찰이다.¹⁴⁾

교회성장을 위해서도 강단에서 교리 설교를 기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다. 북미 교회의 전반적인 양적 성장의 쇠퇴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통계적 혹은 사회과학적 접근 방식으로 북미교회의 성장과 쇠퇴를 분석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그 중 몇몇 분석들이 보여준 결과는 북미교회의 양적 쇠퇴는 시대적 여건이나 문화적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쇠퇴의 추세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으며 쇠퇴하는 교회와 성장하는 교회의 대조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교리들에 집착하는 보수주의 교회와 그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타협한 자유주의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대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그 연구들의 결과였다. “왜 보수주의 교회는 성장하는가?(Why Conservatives Are Growing?, Dean M. Kelley)”, “텅 빈 교회: 자유주의 기독교의 자살(The Empty Church: The Suicide of Liberal Christianity, Thomas C. Reeves)”, “대탈출: 왜 미국인들은 자유주의 교회에서 보수주의 교회로 탈출하는가?(Exodus: Why Americans Are Fleeing Liberal Churches for Conservative Christianity, Dave Shiflett)”와 같은 책들은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들은 보수적인 교회들은 보수신학에 기초하여 교인들에게 많은 헌신을 요청하면서 성장하는 반면 자유주의 교회는 그 기반을 잃어버리고 소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¹⁵⁾ 이러한 사실은 교회성장과 청중 확보를 위한 명분으로 교리 설교를 기피하는 것이 교회성장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으로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5. 교리 설교 기피의 원인

강단의 설교에서 교리의 선포가 사라지거나 최소한 기피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다. 실제로 여러 학자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강단에서 교리 설교가 소홀하게 되는 이유들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¹⁶⁾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설교자들이 강단

14) William J. Carl III, “감동을 주는 교리설교”, 김세광 역, (서울:도서출판 새세대), 2011, 12-13.

15) 다음의 책들을 참고하라. Dean M. Kelley, Why Conservatives Are Growing?, Harper and Row, 1977. [The Empty Church: The Suicide of Liberal Christianity](#) by Thomas C. Reeves (Oct 14, 1996), [Exodus: Why Americans Are Fleeing Liberal Churches for Conservative Christianity](#) by Dave Shiflett (Jun 2, 2005)

16) 밀라드 에릭슨 & 제임스 헤플린은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원인을 분석한다.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리설교”, 이승진 역, CLC, 2005, 117-145.) Robdrt G. Hughes & Robert Kysar 은 주로 문화적 변혁에서 원인을 탐색한다. (“Preaching Doctrin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1-10), Frank T. Wilson, *Doctrinal Preaching* 은 이 시대의 지배적인 반권위적인 분위기와 종교적 믿음에 관한 것들에 대하여 갖는

에서 교리 설교를 기피하는 이유로 제시한다.

1) 성장제일주의의 교회 행태

무엇보다도 교회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교회 성장에 맞추어진 것이 설교에서 교리 기피현상이 일어나게 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교회성장 전문가들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으면 교회 안에서 교리문제를 다루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권면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세속적이고 실용적인 삶의 주제들, 예를 들어 행복 행동 건강 평안 성공 승리 등등이 설교의 주제가 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설교의 본문이 되어도 좋고 무슨 방법론이 동원되어도 좋다는 입장이 팽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긍정의 힘이 실질적인 설교의 텍스트가 되기도 하고, 심리적 분석과 심리 조작, 감정조작 등의 방법이 거침없이 강단에서 동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히 교리 설교를 기피하고 실용적 주제들을 편향적으로 설교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안에서 교리가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는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실용주의적 가치관에 붙잡혀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실용주의적 목회관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이라는 이승진 교수의 지적은 매우 정당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사실 그동안의 설교들은 신자와 교회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가르치기 보다는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성공 등 소위 부와 건강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힘을 쏟아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재미있는 설교, 편안한 설교, 축복이 넘치는 설교를 지향해왔다. 교회에 대한 강조도 교회의 본질에 관한 교리적인 가르침보다는 주로 일과 봉사 등을 강조하며 교회의 기능이나 실용성 등 교회의 기능적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2) 교리 설교에 대한 오해

또 다른 원인은 교리 설교에 대한 오해이다. 교리 설교는 따분하고 건조하며, 지루할 뿐만 아니라, 추상적이고 철학적이어서 실제적이지도 않고,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판단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교리 설교가 그러해서가 아니라, 설교를 그렇게 함으로써 생긴 문제라고 해야 한다. 교리 강의 혹은 조직신학 강의와 교리 설교를 혼동한 데서 온 결과이기도 하다. 교리 설교는 조직신학 강의시간에 하는 용어나 내용을 장소를 바꾸어 교회의 강단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설교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오해이다. 사실 교리 설교를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설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교리와 설교의 통합으로서 교리 설교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리는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게 해준다. 그보다 더 귀중한 능력은 없다. 우리가 삶의 수수께끼 중 하나에 직면한다면,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면서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한다면, 마침내 문제가 명확해졌을 때 그 근처에는 어떤 교리가 있을 것이다.”¹⁸⁾ 설교는 그 교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의 교인들의 삶에 연결되고 적용되는 메시지로 선포하는 것이다. 교리 설교는 참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다루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기쁨에 찬 영광스러운 춤(dance)이라고도 할 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리를 설교하는 설교자의 태도는 마땅히 “할렐루야!”가 되어야만 한다.¹⁹⁾ 교

포용정신 및 그로 말미암아 초래된 고도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17) 이승진, 성경적 설교를 위한 교리 설교, in “주는 영이시라”, 성산 박형용 박사 은퇴 기념 논총, 함신대학출판부, 2009, 566-570.

18) 다니엘 도리아니, 적용, 성경과 삶의 통합을 말하다, 정옥배 옮김, 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118.

19) Robert Smith Jr., “Doctrine That Dances, Bringing Doctrinal Preaching and Teaching to Life”, B&H Publishing Group, 2008, 1

리 설교가 교리 교육의 한 방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단순한 교리 강의나 해설은 아니다.

3) 교리 강조의 영향에 대한 오해

교리를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며 교회의 일치와 화합에 장애물이 된다는 생각도 교리 설교를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교리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파들의 특성을 분명히 해주며, 각 교파가 성경의 어떤 특정한 가르침들을 명백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 물론 교파마다 강조하거나 근거로 삼는 교리들이 다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개신교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교리들이 있으며, 또한 성경본문을 근거로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종말과 역사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얼마든지 다양한 교리적 혹은 성경적 가르침들을 교리 설교라는 개념 안에서 교회의 일치를 해치지 않으며 설교 할 수 있다.

4) 교리와 성경말씀의 관계에 대한 오해

교리에 대한 또 다른 중대한 오해는, 교리는 성경이 아니며,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교리가 아니라 성경을 설교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설교에서 교리를 기피하는 것이다. “교리”라는 개념에 혼돈이 있는 것이다.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고, 그러므로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마치 교리는 성경과 별도로 구성된 또 하나의 사상체계인 것처럼 오해한 것이다.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신학적 주제에 따라 요약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설교는 교리적이며 성경적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는 윌리엄 칼 3세의 말은 정당하다.²⁰⁾ 김운용 교수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모든 설교가 기독교의 교리에 바탕을 두고 행해지게 되며, 성경 본문에 충실한 설교자라면 그 본문이 말씀하는 교리적 특성을 설교에 담을 수밖에 없다. 교리 설교라고 해서 형태론적 관점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드러내는 기독교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본문의 말씀과 함께 엮어 그것을 전달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²¹⁾

5) 쉬운 설교에 대한 오해

또한 설교에서 교리 기피 현상은 쉬운 설교, 부담을 주지 않는 설교가 청중을 위한 최대의 서비스요,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설교라는 설교자들의 인식에서 온 결과이기도 하다. 교인들의 요구와 그에 부응하려는 설교자들의 반응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하여 설교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오락 도구화 되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수단화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쉬운 설교란 내용이 없어서 긴장감을 주지 않는 설교나,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오락성으로 채워진 설교를 말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내용이 없어서 쉬운 것이 아니라, 심오한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 날 청중들의 언어로, 그리고 설득력 있는 전개로 잘 전달되게 하는 설교를 말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쉬운 설교란 내용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 방식의 문제임을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교리 설교는 그것이 교리 설교이어서 필연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설교를 어렵게 해서 어려운 것이다.

20) William J. Carl III, “감동을 주는 교리설교”, 17.

21) 김운용,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2007 겨울 제41호, 신학정보연구원, 135,136

6. 교리 설교 기피의 결과

1)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리 기피현상은 결과적으로는 신자들과 교회들의 자기 정체성의 상실과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기독교 안에서도 각 교파의 구별이 없어지게 되었고, 교인들도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의 신학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믿는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게 되었다. 교파는 각각 중점을 두어 주장하는 교리의 강조점이나 특정 교리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근거가 되어 특성화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그러한 특성이 사라지고 있다. "한국교회는 교리는 모두가 장로교이고 예배는 모두가 순복음"이라는 비아냥이 마냥 부정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2)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신자 혹은 교회로서의 확고한 분별과 판단력을 상실하고 혼란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지에 대하여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리하여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분별력도 없이 혼돈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개별 신자와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의 건강은 자기가 믿고 고백하는 바에 따른 일관성 있는 삶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확신에서 오는 분별력에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교리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다.

3) 교회의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교리에 대한 확신 있는 지식이나 분별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교회 지도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동시에 다른 교인들의 교리적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확신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하여 교회 지도자로서의 자신감을 상실하고 불안에 빠지게 된다. 그리하여 교인들로부터 교리적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난감해하면서 얼버무리거나, 엉뚱한 다른 이야기들로 답변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교회의 교리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

4) 신자 각 개인은 성경적인 안목과 영적인 분별력이 약화되어 이단의 가르침과 유혹들에 대하여 대응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단들에게 쉽게 넘어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철저히 무장된 이단들의 조직적인 지식을 내세운 도전에 무력감을 느낄 뿐 아니라, 이단들의 간단하고도 확실한 교리적 오류마저도 분별하지 못하고 터무니없는 그들의 주장에도 쉽게 넘어가게 된다. 실제로 교회 예배와 봉사에 열심 이던 정통교회의 교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 이단에 모든 것을 바치며 미혹에 쉽사리 빠져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자들이 어느 가르침이 성경적인지 반성경적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허약한 체질이 되어버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들의 개인적인 무책임과 무지함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그동안 교회와 신자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어떤 가르침이나 주장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분별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가게 하는 설교를 듣지 못하며 교인 생활을 해온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기존 교회의 설교와 설교자들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신천지 이단에 대한 대응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설교하며, 교회와 신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목적을 둔 설교를 소홀히 해왔다는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만회가 그렇게 황당한 알레고리 해석과 역지 해석, 그리고 말도 안되는 자의적 해석을 일삼는데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정

통교회의 신자가 아무런 이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존 교회 목사에게서는 들어보지 못한 심오한 성경중심 설교라고 좋아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기존 교회에서 그러한 알레고리 해석과 자의적 해석 등에 익숙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7. 교리 설교의 회복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제는 교회의 성장성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건강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처방 가운데 하나는 교리 설교의 회복이다. 즉 설교에서 교리를 선포하는 일을 회복하는 것이다. 물론 개신교의 각 교파들은 그 교파가 강조하는 교리적 입장에 따라 특색과 차이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신교이기 때문에 교파와 상관없이 모두가 근거하고 고백하는 공통적인 신학적 진리(theological truth)들이 있다. 모든 교회들은 이러한 공통적 교리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힘써야 한다.

교리의 선포를 딱딱한 신학적 담론이나, 지루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체계나, 재미없고 부담만 주는 어려운 논설과 주입이 아니라, 흥미 있고, 현실감 있고, 당장의 삶에 잇대어 오는 메시지로 선포하기 위한 깊은 고민과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설교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그리고 강단에서 교리 설교의 회복을 위하여 성서학자와 교의학자 그리고 설교학자들이 함께 모여 집중적인 연구를 하여 설교 현장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리는 설교 보다는 교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가르쳐 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타당성이 있는 주장인 것이 사실이다. 교리 공부 소그룹 운영을 통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리 교육이 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전교인 세미나 혹은 특강 등 집중적인 교리 강좌를 통하여 교리를 가르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초창기 한국교회는 주일 예배 시작 전 30분을 전교인이 모여서 교리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운영하였고, 주로 그 교회의 장로들이 이 시간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성경공부 그룹을 비롯한 각종의 소그룹 운영이 보편화 되어 있으므로 교리공부 그룹을 운영하여 교리를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참여 인원의 제한으로 전교인을 대상으로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다. 그리고 교리 공부 모임에서는 주로 교리에 대한 해설과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진 강의나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그 교리의 가르침이 신자의 실제 삶에 어떻게 연결되며 적용되는가를 메시지 차원에서 선포해야 하는 설교와는 실제적인 효과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설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리를 다룰 수 있다. 첫째는 성경의 한 책을 택하여 그 책이 제시하는 중심 교리들에 초점을 맞추어 상당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교리 설교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본문 강해식 설교가 될 것이다. 둘째는 교리적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를 드러내주는 본문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방식이다, 이 경우의 설교는 주로 주제 설교가 될 것이다. 셋째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혹은 사도 신경이나 주기도문 등 개혁교회가 역사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신조나 신앙고백서들을 택하여 그 내용을 상당기간 동안 연속 설교로 다루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설교를 위한 대표적인 성경본문을 읽고 교리문서의 각 항목의 내용을 신학적 혹은 성경적으로 해설하며 진행하는 설교방식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아래의 효과적인 교리 설교를 위한 제안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주의 할 것은 교리 설교는 딱딱할 수밖에 없고, 논리적이고 추상적이고

개념적이며 초신자나 어린이들은 듣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교리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다분히 강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편견도 버려야 한다. 교리는 현실의 삶과는 동떨어지고 적용력도 떨어진다는 것도 잘못된 편견이다. 매 설교마다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신학적 안목 혹은 주제 혹은 신학적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포착하여 그것을 본문에서 드러내는 방식의 설교도 시도해볼 수 있다. 어린이 교리교육을 위한 만화 성령론 등 교리 교육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방식 특히 쉬운 전달과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둔 교육방식과 교재들이 나오고 있으므로 그러한 교재들을 참고하여 강단의 설교로 응용할 수도 있다.

8. 효과적인 교리 설교를 위한 제안

1) 교리 설교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 5. 교리 설교 기피의 원인에서 살펴본 교리 설교를 기피하게 하는 몇 가지 요인들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생각들은 교리의 본질과 교리 설교에 대한 오해나 왜곡으로부터 초래된 잘못된 태도들이다. 강단에서 교리 설교가 힘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오해나 왜곡된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2) 교리 설교의 방식

(1) 언제 교리 설교를 할 것인가?

특정의 교리적 주제를 내세워 집중적으로 다루는 방식의 교리 설교를 수행하고자 할 때는 언제 그러한 설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수요예배를 교리에 따른 시리즈 설교를 수행하는 기회로 활용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수요예배를 주기도문, 사도신경,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교회론 등 고정적인 교리 설교의 날로 정하고 연중 교리 설교를 수행하는 것이다. 수요예배 참석 인원이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주일 예배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 주일 예배에 교리 설교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하나의 교리적 주제를 주제에 따라 4-8 주 정도 기간으로 정하여 연속 설교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일 년에 2-3차례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연중 정리화 하여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년 1-2월, 6월, 10월은 교리 설교를 연속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매번 주제를 바꾸어가면서 교리 설교를 수행하는 것이다. 아니면 매월 첫 주 등 한 주일을 정하여 연중 최소한 매월 한 주일은 정기적으로 교리를 집중적으로 설교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여 일 년 동안 12가지의 교리적 주제를 다룰 수도 있고, 혹은 교회에 대하여 첫 6개월, 종말에 대하여 다음 6개월 등으로 두세 주제를 연속으로 다룰 수도 있다. 아니면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 등 교리문서를 선택하여 매월 한 번씩 차례로 다룰 수도 있다. 또는 연간 설교계획으로 교회절기를 반영한 설교, 목회방침과 계획을 반영한 설교, 그리고 교리 교육을 반영한 설교로 배분하여 연간설교를 계획하고 그 계획표에 따라서 설교를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단시간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개괄적으로 다루어 교인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한 큰 그림을 갖게 하려는 의도로 교리설교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특별한 사건이나 특정 사안을 계기로 교리적 주제를 선정하여 설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교회의 절기에, 혹은 사회적 큰 사건의 발생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등을 계기로 그와 관련된 교리적 주제를 심도 있게 그리고 현실감 있게 설교할 수 있다.

(2) 무엇으로부터 교리 설교를 할 것인가?

특정의 교리적 주제를 내세워 교리 설교를 하고자 할 경우 무엇을 근거로 그 주제를 제시하고 펼쳐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a) 교의학의 주제항목을 따라서 교리를 설교하기

교의학 교과서가 제시하는 교의학의 주제들을 차례로 혹은 선별적으로 교리 설교의 주제로 삼고, 교의학 교과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설교를 수행할 수 있다. 교회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등등 다양한 주제를 균형 있게 다루어 나가는 설교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교의학 교과서를 의존하여 설교를 하다보면 마치 신학 대학원의 강의실을 교회 강단으로 옮겨놓은 것처럼 설교가 경직되고 설교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설교의 본질을 떠나 강의실의 강의로 변하기 쉬운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의학 교과서는 아니지만 신학적 입장을 집대성한 것으로 교회사적으로 정평 있는 신학서적의 내용을 근간으로 설교의 주제를 선정하여 교리 설교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임스 보이스의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근거자료로 삼은 “기독교강요 교리설교”²²⁾가 이러한 경우이다. 그런가 하면 찰스 스펀전은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교리 설교를 행하기도 하였는데, “칼빈주의 5대 교리 설교”²³⁾가 그것이다.

b) 신앙고백서, 요리문답 등 교리문서로부터 교리를 설교하기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등을 본문삼아서 교리 설교를 연속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서 등 교리문서들도 시리즈로 교리 설교를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문서의 순서에 따라 차례로 설교해 나갈 수도 있고, 설교 여건이나 계획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제를 다룰 수도 있다. 특히 요리문답은 한 질문으로 설교 한편을 하는 방식보다는 일정한 카테고리를 정하고 해당하는 몇몇 문항들을 묶어서 한 설교에서 다루는 것이 설교로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사실 요리문답들은 어린 아이들도 읽고 익힐 수 있도록 의도되어 있어서 장황한 해설이나 설명보다는 간략한 해설과 함께 내용 자체를 반복적으로 익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청중의 상황에 따라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각 문항마다 여러 개의 성경구절이 제시되어 있어서 성경본문들은 증거구절의 역할만 하고 주제 해설이 설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전형적인 주제설교로 그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설교에서는 메시지의 핵심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중심 본문을 설교의 본문으로 제시하여 본문 해석과 해설 및 적용을 하는 본문강해설교의 방식을 취하면서 문항에 제시되어 있는 다른 본문들은 필요에 따라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설교적 효과를 위해서는 더 적합할 것이다.

c) 성경의 특정 책을 본문으로 교리를 설교하기

본격적인 교리문서가 아니라, 성경의 한 책을 선정하여 그 책이 제시하는 중심 교리들에 초점을 맞추어 상당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교리 설교를 수행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를 선택하여 구원론을 에베소서가 제시하는 중요한 교리로 전제하고 책 전체

22) 제임스 보이스, “기독교강요 교리설교”, 지상우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9.

23) 찰스 스펀전, “칼빈주의 5대 교리설교”, 김군섭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를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상당기간 동안 에베소서 연속설교를 하는 것이다. 물론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꼼꼼히 살피면서 모든 본문을 강해해나가는 방식이 아니어서 에베소서를 총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필요한 것만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에베소서가 가르치는 구원에 대한 교리를 선명히 드러내어 교인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책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다룰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구원론 외에 교회론 등 다른 주제를 선택하여 에베소서를 설교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는 교회를 무엇이라 하는가?”라는 표제로 교회론에 중점을 둔 에베소서 교리 설교도 가능할 것이다.

d) 성경전체의 흐름에서 교리를 설교하기

거대담론이라 일컬어지는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 혹은 전체 이야기를 교리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핵심 기둥이 되는 주제들을 설교함으로써 성경전체의 흐름을 포괄하는 설교를 할 수 있다. 앨버트 몰리는 포스트모던 시대는 성경의 거대담론을 거부해버렸음을 지적하면서 성경의 거대담론을 설교할 것을 제안한다.²⁴⁾ 거대담론은 창조-타락-구속-종말로 이루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를 말한다. 각각의 기둥주제를 차례대로 한 번씩 설교하여 4회의 연속설교로 성경의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는 거대 담론을 일목요연하게 설교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각 기둥 아래 2-3개의 세부 주제 항목을 정하여 그에 따라 설교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즉 “창조”라는 큰 주제 아래, 2-3 회의 창조에 나타난 교리를 세분하여 설교하고 다음 기둥인 타락으로 넘어가서 타락과 관련된 2-3개의 항목을 선정하여 설교하는 방식으로 거대 담론의 설교를 구성할 수 있다.

e) 일상의 설교에 교리적 안목을 반영하여 설교하기

특정의 교리를 주제로 내걸고 행하는 교리 설교가 아니라, 일상의 모든 설교를 교리적 안목으로 접근하여 행하는 것도 교리 설교를 일상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중요한 방법이다. 이때는 본문 해석 과정에서 설교자가 의도적으로 이 본문이 기독교의 교리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본문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방법은 아래 교리 설교를 위한 준비 단락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3) 어떤 형식으로 교리를 설교할 것인가?

전통적으로 교리 설교는 당연히 주제 혹은 제목설교의 한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선입견이 지배해왔다. 물론 교리 설교는 그 성격상 주제설교 혹은 제목설교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의 주제를 설교하는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주제설교의 방식을 취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주제설교는 성경본문이 아니라, 미리 설정해놓은 주제가 본문을 좌우하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리하여 본문이 아니라 주제 자체에 대한 장황한 논쟁이나 해설이 설교를 사로잡게 된다. 그 결과로 교인들은 본문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교양강좌나 신학강좌를 들었다는 느낌을 갖고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므로 특정한 교리를 설교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본문을 심도 있게 강의하는 본문 강해설교의 방식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설교가 성경적 권위를 확보하게 된다. 설교의 목적은 특정의 교리를 가르치는데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설교의 형식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나 판에

24) 앨버트 몰러, “말씀하시는 하나님”, 김병하 역, 부흥과개혁사, 2010, 133-153.

박한 논쟁과 논리적 증명과 해설의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라고 천명하고 있는 그 주제들을 특정의 사건 혹은 이야기 안에 담아 내고 있다. 그러므로 교리 설교를 행하는 설교자는 특별히 설교의 형식과 스타일을 의도적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교는 단순히 정보나 자료의 제공이 아니라, 본문과의 만남을 통한 청중의 삶의 변화를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더욱 분명해진다.

교리 설교가 설교로서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설교자는 설교형식 외에 설교자의 언어사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리는 언제나 추상적, 사변적, 논리적, 그리고 개념어를 사용하여 논증하거나 입증하고 해설하는 방식으로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효과적인 교리 설교를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용어들보다는 청중이 자기들의 경험과 현실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용어들을 사용하여 신학적 개념들을 제시하는 것을 습득해야만 한다.²⁵⁾ 말하는 스타일과 함께 특정의 교리를 표현하는 전문적인 개념어의 사용에 대하여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학적 개념을 표현하는 전문 용어를 설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유익과 함께 후유증도 동시에 수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용어를 잘 이해시켜 사용할 경우 언어의 경제성과 개념의 통일성 등 유익이 있으나, 설교 자체를 딱딱하게 하거나 교인들로 하여금 설교를 듣는 일 자체에 거부반응을 일으킬 부작용이 있음도 알아야 한다. 가능하면 교의학의 전문용어들의 사용을 절제하고 일상의 언어들로 쉽게 풀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교리 설교의 준비

교리 설교의 준비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교리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되기 위한 준비와 한편의 교리 설교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과정으로서 교리 설교의 준비가 그것이다.

(1) 교리를 설교할 수 있기 위한 설교자의 준비

에릭슨과 헤플린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교리 설교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이를 준비하고 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²⁶⁾ 신학적인 깊이를 담고 있는 설교를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리 설교는 설교를 위한 특정 본문을 잘 해석하여 교리적 주제를 포착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주제를 성경 전반에 걸친 가르침에 비추어 이해할 것이 요구되는 때가 많다. 그래야만 그 교리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갖게 될 뿐 아니라, 그 설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모순되거나 혹은 대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교리 설교자는 교리적 주제를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이해하는 조직신학적 식견과 선택한 특정의 본문이 어떻게 그러한 해석의 결과에 이르게 되는가를 밝혀주는 성경신학적 조망을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한다. 특정의 교리주제를 시리즈 설교로 다루고자 할 경우에는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주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다룰 순서들을 기획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2) 한 편의 교리 설교를 위한 준비

25) cf. Robert G. Hughes & Robert Kysar, *Preaching Doctrin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Fortress Press, 1997, 10-13

26) 밀라드 에릭슨 & 제임스 헤플린,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리 설교”, 381.

특정의 성경본문을 선택하여 일상적인 본문 설교 혹은 강해설교를 행할 때에도 교리적 안목을 반영하여 교리 설교의 면모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라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a) 본문의 주해

설교준비는 선택한 본문에 대한 주해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점에서 설교자는 전달자이기 전에 해석자이기도 하다. 주해를 통하여 설교자는 그 본문이 말하는 가능성 있는 모든 의미들을 접하게 된다. 주해는 설교준비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설교자들은 잊지 않아야 한다. 설교를 목적으로 한 주해 과정에서는 주해에 근거하여 본문의 중심주제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b) 교리적 주제를 확정하기

주해한 본문의 내용을 교리적 주제로 요약하는 과정이다. 도리아니의 말처럼, “성경본문에서 도덕적 교훈들을 끌어내기 전에, 신학적 교훈들을 먼저 얻게 해야 한다”²⁷⁾ 먼저 주해한 본문의 의미들로부터 포착할 수 있는 교리적 가르침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으로 본문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교리적 주제가 무엇인가를 확정한다. 강화체의 본문처럼 본문의 기록 방식에 따라서 어떤 본문은 좀 더 직접적이고 쉽게 교리적 요소를 포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체나 시처럼 어떤 본문들은 그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본문은 교리적 요소를 담고 있음을 의식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작업을 해야 한다. 한 설교를 위해서는 하나의 교리적 주제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c) 교리를 청중의 삶과 연결하기

교인들이 부지불식간에 강단을 향하여 제기하는 교리적 질문과 세속적 질문들에 대하여 교리적 대답을 하고, 그것을 세속적 삶의 현장에 연결하는 것이 교리 설교의 임무이다. 교리가 신자들의 삶과 무관한 추상적 정보 전달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리 설교는 필연적으로 청중의 상황으로의 적용이라는 과정(contextualization)을 수행해야 한다. 본문이 주어지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가르침(교리)이 어떻게 오늘날 교인들의 삶에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납득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교리가 오늘의 청중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설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본문에서 교리를 규명해내는 것과 그것을 설교에서 제시하는 것 사이에는 다른 과정의 작업이 있어야 하며, 교리 설교는 이 양자를 다 수행해야만 한다. 교리 설교는 일차적으로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흔히 교리는 신자가 믿어야 할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것은 믿어야 할 내용일 뿐만 아니라, 행해야 할 내용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결국 행하게 하는 것이 교리 설교의 목적이어야 한다. 교리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삶이고 경험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7) 다니엘 도리아니, “적용, 성경과 삶의 통합을 말하다, 120.

나가는 말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제는 교회의 성장성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건강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처방 가운데 하나는 교리 설교의 회복이다. 즉 설교에서 교리를 선포하는 일을 회복하는 것이다. 물론 개신교의 각 교파들은 그 교파가 강조하는 교리적 입장에 따라 특색과 차이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신교이기 때문에 교파와 상관없이 모두가 근거하고 고백하는 공통적인 신학적 진리(theological truth)들이 있다. 모든 교회들은 이러한 공통적 교리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힘써야 한다. 교리 설교를 딱딱한 신학적 담론이나, 지루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체계나, 재미없고 부담만 주는 어려운 논설과 주입이 아니라, 흥미 있고, 현실감 있고, 당장의 삶에 잇대어오는 메시지로 선포하기 위한 깊은 고민과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설교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그리고 강단에서 교리 설교의 회복을 위하여 성서학자와 교의학자 그리고 설교학자들이 함께 모여 집중적인 연구를 하여 설교 현장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주제발표 II]

교회를 세우는 교리

발표



윤영민 박사
(대한교회)

사회



오현철 박사
(성결대)

교회를 세우는 교리

윤영민 목사 (대한교회/총신대 신학대학원)

I. 들어가는 글

목회란 무엇인가? 목사는 누구인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목사는 지역 교회에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 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엡 4:11; 딤후 3:16-17; 요 21:16-17). 그리고 그 목사의 사역이 목회이다. 다시 말하면, 목사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목회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목회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물론 인간 목사가 목회의 일을 한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목회하는 일은 결코 인간적인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다. 그렇다면 목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인 성경의 핵심 진리인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교리는 교회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소견’ 대로 목회하고 있다. 목사들은 ‘교회 성장’ 이라는 목적을 위해 성경적인 교리 위에서 목회를 하지 않고, 세속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성장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의 표지다’ 라는 경향의 교회성장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의 교회성장론이 목사들의 가치관이 되었다. 물론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의 개념은 복음전도를 통한 회심 성장을 진정한 교회 성장으로 본다.¹⁾ 하지만 진정한 교회 성장의 정의를 이루는 전도

1) 교회 성장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출생적 성장(Biological Growth)이다. 교인 가정에서 어린 아이가 새로 태어남으로 인해 생기는 자연 출생적 성장이다. 둘째는, 수평 이동 성장(Transfer Growth)이다. 신자가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동하여 등록함으로 생기는 성장이다. 셋째는, 회심 성장(Conversion Growth)이다. 한 사람이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원자와 왕으로 영접함으로 참 신자가 많아지는 성장이다. 바로 맥가브란이 말하는 교회성장은 전도를 통한 회심성장을 의미한다. 톰 레이너(Thom S. Rainer) 말하기를, “맥가브란은 효과적인 전도는 교회 성장의 동의어로 분명히 한다”고 주장한다 (Thom S. Rainer, “The Great Commission and the Church Growth Movement,” in *The Challenge of the Great Commission* (Pinnacle Publishers, 2005), 6. 그리고 Peter C. Wagner, *Church Growth and the Whole Gospel*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1), 57를 참조하라.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러한 교회성장의 참된 의미를 오해하여 받아 들었다. 그래서 회심성장을 통한 진정한 교회 성장을 추구하기 보다는, 소위 ‘핑 잡는 게 매’ 라는 식으로 교회가 인본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도 숫자적인 성장만하면 된다는 세상적인 논

를 통한 회심 성장에 대한 노력은 사라지고,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방법을 통한 교세 확장이 목회의 정답이고, 목회의 성공으로 여겨지는 풍조이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정통 신학의 기초 없이 교회를 외형적으로만 성장시켜서 교인 수와 교회의 예산이 교회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목회적 가치관이다. 이로 인해 현재 한국교회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해도 틀린 주장이 아닐 것이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라” (시 11:3).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교회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인 참된 진리인 신학적인 기반이 무너진 한국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의 교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엇을 하라?” 벨직신앙고백 29장은 참된 교회의 표지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힌다:

“복음의 순수한 교리가 전파되고,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성례가 순수하게 이행되며, 교회의 가르침으로 인해 죄를 징벌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참 교회에 속하는 것이다”²⁾ 즉, 참된 교회의 표지는 숫자적인 교회의 성장도 아니고 교회의 재정 능력이 아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복음의 순수한 교리를 전파” 하는 것과 “성례가 순수하게 이행되” 는 것과 “교회의 가르침으로 인해 죄를 징벌” 하는 권징이 일어나는 일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교회다움이고 건강한 교회의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교회의 참된 표지이자 교회의 참된 터인 “복음의 순수한 교리” 를 가르치는 일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근간임을 주장하며 첫째, 교리 교육을 기피하는 몇 가지 편견을 살필 것이다. 둘째, 교리 교육의 중요성과 유익함을 살피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지교회에서 실제적으로 교리 교육을 할 것인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II. 교리 교육의 편견 깨기

그렇다면 교회에서 왜 교리 교육을 하지 않는가? 사실 역사적으로 16세기 종교개혁 전통에서 있는 개신교 교회들은 대체로 기독교 핵심 교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교리 교육에 무관심한 것은 교회가 몇 가지 교리 교육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주요한 편견만 살펴보자.

1. 정말로 어렵고 재미가 없는가?

교리 교육은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기에 어렵고 재미가 없다는 편견이 있다. 이 편견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동시에 교리 교육에 갖는 선입견이다. 사실 교리를 다룬 교재들을 보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벨직신앙고백서,” “칼빈의 기독교강요,” “벌 코프의 조직신학.” 한 마디로, 제목 자체가 너무 무겁다. 어려워 보인다. 또 들어도 무슨 말인지 선뜻 와

리를 갖는 경향이 있다.

2) 김의환 편역,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197-198.

닿지 않는다. 책을 열어 내용을 보자. 예를 들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펴면, “제 1문: 삶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란 질문 아래에 한 칸 띄고 답이 바로 기술되어 있다. “삶과 죽음 가운데 내 자신이 나의 소유가 아니며, 몸과 영혼 모두가 나의 신실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 .”³⁾ 그 다음에 “2문: 당신이 이러한 위로 속에서 살고 복된 죽음을 맞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 . 둘째로. . . 셋째로. . .”⁴⁾ 따라서 교리문답서는 어려운 신학 책으로 느껴져서 읽고 공부하기 싫어질 수도 있다. 또한 비록 질문을 하고 답을 주지만, 읽고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대표적인 주입식 교육처럼 보인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배우는 자는 수동적일 수 밖에 없고 졸릴 수 밖에 없다고 여겨지기에, 교리는 어렵고 재미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런가? 아니다. 그것은 편견이다. 필자는 교회 교육의 현장에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10번의 강의를 1시간 30분씩 가르치는데, 재미 없어 하거나 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첫째 이유는 적어도 교리를 가르치는 강좌에 신청해서 나온 교인들은 모르는 새로운 교리를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교리 교육의 방법론을 학습하기에 유익한 방법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강의를 할 때,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먼저 질문하게 하고 배우는 자가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답을 생각하는데, 교재에 괄호 넣기()형태로 진행할 때 더욱 집중하고 깨달음에 반응하는 것을 본다. 예를 들어, “기독론” 강의에서 “그리스도의 화해의 죽음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그 답을 중간 중간에 괄호가 있는 질문을 제시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희생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가져왔다. 곧 우리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된 것이다(롬 5:10).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을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하게 하는 ()과 ()을 주시었다(고후 5:18-19)”⁵⁾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괄호를 채우는 방식으로 하는데, 배우는 성도들은 괄호를 넣기 위해 더욱 집중하고, 그것을 맞게 채우고, 그 내용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시작하는 교리 교육』을 쓴 황의상은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리 교육을, 배우는 자가 생각하도록 질문하는 교육을 할 것을 제안한다. “방법을 바꿔야 한다. 우리를 이제 교리를 외우도록 하지 말고 생각하도

3) 김홍만, 『52주 스터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6), 13.

4) 김홍만, 『52주 스터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9.

5) 윤영민, “제 4강 기독론,” 『기독교 기본교리』 (2015, 가을학기, 출판되지 않음), 63. 대한교회 (서울시 양천구)의 교리교육용 교재로서 제 4강 기독론을 강의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 중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강의하면서 “1. 대속의 죽음은 무엇인가,” “2. 구속의 죽음은 무엇인가,” “3. 만족의 죽음의 죽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4. 그리스도의 화해의 죽음(A Reconciliatory Death)는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희생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가져왔다. 곧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된 것이다(롬 5:10).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을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말씀)을 주시었다(고후 5:18-19)”로 괄호에 답을 채우며 설명한다.

록 해줘야 한다.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이 되는 대답을 해줘야 한다. 좋은 교사는 좋은 대답을 해주는 교사인 바, 좋은 대답이란 ‘모면하려는’ 대답이 아니라 정확한 원리에 따라 ‘질문을 해결해 주는 대답’ 이다”⁶⁾이라고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다’ 고 하면 ‘왜 그냥 오시지 꼭 성육신을 하셔야만 했나요?’ 이렇게 물어야 한다. . . 교리 교육은 논리적인 흐름과 문맥을 파악해 체계를 잡도록 해 주는 것이 관건이다. 한번 이렇게 체계를 정리해주면 머릿속에 개념이 잡히므로 그 다음은 알아서 이해의 폭을 넓혀간다” 고 교육 현장의 경험을 전한다.

예수님도 신앙교육에 있어서 질문과 적극적인 탐구의 노력을 격려했고, 그 결과는 반드시 주어진다고 가르쳤다. 이른바 마태복음 7:7-8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는 말씀은 흔히 기도를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응답 받는다는 가르침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예수님 자신의 교육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구하라” 는 명령은 헬라어적인 의미는 “질문하라” 는 뜻과 통한다. 또한 “찾으라” 는 명령은 “탐구하라” 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가르침의 속뜻은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적극적인 진리에 대한 물음과 모험적인 탐구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도 교회 현장에서 교리 교육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는 강의를 하지만 끊임 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을 청중이 생각하도록 하고 답을 탐구하며 깨닫게 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렇게 진행할 때, 결코 교리 교육이 결코 재미없는 수동적인 교육이 아니라, 1시간 30분 강의가 결코 지루하지 않고 짧게 느껴질 정도로 강의에 집중하게 된다. 따라서 교리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기에 어렵고 재미가 없다는 것은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론을 고려하지 않은 막연한 편견이다.

2. 정말로 삶과 무관한가?

교리 교육은 삶과 상관이 없다는 편견이 있다. 즉, 교리는 크리스천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저 지식의 차원에 그친다는 비판이다.

그러면 정말 교리 교육이 삶과는 무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데에 그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교리 교육은 문제가 크다. 하지만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큰 기둥 중의 하나이다. 팩커(J. I. Packer)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 개의 다리가 받치고 있는 탁자와 같다. . . 여기서 말하는 세 개의 다리란 교리(doctrine)와 체험(experience)과 실천(practice)를 가리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거나 온전치 못할 경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고 주장한다.⁷⁾

6) 황희상, “교리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와 신학』 통권297호 (2014): 79.

7) Sinclair B. Ferguson, *The Christian Life* (Edinburgh, UK: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9);

다시 말하면, 교리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은 불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종말론적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교리가 삶으로 열매 맺게 하는 씨앗이 되는 것이다.

또한 십계명 교육은 말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와 같은 계명에 따른 가르침은 곧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 그 자체로 직결되는 것을 본다.

나아가, 강영안은 자신이 장로로 시무하는 교회(두레교회 [예수교장로회 고신])에서 사도신경을 교인들에게 강의하면서, 우리가 “전능하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 .” 를 너무 쉽게 고백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 고백이 맹목적인 믿음으로 믿고 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삶의 질문에 변증하는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지난 2-3세기 동안 저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무신론의 문제)
- 신학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뿐만 아니라 어머니로도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있는데 그들의 주장을 무시할 수 있는가? (페미니스트들의 반론)
-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악의 존재의 양립 문제)
- 현대 우주론과 진화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 고백할 수 있는가? (현대 우주론과 하나님의 창조 문제)
- 생태 환경 파괴의 책임이 기독교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창세기 1장대로 우리의 사명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가? (생태계 위기와 기독교의 책임문제)⁸⁾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심, 전능하심과 창조주 되심, 그리고 아버지 되심을 믿는 차원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한 변증하는 차원,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의 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리는 삶과 무관하다’ 는 편견은 오히려 ‘교리는 삶이다’ 는 깨달음으로 바뀌어야 한다.

3. 교회 성장에 진정 방해가 되는가?

교리의 강조는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편견이 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리 설교』에서 설교학자인 제임스 해플린(James Heflin)은 조직신학자인

장호준 역, 『성도의 삶』 (서울: 복 있는 사람, 2010), 9. 본 책의 서문을 쓴 J. I. Packer는 싱클레어 퍼거슨의 책이 ‘교리’와 ‘체험’과 ‘실천’의 세 기둥을 세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세우는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8) 강영안,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 강영안의 사도신경 강의 1』 (서울: IVP, 207), 8.

밀라드 에릭슨(Millard J. Erickson)과의 대화에서 교리 교육의 문제는 교회 성장에 방해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사실 교회성장 전문가들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으면 교리적인 차이를 교회 안에서 다루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특정 교단의 독특한 입장을 부각시키는데 동원되는 교리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잘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특정 교리를 고집하는 교단주의(denominationalism)는 요즘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 교회가 칼빈주의냐 아니면 알미니안주의냐 하는 것보다는 교회 유아실의 수준이나 주차 시설의 규모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교리적인 논쟁에는 관심을 꺼버렸습니다. 교리라는 것이 굳이 공헌했다면 교회성장보다는 오히려 침체에 공헌을 한 것 같습니다.⁹⁾

이에 에릭슨은 이렇게 조소하듯 통명스럽게 말한다: “그래서 어찌란 말이요. 교수님? 그러면 제가 밖에 나가서 ‘교회침체 전략’ 세미나라도 열까요?”¹⁰⁾

그렇다면 정말 교리를 교육하고 강조하는 것이 교회 성장의 방해 요인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보수적인 교리를 강조하는 교단에 속한 교회는 성장대신에 진정 침체하는가? 그렇지 않다. 딘 켈리(Dean M. Kelley)는 *Why Conservative Churches Are Growing*, 즉 “왜 보수적인 교회가 성장하는가” 제목의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는 책을 출판했다. 켈리는 그의 책에서 성경무오를 믿고 그들의 믿는 교리에 타협하지 않는 보수적인 교회들이 숫적으로 성장한다는 결론을 종교사회학적인 설문조사의 연구 결과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¹¹⁾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켈리는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교단의 책임자로서 보수적인 교회가 성장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켈리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한국교회를 보더라도, 성경무오의 성경관과 역사적인 개혁주의 전통에서 있는 보수적인 신학을 견지하는 교회가 성장하는가? 침체하는가? 보수 신앙을 견지한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교리의 교육은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전적인 편견이다.

결론적으로, 최근 교리 교육에 대한 무관심은 첫째, 교리 교육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어렵고 재미가 없다; 둘째, 교리 교육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무관하다; 셋째, 교리 교육은 교회의 성장과 방해 요인이 된다는 편견들 때문에 야기된 문제이다. 따라서 교육의 방법을 바꾸면 얼마든지 흥미롭고 유익한 교리 교육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리는 그리스도의 건강한 삶의 단초가 될 수 있고, 지역교회

9) Millard J. Erickson and James L. Heflin, *Old Wine in New Wineskins: Doctrinal Preaching in a Changing World* (Grand Rapids MI: Baker Book, 1997); 이승진 역,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리설교』 (서울: CLC, 2005), 25.

10) Millard J. Erickson,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리설교』, 25.

11) Dean M. Kelley, *Why Conservative Churches Are Growing: A Study in Sociology of Religion with a New Preface for the ROSE edition* (Macon, GA: Mercer University Press, 1995), viii. Kelley는 그의 책에서 미국의 각 교단들의 성장과 침체를 연구하면서, 그 중요한 원인을 그 교단이 갖는 성경과 신학에 대한 믿음으로 보았다. 그래서 연구 결과, 성경과 신학에 보수적인 교단의 교회들이 성장하고, 자유로운 신학의 입장을 견지한 교단의 교회들을 침체한다는 결론을 보여 주었다.

를 더욱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교리 교육은 적극적으로 실시 되어야 한다.

Ⅲ. 교리 교육의 중요성과 유익

그렇다면 교리 교육이 교회를 세우는데 있어 어떤 중요성과 유익함이 있는가?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는 “교리 교육은 말다툼을 벌일만한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 . . 교리 교육은 교회에 매우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목회자의 의무이다” 고 적극적으로 주장한다.¹²⁾ 이에 교리 교육이 어떤 면에서 교회에 중요하고 유익함을 주는지 살펴보자.

1.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하는데 좋은 방법이다.¹³⁾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은 죄인을 회심시키는 일에 힘쓰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죄인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교회에 정착하여 헌신적인 교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회의 주된 사역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교회가 해결해야 할 고민은 어떻게 교회에 방문한 사람을 교회에 등록케 하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가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교회에 새 얼굴들의 방문이 있다. 그런데 등록을 하지 않고 예배 참석자가 될 뿐,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사역에 헌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교회에서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게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 나가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방문한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 양육을 받아, 교회에 잘 정착하고 교회의 사역에 헌신하도록 의도적으로 교육하는 새신자반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새신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 조사 중에, 담임 목사들에게 새신자 교육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물으며 새신자 교육의 목적을 살폈다. 미국 교회의 담임목사들은 새신자들에게 자신들의 교회를 소개하는 것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었다. 그 다음이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새신자가 교회의 사역에 참여케 하는 것이며, 새신자 교육을 통해 전도의 기회와 새신자들간의 교제 증진에 새신자 교육의 목적을 두었다.¹⁴⁾

이와 반대로 새신자 교육을 받은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새신자 교육이 자신

12) Richard Baxter, *The Reformed Pastor* (Edinburgh, UK: The Banner of Truth Trust, 2012); 최치남 역, 『참 목자상』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238-39.

13) 윤영민, “새신자 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신학지남』 통권 320호 (2014): 285-303. 필자가 게재한 논문을 바탕으로 ‘교리교육이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하는데 좋은 방법이다’는 주장을 진술하고자 재인용한다.

14) Charles E. Lawless Jr., *Membership Matters*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5), 50. 새신자 교육의 목적에 대한 각 항목에 1에서 5의 범위에서, 5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3은 중간 정도의 중요성으로, 그리고 1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점수를 매기는 설문조사에서, 새신자 교육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는 것이 5점 만점에 4.59; 교회의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4.25; 새신자를 교회의 사역에 참여케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3.86;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3.78; 새신자들간의 관계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 3.48; 그리고 교회의 교역자나 직원을 소개하는 것이 3.05를 차지했다.

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인 도움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성도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순서적으로 그 다음이 지금 출석하는 교회를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믿지 않은 친구들을 교회에 초대하고 싶다는 것이며, 담임목사와 대화를 하는 것이 더욱 편안해졌고, 교회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교회의 사역에 더욱 참여하여 봉사하고 싶다는 순서로 나왔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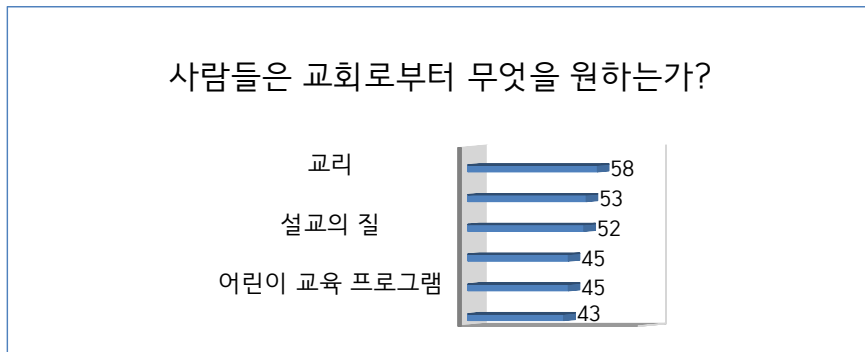
이 두 가지의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보자. 미국 교회의 상황이지만 새신자 교육이 교육을 받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었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하다. 무엇보다, 교회를 소개하는 차원에서의 우선적인 교육목적은 새신자들이 자신들이 출석하는 교회를 잘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교회에 믿지 않은 이웃을 초청하고 싶다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되었다. 이 조사가 보여주는 흥미로운 점은 새신자 교육이 성도와의 관계 증진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을 통하여, 담임목사를 이해하고 그와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고, 교회 내의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다는 결과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의 예배에 출석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싶은 교회 봉사로 이끌기도 했다는 점도 특이할 만 하다. 한 마디로, 새신자 교육이 교회에 관한 이해와 성도간의 관계증진, 그리고 사역에 대한 참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교육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에서 놀랄 만큼 안타까운 것은 새신자들이 새신자 교육을 통해 기독교의 기본진리를 알고 이해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새신자 교육을 하는 담임목사들이 밝힌 새신자 교육의 목적에는 교리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으로 생각했지만, 새신자들 편에서는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10점에 6.87점으로 15개의 질문항목들 중에서 밑에서 4번째를 차지했고; “나는 이제 성경을 더 알고 싶다”는 6.52점으로 밑에서 두 번째;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에 대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가 6.47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물론 이 항목은 전도에 대한 항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과 확신과도 연결할 수 있기에, 미국적 상황이지만 새신자 교육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가르쳐 진리를 붙들게 하는 데는 별 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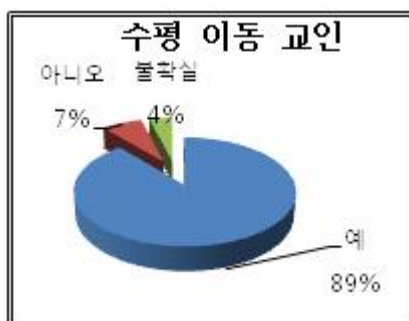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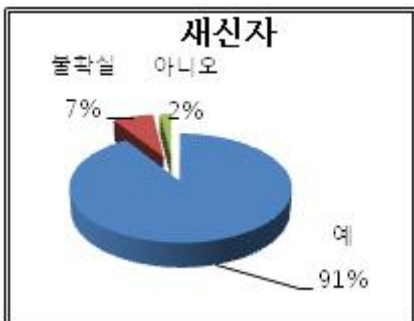
그렇다면 새신자들은 정말로 기독교의 교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일까? 교육의 효과가 없으니, 교리 교육을 최소화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또 하나의 연구

15) Lawless, *Membership Matters*, 51. 새신자 교육에 참여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새신자 교육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의 설문조사에서 각 항목에 1에서 10의 범위에서, 강하게 반대한다를 1로 보고, 반대를 2-4, 분명하지 않다는 5, 동의한다를 6-9, 그리고 강하게 동의한다를 10으로 보았을 때, “나는 교회 성도에 대한 교회의 기대를 이제 안다”(9.07); “나는 이제 교회에 대한 더욱 안다” (8.39); “나는 친구들을 교회에 더욱 초대하고 싶다” (8.29); “나는 이제 나의 목사와 편하게 대화를 하게 되었다” (8.28); “나는 이제 교회의 사람들을 더욱 많이 안다” (8.12); 나는 이제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고 싶어졌다” (8.04)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교회가 속한 교단을 알게 되었다,” “기도생활을 한다,” “하나님에 대한 더욱 알게 되었다”는 항목들은 8이하이기에 생략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새신자들이 교회를 찾을 때, 그 교회가 믿고 가르치는 신학적인 믿음, 즉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George Barna 리서치 팀이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를 물었다. 그런데 각 항목을 백분율로 볼 때, 가장 높은 기대치가 순서적으로 교리를 꼽았다; 양육과 돌봄; 설교의 질; 방문자에 대한 친절;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로 나왔다.¹⁶⁾



의외의 결과이지 않는가? 새신자가 등록하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라는 사실이! 어떤 교회성장학자는 새신자가 교회를 찾을 때 두 가지를 보며 교회를 결정한다는 우스개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다. 첫째로 주차장이 넓고 주차가 편해야 한다. 둘째로 안내팀이 방문자에 대한 보이는 친절도라는 것이다. 얼마나 비본질적인가? 그런데 조지 바나의 연구 조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새신자들이 교회를 찾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그 교회가 신학적으로 건강한 교리를 믿고 따르는가를 본다는 점이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연구가 있다. 미국의 목회자들이 크게 신뢰할만한 통계 수치를 주는 Thom S. Rainer의 연구에 의하면, 교회에 처음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게 된 중요한 이유로 그 교회의 교리였느냐는 질문에 91%가 “그렇다” 고 대답했고, 다른 교회에서 수평 이동한 교인들은 89%가 “그렇다” 고 대답했다.¹⁷⁾



16) George Barna, “More than Twenty Million Churched Adults Actively Involved in Spiritual Growth Efforts,” *Barna Research Online*, www.barna.org, May 9, 2000, p. 1.

17) Thom S. Rainer, *Surprising Insights*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1), 126-127.

다시 말하면, 불신자였던 새신자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신자들보다 교리에 더욱 더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리 교육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통계적인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교리 교육은 신자가 붙어야 할 절대적인 진리이기에 반드시 전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새신자반이 복음전도의 산실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미 교회에 방문하고 등록한 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진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왜 인간이 예수님이 필요한지, 왜 교회를 다니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첫 단계로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복음제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백스터(Baxter)도 복음 중심의 교리 교육은 “죄인을 회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주장하였다.¹⁸⁾

특히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팽배하다. 교회에 방문한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다 통한다고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도 석가모니나 마호메트와 같은 성자로서 이해하며,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이 아닌 불교의 절에 다니는 종교 생활 차원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새신자반에서 종교 생활에 마음이 열려 있는 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구원의 유일한 존재임을 분명히 설명하는 의도적인 신앙교육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새신자반이 복음을 제시를 위한 전진 기지로 세워질 때, 각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될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새신자 교육을 통해 교회의 필요와 새신자들의 필요에 맞게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며 가르쳐야 할 것인가는 더욱 더 분명해진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교육해야 한다. 종교다원주의 영향으로 참된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새신자들에게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유일성을 지도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의 대상은 새신자들이기에 너무 깊은 차원에서의 논의는 교회의 다른 교육 시간에 하도록 하고, 구원론에 대한 입문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교회에서 가능하다면 복음 제시를 일대일로 진행한다면 더욱 더 효과적인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둘째로 교회론이 제시되어야 한다. 새신자들은 교회에 대해 생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알고 싶어 한다. 따라서 ‘교회가 무엇인가?’ 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비전과 목회 철학, 그리고 교회의 역사들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들, 주일학교 담당 교역자들까지 소개함으로써 교리 차원에서의 교회론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출석하는 교회를 잘 이해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요즘은 이단과 사이버 종파가 득세하고 있기에, 본 교회는 정통 기독교 신앙 위에서 있는 보수적이고 건전한 교단에 소속되어 있

18) Baxter, 『참 목자상』, 239. 백스터는 그의 책 중, “교리교육의 의무와 중요성”의 첫째가, “죄인을 회심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고 논증하였다.

음을 밝힐 때에, 새신자들이 마음 놓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¹⁹⁾

셋째로 실제적으로 신앙 생활을 돕는 교육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교회 봉사 생활, 헌금 생활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하고, 또 참여할 때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 교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의도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교회가 가능하다면 교회 소개 책자나 안내지를 만들어 교회의 예배 시간이나 주일학교의 예배시간과 장소들을 소개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새신자들이 왜 예배 생활이나, 헌금이나, 교회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가를 물었더니, 69%가 ‘그렇게 하라’고 교회의 어느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과를 보았다.²⁰⁾ 따라서 교인의 의무에 참여하지 않은 새신자들은 누군가가 참여토록 요구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 지를 가르쳐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새신자 교육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인의 기본적인 의무인 공예배 출석, 십일조를 비롯한 헌금생활, 교회 봉사에 참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필 때, 새신자 교육에서 지도되어야 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 나뉘는다고 볼 수 있다. 첫째가 구원론이다. 이 교육에서 왜 인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의 근본적인 이유가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있음을 밝혀야 한다. 둘째가 교회론인데, 너무 교리적인 차원을 떠나 실제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교회론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는 기본적인 신앙 생활을 가이드 하는 것이다. 지역 교회의 한 교인으로서 교인이 감당해야 할 기본적인 교회 생활을 지도할 때,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한 새신자들에게 성경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

2. 성도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서 죄인이 회심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 믿고 회심하여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마 28:18-20). “이는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딤후 3:17; 엡 4:12).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전도에는 열심이지만, 기존 성도들 개개인을 성경과 교리를 교육시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교회

19) 필자가 섬기고 있는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대한교회의 주보 뒷면에 총회의 로고와 함께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에 속한 보수적이고 건전한 교단의 교회입니다”고 밝히고 있다. 목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한교회는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까?”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에 속한 교회입니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예장 합동측과 통합측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한교회는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 교에 속한 교회입니다”고 말하면 쉽게 이해하는 것을 본다.

20) Lawless, *Membership Matters*, 42.

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로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 성도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즉 왜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기본 진리를 마땅히 배워야 신앙과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갖고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영과 이승훈은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현상을 분석하면서 한국교회의 교육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첫째, 개신교 교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갖고 살도록 하는데 실패했다. 이들의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큰 갈등 없이 개종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개신교와 천주교는 형제 종교이며 두 종교의 차이는 ‘하나님’ 과 ‘하느님’ 의 차이밖에 없다는 말로 개종 과정에서 큰 갈등이 없었다” 는 것이다.²¹⁾ 개종자들은 개신교와 천주교가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며 교리적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고민 없이 개종했다. “이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끌어들이 교인을 만드는 데는 열심이지만, 개개인이 개신교 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실제 삶 속에서 개신교인으로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데에 매우 인색했음을 증명하며, 앞으로 한국 교회에 전도와 교육 방법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²²⁾ 둘째, 개신교회들은 전체 교인이 아닌 헌신된 소수에 국한된 교육을 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열심히 출석하고 활동하는 20-30%의 이른바 ‘헌신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 교육이 이뤄지고 교회 행정을 포함한 모든 활동이 이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과중한 책임으로 인해 큰 부담을 갖는데 반해, 주변인으로 머물러 있는 70-80%의 교인들은 자신들이 개신교인이라는 정체성도 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구조와 조직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²³⁾

반면에, 천주교는 그들의 교회에 입교하면 어린이부터 성인 신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맞는 엄격한 교리 교육을 통해 카톨릭 신자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에 최윤배는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은 아이에게 교리를 교육하면 평생 동안 천주교 신자가 되도록 만들 자신이 있다” 고 말한 어느 천주교 수녀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고 말하며, “비성경적인 교리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한국 천주교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교리 교육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고 지적하였다.²⁴⁾

이에 우리는 기존 성도들을 향한 교리 교육은 신앙 생활의 기초이기에 기초 없이 어떻게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는가라고 역설하는 백스터의 주장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21) 정재영, 이승훈, “개종자를 통해 본 한국인의 종교성,” 『목회와 신학』 통권211호 (2007): 172.

22) 정재영, 이승훈, “개종자를 통해 본 한국인의 종교성,” 173.

23) 정재영, 이승훈, “개종자를 통해 본 한국인의 종교성,” 173.

24) 최윤배, “기독교 교리교육, 왜 필요한가?” 『목회와 신학』 통권297호 (2014): 46.

교리교육은 이미 회심한 성도들의 덕을 세우고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목회 전체가 위기에 빠지거나 적어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위에 건물을 세우겠습니까? 또 중간 부분을 생략하고 지붕을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자연세계와 마찬가지로 은혜에도 비약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도 첫 번째 단계의 진리를 배우지 않고서는 두 번째 단계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 . . 기초가 튼튼해야 사람들은 다음 진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초 위에 비로소 집을 짓고, 모든 은혜를 활용하고, 모든 의무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시험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기초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반면 진리의 기초를 아는 사람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알며 진리로 인해 자신이 행복해질 것을 압니다.²⁵⁾

이렇게 교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백스터는 목사가 교리교육의 의무를 부지런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회중에게 교리를 배우는 수고의 가치를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견고히 세우기 원한다면 교리교육의 의무를 부지런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교리 교육은 일부 헌신된 교인들만이 아니라 전체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여 신앙인으로 바른 정체성을 가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할 것이다.

3. 이단들의 공격에 신앙과 교회를 지키는 좋은 방법이다.

최근에 한국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 소장 진용식은 ‘한국에는 재림주가 40여명이 있고 200여 개의 이단 단체와 200여 만 명의 신도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 발표했다.²⁶⁾ 뿐만 아니라, 진용식은 “한국에서 탄생한 이단들이 국외까지 퍼지며 한국은 이단 수출국 1위가 됐다” 고 밝히며 “이단은 점점 불어나는 반면 정통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이단은 정통 교회 성도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고 포교 방법을 훈련하고 있다” 며 이단의 공격을 경계하였다.²⁷⁾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안상홍증인회에 다니다가 나온 지 3년이 된 21세 청년에게 “그래도 믿음의 대사상이 다른데, 일반 교회와 다른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신앙의 자세가 다른 것 같았다. 진지했다. 예배 시간 늦으면 큰일 난 줄 알았고, 옷

25) Baxter, 『참 목자상』, 243-244.

26) 진용식, “한국 교회 이단 동향” (‘제 2회 전진대회 및 세미나’의 강의 내용으로 새에덴교회[경기도 용인 소재]에서 2014년 1월 24일에 발표).

27) 진용식, “한국 교회 이단 동향.”

차림도 정갈했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 드리더라도 무릎 꿇고 정중하게 기도하고. . . 등 예배 중에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움직이지도 않았다. 어떤 아이는 매주 양복을 입고 왔고, 매일 새벽에 나오는 아이도 있다. 그곳에 8년을 다녔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다. 예배는 화요일과 토요일에 있었고, 교리 공부는 일요일에 했다. 공부하는 교재는 주로 책을 받아서 단계별로 했다. 단계마다 시험을 보고 통과해야 윗 단계로 올라 갈 수 있었다. 주로 교리에 대해,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 김주철이 쓴 책으로 공부했다. 장길자가 쓴 책은 본 적이 없다. 144,000이란 잡지가 있는데 아이들용으로 동화식으로 되어 있었다. 아동용 동화, 만화, 잡지 등 다양하게 제공되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교육용 책자들이 있었다.²⁸⁾

이에 “그러한 책자들을 보고 공부한다고 해서 안상홍을 하나님,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과연 믿어졌는가?” 의 질문에 “위낙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다녔다. 그것이 맞는가 보다 하면서 믿었다. 교리를 의심하지 않았다.”²⁹⁾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이단 교리 교육의 힘이고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단들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리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각 단계를 올라가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올라가게 하는 철저한 교리 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신천지의 경우도, 신자가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3개월간 집중 교리 교육을 받고 시험에 통과해야만 한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떤가? 역사적 개혁주의 전통에 입각한 신학도 있다. 이에 따른 성경적인 좋은 교리서들도 많다. 목사들은 이미 교리교육을 공부하고 연구하여 잘 가르칠 수 있는 실력도 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이단들이 가짜 진리를 가지고 논쟁을 할 때에, 성도들이 진짜 신학과 신앙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교회에서는 첫째, 진리를 호도하고 왜곡하는 이단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교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도들이 성경적인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알게 교육해야 한다. 나아가 셋째, 성경과 확고한 교리를 가지고 이단과 사이비 공격 앞에 내가 믿는 신앙을 변증할 수 있도록 교리 교육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회에서의 교리 교육은 첫째, 죄인을 회심케 하고, 새신자가 참된 신자로 양육하는데 유익하다. 둘째, 기존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는데 효과적이다. 셋째,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신앙과 교회를 지키고, 진리에 확신에 찬 신앙 생활을 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교리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 목회자로서 교리 교육은 마땅한 의무이다.

28) 오명옥, “여신숭배사상 여파—가짜 신을 믿는 아이들 문제!” 『종교와 진리』 통권244호 (2015): 40.

29) 오명옥, “여신숭배사상 여파,” 41.

IV. 교리 교육의 실재를 위한 방안 모색

이제 실제적인 면에서, 교리 교육을 지역교회에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해야 하는가? 개 교회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필자의 교회의 실례를 근거로 하여 모색해 보자.

1. 주일 설교에 교리적 가르침을 전하라.

현대 사회의 바쁜 일정 때문에, 대부분의 교인들은 주일오전예배만을 드리는 경우가 많다. 평일에 교회에 와서 성경과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성도들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목회자는 전 교인이 예배에 참석하는 주일 설교를 통해 교인들을 진리로 무장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주일 설교에 교리설교를 하는 것을 제안한다. 온 교인들이 기독교의 기둥이 되는 핵심 진리들을 배우면 건강한 신앙의 집을 짓고 견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일예배에 매주마다 계속해서 교리 설교를 하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짧거나 신앙심이 부족한 사람이 듣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 주일예배를 통한 교리 설교는 4주-5주 정도의 시리즈 설교를 기획해서 전할 것을 제안한다. 특별히, 부활절을 맞는 사순절이나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한 동정녀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다룬 기독교론과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구원론을 설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리고 교회의 창립기념주일에는 교회론을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종교개혁주일에는 이신칭의의 구원론과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중요성을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성서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오한 성경을 성도가 성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세계교회협의회(WCC)가 2013년에 한국에서 개최됨으로 인해, 성도들이 WCC가 무엇이고, 무엇을 믿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2013년 성서주일에는 우리가 붙드는 성경관과 신학이 WCC의 성경관과 신학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고 대조하며 설교했을 때 성도들에게서 폭발적인 반응을 경험할 수 있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설교를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지 보람을 느끼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간증을 들을 수 있었다. 따라서 교리 설교를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 전한다면 성도들의 관심도와 교육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교리 설교의 제목도 “중생,” “회심,” “성화의 삶,”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은 직접적인 신학적 표현보다는 성도들이 흥미를 갖고 접할 수 있는 제목을 선정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를 테면, 필자는 요즘 사회적으로 요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에, 2016년 1월 24일 주일 설교 제목을 “주일성수 레시피”(마 12:1-8)로 정해 설교했다.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의 차이점을 설교하면서, 어떻게 주일을 맛있게 요리할 수 있을지(?), 즉 기록하고 유익하게 지킬

수 있는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6년 2월 14일 주일설교는 “천국 여행” (계 21:1-4), 그 다음 주일인 2월 21일 주일설교는 “지옥여행” (계 20:11-15)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천국과 지옥을 여행하고 탐사해 보자는 취지의 설교 제목을 정하였다. 사실 천국과 지옥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주일예배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 따로 떼어서 설교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천국 설교입니다. 다음 주는 지옥 설교입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 절대로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 설교를 하는데, 혹시라도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소유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시고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사시므로 영원한 천국에서 큰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근거를 통해 지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자고 전했고,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지옥에 갈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도하자고 전하였다.³⁰⁾ 또한 교리적인 용어인 “회심”이라는 직접적인 용어 대신에 “예수로 변화되자” (행 22:1-29)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 어떻게 죄인이 회심될 수 있는지에 관한 회심의 방편(회개와 믿음)과 성도의 삶이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설교했다.³¹⁾

셋째, 일반적인 주일 설교에도 교리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설교자가 성경 강해 설교를 하면서 성경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에 교리적인 가르침 담아 설교를 하면 몇 가지의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설교를 신학적으로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설교의 메시지를 확신을 가지고 더욱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다. 셋째, 성도의 삶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자는 2016년 종려주일 설교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마 21:1-11)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이 설교를 통해 필자는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왜 예수께서 평상시와 다르게 수 많은 무리들의 “호산나(이제 우리를 구원 하소서)” 의 환호를 받음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오해를 받는 일을 했는가? 둘째는, 왜 나귀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는 말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께 내어 드렸는가를 질문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심과 주 되심, 왕 되심을 말하는 “Lordship Salvation” 신앙을 가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원자로뿐만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2016년 4월 10일 주일설교에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 17:1-8)는 제목으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극단적인 변화인 “비하” 와 “승귀” 를 언급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낮아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 승귀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높여 주실 것이라고 적용하였다.

30) 윤영민, “천국여행,” 대한교회 (서울시 양천구)에서 2016년 2월 24일에 선포된 설교.

31) 윤영민, “예수로 변화되자,” 대한교회 (서울시 양천구)에서 2016년 3월 27일에 선포된 설교.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이, 주일설교는 짧은 시간에 많은 교인들에 교육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이에 설교자는 때론 의도적인 교리 설교를 전해야 한다. 설령 교리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목회자는 매주마다 전하는 주일설교를 통해 교리적인 메시지를 담아 설교함으로써, 성도들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전할 것을 제안한다.

2. 수요 예배에 교리 교육을 실시하라.

대부분 교회의 주일 예배는 보통 한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드려야 하기에, 설교 시간은 더욱 불과 30분 정도에 불과하다. 대중적으로 설교를 해야 하기에 교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주일 후 3일이 지난 수요일에 예배를 오전, 혹은 저녁에 드린다. 또한 그 예배에는 신앙의 연수가 많고, 신앙심이 깊은 성도들이 출석한다. 그리고 수요예배는 주일예배에 비해, 예배 순서가 많지 않고 단조롭기에 교육하기에 합당하다.

따라서 수요예배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교리 교육을 하기에 좋은 기회가 된다. 개혁교회 전통에 서 있는 건전한 교리 문답서를 가지고 강의식 설교를 할 수 있다. 추천할만한 교재로는, 장로교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고백의 표준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주일학교 학생들과 평신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화란 개혁교회의 전통과 신앙정신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벨직 신앙고백서,” 개혁주의의 체계를 세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신앙고백서를 쉽게 설명한 “해설서” 사용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개혁교회 전통에 서 있는 신앙고백서를 매해마다 한 권씩 선택하여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도 교재를 가지고 수요예배에 교리 교육을 실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첫째, 최근 시중에 나와 있는 점검되지 않은 교재들보다 수 세기에 걸쳐 개혁교회가 작성하고 점검한 교재 이기에 안전한 교육이 될 수 있다. 둘째, 성도들이 개혁교회의 핵심적인 교리와 깊이 있게 성경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셋째, 그 결과, 성도들은 신앙의 뼈대를 든든히 세울 수 있게 된다. 넷째, 목회자는 교리를 연속해서 강의하기에 시간과 정력의 사용에 유익할 수 있다.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새로운 설교 본문을 찾고,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시간과 정력을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좋은 교재를 가지고 교리 교육을 실시한다면 새로운 설교를 해야 하는 부담에서 자유롭게 된다. 넷째, 목회자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목사의 직무에 충실하게 된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화란 개혁교회 목사들은 매 주일 저녁 예배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해마다 반복해서 설교하고, 은퇴 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집”을 출판하는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와 명예에 속한다고 한다.³²⁾ 따라서 백스터가 주장하듯이, “교리 교육이라는 목회 의무”를 다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목회자

32) 최윤배, “기독교 교리 교육, 왜 필요한가?” 45.

가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를 먼저 공부함으로 자신의 신학이 더욱 든든해지게 된다. 사실, 목회자는 설교와 심방과 같은 목회에 쫓기기 때문에,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따로 신학을 공부할 기회가 없게 된다. 그런데 수요예배에 교리 교육을 하게 되면, 누구보다 목회자가 공부하게 되고, 누구보다 목회자가 견고한 신학적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다.

3. 집중적인 성경과 교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라.

교회는 주일뿐만이 아니라 평일 오전, 혹은 오후에도 신자들을 성경과 교리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육하는 시스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위임령에 따라 제자 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마 28:18-20). 그 제자훈련의 방식은 지교회와 담임하는 목사의 철학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도적인 성경 교육과 교리 교육을 위한 교육과 신앙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테면, 필자의 교회는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하면 “새가족반”에서 복음을 전하며 구원에 확신에 이르게 하는 구원론; 교회가 무엇 인지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살피는 교회론을 4 주간 동안 교육한다.

“새가족반”을 이수한 교인을 대상으로, “확신의 삶” 성경공부를 5 주간 동안 실시한다. “확신의 삶” 성경공부는, 1) 구원의 확신; 2) 상급의 확신; 3) 승리의 확신; 4) 기도응답의 확신; 5) 죄 사함과 죄 용서의 확신을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동안 교육한다.

“확신의 삶” 성경공부를 이수한 교인은 매년 봄 학기와 가을 학기에 10주간씩 실시하는 “화요성경대학”에 등록하여 3년간 교육을 받는다. “화요성경대학”은 말 그대로 성경대학이지만 성경과 교리를 가르친다. 특히, 기독교의 교리를 다루는 “기독교 기본 교리”는 한 학기 동안에 1) 서설; 2) 성서론; 3) 신론; 4) 기독교론; 5) 성령론; 6) 천사론/마귀론/귀신론; 7) 인간론; 8) 구원론; 9) 교회론; 10) 종말론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여 1시간 30분 강의로 교육한다.

다음 단계로 “제자훈련”을 2년 동안 실시하는데, 주일반과 수요반으로 실시해서 집중적으로 성경과 교리 훈련을 통해 단순한 성경공부가 아닌 제자 삼는 제자를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다.

각 단계의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에 합당한 교재를 교회에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제자훈련의 경우 두루제자훈련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³³⁾ 또한 교육

33) 두루제자훈련은 이문선 목사가 제자훈련교재를 집필하여 총 15권의 교재를 가지고 진행한다. 두루제자훈련은 제자 양육 5단계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인의 성장; 그리스도인의 새생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인의 예배); 제자훈련 5단계 (그리스도인의 새생명;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의 교리; 그리스도인의 성숙); 그리고 제자무장 5단계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스도의 제자도; 그리스도인의 사역; 그리스도인의 지도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교재마다 7과로 구성되어 있다. 두루제자훈련은 성경중심적으로, 교회중심적이며,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 전통에서 있는 지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쉽고 유익한 제자훈련 교재로 평가된다.

프로그램의 단계를 올라갈 때 시험을 통해 합격해야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엄격한 출석 관리로 두 번 지각은 한 번 결석으로, 두 번 결석의 경우 과락으로 처리해서 강의를 결석하기 않고 성실하게 수강한 교인을 대상으로 상급 단계로 올라갈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어떤 교육 방법을 택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성경이나 교리 교육의 방법은 모이는 인원 수에 따른 교육 방법들로 구분할 수 있다. 1인-2인 정도를 교육하는 일대일 교육이 있다. 목회자가 교리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백스터는 일대일 심방을 통한 개별 교육을 권장한다:

형제들이여, 교리교육과 개별적인 양육을 부지런히 행하십시오. . . . 교사가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돌봐주지 않으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듯, 대중 강의만 하는 의사가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듯, 변호사가 법률 강의를 읽어 주는 것만으로는 고객의 소송건을 해결해줄 수 없듯, 목회자도 양들을 개인적으로 돌봐주지 않으면 참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³⁴⁾

이러한 백스터의 주장은 단순한 목회자의 심방을 넘어서서 개별적인 교리교육과 양육을 말한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사생활이 침해 받기를 싫어하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잠깐 방문하는 가정 심방도 터부시하는데, 적어도 1 시간 정도 소요되는 일대일 교육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3인 이상 12명 이하의 소그룹 교육은 필자의 교회의 경우 “새가족반,” “확신의 삶” 과 “제자 훈련” 을 할 때 사용하고 있고, 소그룹 2개-100명 정도의 인원수로 구성되는 팀 교육은 “화요 성경대학” 을 강의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방법 채택은 교회의 형편이나 담임 목사의 철학에 따라 각 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상 효과적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지교회의 담임목사는 성경과 교리 교육을 어떻게 교회 형편에 맞게 실시해야 할까를 생각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주일예배에도 교리 설교와 교리적인 내용을 담은 강해설교를 통해 전체 교인들이 바른 진리 위에서 서서 살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성도가 주일설교만 가지고는 진리의 사람의 무장될 수 없다. 수요일예배 때 보다 집중적으로 교리 교육을 실시하되, 개혁교회 전통에 따른 신앙고백서들을 매년마다 선택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교회의 양육과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경과 교리 교육을 통해 새신자부터 기존 신자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V. 나가는 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시 11:3). 한국교회의 흔들리는 위기 앞에서, 교회의 참된 터요, 반석이 되는 성경과 교리를 든든히 구축해야 한다.

34) Baxter, 『참 목자상』, 248.

교리는 어렵고 재미가 없고, 삶에 무관하며,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열만 시키게 된다는 편견을 깨고, 교리 교육이 즐겁고 유익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견고히 세워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리 교육은 결코 믿음이 좋은 훈련된 그리스도인을 위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새신자부터 기존성도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부터 온 성도가 교육을 받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에도 이길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목회자는 주일 설교에도 교리적인 가르침을, 수요예배는 본격적으로 개혁교회 전통 위에 서 있는 신앙고백서를, 그리고 집중적이고 의도적인 성경과 교리 교육을 교회 교육의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결코 성경과 교리 교육을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교회가 참된 교회 되기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교회가 오직 성경과 개혁교회의 전통적인 신학 위에서 가르칠 때, 성도와 교회는 믿음의 뿌리를 진리 위에 깊이 내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처럼 굳건히 서서 가뭄과 흑한 시련 속에서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 게 든든히 서나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시 1:3).

참고문헌

- 강영안.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 강영안의 사도신경 강의 1』. 서울: IVP, 207.
 김의환 편역.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김홍만. 『52주 스터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6.
 오명옥. “여신숭배사상 여파—가짜 신을 믿는 아이들 문제!” 『종교와 진리』. 통권244호 (2015): 35-47.
 윤영민. “새신자 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신학지남』. 통권 320호 (2014): 285-303.
 _____. 『기독교 기본교리』. 대한교회(서울 양천구) 2015. 출판되지 않음.
 _____. “천국여행.” 대한교회 (서울시 양천구)에서 2016년 2월 24일에 선포된 설교.
 _____. “예수로 변화되자.” 대한교회 (서울시 양천구)에서 2016년 3월 27일에 선포된 설교.
 정재영, 이승훈. “개종자를 통해 본 한국인의 종교성.” 『목회와 신학』. 통권211호 (2007): 168-175.
 진용식, “한국 교회 이단 동향.” ‘제 2회 전진대회 및 세미나’ 의 강의 내용으로 새에덴교회(경기도 용인)에서 2014년 1월 24일에 발표.
 최윤배. “기독교 교리교육, 왜 필요한가?” 『목회와 신학』. 통권297호 (2014): 42-46.
 황희상. “교리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와 신학』. 통권 297호 (2014): 78-83.
 Barna, George. “More than Twenty Million Churched Adults Actively Involved in Spiritual Growth Efforts.” *Barna Research Online*. www.barna.org. May 9, 2000.

- Baxter, Richard. *The Reformed Pastor*. Edinburgh, UK: The Banner of Truth Trust, 2012; 최치남 역. 『참 목자상』 .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 Erickson Millard J. and Heflin, James L. *Old Wine in New Wineskins: Doctrinal Preaching in a Changing World*. Grand Rapids MI: Baker Book, 1997; 이승진 역.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리 설교』 . 서울: CLC, 2005.
- Ferguson, Sinclair B. *The Christian Life*. Edinburgh, UK: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9; 장호준 역. 『성도의 삶』 . 서울: 복 있는 사람, 2010.
- Kelley, Dean M. *Why Conservative Churches Are Growing: A Study in Sociology of Religion with a New Preface for the ROSE edition*. Macon, GA: Mercer University Press, 1995.
- Lawless Jr., Charles E. *Membership Matters*.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5.
- Rainer, Thom S. *Surprising Insights*.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1.
- _____. “The Great Commission and the Church Growth Movement.” In *The Challenge of the Great Commission*. Pinnacle Publishers, 2005.
- Wagner, Peter C. *Church Growth and the Whole Gospel*.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1.

[자유발표 1]

설교작성에 있어 비유활용의
중요성과 방법

발표



박성환 박사
(웨신대)

좌장



신현광 박사
(안양대)

논평1



박태현 박사
(충신대)

논평2



김대진 박사
(고려신대원)

설교 작성에 있어 비유 활용의 중요성과 방법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박 성 환

I. 들어가는 글

설교자는 설교를 이성과 논리라는 재료로 건축한 집으로, 예화는 집에 빛이 들어오는 창문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한다. 이런 점에서 많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드러내기 위하여 좋은 예화를 활용한다.¹⁾ 왜냐하면 청중이 설교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설교는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 없기 때문이다.²⁾ 그러므로 설교(학)자들 가운데 예화를 가리켜 좋은 설교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라 주장한다.³⁾

그러나 예화 사용의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한다. 그 부정적인 면이란 청중이 설교의 주제나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 않고 예화에만 관심을 쏟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예화가 창문으로 빛을 조명하지 않고, 스스로 빛이 될 수 있다.⁴⁾ 또한 예화의 과잉 사용으로 인하여, 설교라는 건축물이 자칫 “화려한 외관에 비해 구조적으로 부실하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예화의 과도한 사용은 설교 내용에 심각한 균열”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설교자들은 “설교의 내용이 단일한 사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움직여 나가고, 살아있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예화 사용 자체는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해,] 설교자가 설교에 예화라는 짐을 굳이 실을 필요가 없”⁶⁾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화의 가치나 필요성은 전적으로 부인될 수 없다. 왜냐하면 예화는 분명히 ‘말씀의 창문’으로써 빛을 조명하여 집안을 환하게 밝히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⁷⁾ 또한 예화는 설교를 경청하는 청중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청중을 집중시켜 자신의 마음속에 설교 주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각인시키는데 도움을 준다.⁸⁾ 다시 말해, 설교자는 예화를 사용하여 설교 주제와 내용을 시각화시켜 청중들 스스로 마음에 설교의 주제와 내용을 장면으로 그려 반응하도록 유도한다.⁹⁾ 그러므로 설교(학)자는 예화 사용에 주의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¹⁰⁾ 특히, 작금의 한국 교회에서 예배의 핵심이었던

1) Thomas G. Long, *The Witness of Preaching*, 이우제·황의무 역, 『증언하는 설교』 (서울: CLC, 2007), 27, 280-81.

2) John C. Ryle, *Simplicity in Preaching*, 장호준 역, 『단순하게 설교하라』 (서울: 복있는 사람, 2012), 13, 41.

3) Bryan Chapell, *Using Illustrations to Preach with Power* (Illinois: Crossway Books, 2001), 14.

4) Stott, 『현대 교회와 설교』, 259.

5) Long, 『증언하는 설교』, 282-83.

6) Craddock, 『설교: 열린 체계로서의 귀납적 설교방식』, 242-45.

7) 예화의 의미인 ‘예를 드는 것’은 빛을 비추거나 애매한 것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Long, 『증언하는 설교』, 280.

8) Bryan Chapell, *Christ-Centered Preaching: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 김기제 역,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서울: 은성, 1999), 212; Stott, 『현대 교회와 설교』 (서울: 생명의 샘, 1992), 258.

9) Steven D. Mathewson, *The Art of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 이승진 역, 『청중을 사로잡는 구약의 내러티브 설교』 (서울: CLC, 2004), 250; 김대혁, “설교자의 올바른 감정 사용에 대한 제언: 본문의 감정을 살리는 설교”,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36권(2015, 여름): 74-75.

10) D. Martyn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정근두 역, 『설교와 설교자』 (서울: 복있는 사람들, 2005), 357.

설교 시간이 점차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설교 원고를 작성 시 예화 사용은 각별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의 의미를 전달하는 분량과 예화 분량의 주객이 전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¹¹⁾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예화의 한 부분인 비유, 곧 은유와 직유, 환유와 제유, 그리고 상징을 활용하여 예화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¹²⁾ 그러기 위해서 논문은 먼저 예화 사용의 문제점을 설명한 후, 비유 사용의 중요성을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비유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비유의 종류들을 설명할 것이다. 그 후, 해석 관점과 전달 과정에서 비유 연구를 통해 교회 역사에서 비유가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었는지를 살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설교 작성을 위한 비유 사용 방법을 간략히 논함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예화의 한 부분인 비유 활용의 중요성

Daniel L. Akin은 언제나 위대한 설교자들은 예화들을 뛰어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단정한다.¹³⁾ 결국, 설교자는 설교를 작성할 경우에, 예화를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하며 적절한 예화 사용이 설교 전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예화란 무엇일까? William H. Willimon과 Richard Lischer의 *Concise Encyclopedia of Preaching* 『설교학 사전』에 의하면, 예화라는 용어는 설교에서 아이디어나 확증을 지지하는 주된 수사적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폭넓게 사용되는데, 어떤 포괄적인 집합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예화에는 이야기, 예수의 비유, 한 문장 또는 구절 혹은 단어로 구성된 비유(은유, 직유, 상징), 일반적인 사례, 구체적인 사례, 간증 등이 포함된다.¹⁴⁾

그렇다면 작금의 한국 교회 상황을 직시한다면, 설교자는 설교 작성 시 예화라는 꾸러미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필자만의 생각일 수 있으나, 설교자가 1-3문장, 구절 혹은 단어로 구성된 비유를 사용한다면, 현 시점에서 타당하고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된다. 왜 이렇게 생각할까?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논문은 세 가지 이유만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설교 시간의 단축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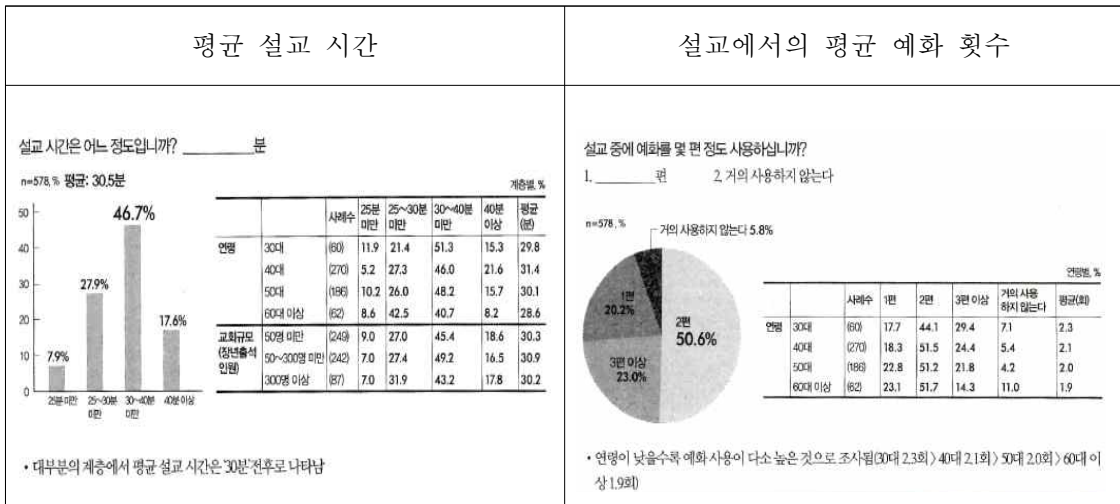
주일 예배에서 설교 시간은 과연 평균 몇 분이나 될까? 그리고 그 설교 시간동안 설교자는 평균 몇 번의 예화를 사용할까? 다음 두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겠다.¹⁵⁾

11) Chapell, *Using Illustrations to Preach with Power*, 139-140.

12) 논자만의 견해일 수 있으나 설교(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예화를 단순히 ‘일상에서 겪은 일화들’, ‘다른 사람들의 일화들’, ‘책(잡지)나 신문 또는 대중매체나 인터넷과 같은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로만 이해하는 것 같다. 그러나 예화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상징, 비유(은유, 직유, 제유), 풍유, 암시 등 예화로서 유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나, 나름대로 예화의 한 부분으로서 독특한 역할을 담당한다. Bryan Chapell, *Using Illustrations to Preach with Power*, 20-21.

13) Daniel L. Akin, “Illustrations: Helping Your People see Bible Truth in Action”, in *Engaging Exposition: A 3-D Approach to Preaching*, eds. Daniel L. Akin, William J. Curtis and Stephen N. Rummage, (Nashville: B & H Publishing Group, 2011), 160.

14) William H. Willimon & Richard Lischer, *Concise Encyclopedia of Preaching*, 이승진 역, 『설교학 사전』 (서울: CLC, 2003), 547-51.



언급된 자료는 대략 7년이 지난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한국 교회의 설교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는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한국 목회자는 주일 예배 시간 중에, 평균 30분 정도를 설교 시간으로 할애한다. 그리고 평균 30분 정도의 설교 시간 동안 2-3개의 예화를 활용한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설교 형태는 무엇일까? 아마도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여전히 삼대지 설교 형태를 고집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계상 예화를 2-3개 사용한다는 것은 삼대지 설교 형태가 각 대지마다 한 개의 예화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¹⁶⁾

그러나 앞선 통계 자료를 근거한다면, 과연 30분의 설교 시간 동안, 삼대지 설교 형태가 과연 적합할까? 만일 삼 대지 설교 형태가 도입, 세 개의 대지, 그리고 결론이라는 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30분의 시간을 어떻게 할당해야 할까? 그리고 각 대지마다 예화를 하나씩 첨가한다면 과연, 성경 본문을 충실히 해석하고 전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조심스럽지만, 설교 내용상 본문 내용에 관한 설명 분량과 예화 분량이 자칫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

설사, 설교자가 삼대지 설교 형식이 아닌, 다른 설교 형식을 취하여 설교한다 할지라도, 30분의 설교 시간에 예화를 2-3개를 사용하는 것은 성경 본문을 실종시키고 예화만 부각시키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예화 사용에 있어 “극다와 극소 사이의 조화를 모색”¹⁷⁾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설교자가 만일 예화의 한 부분인 비유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어떨까? 오히려 30분의 설교 시간이라 할지라도, 본문을 충실히 해석하여 전달

15) ‘목회와 신학’은 ‘글로벌리서치’와 함께 2007년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한국교회의 설교에 관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 조사는 9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담임 목회자 578명의 응답으로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그리고 조사 결과는 ‘두란노 아카데미’에서 2009년에 『한국교회 설교분석』이란 책으로 출판되었다. 목회와 신학 편집부, 『한국 교회 설교분석』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10.

16) 한국 교회에서 삼대지 설교 형태가 중요한 설교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된 주된 이유는 한국 교회의 모태라 할 수 있는 평양신학교의 최초의 실천신학자인 객안련 선교사께서 초창기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삼대지 설교 형태를 가르쳤기 때문이다. 객안련은 자신의 설교학을 집필한 이유가 결국,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설교 사역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즉, 초창기 한 교회의 설교자들의 설교 공부를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차원에서 설교학 책을 집필했다. 그러므로 김소영은 객안련의 ‘설교학’의 공헌을 “객안련의 설교학이 이렇게 오랫동안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것은 신학생과 목회자들에게 좋은 설교를 위한 필독서로 읽혀진 까닭이라 하겠다.... 한국에서 적용하기에 이상적인 설교학이 되도록 집필한 책으로서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참된 강단이 되도록...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객안련, 『설교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5, 10.

17) John R. W. Stott, *Between Two Worlds*, 정성구 역, 『현대 교회와 설교』 (서울: 생명의 샘, 1992), 262.

할 수 있으며 비유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본문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다.

2) 예화 출처와 표절 문제

예화 출처와 표절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즉, 교회 역사에서 언제나 설교 표절 문제는 계속되어 왔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해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설교집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¹⁸⁾ 심지어 오늘날에는 설교자가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가 녹화되어 미디어로 공개되면서 과거보다 설교 표절 문제는 더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¹⁹⁾ 설교 표절이란 무엇일까? 설교 표절은 다른 목회자의 설교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문제와 예화 출처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설교자가 다른 목회자의 설교 출처나 [예화의 출처를] 공개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윤리적인 범죄 행위를 가리킨다.²⁰⁾

그러나 설교 중에 예화 출처를 공개하는 것은 자칫 구두 설교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또한 설교자가 예화의 출처를 증명하고자 다른 자료들을 인용하여 설명한다면, 설교는 지루해질 것이다.²¹⁾ 물론 서구의 경우에는 양손의 검지와 중지를 2회 정도 접었다가 펴는 것을 반복하는 공기 따옴표(air quotes)로 큰 따옴표의 역할을 대신하여 대화 중에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동작이 있다. 그러므로 서구의 목회자는 설교를 하면서도 공기 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공기 따옴표와 같은 소통 표현에 익숙하지 못하다. 또한 한국 사회는 표절에 대해 상당히 온건한 편이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품들을 대수롭지 않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각 나라의 문화와 상황에 따라 표절의 문제는 다르게 생각된다.²²⁾

그러나 한국 사회도 점차 시민의식의 발전과 정직이 우선시되는 문화로 급격하게 전환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 한국 교회의 부도덕성이 노출되면서 성도의 수적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교회의 설교자들은 설교 표절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화 사용의 경우에도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 문화에도 없는 공기 따옴표를 사용하여 설교자가 인용을 표현할 수 없다. 심지어 설교는 구두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설교 가운데 예화 출처를 소개할 수는 더욱 없다. 왜냐하면 설교의 현장감과 생동감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교자는 예화 사용의 효과를 익히 알고 있기에 쉽게 포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교자가 비유를 사용하여 예화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비유는 출처나 표절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달

18) Carter Shelley, "Stolen words: A Brief History and analysis of Preaching and Plagiarism", 『Encounter』 제66권 (2005, 여름): 301.

19) 권호, "폭로, 경제소멸의 미디어 사회 속에서의 설교학적 전망",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복음과 실천신학』 제36권 (2015, 여름): 23.

20) Haddon W. Robinson, "Using Someone Else's Sermon", in *The Art and Craft Biblical Preaching*, eds. Haddon W. Robinson & Craig B. Larson (Grand Rapids: Zondervan, 2005), 586.

21) William H. Willimon, *A Guide to Preaching and Leading Worship*, 김윤규 역, 『예배와 설교 클리닉』 (서울: 한들 출판사, 2014), 153-54.

22) Joseph Jeter, "Posturing in Borrowed Plumes: An Introduction to Preaching and Plagiarism", 『Encounter』 제66권 (2005, 여름): 296.

체계의 표현 방법이기 때문이다.

3) 예화 사용 때에 나타나는 본문 이탈 현상 문제

설교자는 예화 사용을 부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화는 “청중의 관심과 집중력을 고조시키고, 설교 주제의 의미를 심화시키는 추가적인 자극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화 사용은 오히려 성경 본문에서 이탈시키는 현상”²³⁾을 야기시킨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만일 설교에 예화들을 부적절하게 많이 사용한다면, 청중을 오랜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성경 본문에서 이탈시키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교자가 예화를 사용할 경우에, 필연적으로 성경 본문의 이탈 문제가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설교 내용의 구조가 콜라주(collage)와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콜라주란 무엇인가? 콜라주라는 용어는 ‘아교(풀)로 붙이다’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설교 내용의 구조가 콜라주와 유사하다고 말한 이유는 성경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본문을 인용하거나 신문이나 뉴스에서 본 예화들, 경험담, 속담 등을 설교 내용에 포함시키는 복합적인 형태와 흡사하기 때문이다.²⁴⁾ 물론, 다른 성경 본문을 인용하여 그 본문을 해석하는 믿음의 유비는 타당하다.

그러나 성경 본문을 이해시키기 위한 예화들(간증, 이야기, 신문이나 뉴스의 기사들)을 많이 사용한다면, 분명히 청중도 예화를 들을 때마다 성경 본문과 헤어지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만일, 설교자가 사용한 예화가 청중이 느낄 때, 본문의 내용과 마치 겉도는 것처럼, 유사한 관점을 찾을 수 없다면, 설교자는 청중을 설교 시간 동안 미아로 만드는 것과 진배없다. 그러므로 D. Martyn Lloyd-Jones는 예화 사용의 목적과 분량에 문제가 생길 때에, ‘신학적인 매춘 행위’라 주장한다.

예화나 예증의 일반적인 측면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저는 「설교 예증의 기술」 같은 책들이 제시하는 방법들이 정말 해롭다고 생각하며, 그런 시도 자체를 혐오합니다. 설교에는 ‘기술’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이 또한 매춘 행위에 해당됩니다.... 제 표현대로라면 매춘부의 기교입니다. 사람들을 홀리는데 지나친 주의와 관심을 쏟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예화와 예증을 남발하는 것 역시 듣는 자들의 정욕에 영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주 지적했던 점이기도 합니다.²⁵⁾

그렇다면 설교자가 예화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성경 본문 이탈 현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설교자는 설교 어휘나 문장을 생생하게 청중의 마음속에 그려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설교자가 비유적인 표현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설교 내용을 조명할 수 있다면, 청중들의 성경 본문 이탈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 비유의 정의와 특징

Robert H. Stein은 비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비유는 일반적으로 ‘어떤 진리나 도덕

23) Achim Härtner & Holger Eschmann, *Predigen Lernen: Ein Lehrbuch für die Praxis*, 손성현 역, 『다시 설교를 디자인하라!: 좋은 설교를 위한 실제적 안내』 (서울: kmc, 2014), 272.

24) Rudolf Bohren, *Predigtlehre*, 박근원 역, 『설교학원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6), 266-69.

25) Lloyd-Jones, 『설교와 설교자』, 355-56.

적인 교훈을 전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짙막한 우화 또는 도덕적 혹은 영적인 진리를 밝히기 위해 일상생활의 사건들이나 사용한 간단한 이야기' 등을 가리킨다.... 헬라이어 사전에서 '파라볼레[비유]'는 '어떤 도덕적 또는 영적인 진리를 계시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통상적인 사건들을 사용하여 이야기 형식[을 갖추].'²⁶⁾ Stein의 견해에 따르면, 비유는 짧은 이야기 형태를 취하고 도덕적(영적)인 진리(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법을 의미한다. 물론, John Dominic Crossan은 John Bunyan의 *Pilgrim's Progress* 『천로역정』과 Herman Melville의 *Moby Dick* 『백경』과 같은 소설들을 예로, 비유가 짧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때로 긴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²⁷⁾

그러나 비유는 통상적으로 짧은 이야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비유는 관습적, 일상적, 그리고 시각적 장면을 청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상상력을 자극하여 공감을 일으킨다.²⁸⁾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과 동물 간에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두나 문자적인 언어, 그리고 몸짓과 같은 신체 언어를 모두 활용하여 소통하는 피조물은 인간이 세상에서 유일하다. 더욱이 인간만이 관계를 이뤄가면서 자연스럽게 관습과 문화를 형성하며²⁹⁾ 구두적 언어, 문자적 언어와 신체적 언어를 관습과 문화에 의해 발전시킨다. 그리고 인간만이 유일하게 언어를 사용하여 일차적인 의미인 사전적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이차적인 의미인 함축적 의미를 표현하기도 한다.³⁰⁾ 그리고 인간만이 유일하게 함축적인 의미를 표현할 때, 주로 비유를 사용한다.

3. 비유의 종류

비유는 문학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언어적 기능이나, 특정한 사람만 사용하는 언어적 개념체계가 결코 아니다. 비유란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언제나 사용하는 개념체계다. 그리고 비유는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수행적인 기능을 담당한다.³¹⁾ 또한 인간은 비유를 통해 배워간다. 왜냐하면 비유란 익숙한 영역에서 빌려온 사례들은 낯선 영역에 사상시켜(mapping)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³²⁾ 그러므로 비유는 언어의 전이로서 문학적 언어와 구두 언어, 그리고 신체 언어를 이해하는 렌즈 역할을 수행한다.³³⁾ 이러한 비유는 은유와 직유, 환유와 제유, 그리고 상징으로 나눌 수 있다.

1) 은유와 직유

은유와 직유는 원 개념과 보조 개념의 이질적인 관계에서 유사성이나 동질성을 찾아내는

26) Robert H. Stein, *An Introduction to the Parables of Jesus*, 오광만 역, 『예수님의 비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따뜻한 세상, 2011), 15

27) John Dominic Crossan, *The Power of Parable: How Fiction by Jesus became Fiction about Jesus*, 김준우 역, 『비유의 위력』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12), 17.

28) Barbara Dancygier & Eve Sweetser, *Figurative Language*, 임지룡·김동환 역, 『비유 언어: 인지언어학적 탐색』 (서울: 한국문화사, 2015), 4-5.

29) Dancygier & Eve Sweetser, 『비유 언어: 인지언어학적 탐색』,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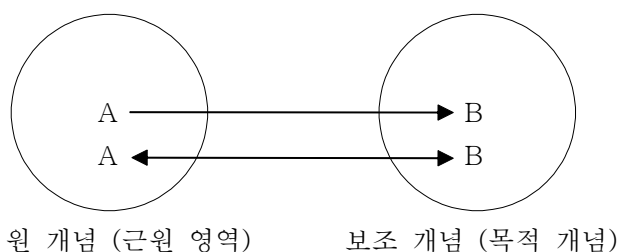
30) 김지찬, 『언어의 직공이 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100.

31) George Lakoff & Mark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노양진·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박이정, 2006), 21-23.

32) Howard Gardner, *The Disciplined Mind*, 류숙희 역, 『인간은 어떻게 배우는가: 인지과학이 발견한 배움의 심리학』 (서울: 사회평론, 2015), 288.

33) 김지찬, 『언어의 직공이 되라』, 106, 108.

것을 의미한다.³⁴⁾ 은유나 직유는 간결하고, 듣거나 읽는 자에게 보조 개념(목적 영역)을 원 개념(근원 영역)의 관점에서 이해시킨다. 그리고 듣거나 읽는 자에게 경험했거나 익숙한 원 개념을 제시함으로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거나 익숙하지 않은 보조 개념을 쉽게 받아드려 공감하게 만든다.³⁵⁾ 또한 은유와 직유는 원 개념과 보조 개념을 하나의 유사성이나 동일성을 일치시킴으로 부각시킨다. 그리고 다른 측면의 유사성이나 동일성을 철저하게 은폐시켜 상상할 수도 없게 만든다.³⁶⁾ 예들 들어, ‘서울 시민들이 서울의 심장인 시청에 모여 월드컵을 응원했다. 또는 서울 시민들이 서울의 심장과 같은 시청에 모여 월드컵을 응원했다.’ 라는 은유와 직유를 살펴보자. 이 은유와 직유는 서울의 심장을 시청이라 부각시키면서도, 다른 장소들은 철저하게 은폐시킨다. 그러나 은유와 직유를 비유의 성격상 다르다. 먼저 은유를 아래의 그림처럼 설명할 수 있다.



은유는 ‘A는 B이다’ 라는 표현으로 한 방향적이면서도 암시적이다. 예들 들면, ‘저 사람의 마음은 호수다’라는 은유를 살펴보면, 은유는 암시적이기 때문에, 듣거나 읽는 자들의 마음에 호수를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넓고 깨끗한지를 깨닫게 한다. 그러므로 은유는 듣거나 읽는 자의 마음에 공상적이고 초현실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³⁷⁾

또한 은유는 ‘자리 바꿈’ 또는 ‘옮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때로는 ‘A는 B이다 또는 B는 A다’가 모두 성립되는 양 방향적 은유도 존재할 수 있다. 예들 들면, ‘수희는 그녀의 어머니와 닮았다’는 ‘수희의 외모(성격)≐그녀의 어머니의 외모(성격)’라는 등식이 성립되지만, 반대로 ‘수희의 어머니 외모(성격)≐수희 외모(성격)’의 등식도 성립된다.³⁸⁾ 그러므로 양 방향적인 은유일 경우에는 원 개념과 보조 개념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은유는 한 가지 약점이 있다. 바로, 은유는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암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암시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반대로, 직유는 청중에게 “-같이 혹은 -처럼”의 표현을 통하여 하나의 사물을 다른 사물과 직접 비교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직유는 비유의 종류들 중 가장 간단하며 직선적인, 한 방향적이다. 직유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³⁹⁾

34) Dancygier & Eve Sweetser, 『비유 언어: 인지언어학적 탐색』, 23-24; Long, 『증언하는 설교』, 285; 김지찬, 『언어의 직공이 되라』, 110; 최창국, “멘토링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림 언어의 기능”,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36권(2015, 여름): 25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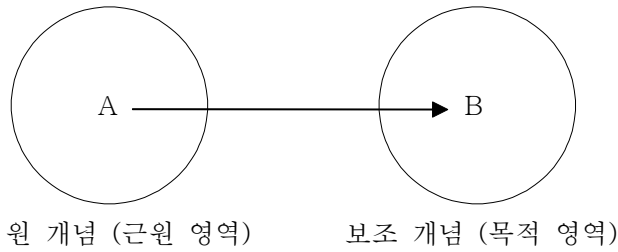
35) Lakoff & Mark Johnson, 『삶으로서의 은유』, 24,

36) 임지룡 외, 『비유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과주: 태학사, 2015), 21; Lakoff & Mark Johnson, 『삶으로서의 은유』, 31-36.

37) 김지찬, 『언어의 직공이 되라』, 148.

38) Dancygier & Eve Sweetser, 『비유 언어: 인지언어학적 탐색』, 52-53.

39) 논문은 A를 원 개념(근원 영역), B를 보조 개념(목적 영역)이라 칭한다. 그림을 설명할 때에는 이후부터, A와 B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생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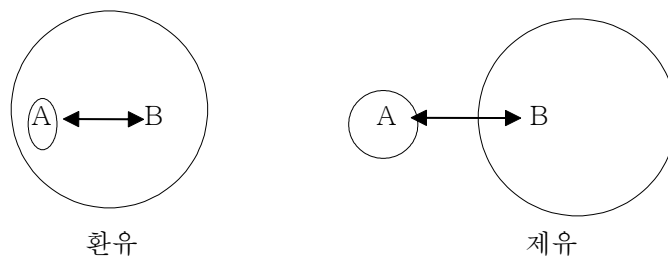


직유는 듣거나 읽는 자의 생각을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만드는 표현 방법이다. 왜냐하면 직유는 결단코 비 암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유는 은유보다 오히려 청중이나 독자의 반대를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표현법이다. 즉, 직유는 추상적인 사고를 구체화시켜 생각을 명료하게 하는 언어적 표현이다.⁴⁰⁾ 그렇기에 직유는 청중의 사고를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와 같은 또는 -처럼’을 ‘늑대 같은 남편이다.’ 또는 ‘남편은 늑대와 같다.’의 표현처럼, 접속사나 동사의 방식을 취한다.

2) 환유와 제유

환유와 제유는 은유(양방향 은유 제외)나 직유처럼 한 방향적이다. 그러나 은유나 직유는 하나의 원 개념이 하나의 보조 개념을 가리키지만, 환유와 제유는 한 부분이 전체를 표현하거나, 전체가 한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을 의미한다.⁴¹⁾ 그러므로 환유와 제유의 가치는 한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함으로써, 경제성 혹은 사실성이 부여된다. 만일, ‘000은 용인에 미술관을 세우기 위해 기공식을 개최했다.’를 ‘000은 용인에 미술관을 세우기 위해 첫 삽을 떴다’라고 표현한다면, 첫 삽이 기공식 전체를 지칭함으로써 경제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를 ‘우리 마을에서 일손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한다면 자원 봉사자가 해야 할 사역이 바로 ‘돕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는 사실성을 부각시키게 된다.⁴²⁾

그러나 환유와 제유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환유와 제유는 아래와 같이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환유는 사물의 속성과 관계있는 한 부분으로 어떤 사물 전체를 대신하는 표현법이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뛰어난 두뇌가 필요하다’라는 환유 표현을 살펴보면, 두뇌는 몸의 한 부분

40) 김지찬, 『언어의 직공이 되라』, 114-15.

41) Lakoff & Mark Johnson, 『삶으로서의 은유』, 77.

42) 임지룡 외, 『비유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31-32.

이며 사람의 뛰어난 특성을 상징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두뇌는 뛰어난 사람 전체를 가리킨다.⁴³⁾ 이에 반해, 제유는 사물의 일부를 가지고 사물의 전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제유는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000야 하수구가 막혔다. 마트에 가서 트레핑 줌 사와라!’ 라는 제유 표현을 살펴보면, ‘트레핑’은 박힌 하수구를 뚫는 한 제품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트레핑’을 박힌 하수구를 뚫는 모든 제품을 가리키는 어휘로 사용한다. 그리고 환유와 제유를 모두 대유법이라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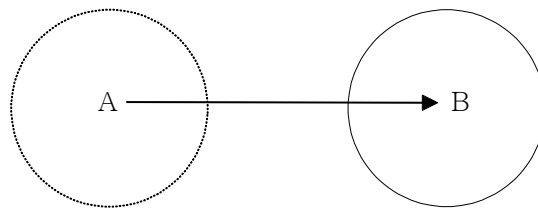
아무튼 환유와 제유는 은유에 비해, 훨씬 현실적이고 청중의 피부에 와 닿는 표현 방법이다. 그렇기에 환유와 제유는 보조 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부각시키는 개념 체계라 할 수 있다. 한 예로, 말썽을 피우는 학생을 가리켜, ‘제는 미꾸라지야!’ 이렇게 표현한다면, 미꾸라지가 물 전체를 흐려 놓는 것처럼, 이 학생이 학급 전체의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라는 것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사실적인 설명일 것이다.⁴⁴⁾

3) 상징⁴⁵⁾

상징은 은유나 환유(제유)의 개념 체계로 표현된다. 그러나 은유와 환유(제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보조 개념을 각인시키거나 부각시킨다. 그뿐 아니라, 상징은 언어와 행동이 동시에 표현될 때,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상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상징적인 은유와 상징적인 환유(제유), 즉 언어와 행동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상징적인 은유 언어

언어적인 측면에서 상징은 은유의 개념 체계에 속한다. 그러나 상징은 은유와는 다른 개념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은유의 개념 체계는 원 개념이 보조 개념을 한(양) 방향으로 암시적으로 가리킨다. 그러나 상징은 원 개념을 철저하게 감추고 보조 개념만을 철저하게 부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언어적인 측면에서 상징적인 은유 언어는 그림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상징적인 은유

43) Lakoff & Mark Johnson, 『삶으로서의 은유』, 77.

44) 김지찬, 『언어의 직공이 되라』, 175.

45) 상징은 언어와 행동에만 국한시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체계가 아니다. 상징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물체나 그림 등에도 표현되는 개념체계이다. 예를 들면,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한다. 때로는 고난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듯 상징적인 물체 또는 그림도 은유나 환유(제유)라는 비유 개념체계에서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논문은 설교라는 제한된 분야에서 상징의 비유 체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언어 측면과 행동 측면에서만 상징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상징적인 물체나 그림 등은 예배학에서 다루지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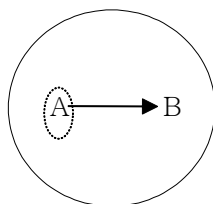
모든 사물은 1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물은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되면서 1차적인 의미 이외에, 2차적인 의미인 다른 의미를 부각될 수 있다.⁴⁶⁾ 그러나 상징은 대화 상

대자들의 처한 상황과 문화적인 관습에 따라 다르게 이해하거나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은유 언어는 상황과 문화 관습에 의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령, 용인에서 서울로 자동차를 타고 갈 경우, 함께 타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그때, 갑자기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멈춰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빨간색이야! 이렇게 말하면, 빨간색이 도로에서는 멈춤을 상징한다.⁴⁷⁾ 그러나 한국적인 정치 상황에서 이념논쟁을 펼칠 때, 빨간색은 북의 추종자 또는 북한을 상징한다. 또한 한, 일 축구전이 펼쳐지는 경기장에서 빨간색은 한국 국가대표를 상징한다. 이와 같이, 빨간색은 상징적으로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

한국인의 문화 관습에서 까치는 길조로서 앞으로 올 좋은 미래나 반가운 손님이 곧 찾아올 것을 상징한다. 그러나 한국의 문화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오늘 까치가 우니, 내일 좋은 일이 생길거야! 또는 내일 좋은 사람을 만나겠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아마 이 말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2) 상징적인 환유(제유) 행동

상징은 언어로만 표현되지 않는다. 인간의 행동(손과 몸 등을 활용)으로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인간의 상징적인 행동은 환유(제유)의 개념 체계에 의해 표현된다. 은유나 직유는 하나의 원 개념이 하나의 보조 개념을 가리키지만, 상징적인 환유 행동과 제유 행동은 어떤 한 부분이 전체를 표현하거나, 전체가 한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리고 환유와 제유의 효과적인 측면을 그대로 상징적인 환유(제유) 행동은 소유하게 된다. 바로 한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함으로써 경제적인 것 뿐 아니라, 사실적인 면을 강조한다. 또한 상징은 원 개념을 철저하게 감추고 보조 개념만을 철저하게 부각시켜 표현한다. 먼저 상징적인 환유 행동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환유



머리를 가리키는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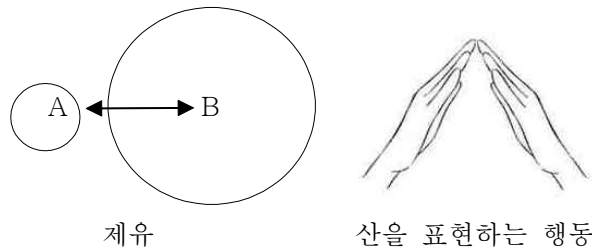
환유는 사물의 속성과 관계있는 한 부분으로 어떤 사물 전체를 대신하는 표현방법이다. 그러므로 만일,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적인 행동으로 표현한다면, 사람은 손가락으로 머리를 가리킨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뛰어난 사람으로 인간의 문화와 관습에서는 인정한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뛰어난 사람을 표현할 때, 손으로 머리를 가리키는 행동을 한다.

이제는 상징적인 제유 행동을 설명할 차례다. 제유는 사물의 일부로 그 사물의 전체를 가

46) 김지찬, 『언어의 직공이 되라』, 221-222.

47) Härtner & Holger Eschmann, 『다시 설교를 디자인하라!: 좋은 설교를 위한 실제적 안내』, 256.

리킨다. 그러나 환유와 달리, 제유는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방법이며,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만일 사람이 높은 산을 상징적인 제유 행동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자. 어떤 행동으로 높은 산을 표현할 수 있을까? 아마도 가장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손을 모아 뽀족한 모습을 표현하는 행동으로 높은 산을 설명할 것이다. 이때, 손은 산의 일부인, 나무, 바위, 산의 정상이 아니다. 사람의 신체 중 일부일 뿐이다. 단지 산과 아무 관계고 없는 손으로 높은 산 전체를 묘사한다. 그러나 상징적인 환유(제유) 행동은 상징적인 상황과 문화 관습에 의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진다. 가령, 앞에서 손가락으로 머리를 가리키면서 ‘생각하고 움직여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 상징적인 환유 행동은 생각과 움직임을 머리가 통제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만일 뽀족한 남산 타위를 설명하면서 손을 탐과 같이 뽀족한 모양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징적인 환유(제유) 행동은 가리키는 의미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비유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민해야 할 점이 있다. 인류가 가장 먼저 사용했던 소통 방법은 말이나 문자가 아닌, 비언어적인 요소들인 제스처, 몸짓 등과 같은 행동들이었다. 즉, 인류는 상징적인 환유(제유)와 같은 표현을 통해 처음 소통했을 것이다. 그리고 인류는 더 다양한 소통의 매개 수단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소통의 권역을 확대해 나갔다.⁴⁸⁾ 그러므로 상징적인 환유(제유) 행동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개념체계다. 그리고 인류는 이 개념 체계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데 익숙할 것이다.

4. 두 가지 관점의 비유 연구

1) 해석 관점의 비유 연구

그러나 비유는 주로 해석적인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다시 말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주된 관심을 가졌다. 비유는 대략 20세기 중, 후반까지 문학 분야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주로 문학 텍스트의 의미 해석 부분이 연구되었다.⁴⁹⁾ 특히, 복음서를 연구하는데 비유 해석학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의 내용 중, 예수의 비유가 대략 1/3 정도 차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관복음의 비유와는 성격 상 다소 차이가 있는 요한복음의 비유까지 포함한다면, 복음서는 비유의 집합체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다.⁵⁰⁾ 그

48) David Crowley & Paul Heyer, *Communication in History Technology, Culture, Society*, 김지운 역,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5.

49) Dancygier & Eve Sweetser, 『비유 언어: 인지언어학적 탐색』, 1.

러나 성경에 기록된 비유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해석될 수 없다. 왜냐하면 비유란 큰 문맥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성경에 기록된 비유는 반드시 어떤 사건이나 교훈 등과 상호 연관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복음서에서 비유 해석이 자칫 왜곡되면 큰 문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⁵¹⁾

아마도 신학에서 문학적 관점으로 비유를 해석한 것은 1865년에 David Friedrich Strauss의 *A New Life of Jesus*가 출판되면서 시작된 것 같다. Strauss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7개의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치시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예수의 비유가 간결하고, 일상의 삶에서 발견될 수 있는 사건들이며, 청중에게 이미지를 심어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예수의 비유는 시적인 형태를 취한다고 설명했다.⁵²⁾

그 다음, Adolph Jülicher의 *Die Gleichnisreden Jesus* 『예수의 비유 강설』이 1899년도에 출판되면서 예수의 비유가 문학적인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Jülicher는 예수의 비유를 풍유적(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하며, 비유는 한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Jülicher는 한 가지 중심 요점(one main point) 접근법으로 예수의 비유를 해석했다. 왜냐하면 비유를 풍유적(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풍토는 19세기 말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비유를 간접적인 문학 표현인 은유가 아닌, 직접적인 문학 표현인 직유로 이해했다. 그 이유는 예수의 비유의 목적이 가르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비유의 종류 가운데 직유가 가르치는 목적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⁵³⁾ 그의 해석학적 소견은 가히 비유 해석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이뤄냈다.⁵⁴⁾ 그리고 그의 이론은 19세기의 독일 자유주의 신학을 근간으로 삼고 있으나, 상당 수 해석자들이 그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했다.⁵⁵⁾

그 후, 1935년에 Charles Harold Dodd는 *The Parables of the Kingdom*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 Jülicher의 ‘한 비유, 하나의 의미’ 해석학적 견해를 수용했다. 즉, Dodd는 예수의 비유를 이미 실현된 종말론적 관점, 즉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그가 오셨기에 완전히 도래한 사건으로만 해석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비유 해석의 새로운 장을 연다. 바로 그는 예수의 비유를 1세기 당시의 삶의 정황(Sitz im Leben)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⁵⁶⁾ Joachim Jeremias는 1947년에 *Die Gleichnisse Jesu* 『예수의 비유』를 출판했다. 그리고 책의 서문을 통해 Dodd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Dodd의 비유 해석에 문제가 있음도 지적한다.

[비유 해석의] 비약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다드의 책 <하나님 나라의 비유였다. 탁월하게 중요한 이 책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비유들을 예수의 삶의 배경 속에 자리 잡도록 하려는 참으로 성공적

50) 이한수, 『비유와 해석학』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89), 22; 박성환, “비유 해석과 설교: 예수의 비유를 중심으로”, 218, 222.

51) William W. Klein, Craig L. Blomberg, & Robert L. Hubbard,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류호영 역, 『성경해석학 총론』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522-23; 박성환, “비유 해석과 설교: 예수의 비유를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36권(2015, 여름): 223.

52) Zimmermann Ruben, “Are there Parable in John? It is Time to Revisit the Questio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Historical Jesus』 제9권(2011, ?): 246.

53) David B. Gowler, *What are They Saying about the Parables?*, 김세현 역, 『최근 예수의 비유 연구 동향』 (서울: CLC, 2015), 15.

54) 이한수, 『비유와 해석학』, 28.

55) Craig L. Blomberg, *Preaching the Parables*, 이우제 역, 『비유 설교』 (서울: 크리스찬, 2006), 2-3.

56) Robert H. Stein, *An Introduction to the Parables of Jesus*, 오광만 역, 『예수님의 비유 어떻게 읽을 것인가?』, 94-95; David B. Gowler, 『최근 예수의 비유 연구 동향』, 18-19.

인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비유들의 해석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다드는 하늘 나라의 비유들에 한정하여 관심을 기울였고, 이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이해의 일면성은... 전체 시각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⁵⁷⁾

특히, Jeremias는 예수께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비유를 논쟁의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비유를 사용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변명, 방어, 공격, 그리고 도전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 당시 상황에서 무엇을 이야기했고 청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⁵⁸⁾ 그리고 그는 예수의 비유가 종말론적 긴박성을 청중에게 전달하여 즉각적인 반응과 회개를 유도하며 제자들에게는 참된 제자도를 요청한다고 생각했다.⁵⁹⁾ 그러나 Jeremias는 Jülicher와 Dodd와 달리, 다소 예수의 비유가 유기적으로 제시하는 통일된 메시지를 등한시한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비유를 문학적 방법론으로 접근하며 비유 연구의 지경 변동을 본격적으로 일으켰다. 이 시대에는 미국의 영문학에서 활용된 문학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삼은 Amos Wilder, Robert Funk, 그리고 Dan Via는 역사적 해석으로 비유를 이해할 경우의 한계를 지적하며 복음서의 문맥에서 비유를 이해할 것을 주장했다.⁶⁰⁾ Crossan은 위에서 언급한 여러 신학자들의 비유 해석의 견해들과 자신의 해석학적 소견을 *The Power of Parable: How Fiction by Jesus became Fiction about Jesus* 『비유의 위력』에 집약시켰다. Crossan은 예수의 비유를 은유 이야기로 이해하며, 복음서를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기록한 메가 비유로 생각한다. 다시 말해, Crossan은 비유가 청중에게 자신의 심적 상태를 깨뜨려 무력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인지시키는 언어의 기능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Crossan은 비유를 은유의 언어적 기능으로 설명한다. 특히, 그는 비유와 신화를 구분하면서, 신화는 세상을 세워가지만 비유는 세상을 전복시키고자 청중을 초대한다고 주장한다.⁶¹⁾

그 후, Benard Brandon Scott는 1960년부터 미국에서 신학자들에 의해 진행된 비유에 관한 유산들을 바탕으로 예수의 비유의 언어적 측면을 연구했다. Scott는 예수가 비유를 통해 의도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비유가 청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한 비유의 대화적 특성에 관심을 가졌다. 그렇기에 그는 예수의 비유를 문학적 관점과 사회과학적 관점을 사용하여 해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Re-Imagine the World: A Introduction to the Parables of Jesus* 『예수의 비유 새로 듣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종합한다.⁶²⁾ 그리고 David B. Gowler는 앞에서 간략히 언급한 예수의 비유 해석의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What are They Saying about the Parable?* 『최근 예수의 비유 연구 동향』을 집필했다. 또한 Robert H. Stein도 비유 해석을 위한 간략한 입문서인 *An Introduction to the Parables of Jesus* 『예수의 비유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출판하면서 비유 해석의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별히, Stein은 비유가 담고

57) Joachim Jeremias, *Rediscovering the Parables*, 황종렬 역, 『비유의 재발견(예수의 비유 축소판)』 (철곡: 분도출판사, 1991), 17.

58) Jeremias, 『비유의 재발견(예수의 비유 축소판)』, 18.

59) Gowler, 『최근 예수의 비유 연구 동향』, 22-23.

60) Benard Brandon Scott, *Re-Imagine the World: A Introduction to the Parables of Jesus*, 김기석 역, 『예수의 비유 새로 듣기』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6), 238; Gowler, 『최근 예수의 비유 연구 동향』, 35.

61) John Dominic Crossan, 『비유의 위력』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12), 14-17; Gowler, 『최근 예수의 비유 연구 동향』, 59; Scott, 『예수의 비유 새로 듣기』, 242.

62) Scott, 『예수의 비유 새로 듣기』, 242.

있는 의미를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4 가지 핵심 주제인,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결단을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 성부 하나님, 최후의 심판으로 설명하면서 역사적인 관점도 적절하게 활용한다.⁶³⁾

마지막은 Craig L. Blomberg은 비유 해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비유 해석의 중요한 요지는 한 비유는 한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였다. 이것은 Jülicher가 주장한 이후부터,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Blomberg은 ‘한 비유, 한 의미’라는 공식을 깨뜨리는 해석적 소견을 Preaching the Parables 『비유 설교』를 통해 소개한다. 그는 해석학자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의미’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비유를 한 가지 의미로 요약하려 할 때, 내러티브가 갖고 있는 힘과 설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비유에서 2-3가지의 교훈을 줄 수 있는 해석 방법을 소개한다.⁶⁴⁾ 오히려 Blomberg는 비유를 풍유적 해석으로 접근하는데 얻을 수 있는 유용성과 다양성을 설명한다. 왜냐하면 그는 비유가 풍유적인(알레고리적인) 요소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⁶⁵⁾

2) 전달 관점의 비유 연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유 연구는 주로 문학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며, 그 자체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비유는 문학적인 표현 이전에 구두적인 관습 표현이며, 일상의 삶에서 익숙한 개념 체계다. 즉, 비유란 인간의 일상적 삶의 언어적 표현이며 사고와 행위 그 자체다.

종교 개혁 이후, 설교자들은 탁월한 비유 사용자들이었다. 그들은 화려한 미사어구가 아닌, 평범한 말로 하나님을 말씀해 해석하고 청중의 삶에 적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효과적인 전달을 위하여 일상의 예증들과(직접 경험상으로 얻는 것들) 예화들은(듣거나 보는 것을 통해 얻은 것들) 자제하고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화들이 설교를 조명하는 창문과 같은 것은 인정하지만, 지나친 예화(증) 사용은 “[로마 카톨릭 교회]나 영국 국교회의 건물에 있는 수많은 채색 유리들처럼,⁶⁶⁾ 자칫 청중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John Calvin의 설교는 설교 내용의 생동감과 청중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적절한 언어 표현, 특히 비유[이미지]를 사용하려는 그의 노력을 살필 수 있다. 박완철은 칼빈 설교에 나타난 비유 사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신의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보다 친숙한 것으로 만들려는 목표와 더불어 칼빈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언변을 회중 가운데 있는 보통 사람들의 이해 수준에 맞추었다. 그는 설교에서 가장 적절한 언어 표현을 사용하려고 노력했고 필요할 때는 언제나 자유롭게 그것을 바꾸었다. 예를 들면 칼빈은 은유나 의인법,...과장법 등[의 비유]를 사용했고 그 결과 설교 스타일이 선명하고 활기 있을 뿐 아니라 언제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청중들에게 잘 맞았다.... 그는 청중들에게 감정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호소하기 위해 비유나 이미지가 풍부한 표현들을 사용했다.... [왜냐하면] 칼빈은 그리스도가 비유적 언어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영적인 교훈들을 더욱 힘 있고 효과있게 만드는 것에 주목했[기 때문이다].⁶⁷⁾

63) Stein, 『예수님의 비유 어떻게 읽을 것인가?』, 11.

64) Blomberg, 『비유 설교』, 6-7.

65) 정종성, “비유 해석과 설교: 복음서의 겨자씨 비유를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67권 (2013, 가을): 324-25.

66) Horton Davies, *The Worship of the American Puritans(1629-1730)*, 김석한 역, 『청교도 예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107.

이후, 청교도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설교 전달 방법에 따라 평범하고 단순한 설교 형식을 선호했다. 그렇기에 이들은 설교할 때, 유모와 예화(증) 사용을 절제했다. 또한 이들은 17세기의 종교개혁의 추종자이며 프랑스 철학자인 Petrus Ramus의 영향으로 설교 내용 가운데 교리를 설명한 후, 이것을 입증하는 논증방식을 사용하고 설교 마지막에는 적용했다.⁶⁸⁾ 그리고 이들은 비유(은유나 직유 등)를 사용하여 청중들의 주의를 집중시켰다.⁶⁹⁾

앞에서 살핀 것처럼,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탁월한 예화(증) 사용자가 아닌, 비유를 사용하는 자들이었다. 물론 비유도 예화(증)에 포함된다. 논자만의 견해일 수 있으나 설교(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예화(증)를 단순히 ‘일상에서 겪은 일화들’, ‘다른 사람들의 일화들’, ‘책(잡지)나 신문 또는 대중매체나 인터넷과 같은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로만 이해하는 듯하다. 그러나 예화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왜냐하면 비유(은유, 직유, 제유, 풍유, 상징, 암시 등)는 예화로서 유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나, 나름대로 예화의 한 부분으로서 독특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⁷⁰⁾ 그러므로 종교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전달 관점에서 예화와 비유를 혼용하여 설명하면서도, 이 둘을 나눠 설명하고자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의 설교 연구는 성경 해석과 교리적인 내용에 국한시켜 연구할 뿐이다.

그러나 이들이 생각하는 전달 관점의 비유는 고스란히 Charles H. Spurgeon의 *Lectures to My Students* 『목회자 후보생들에게』에서 본격적으로 설명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Spurgeon 이전의 설교(학)자들은 비유 사용을 설교 작성 가운데 몇 줄 정도로 취급하거나 예화의 일부분으로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Spurgeon은 신학생들을 위한 설교 지침서인 *Lectures to My Students*에서 무려 1/3 정도를 제 3부 ‘설교에 사용되는 예화들’에 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설교에 사용되는 예화들’에 관한 설교들 가운데, 예화의 일부로서 비유에 관하여 대략 절반정도를 할애하여 설명한다. 다음은 제 3부인 ‘설교에 사용되는 예화들’의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된다. “건물에 창을 내는 주된 이유는... 빛이 들이기 위해서이다. 비유, 직유, 은유에는 그런 효과가 있다.... 구주께서 보이신 본은 [비유]인 비교와 직유로 천상의 교훈을 비추는 행위를 지고한 권위로 승인한다.... 아주 적합한 은유를 쓰면 의미를 명쾌하게 만들 수 있다.”⁷¹⁾ 물론 그는 예화(예증) 사용의 가치를 인정한다. 비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설교 전달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설명하는 훌륭한 방법으로 말을 잘 선택하고 어조도 다양하게 내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비유와 상징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설교에 끌어들이면 지혜로운 일이다....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시는 일은 언제나 주로 비유[였다].”⁷²⁾

67) 박완철에 의하면, 칼빈은 효과적인 설교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성령께서 주관하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본문은 비유 사용에 초점을 맞췄기에 칼빈의 비유 사용만 부각시키고자 한다. 박완철, 『개혁주의 설교의 원리』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7), 55-65.

68) Allen Carden, *Puritan Christianity in America: Religion and Life in Seventeenth-Century Massachusetts*, 박영호 역, 『청교도 정신: 17세기 미국 청교도들의 신앙과 생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170.

69) Peter Lewis, *The Genius of Puritanism*, 서창원 역, 『청교도 목회와 설교』 (서울: 청교도 신앙사, 1991), 89.

70) Chapell, *Using Illustrations to Preach with Power*, 20-21.

71) Charles H. Spurgeon, *Lectures to My Student's vol. III*, 김기찬 역,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예화 사용 기술(3)』 (서울: 생명의 말씀사), 11-12.

그 후, 1960년대부터 대중들에게 TV가 보급됨으로 영상시대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부터 사람들은 기존의 활자 인쇄물과 라디오로부터 접했던 정보들은 TV를 통해 시각과 청각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TV 보급은 청취자의 권위를 자연스럽게 존중하며 청취자의 구미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영했다.⁷³⁾ 이 시대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설교 작성에도 변화를 요구했다. 그러므로 당시 설교자들은 설교 시간에 예화나 유모, 그리고 말재주를 통해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술적인 면에 공을 들였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설교자들이 TV를 통해 설교를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예배를 중계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신설교학(the New Homiletics)은 Fred. B. Craddock을 필두로 설교 전달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신설교학은 설교 형식과 전달에 엄청난 변화를 이끌며 가히 설교학계에 혁명을 불러 일으켰으며 설교학계의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했다.⁷⁴⁾ 여기에서 우리가 신설교학에 관한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을 듯하다. 과연 신설교학은 성경 해석의 중요성을 등한시하고 설교 전달만 강조했을까? 또한 신설교학은 TV가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측면을 설교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예화(증)이나 유모를 사용할 것을 권했을까? 신설교학들도 성경 해석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해석과 전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지 신설교학자들은 설교 전달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의 부재를 지적하며 이 부분을 발전시켜 나간 것이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교훈인, 청중의 중요성을 설교에 충실하게 반영코자 했을 뿐이다. 또한 신설교학은 예화(증)로 사용되는 일화나 유모의 적절한 사용 혹은 절제를 권장한다. 신설교학은 설교 내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언어적인 표현과 예화의 한 부분인 비유 사용을 추천했다. 이것은 신설교학의 포문을 연 Craddock의 주장을 보면 잘 나타난다.

설교는 예화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설교가 단일한 사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움직여 나가고, 살아있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교인들은 실제로는 예화가 하나도 없었는데도 그 설교의 예화가 좋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마치 아주 재미있는 사람들은 거의 농담을 하지 않듯이, 또 아주 좋은 이야기꾼은 늘 이야기를 떠들어 댈 필요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청중들을 재미있고 조명이 밝은 거리 아래로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설교자는 설교에다 예화라는 짐을 실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야기 자체가 설교였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비유가 곧 설교였다.... “예화가 필요할까?” 하는 질문은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이다.... 도매로 짐짝채 살 수 있는 설교 예화집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혹은 그 목적에 알맞은 비유를 만들어 냄으로써 얻을 수 있다.... 설교라고 하는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은] 비유[다].⁷⁵⁾

그 후, 1980년에 George Lakoff와 Mark Johnson의 *Metaphors We Live by* 『삶으로서의 은유』가 출판된다. 이 책은 신학(설교학) 관련 서적은 아니다. 그러나 이 책이 비유 연구를 해석 관점에서 전달 관점으로 전환시킨 가장 중요한 기점을 제공한 것으로 현재까지 칭송받고 있다.⁷⁶⁾ Barbara Dancygier와 Eve Sweetser는 이 책의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비유적 언어 및 사고와 언어적 체계의 통합적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72) Spurgeon,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예화 사용 기술(3)』, 161.

73) 박성환, “신설교학에 관한 소고와 Martyn Lloyd-Johnes의 설교학적 통찰력”, 한국성경신학회, 「교회와 문화」 제28권 (2012, 겨울): 136-38.

74) O. Wesley Allen, “The Pillars of the New Homiletic”, in *The Renewed Homiletic*, ed. O. Wesley Allen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0), 4.

75) Fred B. Craddock, *Preaching*, 김영일 역, 『설교: 열린 체계로서의 귀납적 설교방식』 (서울: 컨콜디아사, 1989), 242-43.

76) 임지룡 외, 『비유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13.

레이코프와 존슨의 삶으로서의 은유(*Metaphor We Live by*)가 1980년에 출간된 이후에 영향력 있고 생산적인 학문의 물결이 구체화되었다.”⁷⁷⁾ 또한 이들의 사상은 화용론과 인지 과학으로 발전하여 설교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전달 관점에서의 비유의 중요성은 Craddock의 설교 이론을 계승, 발전시킨 David Buttrick과 Eugene L. Lowry에 의해 고스란히 나타난다. 특히, Buttrick은 1987년에 출판한 *Homiletic: Moves and Structures*에서 비유와 예화(증)를 구분해서, 제 8장 *Preaching: Image and Metaphor*와 제 9장 *Examples and Illustrations*으로 설명한다.⁷⁸⁾ 그러므로 Buttrick은 “설교를 그림 언어들이인 은유[비유들]로 구성된 작품이다.... [왜냐하면] 은유[비유]는 설교를 위한 하나의 패러다임[일 뿐 아니라,] 설교 언어는 필수적으로 은유[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⁷⁹⁾ Buttrick은 왜 이토록 전달 관점의 비유에 집착하는 것일까? 그는 Craddock와 Lakoff처럼 예수께서 비유로 설교했다는 사실로부터 설교 전달의 비유 사용의 중요성과, 사람은 누구든지 문화와 상황에 따라 관습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비유를 사용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또한 비슷한 시기인 1989년에 Eugene L. Lowry는 *How to Preach a Parable: Designs for Narrative Sermons* 『설교자여, 준비된 스토리텔러가 돼라』를 출판한다. Lowry는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의 공통점을 했다. 그리고 스토리 진행(Running the Story), 스토리 보류(Delaying the Story), 스토리 유예(Suspending the Story), 스토리 전환(Alternating the Story)라는 4 가지 이야기식 설교 작성 방법을 만들어 낸다.⁸⁰⁾ 물론 이 4 가지 이야기식 설교 작성 방법은 Lowry가 기존에 창안한 로우리 고리(Lowry Loop)라 불리는 이야기식 설교 방법과는 차별성을 갖는다.⁸¹⁾

또한 1980년대 후반에 Thomas G. Long은 설교학 개론서라 할 수 있는 *The Witness of Preaching* 『증언하는 설교』를 출판한다.⁸²⁾ 그는 이 책의 8장에서 설교 작성 시의 이미지인 비유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그리고 Long도 예수께서 비유로 설교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그리고 설교자들도 예수를 본받아 비유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했다고 주장하며 비유는 설교를 지칭하기 위한 단순한 장식품이 아닌, 능동적인 의사 전달 요소임을 강조한다.⁸³⁾ 그러면서 Long은 앞에서 소개한 설교(학)자들이 예화(증)과 비유를 모순적이지만 분리해서 설명하려는 시도는 다시 통합하여 설교 예화로 지칭한다. 그러나 Long은 예화라는 이름으로 비유를 통합했으나, 사용방법은 비유의 종류인 은유, 직유, 환유(제유)처럼 활용하기를 원했다. 즉, Long의 예화 이론은 비유적 예화(증)으로 은유, 직유, 환유의 개념 체계에서 체계적으로 활용하길 원했다. 그리고 그의 비유적 예화(증) 이론은 Buttrick으로부터 획득한 것 같다. 왜냐하면 Long은 예화 사용에 있어 Buttrick의 생각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⁸⁴⁾

77) Dancygier & Eve Sweetser, 『비유 언어: 인지언어학적 탐색』, 3.

78) David Buttrick, *Homiletic: Moves and Structur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vii.

79) Buttrick, *Homiletic: Moves and Structures*, 113, 123, 125.

80) Eugene L. Lowry, *How to Preach a Parable: Design for Narratives Sermons*, 이주엽, 『설교자여, 준비된 스토리텔러가 돼라』 (서울: 요단, 1999), 23-30, 45, 47.

81) 박성환, “Eugene L. Lowry의 설교학적 고집: 로우리 고리(Lowry Loop)의 발전과 평가”,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67권 (2013, 가을): 111-13.

82) Long은 저자 서문에서 이 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설교를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개론서이자 현직 설교자들을 위한 재충전 자료로서, 기독교 설교에 관한 또 하나의 입문서를 만드는 것이었다.” Long, 『증언하는 설교』, 7.

83) Long, 『증언하는 설교』, 277-78.

이로부터 2-3년 후인, 1992년에 Bryan Chapell은 *Christ Centered Preaching*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보다, 예화 사용에 관한 엄청난 책인 *Using Illustrations to Preach with Power*라는 책을 먼저 출판한다. 이 책은 예화 사용에 관해 가장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로 평가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설교학 관련 자료에서는 예화에 관한 설명을 몇 쪽이나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간략히 소개하지만, 이 책 전체는 설교에서 활용되는 예화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는 책의 시작인 *Wizened and Wise*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을 소개한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이 성육신에 관해 설교했을 때와 초청 강사인 Paul London이 아프리카의 한 부족을 예로 들면서, 성육신에 대해 설교했을 때에 성도의 반응과 이해가 다르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 예화는 성경의 진리를 확실하게 전달했고, 나의 장황한 설명보다는 더 효과적이었다. 사실 그때 난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 경험은 내게 설교에 대한 기본 가설에 도전을 주었기 때문이다.... 예화는 좋은 설교를 보충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설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⁸⁵⁾ 이렇듯 Chapell은 설교의 예화 사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Chapell은 *Using Illustrations to Preach with Power*에서 오히려 비유보다 예화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반대 주장을 피력한다. 마치 앞에서 비유 사용의 중요성에 반기를 드는 발언을 아래처럼 서슴 없이 내뱉기 때문이다.

암시, 예, 유추 그리고 수사학적 표현은 설교에 풍성한 표현방법들을 곁들여 줄 수 있지만, 예화의 참된 효과처럼, 청중들을 끌어들이지 못한다. 반면에 예화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풍유, 비유 등은 그 길이가 일반적으로 설교에 적당한 양을 차지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설교와는 어울리지 않는 특정한 문화 형식일 뿐이다.... 참된 예화는 설교자가 청중들을 [성경]의 사건 속으로 초대한다. [그리고] 참된 예화는... 생활 속의 이야기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⁸⁶⁾

그 후, 1997년에 Warren W. Wiersbe는 *Preaching & Teaching with Imagination: The Quest for Biblical Ministry* 『상상이 담긴 설교: 마음의 화랑에 말씀은 그려라!』 라는 전달 관점의 비유에 관한 기념비적인 설교학 책을 출판한다. 그리고 그의 전달 관점에 관한 비유 이론은 앞에서 설명한 David Buttrick과 Lakoff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데이빗 버트릭(David Buttrick)은 그가 쓴 『설교학: 그 움직임과 구조』(*Homiletic: Moves and Structures*)란 책에서 “설교한 피할 수 없는 은유의 한 작품”이라 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레이디 데이비스(H. Grady Davis)가 『설교의 구상』(*Design for Preaching*)을 쓴 이래 설교학에 가장 창의적인 책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버트릭은 또 말하기를 “신학적 의미는 생활에서 끌어온 이미지를 통해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기대로 사는 은유』(*Metaphor We Live By*)라는 흥미진진한 책을 쓴 레코프(Lakoff),,, 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은유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많은 예를 들고 있다.... 워낙 은유로 가득찬 것이 우리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저 당연하게 받아드리며 산다고나 할까?⁸⁷⁾

그러면서 Wiersbe는 설교의 전달 관점에서 비유의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강조한다. “우리 주변 세계와 우리 내면 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다리는 언어라 부르는 상징 체계이다. 그런데 언어는 기본적으로 은유적이다.... 설교자들이야말로 청중들이 뭔가 배우고 생각하여 새롭고 성숙한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이야말로 은유[비유]로 무장되어

84) Long, 『증언하는 설교』, 280-91.

85) Chapell, *Using Illustrations to Preach with Power*, 11-14.

86) Chapell, *Using Illustrations to Preach with Power*, 20-22.

87) Wiersbe, 『상상이 담긴 설교: 마음의 화랑에 말씀은 그려라!』, 57, 60-61.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다.”⁸⁸⁾

한편, 탈자유주의 설교학(Postliberal Homiletics)은 설교학계, 특히 신설교학에서 비유의 전달 체계에 관심을 갖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 왜냐하면 예수의 설교에서의 비유 사용은 자칫 예수를 구원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비유를 탁월하게 사용하는 설교자의 이미지로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탈자유주의 설교(학)자인 Charles L. Campbell은 1997년에 자신의 박사 논문을 *Preaching Jesus: New Directions for Homiletics in Hans Frei's Postliberal Theology*, 『프리칭 예수: 한스 프라이(Hans Frei)의 탈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한 설교학의 새 지평』으로 출판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나사렛 예수가 비유의 특성을 규정짓고 있는 것이지 거꾸로 비유가 예수를 규정지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최근의 설교학에서 일어난 방향선회를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설교되어지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모범적인 설교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예수는 모범적인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가 사용했던 비유 역시 오늘 우리의 설교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모범적인 설교자로 부각시키는 것은 비록 역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예수가 실제로 비유를 설교했음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⁸⁹⁾

물론 탈자유주의 신학자들, 특히 Campbell의 생각은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다. 그리고 그는 인간적으로 가장 완전한 분이셨고 그의 비유 가르침은 모든 자들이 듣고 놀랐다. 그러므로 예수가 구세주이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의 사역을 어떻게 실행했는지도 중요한 것이다. 즉, 그의 사역들 가운데 비유인 은유, 직유, 환유(제유)를 활용하여 설교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사실은 지극히 존중받아야 마땅하다.⁹⁰⁾ 그 뿐 아니라, 비유란 예수님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인류는 비유를 사용하여 소통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설교 전달에 있어 비유의 중요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설교학자가 있다. 바로 Paul Scott Wilson이다. 물론 이후에도 전달 체계에 있어 비유 사용의 중요성에 관하여 언급한 수많은 설교(학)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논문은 지면상 Willson까지만 정리하겠다. Willson은 네 페이지 설교(*The Four Pages of the Sermon*)를 창안했다. 그러나 그도 신설교학의 계보에 서 있는 자이기에, 그의 네 페이지 설교도 신설교학의 영향 아래에서 완성된 것으로 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무튼 Willson은 설교를 마치 네 가지 영화의 장면들이나 웹페이지처럼 구성하여 청중들에게 설교가 보여 지는 것 같은 이미지를 그려 내려 노력했다.⁹¹⁾ 다시 말해, Willson은 영화나 웹페이지가 은유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서술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설교 작성법을 비유의 연속으로 직접 설

88) Warren W. Wiersbe, *Preaching & Teaching with Imagination: The Quest for Biblical Ministry*, 이장우 역, 『상상이 담긴 설교: 마음의 화랑에 말씀을 그려라!』 (서울: 요단, 1997), 58-59.

89) Charles L. Campbell, *Preaching Jesus: New Directions for Homiletics in Hans Frei's Postliberal Theology*, 이승진 역, 『프리칭 예수: 한스 프라이(Hans Frei)의 탈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한 설교학의 새 지평』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280-81.

90) Raymond Bailey, *Jesus The Preacher*, 이명희 역, 『설교자 예수』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1996), 55-78.

91) 첫 페이지는 성경 속에 있는 문체와 같듯, 둘째 페이지는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유사한 죄나 인간의 상처, 셋째 페이지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 본문에 있는 복음의 이야기 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넷째 페이지는 우리 시대에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활동하길 것에 대하여 유기적인 흐름에 따라 전개함. Paul Scott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주승중 역, 『네 페이지 설교』 (서울: WPA, 2006), 26-27.

명한다. 즉, 네 페이지 설교는 한 주제를 네 페이지에 나눠 설교 내용을 비유적으로 은유화시켜 나간다.

내가 고안한 네 페이지들은 네 개의 기본적인 신학적 초점을 밝힌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설교든 신학적으로 말하도록 해주는데 과거에 우리는 이런 것을 항상 잘 할 수 없었다. 물론 내가 여기서 사용하는 페이지는 문자 그대로의 페이지가 아니라 신학적 기능과 적절한 창의적 노력을 향한 하나의 은유로서의 페이지다. 네 페이지들은 네 개로 구성된 개별적인 설교의 순간들이다. 우리는 네 페이지들 각각을 명료하게 토론하고 분석해서 각 페이지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⁹²⁾

지금까지 전달 관점의 비유 연구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Willson 이외에도 많은 설교학자들이 전달 개념에서의 비유를 강조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논문은 지면상 Willson의 네 페이지 설교까지만 전달 관점의 비유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5. 비유 사용 방법

지금까지 해석과 전달 관점에서 비유가 어떻게 연구했는지를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또한 비유가 해석과 전달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지도 알았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비유 연구의 필요성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유를 어떻게 사용하여 전달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두 커뮤니케이션으로 전달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작금의 설교자들이 그림 언어와 행동 언어인 비유를 연구할 필요가 절실하다.⁹³⁾

그러나 신학(설교학)에서 비유를 전달 개념의 중요성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설교 작성 시의 비유 사용 방법에 관해서 쉽게 설명해 주는 자료들을 찾기 어렵다. 필자만의 심정일 수 있으나, 전반적인 설교학 관련 자료들에서는 비유 사용 방법을 간략한 설명과 예로 대치하고 있다는 것 같다. 정말 대부분의 설교(학)자들은 누구든지 비유는 습관적이고 일상 언어이기 때문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렇기에 단지 비유 사용의 중요성만 각인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혹은 설교(학)자들도 Aristoteles처럼 비유를 전달 체계로 사용하는 것이 배움이나 연마를 통해 습득될 수 없는 천부적인 재능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걸까? 왜냐하면 Aristoteles는 비유 사용의 이해를 *Rhétorique Livre* 『수사학』과 *Peri Poietikes* 『시학』을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유] 또한 하나의 은유다. 그렇다고 해서 은유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비교[유]는 산문에서도 유용하다. 그렇다고 해서 빈번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⁹⁴⁾ [비유]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은유[비유]에 능한 것이다. 이것만은[비유 사용만은] 남에게 배울 수 없는 것이며 천재[적인] 표징이다. 왜냐하면 은유[비유]에 능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물들의 유사성을 재빨리 간파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⁹⁵⁾

그러나 필자는 Wiersbe가 Aristoteles의 제안에 반대를 표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92) Wilson, 『네 페이지 설교』, 25.

93) 정창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설교』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2), 33-34.

94) Aristoteles, *Rhétorique Livre III*, 이종오·김용석 역, 『수사학 III』 (서울: 리젼, 2008), 42-43.

95) Aristoteles, *Peri Poietikes*, 천병희 역, 『시학』 (서울: 문예출판사, 1976), 134.

“은유[비유]를 학교에 다녀서 학위를 얻는 것같이 터득할 수는 없다는 이 위대한 철학자의 말에 나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그의 말이 은유[비유]를 이해하고 또 그 [사용] 용법을 배우는 일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라면 겸손하게나마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싶다.... 은유[비유] [사용]은 상상력을 사용하는 일이며 상상력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보면, 우리 모두는 은유[비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 재료를 내부에 이미 갖추고 있다는 뜻도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더욱이 은유[비유]를 터득해야만 한다. 설교자가 쓰는 언어 자체가 성립되는 방식이 은유[비유]이며, 사람들의 사고하는 방식도 은유[비유]고, 성경이 기록된 방식도 은유[비유]를 통해서이기 때문이다.”⁹⁶⁾

Long도 동의한다. 왜냐하면 그도 설교자가 재능이 아닌, 노력하는 자, 즉 연습하는 자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설교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들은 드물게 보는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시기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경우... 신실한 일반 설교자들의 설교에 의해 유지된다.... 설교는 피아노를 배우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음악적 자질이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은 음계를 익히고 반주법을 배운 후 악보를 외워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며 연습하는 길뿐이다.”⁹⁷⁾ 이런 점에서 탁월한 설교자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비유를 적절히 사용하고 전달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아마도 설교 작성 시의 비유 사용을 분명히 묵묵히 연습하고 노력하여 터득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교자가 설교를 작성할 경우에 비유를 어떻게 사용하여 성경 본문의 의미를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즉, 설교자가 비유를 사용하는 방법을 파악하고 터득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Buttrick은 예화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하여 반드시 세 가지인 (1) 설교 내용과 예화 사이에 분명한 유사성이 있는지, (2) 설교 내용의 구조와 예화 사이에 일정한 평행이 있는지, (3) 예화의 수준이 설교 내용에 적합한지를 점검할 것을 당부한다.⁹⁸⁾ Long도 Buttrick의 의견을 그대로 따른다. Long은 단지 Buttrick의 생각을 은유 형식의 예화, 직유 형식의 예화에 적용시킬 뿐이다. 다시 말해, Long은 Buttrick의 제안은 충분히 은유와 직유인 비유적인 측면으로 변형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비유는 예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Long은 자신의 책인 *The Witness of Preaching* 『증언하는 설교』에서 비유의 한 종류인 환유(제유) 형태의 예화를 따로 설명한다. 아마도 Long은 환유(제유)이 Buttrick의 제안에 꼭 들어맞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⁹⁹⁾

그러나 필자는 Buttrick의 제안이 비유의 종류인, 은유와 직유를 사용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Buttrick의 제안을 수정, 보완하면 비유의 종류인 상징과 환유(제유)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써도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상징과 환유(제유)는 모두 비유의 개념체계에 속하는 표현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선 비유는 성경 본문 내용과의 유사성 또는 인접성 유무에 의해, 효과적인 전달이 달라지는 개념 체계다. 즉, 비유의 유사성과 인접성이 얼마나 설명 내용과 일치하느냐에 따라 효과적인 전달은 달라진다. 그리고 성경 본문 내용과 비유의 유사성은 은유, 직유 혹은 상징으로, 비유의 인접성은 환유와 제유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설교 내용과 비유가 아무리 유사성이나 인접성의

96) Wiersebe는 자신의 책인 『상상이 담긴 설교』에서 Aristoteles의 신학의 내용만 직접 언급했다. 그러나 그의 수사학은 간략히 소개만 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Wiersebe는 Aristoteles의 생각에 반기를 든다. 필자는 Wiersebe가 책에서 주장한 바를 논문에 어울릴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동의를 표한다. Wiersbe, 『상상이 담긴 설교: 마음의 화랑에 말씀을 그려라!』, 62-63.

97) Long, 『증언하는 설교』, 30-31.

98) Buttrick, *Homiletic: Moves and Structures*, 133.

99) Long, 『증언하는 설교』, 284-300.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용할 비유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를 묻는 적합성을 판단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용할 비유가 혹시 비속어, 저속어, 외래어 등과 같이 적합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Buttrick의 세 가지 질문을 적합하게 변형시켜 다음과 같이 비유 사용 방법을 유사성 또는 인접성, 일치성, 그리고 적합성으로 제안할 것이다.

- (1) 유사성 또는 인접성: 성경 본문 내용과 비유 사이에 분명한 유사성과 인접성이 있는가?
- (2) 일치성: 성경 본문 내용과 비유 사이에 얼마큼 일치하는가?
- (3) 적합성: 비유가 과연 설교 내용에 적합한가?

그러나 비유 사용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자는 이 세 가지 질문 외에 두 가지를 첨가할 것이다. 첫째, 문화 관습성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성이다. 먼저 비유는 관습적이고 일상적인 구두 개념체계란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비유는 문화와 관습 속에서 생성되고 발전한다. 그렇다면 문화와 관습 속에서 비유로서 가장 발전한 형태는 무엇일까? 바로 각 나라마다 통용되는 속담(격언)이 아닐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속담(격언)은 모두 비유의 종류인 은유, 직유, 상징, 환유(제유)로 표현된 일상 언어이기 때문이다.¹⁰⁰ 다시 말해, 각 나라의 문화와 관습 속에서 예부터 발전한 격언이다. 그리고 속담(격언)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것들이 탄생하기도 한다.¹⁰¹ 결국, 속담(격언)은 대화나 글에 생동감을 불어 넣는 좋은 양념이 될 수밖에 없으나, 문화와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동질감을 경험케 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필자는 비유 사용 방법에서 한 가지인 ‘문화 관습성: 혹시 성경 본문 내용과 어울릴 수 있는 속담(격언)은 없을까?’ 물론 설교자는 성경 본문과 어울릴만한 속담(격언)을 생각하거나 찾을 수 없을 수도 있다.

둘째, 처음 인류는 소통의 수단인 말이 없었기에, 상대방과 점토, 돌덩이, 또는 흙판에 환유(제유)적인 상징 그림으로 대화했다. 가령 동물을 표현할 때, 가장 두드러진 부분을 부각시켜 그렸을 것이다.¹⁰² 그리고 이러한 소통 방식은 근본적으로 비유의 개념체계에 속한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 동안 인류는 이러한 상징적인 환유(제유)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구두라는 전달 매체와 함께 (무)의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감성을 이끌어내어, 상대방의 이성을 설득시켰다. 다시 말해, 우리는 비유를 말하면서 그 비유를 표현할만한 환유(제유)적인 행동을 자연스럽게 섞어서 표현한다. 그러므로 비유 사용 방법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 점은 사용한 비유를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환유(제유) 행동이다. 물론 모든 비유가 반드시 상징적인 환유(제유) 행동을 동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환유(제유) 행동이 비유적인 표현이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비유 사용 방법을 위한 추가적으로 ‘행동성: 사용한 비유를 표현할만한 상징적인 환유(제유) 행동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비유 사용 방법은 지금까지 소개한 것들을 재배열한다면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유사성 또는 인접성: 성경 본문 내용과 비유 사이에 분명한 유사성과 인접성이 있는가?
- (2) 일치성: 성경 본문 내용과 비유 사이에 얼마큼 일치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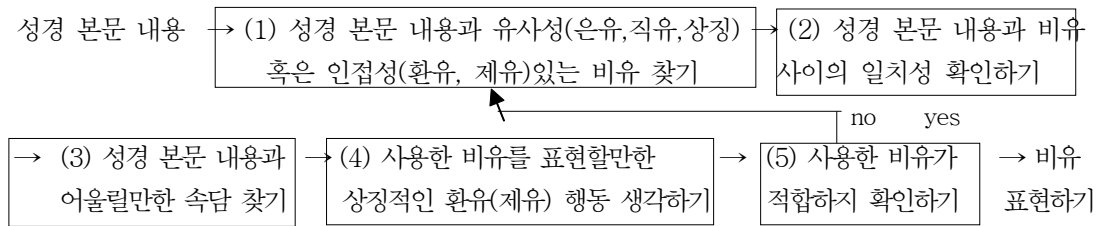
100) 조남호, 『구술 서말을 케어 보내로 만드는 속담 활용 글쓰기』 (서울: 랜덤하우스, 2008), 46.

101) 조남호, 『구술 서말을 케어 보내로 만드는 속담 활용 글쓰기』, 16.

102) Crowley & Paul Heyer,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11-12.

- (3) 문화 관습성: 혹시 성경 본문 내용과 어울릴 수 있는 속담(격언)은 없을까?
- (4) 행동성: 사용한 비유를 표현할만한 상징적인 환유(제유) 행동이 있는가?
- (5) 적합성: 사용한 비유가 과연 설교 내용에 적합한가?

그리고 일련의 효과적인 비유 사용을 위한 방법을 아래의 종합적인 절차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III. 나가는 글

논문을 접하는 사람들 가운데 설교 내용에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른다. 또한 논문은 계속해서 작금의 교회 환경으로 인하여 비유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설교(학)자들 가운데 여전히 비유를 사용하는데 인색하거나 오히려 설교 작성하면서 즉흥적으로 비유를 사용하면 될 것 아닌가?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설교(학)자 가운데 자신의 설교는 생동감 있는 어휘와 탁월한 예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유의 불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설교자는 설교를 작성할 때에, 비유를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사용한다. 왜냐하면 비유는 일상적인 표현이며, 관습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누구나 설교 작성 시에 비유를 사용하되, 비유를 사용하는 분량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설교자는 누구나 청중에게 설교가 잘 들려지게 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자다. 또한 이 거룩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하는 자도 설교자이다. 그리고 설교자는 설교 내용을 한 줄 채우기 위해 밤새 씨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고 타당하게 표현하기 위해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교회 안에서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작금의 시대는 이야기가 넘쳐나는 홍수 시대이다. 우리는 온종일 수많은 이야기를 접하고 울고 웃으며 살아간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은 만들어 진다. 이런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전하고 들어야 할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다. 우리가 이 구속 이야기가 다른 것들을 혼합하여 이야기한다면 과연 청중이 구속 이야기를 순수하고 생동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설교를 작성할 때,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성경 본문 그대로 순수하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한 언어 사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교자는 비유 사용을 위한 선택, 주의사항, 방법 등을 분별 있게 연구해야 한다. 즉, 설교자는 설교 내용의 방점을 찍는 비유를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비유 사용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¹⁰³⁾ 그러므로 설교자라면 필자가 소개한 비유 사용 방법을 한번쯤 생각해 보고 비유를 조심스럽게 설교 내용에 사용하여 설명해 나갈 것이다.

103) David J. Randolph, *The New Homiletics in the Age of Media*, 황병준·박상일 역,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설교학』 (고양: 올리브나무, 2015), 116-17.

[참고문헌]

- Akin, Daniel L. "Illustrations: Helping Your People see Bible Truth in Action". in *Engaging Exposition: A 3-D Approach to Preaching*. eds. Daniel L. Akin, William J. Curtis and Stephen N. Rummage. Nashville: B & H Publishing Group, 2011.
- Allen, O. Wesley. "The Pillars of the New Homiletic", in *The Renewed Homiletic*. ed. O. Wesley Allen.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0.
- Aristoteles. *Peri Poietikes*. 천병희 역. 『시학』. 서울: 문예출판사, 1976.
- Aristoteles. *Rhétorique Livre III*. 이종오·김용석 역. 『수사학 III』. 서울: 리젯, 2008.
- Bailey, Raymond. *Jesus The Preacher*. 이명희 역. 『설교자 예수』.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1996.
- Blomberg, Craig L. *Preaching the Parables*. 이우제 역. 『비유 설교』. 서울: 크리스찬, 2006.
- Bohren, Rudolf. *Predigtlehre*. 박근원 역. 『설교학원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6.
- Buttrick, David. *Homiletic: Moves and Structur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 Campbell, Charles L. *Preaching Jesus: New Directions for Homiletics in Hans Frei's Postliberal Theology*. 이승진 역. 『프리칭 예수: 한스 프라이(Hans Frei)의 탈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한 설교학의 새 지평』.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 Chapell, Bryan. *Christ-Centered Preaching: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 김기제 역.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서울: 은성, 1999.
- Chapell, Bryan. *Using Illustrations to Preach with Power*. Illinois: Crossway Books, 2001.
- Craddock, Fred B. *Preaching*. 김영일 역. 『설교: 열린 체계로서의 귀납적 설교방식』. 서울: 권콜디아사, 1989.
- Crossan, John Dominic. *The Power of Parable: How Fiction by Jesus became Fiction about Jesus*. 김준우 역. 『비유의 위력』.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12.
- Crowley, David & Paul Heyer. *Communication in History Technology, Culture, Society*. 김지운 역.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 Dancygier, Barbara & Eve Sweetser. *Figurative Language*. 임지룡·김동환 역. 『비유 언어: 인지 언어학적 탐색』. 서울: 한국문화사, 2015.
- Davies, Horton. *The Worship of the American Puritans(1629-1730)*. 김석한 역. 『청교도 예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Gardner, Howard. *The Disciplined Mind*. 류숙희 역. 『인간은 어떻게 배우는가: 인지과학이 발견한 배움의 심리학』. 서울: 사회평론, 2015.
- Gowler, David B. *What are They Saying about the Parables?*. 김세현 역. 『최근 예수의 비유 연구 동향』. 서울: CLC, 2015.
- Härtner, Achim & Holger Eschmann. *Predigen Lernen: Ein Lehrbuch für die Praxis*. 손성현 역. 『다시 설교를 디자인하라!: 좋은 설교를 위한 실제적 안내』. 서울: kmc, 2014.
- Jeter, Joseph. "Posturing in Borrowed Plumes: An Introduction to Preaching and Plagiarism". 『Encounter』. 제66권 (2005, 여름): 293-300.
- Jeremias, Joachim. *Rediscovering the Parables*. 황종렬 역. 『비유의 재발견(예수의 비유 축소판)』. 칠곡: 분도출판사, 1991.

- Klein, William W, Craig L. Blomberg & Robert L. Hubbard.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류호영 역. 『성경해석학 총론』.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 Lakoff, George & Mark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노양진·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박이정, 2006.
- Lewis, Peter. *The Genius of Puritanism*. 서창원 역. 『청교도 목회와 설교』. 서울: 청교도 신앙사, 1991.
- Lloyd-Jones, D. Martyn. *Preaching and Preachers*. 정근두 역. 『설교와 설교자』. 서울: 복있는 사람들, 2005.
- Long, Thomas G. *Preaching and the Literary Forms of the Bible*. 박영미 역. 『성서의 문학형식과 설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 Long, Thomas G. *The Witness of Preaching*. 이우제·황의무 역. 『증언하는 설교』. 서울: CLC, 2007.
- Lowry, Eugene L. *How to Preach a Parable: Design for Narratives Sermons*. 이주엽. 『설교자여, 준비된 스토리텔러가 돼라』. 서울: 요단, 1999.
- Mathewson, Steven D. *The Art of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 이승진 역. 『청중을 사로잡는 구약의 내러티브 설교』. 서울: CLC, 2004.
- Randolph, David J. *The New Homiletics in the Age of Media*. 황병준·박상일 역.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설교학』. 고양: 올리브나무, 2015.
- Robinson, Haddon W. "Using Someone Else's Sermon". in *The Art and Craft Biblical Preaching*. eds. Haddon W. Robinson & Craig B. Larson. Grand Rapids: Zondervan, 2005.
- Ruben, Zimmermann. "Are there Parable in John? It is Time to Revisit the Questio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Historical Jesus」. 제9권(2011, ?): 243-76.
- Ryle, John C. *Simplicity in Preaching*. 장호준 역. 『단순하게 설교하라』. 서울: 복있는 사람, 2012.
- Scott, Benard Brandon. *Re-Imagine the World: A Introduction to the Parables of Jesus*. 김기석 역. 『예수의 비유 새로 듣기』.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6.
- Shelley, Carter. "Stolen words: A Brief History and analysis of Preaching and Plagiarism". 「Encounter」 제66권 (2005, 8): 301-16.
- Spurgeon, Charles H. *Lectures to My Student's vol. III*. 김기찬 역.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예화 사용 기술(3)』. 서울: 생명의 말씀사.
- Stein, Robert H. *An Introduction to the Parables of Jesus*. 오광만 역. 『예수님의 비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따뜻한 세상, 2011.
- Stott, John R. W. *Between Two Worlds*. 정성구 역. 『현대 교회와 설교』. 서울: 생명의 샘, 1992.
- Wiersbe, Warren W. *Preaching & Teaching with Imagination: The Quest for Biblical Ministry*. 이장우 역. 『상상이 담긴 설교: 마음의 화랑에 말씀을 그려라!』. 서울: 요단, 1997.
- Willimon, William H. & Richard Lischer. *Concise Encyclopedia of Preaching*. 이승진 역. 『설교학 사전』. 서울: CLC, 2003.
- Willimon, William H. *A Guide to Preaching and Leading Worship*. 김윤규 역. 『예배와 설교 클리닉』. 서울: 한들 출판사, 2014.

- Wilson, Paul Scott.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주승중 역. 『네 페이지 설교』. 서울: WPA, 2006.
- 곽안련. 『설교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 권호. “폭로, 경제소멸의 미디어 사회 속에서의 설교학적 전망”.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 신학. 「복음과 실천신학」. 제36권 (2015, 여름): 9-40.
- 김대현. “설교자의 올바른 감정 사용에 대한 제언: 본문의 감정을 살리는 설교”.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36권(2015): 41-88.
- 김지찬. 『언어의 직공이 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 목회와 신학 편집부. 『한국 교회 설교분석』.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 박성환. “신설교학에 관한 소고와 Martyn Lloyd-Johnes의 설교학적 통찰력”. 한국성경신학회. 「교회와 문화」. 제28권 (2012, 겨울): 127-59.
- 박성환. “Eugene L. Lowry의 설교학적 고집: 로우리 고리(Lowry Loop)의 발전과 평가”.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67권 (2013, 가을): 99-134.
- 박성환. “비유 해석과 설교: 예수의 비유를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36권(2015, 여름): 217-50.
- 박성환, 『초보 설교자를 위한 설교 가이드』 (서울: 큰샘 출판사, 2016),
- 박원철. 『개혁주의 설교의 원리』.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7.
- 이한수. 『비유와 해석학』.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89.
- 임지룡 외. 『비유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파주: 대학사, 2015.
- 정종성. “비유 해석과 설교: 복음서의 겨자씨 비유를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67권 (2013, 가을): 323-64.
- 정창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설교』.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2.
- 정창균. “설교 형식의 다양화와 효과적인 설교 전달”. 한국신학정보연구원.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제45권(2008, 겨울): 4-11.
- 조남호. 『구술 서말을 퀘어 보내로 만드는 속담 활용 글쓰기』. 서울: 랜덤하우스, 2008.
- 최창국. “멘토링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림 언어의 기능”.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36권(2015, 여름): 251-88.

‘설교 작성에 있어 비유 활용의 중요성과 방법’에 관한 논평

박태현(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

연구자는 설교 작성에 있어서 메시지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비유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이에 따른 비유 활용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본 논문의 핵심 주제로 삼는다. 연구자는 예화 사용의 그 활용에 따른 장단점을 제시한 후, “설교(학)자는 예화 사용에 주의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예화의 한 부분인 비유를 활용한 예화 사용법을 소개한다.

먼저, 연구자는 예화의 한 부분인 비유 활용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설교자가 1-3문장, 구절 혹은 단어로 구성된 비유를 사용한다면, 현 시점에서 타당하고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자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1) 설교 시간의 단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2) 예화 출처와 표절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3) 예화 사용시 발생하는 본문 이탈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연구자는 비유의 정의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비유는 통상적으로 짧은 이야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비유는 관습적, 일상적, 그리고 시각적 장면을 청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상상력을 자극하여 공감을 일으킨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만이 유일하게 함축적인 의미를 표현할 때, 주로 비유를 사용한다”고 연구자는 지적한다.

셋째, 연구자는 비유의 종류로서, (1) 은유와 직유, (2) 환유와 제유, (3) 상징 - 상징적인 은유 언어와 상징적인 환유(제유) 행동을 거의 5페이지에 걸쳐 길게 소개한다.

넷째, 연구자는 비유에 대한 연구 역사를 두 가지 관점에서 관찰하고 소개한다. (1) 해석 관점에서의 비유 연구에서는 Strauss, Jülicher, Dodd, Jeremias, Wilder, Funk, Via, Crossan, Scott, Blomberg가 제시하고 주장한 바를 소개한다. (2) 전달 관점에서의 비유 연구는, 즉 설교 전달에서의 비유 사용에 대한 연구는 칼빈과 청교도들, 그리고 19세기의 Spurgeon, 20세기의 Craddock, Buttrick, Lowry, Long, Chapell, Wiersbe, Campbell, Wilson을 소개하며 그들의 특징과 기여점들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메시지 전달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자신의 비유 활용법을 소개한다. 연구자는 Buttrick의 예화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자신의 비유 활용법의 기초석으로 삼는다. (1) 설교 내용과 예화 사이에 분명한 유사성이 있는가? (2) 설교 내용의 구조와 예화 사이에 일정한 평형이 있는가? (3) 예화의 수준이 설교 내용에 적합한가? 그리고 연구자는 여기에 두 가지, 문화 관습성과 행동성을 덧붙여 자신의 비유 활용법을 구축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종합적인 절차 모형을 제시한다.

2. 논문의 공헌

연구자가 지적하듯이, 비유가 설교 전달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하면서도 설교 작성시 비유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과 자료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형편에서 연구자가 Buttrick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예화의 세 가지 조건을 기초하여 자신만의 수정된 비유 활용법을 제시한 것은 효과적인 설교 전달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3. 토의할 문제들

첫째, 연구자의 예화의 한 부분인 비유 활용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한 첫 번째 논의에 대한 질문이다. 연구자는 “설교자가 1-3문장, 구절 혹은 단어로 구성된 비유를 사용한다면, 현 시점에서 타당하고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고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1) 설교 시간의 단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2) 예화 출처와 표절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3) 예화 사용시 발생하는 본문 이탈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연구자는 비유를 통해 이 세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 아쉽다. 단지 “비유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본문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가능해 질 것”, “비유는 출처나 표절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달 체계의 표현 방법이기 때문”,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설교 내용을 조명할 수 있다면, 청중들의 성경 본문 이탈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연구자는 비유를 “통상적으로 짧은 이야기를 의미한다”고 정의하되, 비유의 종류로서 제시한 (1) 은유와 직유, (2) 환유와 제유, (3) 상징은 짧은 이야기의 성격을 갖기보다는 짤막한 단문적 성격의 비유들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야기로서의 비유라기보다는 단순한 구문의 비유들에 대한 해설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셋째, 논문의 형식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주의 깊은 퇴고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본 논문의 첫 문장, “설교자는 설교를 이성과 논리라는 재료로 건축한 집으로, 예화는 집에 빛이 들어오는 창문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한다”에서 설교의 재료가 이성과 논리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그리고 Willson 이외에도 많은 설교학자들이 전달 개념에서의 비유를 강조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논문은 지면상 Willson의 네 페이지 설교까지만 전달 관점의 비유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는 두 문장은 앞서 “그러나 논문은 지면상 Willson까지만 정리하겠다”고 밝혔으므로 생략해도 좋다.

그 외에도 급하게 글을 쓴 까닭인지, 오타가 많이 눈에 띄고, 블록인용을 해야만 하는데도 그렇게 처리하지 못한 것들, 책 제목이 이태릭체로 통일되지 못한 것들, 등등 형식적 측면에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발표한 본 논문은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순수하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려는 설교자의 거룩한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하는 자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연구자는 효과적인 설교 전달을 위한 비유의 활용을 주장하는 동시에 비유 활용에 관련된 언어의 선택, 주의사항, 방법 등을 분별 있게 연구하기를 촉구하고 있어서 본 논문은 오늘날 설교(학)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다고 확신하며,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신 박성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 작성에 있어 비유 활용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논평

김대진 박사(고려신학대학원)

연구자는 “설교 시간의 단축 문제”, “예화 출처와 표절 문제”, 그리고 “예화 사용 때에 나타나는 본문 일탈 현상 문제”와 같은 “예화 사용의 문제점을 설명한 후, 비유 사용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비유 사용에 대한 연구 역사를 면밀히 검토한 후 구체적으로 설교에 있어서 비유사용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는 비유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시각화 혹은 이미지화 그리고 상상력의 자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설교 전달의 효과적인 도구임을 증명한다. 연구자는 비유는 통상적으로 짧은 이야기를 의미하며 “관습적, 일상적, 그리고 시각적 장면을 청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상상력을 자극하여 공감을 일으킨다.”고 정의하고 있다.

논문의 공헌도

연구자는 “신학(설교학)에서 비유를 전달 개념의 중요성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설교 작성시의 비유 사용 방법에 관해서 쉽게 설명해 주는 자료들을 찾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Buttrick의 세 가지 질문을 적합하게 변형시키고 연구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비유사용의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1) 유사성 또는 인접성: 성경 본문 내용과 비유 사이에 분명한 유사성과 인접성이 있는가?
- (2) 일치성: 성경 본문 내용과 비유 사이에 얼마큼 일치하는가?
- (3) 문화 관습성: 혹시 성경 본문 내용과 어울릴 수 있는 속담(격언)은 없을까?
- (4) 행동성: 사용한 비유를 표현할만한 상징적인 환유(제유) 행동이 있는가?
- (5) 적합성: 사용한 비유가 과연 설교 내용에 적합한가?

본 논문은 예화 위주 설교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비유 사용을 제안함으로써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공헌도가 있다 하겠다. 특별히 연구자의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는 연구는 한국 교회 설교자들에게 구체적인 방향과 실천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논문의 보완점과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을 제시해 보겠다. 논평자는 연구자가 언급했던 Charles L. Campbell의 우려를 - “나사렛 예수가 비유의 특성을 규정 짓고 있는 것이지 거꾸로 비유가 예수를 규정지을 수 없는 것이다.”- 목회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Campbell의 우려대로 설교자의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못 규정지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구자가 제시한 “문화 관습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청중의 잘못된 듣기에서 기인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Quicke와 Cilliers도 자세하게 지적한 적이 있다. 그들은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

운 이미지들이 오늘날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계속해서 만들어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타이타닉의 이미지와 나이든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다르다는 점이다. 젊은 세대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와 그 이후 꽤러디 되는 영상들을 통해서 타이타닉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로맨틱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타이타닉의 침몰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이미지를 형성한 나이든 세대는 타이타닉은 첨단 기술과 화려함의 침몰이라는 비극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청중의 이미지가 다를 수 있고, 이 문제로 설교 전달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될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설교자들이 설교 시에 비유를 사용할 때 설교자들이 알지 못하는 심각한 이미지의 변화와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비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지의 차이에 대한 또 다른 예는 “양자”의 이미지에 대한 예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로마서 8:15). 이 말씀을 당회원 성경공부시간에 공부하다가 연세든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양자에 대한 이미지가 본문의 의도를 심각하게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유교적 관점에서 오는 이미지로 ‘친자’와 ‘양자’의 차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이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미지와 청중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다름에서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다. 설교자가 청중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본문의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또 하나의 예는 많은 설교자들이 교회를 구경꾼으로 다니지 말고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섬기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입니다.”라는 비유를 사용하곤 하는데 과연 이런 비유가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구성원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라는 점이다. 설교자의 의도를 청중이 심각하게 오해해서 진짜 교회의 주인노릇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설교자의 자의적인 비유 사용이 본의 아니게 성경의 이미지를 왜곡 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등장한다. 설교자가 심사숙고해서 적절하게 비유를 사용한다고 해도 오늘날의 청중이 그것을 전혀 다른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논평자가 제시하고 싶은 보완점은 설교에 비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설교자의 관점뿐만 아니라 청중의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요즈음 아파트가 고향인 아이들에게 초원 혹은 풀밭은 벌레 많은 위험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설교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인도한다고 설교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 당시의 자연환경을 설명하고 양들에게 풀밭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면서 푸른 초장의 이미지를 바로 잡아 주는 작업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다시 말해 설교자가 자의적인 비유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성경의 이미지를 고수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고백한다. 비유라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비유의 내용이 영감 된 말씀이기에 비유의 내용을 즉 성경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닌지? 연구자에게 묻고 싶다. 아울러 성경을 왜곡하는 비유의 예로 이단들의 비유 사용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단들이 비유를 사용하여서 성경의 본 의도와는 다르게 성경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극복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질문은 연구자가 주장하는 비유의 중요성과 성경적 알레고리 해석은 어떤 연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 알레고리 해석에 근거해서 작성한 루터의 많은 설교들은 연구자가 주장하는 비유의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는가? 연구자가 Blomberg를 인용해서 지적한 것처럼 "비유가 풍유적인(알레고리적인) 요소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비유가 풍유적인 요소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기에 설교에 있어서 '비유의 중요성'은 설교에 있어서 '알레고리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 점을 가지게 된다.

[자유발표 2]

삶을 변화시키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위한 소고

발표



이우제 박사
(백석대)

좌장



김순성 박사
(고려신대원)

논평1



박현신 박사
(총신대)

논평2



임도균 박사
(침신대)

삶을 변화시키는 요한 계시록 설교를 위한 소고: 목회자, 신학자, 시인으로서의
설교자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An Investigation of Life-Changing Sermon on the Book of Revelation:
Focused on the Identity of the Preacher as a Pastor, Theologian, and Poet)

이우제(백석대학교)

I. 서론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되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요한계시록은 한국 교회 안에서 두 극단적인 태도로 설교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지나친 결핍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나친 과잉의 형태이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건전한 기독교 신앙을 표방하는 교회 안에서 요한 계시록의 해석과 설교는 전무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본문에 편중되어 다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적지 않은 요한 계시록의 본문이 교회 안에서 마치 한 번도 그 자태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처녀림으로 존재하는 것은 가슴 아픈 현실이다. 기존 교회의 형편이 이렇다 보니, 요한 계시록은 오히려 불건전한 종말론적인 신앙의 온상이 되거나, 기독교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요한 계시록에 대한 기존 교회의 지나친 결핍이 나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요한계시록은 그동안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홀대(?)를 받게 된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한 견해가 사람마다 천양지차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바르게 해석하고 설교하기가 어렵다는 뿌리 깊은 편견 때문이라는 점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존 칼빈(John Calvin)같은 위대한 신학자도 요한계시록을 3장까지 밖에는 주석하지 않았을 정도로 어려운 책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했다. 물론 성경의 다른 책들에 비해서 요한계시록이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다. 산 등정에 비유해서 말한다면, 요한 계시록에는 유난히도 높고 험한 봉우리들이 많이 있다. 그러기에 요한 계시록을 해석하고 설교하는데 있어서 자만은 절대로 금물이다. 나의 해석만이 절대적이라는 독선에 빠져서는 안 되고, 한 없이 겸손한 자세가 요청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 아예 설교하기가 불가능한 책으로 여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 우리들의 한계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천상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계시록의 핵심 근간이 되는 핵심 메시지(교훈)는 너무나 확실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기존 교회가 지나칠 정도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산에 입산하기를 두려워하는 사이에, 불건전한 종말론을 주창하는 사람들과 기독교 이단들이 중요한 고지를 점령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성도들에게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국 교회의 상황을 직시하여, 이제라도 요한계시록이 신실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사용되는 단골메뉴가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들이 계시록 앞에 붙어 있는 “접근 금지”의 팻말을 떼어내고, 요한계시록의 숲 속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입산을 해야만 한다. 요한계시록을 나머지 성경 65권의 말씀과 분리된 부록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의 성경 계시와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성경 전체의 문맥을 떠난 요한계시록 해석과 설교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문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의 계시는 하나의 퍼즐을 완성하는 것과 같다. 퍼즐의 각 부분 부분이 모여야 전체 퍼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의 각각의 본문은 씨줄과 날줄처럼 서로 촘촘한 연결망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 물론 성경의 계시는 매우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경의 다양성을 놓치면 성경 본문의 메시지를 획일화 시키는 우를 범하게 된다. 그러나 성경의 다양성이 성경의 통일성을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성경은 전체적인 통일성 안에서 각 본문의 주제와 내용이 독특한 맛을 살려내도록 기록된 책이다. 이면에서 성경의 한 본문에 대한 해석은 전체와 분리된 채 과편화되거나 고립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선택한 개별 본문의 해석은 그 이전의 계시와 그 보다 더 발전된 계시의 빛 아래서 읽고 해석되어야만 한다. 즉 성경의 유기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성경의 한 부분의 해석이 그 본문을 둘러싼 인접 문맥이나 더 넓은 문맥 그리고 성경 전체의 구속적이고 정경적인 문맥에서 해석되지 못하면 성경 해석은 미궁에 빠지고 만다. 본문이 문맥을 떠나면 구실에 불과하다는 말이 사실임이 입증되고 말 것이다. 문맥을 고려해서 읽어야 하기에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길성남 교수는 다니엘 도리아니의 유비를 인용하여 “문맥”을 연못에 떨어진 돌이 만들어내는 여러 겹의 동심원으로 설명한다.

돌이 떨어진 지점을 본문이라고 한다면 연못 가장자리로 퍼져 나가는 동심원들은 그 본문의 문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심부(본문)에 가장 가까운 동심원은 인접문맥이며 중심부에서 먼 동심원은 말 그대로 먼 문맥입니다. 동심원이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본문의 의미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인접 문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까운 문맥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먼 문맥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체로 (1)본문 앞뒤의 인접 문맥, (2) 단락, (3) 본문이 속한 장, (4) 본문이 속한 책, (5) 구약 또는 신약 성경, (6)성경 전체의 순으로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¹⁾

동일한 맥락에서, 스카이 제서니(Skye Jethani)는 이렇게 성경의 어느 본문(특히 요한계시록 본문)을 해석할 때 문맥을 고려하지 못하고 성경의 전체 이야기로부터 분리되어질 때 나쁜 신학에 근거한 불건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기독교가 자리 잡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례로 성경 해석의 오해로 인해 생긴 잘못된 종말론의 문제를 지적한다.

처음부터 기독교는 미래에 집중하는 신앙이었다. 또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지막 때에 마음을 뺏긴 사람들이 많다. 신학자들은 이를 종말론이라고도 하는데 마지막 것들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이 주제를 다룬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통속적인 기독교(pop Christianity)는 언제나 마지막이 될지 예측하는 일에 열중한다. 관심이 엄청나다 보니 더불어 혼란스러움도 생겨났다. 간단히 말해서 나쁜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났다. 몇몇 학자가 지적하듯이 미래에 대한 대중적인 믿음은 대개 미래 자체에 대한 의미 있는 내용보다는 그런 믿음이 나타나게 된 문화적 배경과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 나는 미래에 대한 기독교의 비전이 그 비전을 담고 있는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괴리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한다.”²⁾

1) 길성남,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서울: 성서 유니온, 2014), 191-2.
2) 스카이 제서니, 『하나님의 도시』, 이대은 역 (서울: 조이 출판사, 2015), 39.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성경 전체와 연계되어져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설교가 지향해야 할 목표도 역시 전체 성경의 목표와 동일해야 할 것을 알게 해 준다. 그렇다면 성경 66권이 지향하는 전체 목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견해에 집중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목적을 분명히 성도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³⁾ 이러한 성경의 기능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계속되는 17절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로 하여금 먼저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라면 이러한 성경적인 정신에 근거하여 행하게 되는 우리들의 설교의 목적도 역시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설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늠케 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공동체의 진정한 삶에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삶의 변화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설교자들이 요한계시록 설교 하는 이유는 단지 사이버 종말론의 도전과 이단들의 집요한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기독교 신앙의 변증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그들의 공격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도 요한계시록을 설교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지만, 결코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보다 더 중요한 목적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즉 신앙 공동체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묻고 싶다. 과연 그동안 한국 교회의 요한계시록 설교는 신앙공동체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이라는 과녁을 명중시키기 위한 시도이었는가? 요한계시록이 고작 기존교회에서는 사이버 종말론과 이단 방지를 위한 변증서 내지는 부록 정도로 취급되어져 온 것은 유감이다. 성경 65권과 같이 요한계시록도 역시 신앙공동체를 변화 시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선포되어야 하는 책이다. 이단들의 기승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정도를 넘어서 성도들의 일상의 생활 속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케 하는 삶을 위한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이 로마제국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듯이, 오늘도 성도들도 여전히 바벨론 제국의 도전 가운데 신음하며 살고 있다. 비록 박해의 형태를 띠고 바벨론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지는 않지만, 일상적 제국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 낼 것인가가 요한계시록 설교의 중심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의도는 바로 이러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요한계시록 설교에 대한 길을 모색하려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목회자, 신학자, 그리고 시인으로 기록했다는 유진 피터슨의 제안과 설명에 기초하여 그 세 가지 이미지를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 방향과 연결시켜 논의해 보고자 한다.⁴⁾ 설교자로서 사도 요한의 목회자, 신학자, 그리고 시인으로의 정체성을 삶을 변화시키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위한 중요한 길을 제시해 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3) Murray Capill은 딤후3:16절에 기초하지만 그것을 보다 확대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하나님 말씀의 기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그의 설명을 들어보자. 그것은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교리를 책망하는 기능, 경건을 삶을 살도록 믿는 자를 훈련하고 잘못된 삶의 패턴을 고쳐주는 기능,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테스트 하고 죄를 판결하는 기능, 그리고 청중의 개별적인 필요를 따라 성도를 격려하고 촉구하는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Murray Capill, *The Heart is the Target* (Phillipsburg: P & R Publishing, 2014), 57-71.

4) 유진 피터슨, 『목사: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 홍병룡 역 (서울: IVP, 2002), 19-29를 보라.

II. 설교의 참된 목적인 청중의 삶의 변화

설교는 마치 활을 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활을 쏘는 사람치고 향방 없이 마구잡이로 활시위를 당기는 법은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활을 쏘기에 앞서 깊이 숨고르기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과녁”(target)을 정조준하며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활시위(현)을 당겨 활을 쏘게 된다. 이렇듯 설교는 아무런 목적 없이 본문의 내용(content)을 마구잡이로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청중을 설득하는 행위이다. 즉 설교는 단지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을 넘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설득적인 말하기인 셈이다. 설교자가 분명한 목적이 없이 설교하면 당연히 그 설교를 듣는 청중도 방향을 놓치고 혼란스러워 할 수 밖에 없다.⁵⁾ 흔히 본문에 대한 핵심 주제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는 작업을 설교의 초점(focus) 맞추기”라고 한다면, 본문이 청중들에게 행하는 바를 찾는 작업을 설교의 기능(function) 파악하기라고 할 수 있다. 종전에는 설교를 그저 본문의 핵심 사상과 개념을 잘 추출해 내어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설교란 “무언가를 말하는 것” 만이 아니라 그 말하려는 것을 가지고 청중들과 함께 행하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토마스 롱(Thomas Long)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설교자는 본문이 말하는 것과 본문이 하고 있는 것을 모두 설교로 가져가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본문이 말을 통해 하고 있는 것을 가져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핵심 사상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절반밖에 옳지 않다. 물론 본문은 무엇인가를 말한다. 즉 사상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들은 본문이 무슨 일인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 말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절반밖에 옳지 않다. 내용(content)과 의도(intention)는 단단히 결속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만으로 온전한 영향력을 가진 본문이 될 수 없다.”⁶⁾

이렇게 본문의 초점을 설명하는 것을 “초점 진술”이라고 한다면, 본문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을 “기능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롱에 따르면, “초점진술”이란 핵심적이고 지배적인 전체 설교 내용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주제에 대한 간략한 진술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무엇에 관한’ 설교인가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기능 진술“이란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 회중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일이나 사건에 대한 진술이다. 설교는 회중에게 무엇인가를 주장한다. 이것은 회중의 변화를 촉구하는 또 하나의 의사전달 방식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발생했던 것을 더욱 깊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기능 진술이란 바른 변화에 대한 목록이다.”⁷⁾ 그렇다면 설교는 단지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전달만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의도를 분명히 해야 하는 작업인 셈이다. 설교는 목적지가 정해지 않은 채 그저 빠른 속도를 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분명한 방향과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설교가 궁극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포되어야 하는가? 과녁을 분명히 정하여 행하는 설득행위라고 할 수 있는 설교는 “청중의 특정반응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청중의 변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⁸⁾ 제이 아담스는 청중의 변화를

5) Jay E. Adams, *Preaching with Purpose*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s Publishing Company, 1982), 1.

6) 토마스 롱, 『증언하는 설교』, 이우제, 황의무 옮김 (서울: CLC, 2007), 155-56.

7) Ibid., 158.

개인적인 측면으로, 각 사람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동시에 공동체적인 측면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⁹⁾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웨인 맥딜(Wayne McDill)은 설교의 궁극적인 의도를 믿음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온전한 믿음을 위한 설교를 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온전한 믿음을 위한 설교란 “설교를 하는 최우선적인 목적은 청중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믿음을 위한 설교하기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설교 디자인의 모든 요소들을 구상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⁰⁾ 성경적인 믿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은 구원을 받게 하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게 하는 것에 있다. 그것은 또 다시 표현하면, 우리들의 설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설교를 통하여 “진정한 회심”을 이루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회심”의 과정으로 청중들을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흔히 청중의 변화라고 하면, 그저 어떤 이의 행실이 바뀌는 것에만 염두에 두고 말할 때가 있다. 행동의 변화(순종)에만 초점을 두고 그것만을 진정한 변화라고 할 경우에,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변화는 일반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말하는 “행동주의”(behaviorism)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의 변화는 그저 외적인 형태적으로 드러나는 행실의 문제로만 국한 지어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지점으로 나아가기 전에 두 가지 변화가 선행 되어야 한다. 먼저 “가치관의 변화”가 중요하다. 세상 나라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청중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가치가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는 것이다.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성품의 변화”인 것이다. 톰 라이트는 “그리스도인의 미덕”는 책에서, 강 이편과 저편을 연결하는 비유로 성품의 자리를 설정하고 있다. “비유로 설명하자면, 그들은 마치 깊고 넓은 강의 한편에 서서 건너편 강둑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다. ‘이편’ 강둑에서 당신은 신앙을 고백한다. ‘반대편’ 강둑에는 궁극적인 결과 곧 최종적인 구원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무엇을 하게끔 되어 있는가? 그냥 여기에 서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가? 그 둘 사이에 다리는 없는 것인가? 이 비유는 신앙 자체에 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처음 갖는 믿음은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와 같은 어떤 명제에 동의하는 것을 뿐 변화를 피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¹¹⁾ 강 이편에서 다른 편으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화되는 것이다. 특별히 성품의 변화를 피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중의 변화란 다음 세 가지를 구비해야만 한다. 그것은 “가치관(의식)의 변화,” “성품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인 셈이다. 여기서 순서는 가치관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가 우선시 되고 그 후에 행동의 변화가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디모데후서 3:16-17으로 다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볼 수 있다. 16절에 따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어지는 17절에서 그것을 통하여 두 가지 청중의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게 해야 한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8) 웨인 맥딜, 『강해설교를 위한 12가지 필수기술』, 최용수 역(서울: CLC, 2004), 183.

9) Jay Adams, *Preaching with Purpose*, 13. “The Purpose of Preaching, then, is to effect changes among the members of God’s church that build them up individually and then build up the body as a whole. Individually, good pastoral preaching helps each person in the congregation to grow in his faith, conforming his life more and more to biblical standards. Corporately, such preaching builds up the church as a body in the relationship of the parts to the whole, and the whole to God and to the world.”

10) 웨인 맥딜, 『강해설교를 위한 12가지 필수기술』, 342.

11) 톰 라이트, 『그리스도인의 미덕』, 홍병룡역 (서울: 포이에마, 2010), 21.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본문에서 밝혀주는 청중의 삶의 참된 변화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과 더 나아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매우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은 역시 그 순서이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반드시 “존재”의 변화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 뒤로 “행동”의 변화가 따라와야 하는 것이다. being이 우선적으로 점점 되어진 이후에 그것에 기초해 doing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being이 구비되지 않은 doing을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진정한 변화와 성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스카이 제세니(Skye Jethani)는 이에 대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being) 없이 "하나님을 위한 삶"(doing)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신앙적인 모습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일침을 가한다. 그 이유는 그러한 모습은 “은총의 윤리”가 아닌 “성취의 윤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being과 doing 양자 모두가 있어야 하지만, 그 순서에 있어서는 언제나 being에서 시작하여 doing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스 그니스(Os Guinness)의 다음 주장은 매우 일리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격적 대상을 만나기 위해서 부름 받았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알도록, 또는 어떤 장소로 가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¹²⁾ 그는 지금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양자종합의 정신을 필요로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이 “하나님의 일(사역)로의 부르심”보다 우선시 된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성도들의 진정한 삶의 변화란 내면세계의 새로워짐(가치관의 변화, 성품의 변화)을 통하여 윤리와 행실이 바뀌어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이변화를 위한 설교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제대로 구현하기 위하여 먼저 살펴볼 것은 목회자로서의 설교자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요한계시록 설교인 것이다.

III. 목회자로서의 설교자의 정체성과 신앙 공동체의 삶의 변화를 목표하는 요한계시록 설교

1. “목회자”로서의 설교자의 정체성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위하여 중요한 설교자의 자기 정체성은 목회자의 이미지로 설명 할 수 있다. 탁월한 영성 신학자로 잘 알려진 유진 피터슨은 사도 요한이 목회자의 자세와 심정으로 요한계시록 기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서 목회자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 특히 고통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때, 목회자의 이미지는 청중들의 삶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대사로서의 설교자와 비교해 보면 목회자로서의 설교자는 훨씬 청중 지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사로서의 설교자는 설교에 있어서의 수직적이고 초월적인 측면만을 중요시 하는 이미지이다. 왕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자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 전령자 혹은 대사에게 있어서는 위탁된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 왕이 명령한 메시지를 가감 없이 선포하는 것이 대사의 사명인 것이다. 대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메시지에 대한 충성이다. 칼 바르트의 다음 주장은 대사의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를 매우 분명히 알게 해 준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 및 청중들을 사로잡는 나의 수사학적 능력에도 의지하지

12) Os Guinness, *The Call: Finding and Fulfilling the Central Purpose of Your Life* (Nashville: Thomas Nelson, 1998), 31.

않고 오직 본문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적용하였을 때, 나의 설교가 청중들에게 감명을 주고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¹³⁾

이에 반해서 탁월한 설교학자인 토마스 룡의 구분에 의하면 목회자의 이미지는 설교를 듣는 청중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중 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목회자로서 설교자는 청중의 요구를 알고 그것에 부응하는 일에 대사로서의 설교자보다 훨씬 민감해야 한다. 설교자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 (때로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것을 해결하고 회복시켜 주는 적절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¹⁴⁾ 이러한 목회자의 이미지의 약점은 자칫 지나친 인간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개인주의적인 경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에 있다. 토마스 룡은 말한다.

목회자로서 설교자에게 청중은 회중이나 교회 또는 동일한 사명을 가진 공동체라기보다 각각 개인적 문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의 집단에 가깝다. 따라서 복음의 공적, 단체적, 조직적 영역은 뒷전에 물러나는 대신 보다 개인적인 테마들이 우선된다. 사람들이 교회에 “들러” 자신이 생각하는 필요를 충족시켜주기를 바라는 문화에서 목회적 설교는 결국 이기주의만 확대시킨 채 자신을 버리고 이웃을 위해 봉사 하라는 복음의 요구는 목살당하기 쉽다.¹⁵⁾

이렇게 될 때 복음의 사사화(privatization of the Gospel)가 이뤄지게 된다. 복음이 사사화 된다는 것은 “복음의 효력이 미치는 과장을 인류 역사와 전 우주의 공동체적 구원과 변혁에 까지 확장시키지 않고 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더 효과적인 설득력 구조(plausibility structure) 하나를 선택하고 더 효과적인 심리 기제(psychological mechanism) 하나를 소비하는 개인의 선택 문제로 국한되는 현상을 말한다.”¹⁶⁾ 이러한 복음의 사사화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신적인 힘처럼 작용하고 있는 소비자 중심주의와 같은 궤적을 향해가면서 성도들을 자신들의 종교 기호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소비하는 종교 소비자가 되게 한다.¹⁷⁾ 성도를 종교소비자로 만들게 된다면, 결국 신앙 공동체는 세상 정신에 포로가 되어 빛바랜 모습으로 역사의 비탈길로 곤두박질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램시 주니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목회자의 이미지의 근거한 설교는 “기독교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종교적 소비자중심주의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저들은 설교가 ”나의 필요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들을 것인가라고 반문한다.“¹⁸⁾ 이러한 주장이 진정 사실이라면, 목회자로서 설교자의 정체성은 신앙 공동체의 참된 변화를 위한 적절한 이미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유진 피터슨은 어떤 차원으로 요한을 목회자로 정의하고 있는 것인가? 그에게 목회자 요한은 그저 사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심리적인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해 주는 상담가 내지는 치유자의 이미지에 국한 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물론 유진 피터슨의 목회자의 개념이 토마스 룡의 전제와 일치하는 대목도 있다. 청중들의 고통과 함께 하는 자라는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 수직적인 이미지 보다는 수평적인 연대를 강조하는 것도 유진피터슨의 목회자에 대

13) 토마스 룡, 『증언하는 설교』, 41.

14) 토마스 룡, 『증언하는 설교』, 50.

15) 토마스 룡, 『증언하는 설교』, 55.

16) 이승진, 『신앙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설교』 (서울: CLC, 2013), 213.

17) 이승진, 『신앙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설교』, 215.

18) 토마스 룡, 『증언하는 설교』, 55.

한 이해가 토마스 룽이 말하는 이미지와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시해야 할 것은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용어의 전제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유진 피터슨이 제안하는 목회자의 개념은 복음의 사사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위험과는 거리가 멀다. 유진 피터슨에게 요한이 목회자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이다. 그에게 목회자라는 이미지는 성도들과 동떨어진 진공상태에서 천상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복음은 구체적인 상황과 관계없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목회자는 구체적이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 시대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몸부림치는 존재인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해석과 설교의 문제점은 요한이 목회자로서 글을 쓰고 있다는 인식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시대의 설교자들이 범하는 실수는 요한계시록을 1세기의 정황 가운데서 그 당시의 성도들과 함께 고통의 연대 속에 있었던 요한의 글로 보지 않은 채, 시간과 공간의 캡을 가뿐히(?) 뛰어넘어 우리 시대를 위한 메시지나 미래의 지구호의 운명을 예견하는 책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시간 이해로 인하여 요한계시록을 하늘로 뚝 떨어진 진공 상태 속에 주어진 무시간적인 교훈으로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바로 잡혀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제대로 된 메시지 선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신은철 교수의 말을 들어 보기로 하자.¹⁹⁾

그(요한)는 2000년 이후 미래에 살아갈 우리를 위해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현대의 성도들이 아니다...그의 관심은 그와 동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성도로서의 실존적 문제에 직면했던 사람들이다. 그는 일차적 청중 (1세기 당시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 글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요한 역시 현재 지향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1세기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그 역시 현재 지향적 사고로 글을 쓰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현대의 성도들을 위해 장래에,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이나 시간과 종말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저자인 요한은 1세기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벌어졌던 역사적 사건들과 사실들에 대한 문제들을 예언자적 통찰력을 가지고 파악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그 당시 일곱 교회 공동체에 끼친 영향들 그리고 끼칠 영향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진지한 기독교적 고민을 가지고 그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한다. 즉 일곱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썼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많은 본문의 지지를 받는다. 이것은 1세기 사람들이 현재 지향적 사고를 선호했다는 전제를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다.

이렇게 요한이 일곱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글을 쓸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교회 지도자로서 그 어떤 특혜나 기득권을 누리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당시의 신앙 공동체와 함께 환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증언한다. 그가 환난에 동참하고 있는 증거가 밧모 섬에 유배되어 있는 모습에서 확인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삶인 것이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에게 있어서 목회자는 개인적인 필요나 치유를 위한 상담가나 치료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앙공동체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자신도 기꺼이 고통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이다. 목회자 요한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나 동시에 신앙 공동체를 앞에서 이끌어 가는 리더라고 할 수 있다. 그들

19) 신은철, 『요한계시록 시간 여행』 (서울: 그리심, 2013), 64.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 그들을 이끌 수 있는 파워와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목회자 요한은 사람들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들의 선두에 서서 신앙 공동체를 어디로 이끌어 가기를 원한 것일까? 이에 대하여 유진 피터슨은 매우 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그는 한마디로 목회자 요한이 그들을 중간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늘도 마찬가지이지만,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대의 청중들은 “중간에” 사는 사람들이다. 중간에 산다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는 것이다. 시작도 선하고 아름답다. 마침도 선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시작과 마침이 좋을 것이기에 그 중간도 좋은 것으로 가득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는 중간기의 삶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린다. 중간 시기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곳이다. 중간에 살면서 우리는 언제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목회자는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시작에 대한 상기와 행복한 결말에 대한 소망으로 견디게 하는 사역에 부르심 받은 자이다. “목사는 그 ‘중간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일이 전공인 사람인데, 갖가지 굵은일과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과 모욕적인 악을 겪으면서도, 이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꼴사나운 중간이 실은 눈부신 시작과 영광스러운 끝과 통하는 길임을 언제나 즐기치게 주장하는 자이다.”²⁰⁾ 그렇다면 이러한 중간에 서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목회자 요한의 역할을 통하여 그 당시 일곱 교회가 받게 된 유익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유진 피터슨의 대답은 이렇다. “이런 목회자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고 있는 이상 때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을 때라도 꺾박을 견뎌낼 수 있다고 점차 할 수 있었다.”²¹⁾ 이상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유진 피터슨이 제시하고 있는 목회자의 이미지는 개인주의 덩어리에 걸리는 위험이 있는 일반적인 개인 심리 치료나 상담자와 유사한 목회자의 이미지와는 판이하게 다른 개념인 것이다.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목회자는 중간 시대를 사는 신앙 공동체를 시대의 가치와 정신에 함몰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완성될 종말의 가치와 정신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목회자로서 설교자는 다름 아닌 신앙 공동체의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요한계시록 설교의 목적인 신앙공동체의 삶의 변화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설교자의 이미지를 통하여 논의한 것에 기초하여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설교의 목적인 사람들의 진정한 변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할 시점이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설교를 듣는 회중을 변화로 이끄는 설교란 한마디로 대항문화적인 방식(counter-cultural way)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설교의 목적이 반드시 요한계시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설교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엎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대안적인 음성(alternative voice)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에 대하여 남아공의 신학자 요한 실리에(Johan Cilliers) 교수는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경은 낯설지만 구원하는 세상을 제시하며,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온 일차원적인 세상을 관통하여 놀랍게 만들고 자극하여 새로

20) 유진 피터슨, 『목사: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 27.

21) 유진 피터슨, 『목사: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 29.

운 전망을 드러내서 새 세상으로 인도하며 복음적인 대안을 받아들여 살아내도록 이전 것을 벗겨내어 새로운 세상을 제시한다.”²²⁾ 성경이 바로 그러한 책이라면 우리가 설교한다는 것도 바로 그 대안적인 세계를 제시하여 교회를 대안적인 공동체(alternative community)로 세우는 작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에 대한 실리에의 말을 들어 보기로 하자. “설교한다는 것은 성경 본문을 제시하고 성경 본문이 회중에게 확증하는 분을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새 세상을 보도록 하는 것이다. 설교한다는 것은 본문이 지시하는 새로운 상상을 얻는 것이고, 그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본문의 장엄한 안경을 통해서 청중이 이전에 놓쳤거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안내하는 것이다.”²³⁾

성경 중에서도 이러한 대항문화적인 삶의 목표를 가장 선명하게 제시하는 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대조의 방식으로 사용하여 신앙 공동체가 선택하지 말아야 할 삶과 마땅히 선택해야 해야 할 삶을 제시하고 있다. 그 대조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엔딩 부분을 장식하는 의인화된 두 여인의 모습으로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말씀의 대미는 두 여인의 이야기로 귀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한 여인에 대한 그림은 17-18장에 짐승과 결합되어져 있는 음녀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여인의 그림은 21-22장에 나오는 어린양이 신부인 새 예루살렘인 것이다. 대칭구조로 등장하는 두 여인의 대조를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시각화시키고 있는 것을 본다. 인접 문맥과의 연관성과 함께 두 여인이 대조적인 모습을 신동욱 교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²⁴⁾

16장에서 일곱 천사가 각각 그 대접을 쏟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한 심판을 설명하였는데, 그 중 16장 19-22절에 나온 큰 성 바벨론의 심판 장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저자는 17장 1-19장 10절에서 그 일을 상세히 설명한다. 특히 17장 1절에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들 중 하나가 바벨론의 심판을 요한에게 보여 준다고 함으로써, 17장 1절-19장 10절이 대접 재앙을 보도하는 16장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17장 2-6절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여인과 붉은 빛 짐승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는 17장 7-18절이 보도하고, 18장은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장면을, 19장 1-10절은 땅에 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소개한다. 여기서 나오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채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인은 12장에 등장한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과 대조를 이룰 뿐만 아니라, 21장에 나오는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도 대조된다.

17-18장에 등장하는 음녀 바벨론은 그 당시의 로마를 상징하는 것으로 세상 도성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음녀 바벨론의 가치는 그녀에게 붙어 있는 수식어를 통하여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음녀 바벨론에 대한 수식어는 “큰”이다. 바벨론은 큼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성이다. 부와 명예와 성공을 이루는 삶을 미덕으로 여기는 곳이다. 바벨론을 음녀라는 창기의 메타포로 그려지고 있는 것은 그녀가 끝없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임을 알게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세상 도성의 추구하는 가치와는 달리, 교회를 의인화하고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22) Johan H. Cilliers, *The Living Voice of the Gospel*, 이승진 역, 『설교 심포니: 살아 있는 복음의 음성』 (서울: CLC, 2014), 188.

23) Johan H. Cilliers, *The Living Voice of the Gospel*, 188.

24) 신동욱, 『요한계시록 주석』 (서울: 도서출판 kmc, 2010), 175.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21:2,10절)이라는 수식어로 설명되는 도성이다. 바벨론과는 차원이 다른 초월적이고 신앙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여인의 대칭 구조를 통하여 분명히 하게 되는 요한계시록의 의도와 목적은 음녀 바벨론의 정신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새 예루살렘의 가치를 구조하는 “대안적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독려 하는데 있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다름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대조 사회”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에 순종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요한계시록의 설교의 목적과 지향점도 역시 바벨론의 정신이 호령하는 시대에 다른 세계(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신앙 공동체로 끝까지 인내로 싸워내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밝힌 것처럼, 이렇게 점차로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그저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지하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초대된 자로서 세상 나라의 가치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권면을 요한계시록의 중심 목적으로 힘주어 강조하는 이유는 그 만큼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이 바벨론의 정신에 함몰되어가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 그 세상 속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서야 하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조차도 바벨론이 정신에 맥을 못 추고 동화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음녀 바벨론의 가치에 술 취해 있는 세상과 신자들이 새로워 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이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다. 진정한 회심과 지속적인 회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바벨론의 정신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로 대변되는 다른 세계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지향하는 변화된 삶의 모습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설교의 목적이라고 해도 지나친 주장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회개 혹은 회심의 역사를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책이다. 김추성 교수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으나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선교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에서의 회개 혹은 회심의 주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예증으로 들고 있다.²⁵⁾ 먼저, 일곱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회개의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다. 에베소 교회 (2:5), 버가모 교회 (2:16), 두아디라 교회 (2:21-22), 사데 교회 (3:3)를 향하여 동일한 회개의 권면을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의 회심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또한 계시록의 본론에 해당하는 인-나팔-대접 재앙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알려준다. 일단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재앙으로 세상을 전면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재앙의 강도를 인 재앙에서 사분의 일에서 시작하여 나팔 재앙에서 삼분의 일로, 그리고 마침내 대접 재앙에서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 세상을 향하여 계속 손짓 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인-나팔-대접 재앙의 구조에서 뿐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재앙을 쏟아 붓고 계시는 이유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의도만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한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 보면, 성경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하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대접 재앙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가 회개인 것을 넷째 대접 재앙(16:9)과 다섯 번째 대접 재앙(16:11)의 기록을 통해 분명히 밝

25) 김추성,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 (서울: 이레서원, 2015), 71-72.

하고 있다. 결국 세상과 변절한 교회가 재앙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심판하신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기다림을 외면하고 끝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안에 인생들의 모습은 끝내 회개 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다 아니다. 지금까지의 어두운 그림과는 달리 밝고 희망찬 장면도 있다. 요한계시록 안에 유일하게 사람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장의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로 드러나는 열매이다. 두 증인의 정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두 증인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 두 증인은 교회의 일부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포함한다.”²⁶⁾ 두 증인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늘로 올라갈 때에 심판의 역사와 함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 11:13절 후반 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고 말씀하신다. 이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세상의 회심으로 장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필찬의 주장을 들어보자.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두 증인의 증거 사역을 통해 두 증인을 뿔박하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회개하게 되는 (요한계시록 내에서) 유일한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²⁷⁾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로 유일한 회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교회 공동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 주려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증인의 사역은 신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 반드시 사람들이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증인 공동체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선교적 메시지이고, 그 선교 메시지의 궁극적인 의도는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IV. 신학자로서 설교자의 정체성과 삶을 변화시키는 요한계시록 설교의 중심 내용

1. 신학자로서 설교자의 정체성

유진 피터슨은 또 다른 요한의 정체성을 신학자로 규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라는 구절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신학자의 안목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유추해 낸다. 사도 요한이 비록 유배지 밧모섬에서 납득하기 힘든 환난과 고통의 자리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을 세상적인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풀어내고 있다. “하나님(theos)의 말씀(logos)이 그를 거기에 있게 했고 그를 그런 인물로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죄수로가 신학자의 소명을 받은 자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처한 곤경을 설명하기 위해 로마 정치를 분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에 지성을 발휘했다. 이것이 곧 신학자의 과업이다...신학자는 하나님을 (감각이나 경험의 대상으로서의)객체가 아닌 (모든 경험적 실체 위에 존재하는) 주체로서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이다. 또한 자신의 전 존재와 일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그분을 숙고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일을 생의 과업으로 삼는 사람이다.”²⁸⁾ 요한계시록을 접하면 접할수록 사도 요한이 얼마나 성경에 대한 올바른 전망과 치밀한 논리, 그리고 튼튼한 신학적 목상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그는 분명 탁

26) 이필찬, 『내가 속히 오리라』 (서울: 이레서원, 2006), 483.

27) 이필찬, 『내가 속히 오리라』, 501.

28) 유진 피터슨, 『묵시: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 20.

월한 신학자가 맞다. 그러나 그는 우리 시대의 일반 신학자와는 사뭇 다른 점이 있다. 그가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추론이나 서재에서 발견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환난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환난에서 만난 하나님을 제시해 주기에 유진 피터슨은 그를 “매력적인 유형의 신학자”라고 명명하고 있다. “하나님에 관한 그의 사상은 모두 박해 가운데 꽃피운 것이었다.” 요한은...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니.“ 바로 유배지에 있었다는 말이다. 그는 두 발로 뛰면서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는 말하자면 오늘날 가장 이상적인 신학자의 전형인 셈이다. 역사를 훑어보면 신학자를 상아탑에 칩거하며 난해하고 장중한 책을 집필하는 데 몰두하는 인물로 여기던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신학자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왕성히 활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사유와 집필에 몰두한 이들이었다.”²⁹⁾ 사도 요한 역시 후자에 속하는 신학자이다. 사도 요한은 환난에서 참음(인내)을 만들어 낸 신학자이다. 누구나 넘어지는 환난의 자리에서 인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같은 시험에서도 요한은 인내라는 미덕을 만들어내는 쾌거를 이룩하게 된다. 운동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것보다도 소중한 인간 승리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다.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그를 환난에서 참음으로 나아가게 한 것일까? 그가 밧모라는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서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을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환난과 참음 그 사이에 있는 단어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나라”이다. 사도 요한의 인내의 비결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꺾일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느 경우에도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럽게 완성되어질 것이다. 지금 이 혼돈의 중간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밧모에서 사도 요한을 지탱한 힘인 것이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환난에서 참음을 만들어 가려면 그것 그 이상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매료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미래적 국면으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누리야 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신학자인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임재의 빛을 비취줄 수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은 신학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다면 신학자인 설교자의 정체성에 근거한 요한계시록의 핵심 설교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승리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2. 요한계시록의 내용으로 하나님나라의 영광스러운 승리

1) 요한계시록의 핵심주제인 영광스럽게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이미 위에서 밝힌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설교의 목적은 설교를 듣는 청중을 세상(나라)과는 질적으로 다른 성경의 가치와 정신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의 변화시키는 것에 있다. 이면에서 설교란 다름 아닌 성경이 제시하는 세계로 사람을 초대하는 작업인 셈이다. 성경이 제시하는 세계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의 가치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이다.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사탄이 왕 노릇하는 세상 나라의 정신에 길들여진 사람들을 빼앗아

29) 유진 피터슨, 『묵시: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 22.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 이면에서 요한계시록의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정초되어야 하는 필요적인 이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에서 핵심적으로 선포해야 하는 내용은 영광스러운 하나님나라의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에 의해서 에덴에서 시작되었지만 타락으로 인하여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새롭게 건설되어지고 마침내 완성되어질 것이다. 제세니(Jethani)는 이러한 성경이 추구하는 창조-타락-구속-완성이라는 거대담론을 “동산”, “광야” 그리고 “도시”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동산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동산은 질서, 아름다움, 그리고 풍요로움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동산은 말 그대로 살롬의 세계이다.³⁰⁾ 그러나 이러한 살롬의 세계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만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동산은 변하여 순 십간에 광야가 되고 만다. 하나님의 질서, 아름다움 그리고 풍요로움은 모두 깨어져 버리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망가져 버린 그 살롬의 세상을 버리지 않는다. 만신창이가 된 세상을 다시 복구하시기 위해 일하신다. 다시금 잃어버린 질서, 아름다움 그리고 풍요로움을 회복하려고 하신다. 인간의 타락 이후, 나머지 구약 성경 전체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창조주가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새로운 동산을 일구고 다시 한 번 창조 세계에 질서와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일으키는 계획을 시작하시는 이야기이다.”³¹⁾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씨를 통한 구속의 길을 제시하신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펼쳐나가신다. 특히 출애굽 모티브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가장 선명한 그림이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절대로 타락한 인류를 버리지 않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다.³²⁾ 이러한 창조세계의 동산이야기와 반역으로 초래된 광야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서 마침내 도시 이야기로 완성되어진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 도시는 에덴동산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고작 에덴동산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에덴의 특성으로 돌아가는 동시에 에덴의 가능성을 실현한 것”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요한의 계시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의도하셨던 세상을 발견 할 수 있다. 이 세계는 인류가 반역하여 죄가 창조 세계를 타락시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었을 그 성숙한 세계다. 요한의 계시는 창세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리셋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다. 다른 고대 신화들과 달리 기독교의 이야기는 순환적이지 않다. 기독교의 이야기는 분명히 직선적이다. 이야기는 영광스럽고 놀라운 결말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간다.”³³⁾ 동일한 맥락에서 박성민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것은 단순히 에덴의 회복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는 이 세상과는 달리(출 33:20), 하나님의 얼굴을 목도하며 살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신 원래 의도가 성취된 모습으로 살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³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세세토록 하게 될 왕 노릇(통치)은 “단순히 에덴의 회복을 뛰어넘는 것이며, 에덴에서의 원래목적(예배)이 회복되는 것이며(대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다스림을 통해 우리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것을 가르치고

30) 스카이 제서니, 『하나님의 도시』, 44.

31) Ibid., 48.

32) Ibid., 45-52

33) Ibid., 55.

34) 박성민, 『요한계시록』 (서울: 순 출판사, 2013), 165.

있다.”³⁵⁾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승리와 완성의 시기를 소망 가운데 응시하면서 광야의 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인 것이다. 우리는 단지 “종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취되어야 할 목적, 곧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에,³⁶⁾ 보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광야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눈뜨고 더 나아가 그 나라에 매료 될 때, 우리는 환난의 때에도 참음과 인내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그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다. 누구도 그 분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승리와 완성을 막을 자가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와 완성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과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와 완성은 누가 위한 것인가이다. 이에 대한 대답을 집약적으로 잘 제시해 주는 본문이 바로 계시록 17:14절일 것이다. “그들이 어린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구절을 통하여 얻게 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린양 예수님의 승리를 논하는 기독교론을 근간으로 할 것이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교회의 승리를 논하는 교회론을 근간으로 할 것이다.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2) 어린양의 승리:

오늘 본문 17:14절은 극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짐승을 중심으로 연대한 악의 무리들이 하나가 된다. 악으로 가득한 세상은 본질상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런데 하나가 된다. 어떻게 세상이 하나의 정신과 이념으로 뭉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다. 그들이 연합한 이유는 오직 한가지이다. 어린양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이다. 어린양과 싸울 때만 세상은 철저히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싸움의 승패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궁금해 하는 독자들에게 성경은 어린양 예수님이 이길 것이라고 간단히 말해 준다. 에덴을 상실하고 광야를 맞이한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는 “도시”로 초대하시는 그 사역이 누구를 통해 가능케 될 것인지를 분명히 말해 준다. 어린양께서 짐승의 세력을 이기심으로 이루신다. 어린양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므로 악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하나님 구속의 경륜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을 어린양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이다. 계시록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바로 어린양이다. 어린양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생각나게 한다. 결국 요한 계시록은 십자가 사역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어린양의 승리를 보다 풍성히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계시록 5장의 장면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5장은 4장에 이어서 하늘 보좌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4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장엄함 앞에 숨죽이며 있던 사도 요한은 이제 5장에 이르러서는 크게 운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인봉된 책을 열자가 없어서이다. 요한은 크게 낙심하여 울고 있다. 그 때 장로 중의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한다.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지파의

35) Ibid., 165-6.

36) 유진 피터슨, 『묵시: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 28.

사자와 다윗의 뿌리로 소개된 그 분은 6절에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시다. 어린양은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사역을 연상케 한다. 그 어린양 예수를 통하여 인이 떼어지자 세상에 인-나팔-대접 재앙이 펼쳐지고 그 재앙들을 통한 심판이 이뤄진 후에 새 예루살렘(도시)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시가 완성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한 인생이 망가뜨린 하나님의 작품을 다시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 특히 십자가를 통한 복음 사역으로 그 임무를 완수하신 것이다. 구원역사의 중심에는 어린양 예수님이 계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어린양의 이미지를 십자가로만 좁게 국한지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어린양은 곧 만주의 주이시자 만왕의 왕이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어린양은 죽임 당하신 분만이 아니다. 승리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시다. 이러한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복음서가 제시하는 어린양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복음서에서 제시하는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이에 반해서 요한계시록의 어린양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이시다. 이면에서 김추성 교수는 요한계시록 기독교론의 가장 큰 특징이 ‘영화로우신 그리스도(Glorified Christ)’라고 주장한다. 요한계시록의 “어린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계시다. 어린양을 전지전능한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등장한다...하나님과 함께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영화로우신 어린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승리하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기독교론의 중요한 특징이다.”³⁷⁾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린양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인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 분의 승귀의 모습인 영광의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포괄하는 이중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하나님나라의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65권의 성경과 다른 차원을 언급하는 부록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이다. 요한계시록을 흔히 세속적인 종말에 대한 이야기 이거나 지구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만 이해하게 될 때, 놓치는 위험은 나머지 65권의 성경과는 성격이 다른 책으로 다루게 되는 점이다. 성경의 전체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신약을 초립하신 예수그리스도를 말한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의미에서 이전의 성경 65권과는 다른 새로운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다. 성경의 다른 책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라면 요한계시록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이다. 요한계시록을 그저 종말론적인 논의로만 풀어나가는 것은 반쪽자리 진리인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으로 읽고 설교되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복음 기쁜 소식이다. 그렇다면 복음은 왜 기쁜 소식인가? 그것에 대한 답이 고전 15장에 나와 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골즈워드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여, 복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즉,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실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2천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오셔서 그 분 자신과 그분의 사역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음 사건의 효과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효과들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아닙니다. 따라서 복음의 효과들 또는

37) 김추성,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 68-9.

열매들과 복음 자체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듭남, 믿음, 성화는 복음의 열매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의 열매들인) 믿음이나 거듭남 또는 성령을 주심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나의 대속자로서 사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조차도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복음의 한 열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분께서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³⁸⁾

물론 십자가와 부활로 대변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전의 다른 책에 비해서 빈도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무게 비중”만큼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전의 책들과는 달리, 요한계시록만 불쑥 복음 이외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일관성을 깨고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해석을 시도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커다란 위험은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상실된 채 행해지는 두려움을 자극하는 공상 만화와 같은 허무맹랑한 해석들이 난무하게 되는 점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삶을 변화시키는 요한계시록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에는 어린양 예수님이 계신 것이다. 김운용 교수의 말처럼, “이런 점에서 복음 중심성은 이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연결된다. 설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며 구속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설교에서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구원의 드라마에서 주인공과 조연이 잘 구분되어야 하며, 언제나 스포트라이트는 주인공에게 집중되어야”하는 것이다.³⁹⁾

3)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승리: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완성이 어린양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답해야 할 때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완성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다. 그에 대한 답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양과 교회의 밀접한 상호 연관성 가운데 있다. 어린양의 승리와 영광은 교회의 것이 된다. 어린양과 함께 고난도 받게 되지만 어린양과 함께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서도 이르게 되는 것이다. 다시 17:14절로 돌아가 보자. 짐승의 세력의 도발은 어린양에 의해서 제압당했다. 그렇다고 악의 세력들이 순순히 백기를 들지는 않는다. 짐승의 세력의 노리는 다음의 공격 대상은 계 12장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 공동체인 교회이다. 12장에서도 악의 세력의 공격은 먼저는 예수님에게로 다음으로 교회로 이동해 오는 것을 보게 된다. 먼저 용이라는 존재가 아이(예수님)을 공격하지만, 예수님께서 용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신다. 성경은 용의 공격을 무력화 시킨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을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5절).” 예수님을 삼키지 못한 용은 이제 다음 타깃으로 여인(교회)을 공격하게 된다. 그 결과로 신앙공동체인 교회는 광야로 도망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6, 14절). 결국 계시록은 사단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어린양과 교회를 향해 달려드는 공격과 그에 대한 응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투쟁은 실상은 원시 복음으로 알려진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

38) Ibid., 24.

39) 김운용, 『현대설교 코칭』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원 출판사, 2012), 141-2.

에 대한 최종적인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교회의 승리이다. 어린양의 승리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기에 정확히 말하면 어린양의 이김을 통한 교회의 승리인 것이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로 하여금 짐승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대장되시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이다. 그분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의 기초가 된다. 교회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만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그 분에게 한편이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자들이 이긴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승리가 그저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주어진다는 “값싼 은혜”를 조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값진 은혜의 길을 걸어갈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바로 계속 되는 14절 마지막 구절에 있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분 안에서 거룩해져야만 한다. 하나님 백성들의 변화의 모습 가운데 하나로 진실을 거명한다. 교회 공동체에게 진실이 중요한 이유는 계시록에서 악의 세력이 거짓과 과장 그리고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교회의 표지는 진실이다. 이처럼 은혜는 방종을 조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은혜 안에 있기에 더욱더 분투하게 하는 것이다. 은혜 안에서의 분투이다. 그것을 진실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것 하나로만 충분하다는 뜻이 아니다. 교회의 분투를 대표하는 표현이 진실인 것이다. 그러기에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다 확대된 분투의 길을 세 가지 신앙공동체가 모습으로 말해 보고자 한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선포해야 할 중요한 설교의 핵심 가치이자 내용인 것이다.

(1) 관점 공동체로 승리하라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보편적인 문제”는 고난이다. 그런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인생의 필연성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현재적인 삶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제시해 준다. 오늘의 현실은 암담하지만, 반드시 내일은 다시 태양이 떠오를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이길 것이다. 그것을 희망하면서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웃게 하는 책이 계시록이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자 예수그리스도 때문이다. 우리로 춤출 수 없는 상황에서 춤추게 하시려는 것이다. 신자는 “광야에서도 노래하는 이상한 새”이다. 현실을 보면 노래할 수 없지만, 광야에서도 식탁을 마련하시는 주님,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을 뚫고 가나안에 입성케 하실 수 있는 그 분으로 인하여 노래를 생산할 수 있게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다 이루어주신다는 식의 “문제 해결”을 약속하기 때문이 아니다. 문제해결만을 기대하고 있으면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책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요한은 7교회 모두를 향하여 공통적으로 권면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전해야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다. 신은철의 말을 들어보자. “요한이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이김’에 대한 요청이었다. 이김에 대한 요청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적 정황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아야 한다. 매일매일 그들은 황제 숭배와 제국 제의, 영적 배교와 타협, 그리고 자기만족이라는 영적 위기 속에서 요한을 토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직면하게 된다. 세상이라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감히 거기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것들

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요한의 외침을 가슴깊이 새겨야 했다.”⁴⁰⁾ 이러한 이감을 위해서 요한 계시록은 본격적인 계시가 시작되는 첫 마당에 “하늘보좌”로 초대하고 있다. 하늘 전망대로 올라가라는 것이다. 거기서 새로운 시선,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현실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이다. 즉 새로운 봄(seeing)을 통하여 관점을 새롭게 하여 문제를 넘어서라는 권면을 주고 싶은 것이다.

(2) 저항공동체로 승리하라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의 도전 앞에 서 있는 교회를 시대정신을 거절하는 저항 공동체로 묘사하고 있다. 현재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의 골자는 저항하는 공동체로 승리한다는 것이다. 만일 도미티안이 자신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황제 숭배의 상황이 계시록의 역사적인 배경이라면⁴¹⁾, 현재를 재조정시킨다는 것은 좌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교회로 하여금 다시금 악의 도전 앞에서 저항하게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저항이라는 단어를 결단이라는 단어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스탠리 샌더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로마제국에서 삶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스토리들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제공하는” 책이다. 구약성경에서 뿐만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다양한 형태로 빈번히 등장하는 전쟁 신화 (combat myth)를 중심으로 계시록은 어린양과 정사와 권세 사이의 싸움을 큰 화폭에 그리고 있다. 어린양의 길과 짐승과 바벨론의 길에 대한 철저한 대조가 계시록 환상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다.⁴²⁾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쫓아가야 하는 어린양의 길을 방해하는 정사와 권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이 직면한 저항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다양한 정사와 권세에 대한 캠벨의 설명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국이 우세하게 가지고 있는 이러한 권세는 이 세상을 통치하려는 초인간적인 세력으로, 궁극적으로는 인간들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한다. 물질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이 권세들은 사회 조직과 이데올로기, 나라들, 경제체제, 그리고 다른 많은 실체 가운데 구체화 된다. 스스로를 신성한 대리자로 가장하는 이러한 권세들은 비록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의도들과는 정반대에 위치하며 실제로 삶이라기보다는 죽음의 전달자들이다. 혼돈과 압제의 중의성을 가진 짐승이나 짐승과 같은 힘이나 영으로 묘사되는 사탄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권세들은 세상을 사정없이 파괴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음으로 위협한다. 미혹하는 자의 형상으로 도 비쳐지는 이러한 세력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복종하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박해나 육체적인 죽음의 위협이라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영을 사로잡기도 한다.”⁴³⁾

이러한 정사와 권세들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세상 제국은 구속적 폭력(redemptive violence)의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해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역설하게 된다. 구속적 폭력이란 구속이라는 거룩한 명목을 위하여 폭력의 방식을 사용할 것을 용인하는 것이다.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거짓된 정당성이 만연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하게 된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현실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다. 계시록의 배경에 대한 학문적인 깊은 연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초대 교

40) 신은철, 『요한계시록 시간 여행』, 248.

41) 필자는 도미티안 가설을 따르지만, 이에 대한 찬반양론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스코트 루이스, 『최근 신약 묵시 사상 연구 동향』, 김병모 역 (서울: CLC, 2012), 80-102를 보라.

42) ibid., 164.

43) ibid., 193.

회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룩한 명분을 앞세워 사람들을 죽음과 파괴가 자행되는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요한은 바로 이러한 어두운 영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한 복판에서 어린양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것과 함께 요한이 또한 분명히 강조하는 바는 엄청난 악의 세력 앞에서 신자들은 홀로 흠어져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함께 어깨동무하며 정사와 권세에 대항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면에서 요한 계시록을 개인을 위한 권면으로가 아니라, 신앙공동체를 전체를 위한 메시지로 보아야 한다. 요한 계시록을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읽고 설교해야 한다는 것은 한 개인의 심리 치료적 메시지나 현실적인 필요에 국한 된 문제를 넘어서는 보다 커다란 이슈에 정초시켜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⁴⁴⁾ 캄벨은 요한 계시록을 공동체를 위한 책으로 이해하고 보다 커다란 범주의 설교로 나가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요한은 개인적인 문제와 필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보다 큰 화폭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계시록은 개별적인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와 문제를 치유하는 차원의 설교를 하도록 쓰여진 책이 아니다. 이것은 국회 의사당과 대포, 그리고 코카콜라와 같은 공적이고 정치적인 것들의 검투장(arena)으로 설교자들을 초대하는 책이다. 단순히 이상한 이미지들이나 모호한 비유들을 초월하여,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오늘날 기독교 설교자들에게 가장 큰 도전을 던져주고 있으며, 정사와 권세에 대한 우리 자신의 속박을 떨쳐 버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⁴⁵⁾

요한이 개인적인 문제와 필요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더 커다란 목표,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이 정세와 권세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게 독려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요한 계시록에 대한 우리의 설교 내용도 정사와 권세로 대변되는 로마의 정권에 저항하면서 현실적 어려움을 인내로서 견뎌낼 수 있는 공동체를 많이 언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요한계시록의 설교는 무엇보다도 저항 공동체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중심내용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3) 예배 공동체로 승리하라

신앙공동체인 교회에 부여된 최대의 저항 행위는 무력적인 시위 같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만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예배에 대한 독려는 곳곳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돌리는 찬양의 메아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한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 예배는 공적인 예배를 넘어서 삶의 예배를 촉구한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계 18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걸어 나오는 것이다. 우리들이 바벨론 안에 들어가 살아야 하지만 바벨론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진정한 삶의 예배인 것이다.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배의 주제를 설교하는 강단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주제가 예배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김추성은 마리아 톱슨을 인용하여 요한계시록의

44) 조엘 그린, 마이클 파스퀴렐로 3세, 『내러티브 읽기 내러티브 설교』, 이 우제 역, (경기도: 크리스찬 출판사, 2006), 197.

45) 조엘 그린, 마이클 파스퀴렐로 3세, 『내러티브 읽기 내러티브 설교』, 196-7.

핵심 주제가 예배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이 신약의 어떤 책보다도 찬양과 경배가 풍성한 책이라는 것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마리안 톰슨(Marianne M. Thompson)은 요한계시록에서 경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만큼 경배라는 주제를 뚜렷이 부각하는 책도 없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어떤 책보다 경배에 관련된 용어와 이미지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경배라는 주제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목적과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인다.”⁴⁶⁾ 예배의 정신과 감격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저항의 의미와 문맥으로 예배를 설교해야 할 시점이다.

V. 시인으로서 설교자의 정체성과 삶을 변화시키는 요한계시록 설교의 형식

1. 시인으로서 설교자의 정체성

마지막 세 번째로 유진피터슨이 제시하는 요한의 정체성은 시인이다. 시인의 이미지가 본격적으로 설교학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아마도 “신설교학”(new homiletic)이 등장하게 되면서 부터일 것이다. 크레독의 귀납적 설교, 유진 로우리의 내러티브 설교, 버트릭의 현상학적인 설교 그리고 그 외의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의 설교 방식이 대두되면서, “설교에서 자연스럽게 시적 언어나 상상력이 풍성한 언어가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⁷⁾ 그러나 시인 혹은 이야기꾼으로의 설교자의 이미지는 성경에 기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 자체가 이야기와 이미지로 가득 차 있는 책이다. 원래 성경은 시인의 상상력이 있어야만 읽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따라 기록되어져 있기에 그 어떤 다른 성경보다도 사도요한을 시인으로 이해하게 될 때 바르게 해석될 수 있는 책이다. 사도 요한이 시인으로서 요한계시록을 기록 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엉뚱한 방향으로 읽혀지고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시인으로서 요한의 정체성을 간과하여 요한계시록을 그저 문자주의적인 해석하고 그에 근거하여 설교하는 우를 범하는지 모른다. 문자에 충실한 해석을 하는 것은 귀하지만, 문자주의적인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장르에 대한 무지로 인한 소치인 것이다. 묵시는 내러티브로 구성된 문학 형식으로 상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상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정보(information)를 제공하는 것 보다는 상상력을 자극시켜 무엇인가를 보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⁴⁸⁾ 이것이 바로 시인의 역할인 것이다. “시인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거나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다. 시인은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을 뜻한다. 시는 객관적인 해설의 언어가 아니라 상상의 언어다. 그것은 읽는 이의 참여를 초대하는 형식으로 실제에 대한 이미지를 만든다. 한 편의 시를 읽고 난 후 우리는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많은 체험을 얻게 된다. 그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그 일에 몰입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시인이자 신학자인 사람에게 의해 쓰였다면, 요한계시록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찾기 위한 연감이나 이미 일어난 일을 기록한 연대기처럼 읽어서는 안 될 것이다.”⁴⁹⁾성

46) 김추성,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 72.

47) 토마스 룡, 『증언하는 설교』, 61.

48) 크레이그 R. 퀘스터, 『인류의 종말과 요한계시록』, 최홍진 역 (서울: 동연, 2011), 51.

49) 유진 피터슨, 『묵시: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 24.

경의 마지막 책을 시인의 정서로 기록하게 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지식은 그동안 이미 제공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하다. 정말 필요한 것은 이미 제공된 지식을 마음의 화랑에 그려주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다시 느끼고 경험케 하여 잠자는 심령을 깨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시인으로써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심으로써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도록 하며, 우리 눈을 열어 불타는 떨기나무와 불 병거를 보게 하며, 우리 귀를 열어 강철같이 견고한 그리스도의 약속과 명령을 듣게 하며, 복음에 대해 지겨워하던 마음을 말끔히 씻어 주며, 우리 고개를 들게 하고, 우리 가슴을 활짝 넓혀 줄 것이다.”⁵⁰⁾ 이렇게 시인으로서의 요한의 정체성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해야 하는 설교자들에게 어떤 형식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저술 방식이 설교의 형식을 고려하는데 어떤 설교학적인 함의를 갖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삶을 변화시키는 요한계시록 설교의 형식

요한계시록의 저술방식을 조사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공동체를 설득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이다. 그것을 파악하게 될 때, 삶의 변화시키는 설교형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게 된다. 사도 요한이 위협과 유혹 속에 있었던 초대 교회 신앙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메시지를 어떤 그릇에 담았는지를 논할 때 주목할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형태의 사고, 즉 명제적 사고와 내러티브적 사고⁵¹⁾ 가운데 후자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명제적 사고는 논리적, 분석적,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진리를 전달하는데 반해서, 내러티브적 사고는 직관적, 구체적, 상상적인 접근을 통하여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요한 계시록 가운데 끝없이 등장하는 이미지, 상징, 환상, 비유, 묵시적 묘사들은 이 책이 얼마나 철저하게 내러티브적 사고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 준다. 한마디로 요한 계시록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이 이렇게 정사와 권세를 항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매료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를 추구하면서, 외관상으로 더 힘 있는 방식으로 보이는 명제적 진술을 통한 직접적 선포의 방식에 호소하기 보다는 공동체의 상상력에 주의를 상기시키는 이유는 공동체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리스 머독(Iris Murdoch)과 스탠리 하우어바스(Stanley Hauerwas)가 잘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은 우리들이 단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요한은 대안적 세계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환상과 이상을 통하여 자신의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극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와 비유를 통해, 요한은 교회가 두려움과 영적 마비상

50) 유진 피터슨, 『묵시: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 25.

51) 내러티브적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유진 피터슨, 『이 책을 먹으라』, 양혜원 역, (서울: IVP, 2006), 78-107을 보라. 유진 피터슨은 성경은 기본적으로 내러티브적 사고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정보를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공식이나 개념정의로 축소될 수 없는 인격적인 하나님, 정의와 구원을 위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 안에서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듣는 것은, 하루하루의 실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대로의 인생을 설명해 주는 최고의 언어 수단이다. 이야기에는 추상적인 것이 거의 없다. 이야기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플롯이 있고 관계적이고 인격적이다. 그래서 자기 삶 및 자기 영혼 (도덕적이고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성이 구현된 삶)과의 접촉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그 접촉을 회복해 주는 최선의 언어 수단이 바로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 이야기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광대하고 모든 것에 우선하고 모든 것을 망라하는 이야기, 즉 메타 이야기로 주어진 것이다.” p. 80-81.

태에서 깨어나 예수님의 스토리라는 빛 가운데서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⁵²⁾

공동체로 하여금 대안적 세계를 다시 상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한편으로는 거짓된 세계를 폭로하는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계의 비전을 보여 주는 것이다. 먼저 요한은 정사와 권세의 거짓된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 실체를 규명하고 있다. 이 세상 제국의 실체가 다름 아닌 압제와 폭력, 그리고 죽음의 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큰 화면 안에 짐승과 바벨론의 모습을 허상의 실체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죽음의 세력에 대하여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하게 저항해야 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시록 13장 1-4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용의 하수인인 짐승이 등장한다. 요한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스케치하면서 참람된 존재임을 분명히 한다. 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단순히 현존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제국의 방식에 동조하거나 순응하지 말고 급진적인 저항을 통해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미 살펴본 17장에서 그 당시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상징하는 바벨론을 단순히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제공해 주는 도성이기 보다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헤어 나올 수 없는 죽음의 늪지대로 빠뜨리는 음녀로 정체를 폭로하고 있다. 음녀라는 창기 메타포를 통하여 바벨론의 속성이 사람을 미혹하고 찢이고 죽이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18장에 이르면 이 바벨론의 망함 앞에서 바벨론과 결탁되었던 모든 세력들이 통곡하는 애가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세상의 도성이 맞이하게 될 궁극적 운명을 폭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폭로는 교회 공동체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 이상의 예가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악을 폭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요한계시록 안에서 대안적 세계를 큰 화면 안에 그려주어 신앙 공동체에게 소망을 제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강력하게 세상 나라에 저항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만약 계시록이 세상의 제국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만을 독자들에게 상상하게 한다면, 반쪽짜리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계시록은 이 거짓되고 허상의 실체들로 가득 찬 세계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평화로운 통치의 세계를 대안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만든다. 다시 한 번 이에 대한 캠벨의 언급을 귀담아 들어보기로 하자.

여기에서 요한은 회중의 상상력이 동원된 극적이고 대담한 "큰 그림"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공동체에게 힘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안에서 삶을 시작하도록 격려한다. 계시록의 저자는 스티븐 웹(Steven Webb)이 말한 "과장적인 상상력" (hyperbolic imagination)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상력은 그 자체 안에 이접적(離接的)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비록 현재 그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지만 장차 도래할 새로운 창조에 대한 환상을 성도들 앞에 담대하게 보여주고 있다. 웹(Webb)이 말한 것처럼, 이런 종류의 상상력이 풍부한 말투는 "과잉의 수사학"(rhetoric of excess), 즉 개연성이 있는 산문적 표현이 아닌 불가능한 것에 대한 시적 표현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이러한 상상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지만, 그에 덧붙여 그냥 그대로의 것이 아닌 즉, 장차 올 수 있기에 의미 있는 세계를 보게 한다.

52) 조엘 그린, 198.

이 세상 제국의 모습을 드러내는 짐승과 바벨론의 실체와 반대되는 대안적 세계를 상상하게 하는 그림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일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정결함을 표지로 가지고 있는 어린양의 신부이다. 어린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완성되어진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극적이고 대조적인 환상은 그 시대의 교회로 하여금 자신들의 싸움이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얻은 자로서의 싸움이라는 점을 더욱 더 확신하게 만든다. 이렇게 두 세계의 길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짓된 실체에 대한 순응과 충성의 길을 거절하고 참된 왕에게만 거룩한 입맞춤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요한계시록이 사용하는 저술방식에 대한 논의가 갖는 설교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를 저항하도록 인도했다는 점을 존중하게 될 때, 우리의 설교는 단순한 문자 주의적 해석과 적용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설교는 계시록의 많은 이미지와 상징적인 장면들을 두 대조되는 세계의 실체와 두 대조되는 삶의 길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조심스럽게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의 숫자 가운데 하나인 144,000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아주 이상한 쪽으로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총수가 어느 이단들의 주장처럼 문자적으로 144,000밖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을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겠는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구원받은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주장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이 사용하는 저술방식에 대한 논의가 갖는 설교적 함의는 요한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계시록을 기록한 것을 존중하여, 계시록에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내용과 그 내용을 싸고 있는 형식에 동등한 무게를 둘 수 있는 설교가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토마스 롱의 표현처럼 내용과 형식, 두 가지는 구분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분리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쓰여 졌는지에 대한 물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위한 장식 정도로 취급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거나 풍성히 읽어가지 못한 이유들 중에 하나이다. 이것을 토마스 롱(Thomas Long)은 우리 설교자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⁵³⁾

본문의 문학적 차원이 겨우 장식품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본문은 아이디어들을 묶어 놓은 보따리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전달 기관이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을 때에, 우리는 그 본문의 아이디어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 본문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효력을 발견하고자 함에다가 우리의 뜻을 둔다. 그리고 본문들에 있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서 그 효과를 생성한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본문의 형식과 내용을 마치 두 개의 다른 분야라고 구분지어서 말할 수도 있다. 그러하지만, 만약 내용을 의미라는 유사어로 쓸 수 있다고 하면, 형식은 내용의 급소(a vital part)로 보아야 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아마, 이 두 가지를 합하여서 "내용의 형식" ("form of the content")이라고 함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토마스 롱의 주장이 맞다면, 계시록이 형식에 있어서 상징적인 면에 치중하여 글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명제적이고, 교리적이며, 일방적 선포 방식으로 설교하기보다, 감

53) 토마스 롱, 『성서의 문학 유형과 설교』, 박영미 옮김 (서울: 기독교 서회, 1999), 26.

성적이고 상상적이며 그리고 쌍방 참여적인 설교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전적으로 이미지 중심으로 흐르는 설교는 전통적인 명제적이고 선포적인 설교를 반하는 또 다른 극단에 서 있는 설교적인 방향성이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이 두 측면을 통합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특히 여기서 중요시해야 할 부분은 창조적이고 대안적 세계를 지시해 줄 수 있는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언어 사용에 착념하는 것이다.

VI. 결론

성경은 신자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책이다. 그렇다면 성경의 마지막 66번째 책인 요한계시록 역시 삶의 변화를 위하여 기록되었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건전한 신학에 근거한 정통교회들로 갈수록 요한계시록은 침묵의 책으로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본다. 불건전한 종말론과 기독교 이단들의 도전으로 요한계시록 설교도 고작(?) 좁은 영역에 국한되는 변론적인 설교가 대부분이다. 신앙공동체의 삶의 변화를 위해 설교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러한 작금의 우리의 모습에 대안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삶을 변화시키는 요한계시록 설교의 방향성을 목회자, 신학자, 그리고 시인으로서의 설교자의 정체성과 연관 지어 논의해 보았다. 목회자는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의 목적 혹은 목표와 연결해서, 신학자는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의 내용과 연결해서 그리고 마지막을 시인을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의 방식과 연결해서 설명하였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회중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설교자는 목회자, 신학자, 그리고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설교의 목적, 설교의 내용 그리고 설교의 형식이 동시에 고려 될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 같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그 수가 더해질 것이다. 이제 설교자들은 더 이상 요한계시록을 처녀림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요한계시록이 그 어떤 다른 성경보다도 친숙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책이 되게 해야 한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특별한 신학자나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일반 성도들이 수시로 입산할 수 있는 책이 되도록 설교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땅에 설교자들을 통하여 보다 빈번히 요한계시록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복음이 힘 있게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삶을 변화시키는 요한 계시록 설교를 위한 소고‘에 대한 논평

박현신 교수 (총신대)

저자는 서론에서 요한계시록 설교에 대한 한국교회에 시의적절한 문제제기로 논문의 서막을 시작한다. 한국교회 안에 있는 요한계시록 설교에 대한 두 극단(지나친 결핍 혹은 지나친 과잉)적 오류를 예리하게 지적한 다음, 이러한 반성을 기초로 올바른 요한계시록 설교를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 본론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증폭시킨다. 이우제 박사는 요한계시록 설교의 중심목적을 “일상적 제국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 낼 것인지”로 삼는다. 즉 이우제 박사의 핵심 의도는 한국교회의 상황에 대한 설교학적 반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요한계시록 설교에 대한 길을 모색”하는데 정초하고 있다. 이 논문이 특별히 돋보이게 하는 것은 유진 피터슨의 세 가지 설교자 이미지를 논문이 의도한 항구에 이르게 할 닻과 돛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즉 이우제 박사는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목회자, 신학자, 그리고 시인으로 기록했다는 유진 피터슨의 제안과 설명에 기초하여 그 세 가지 이미지를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 방향”과 창조적으로 통합하여 논의의 기초로 삼는다.

본 논문은 실제적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형식적으로는 논문 1장으로 분류되었지만, 서론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여겨진다), 설교의 참된 목적인 청중의 삶의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요한계시록 설교를 통한 삶의 변화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우제 박사는 3장에서 “목회자는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의 목적 혹은 목표와 연결해서, 신학자는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의 내용과 연결해서 그리고 마지막을 시인을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의 방식과 연결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사도 요한을 모델로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령의 몸으로서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로서의 설교자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설교의 사사화’를 지양하고 “신앙 공동체의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요한계시록 설교이어야 함을 역설한다.

4장에서는 “신학자로서 설교자의 정체성” 회복을 요한계시록의 저자요 신학자로서 설교자의 모델을 보여준 사도 요한에게서 찾고, 이를 통해 여전히 영적 바벨론의 유혹가운데 살아가는 청중들이 삶이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설교가 선포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이 장에서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요한계시록 설교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어린양의 신부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설교자가 신학자로서 면모를 회복해야 한다고 도전한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이우제 박사는 요한계시록의 설교의 목적은 “설교를 듣는 청중을 세상(나라)과는 질적으로 다른 성경의 가치와 정신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의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지한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신학자로서 추구해야 할 요한계시록의 3가지 핵심 가치를 (1) 관점 공동체로 승리하라(2) 저항공동체로 승리하라(3) 예배 공동체로 승리하라로 요약해서 제시한다.

5장에서는 “시인으로서 설교자의 정체성과 삶을 변화시키는 요한계시록 설교의 형식”을 제시한다. 그런 다음 중심 목적과 본론의 핵심 내용을 다시 상기 시키고 목회자, 신학자, 시인으로서 설교자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청중들의 삶을 변혁시키는 요한계시록 설교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결론을 맺는다.

평가

먼저 이우제 박사의 논문은 몇 가지 면에서 설교학적인 장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첫째, 단순히 요한계시록 설교에 대한 설교학적 이론에 대한 논의 이전에, 창의적이면서도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Eugene Perterson이 제시한 저자 사도 요한을 목회자, 신학자, 시인으로서 설교자를 현대 설교자들이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정체성’으로 설정한 다음 이미지 지향적(image-oriented) 통찰력을 제시한다.

둘째, 명쾌한 논문의 중심목적 나침반과 핵심의도의 방향타를 제시한 다음, 논문의 마지막까지 독자로 하여금 향해를 잘 마치고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한다. 이우제 박사의 본 논문은 수려한 문장과 논리 정연한 글의 향기를 풍길 뿐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요한계시록 설교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안에서 예들을 들어 설명함으로써 설득력을 배가 시키고 있다.

셋째, 요한계시록 설교에 대한 숲과 나무를 동시에 넘나들면서, 계시록 전체를 아우르는 주석의 씨줄과 설교학적(목회자, 신학자, 시인 이미지 차원에서) 날줄을 자유자재로 엮어내고 있다. 주목할 점은, 논문의 저자는 성경신학적 통찰과 조직신학적 통찰이 톱나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도록 논지를 풀어내는 깊은 학문적 내공을 보여준다. 또한 요한계시록 설교와 관련된 탁월한 학자들의 연구와 최근 저술들에 나타난 통찰력들을 구슬을 꿰듯이 적절하게 본 논문의 논지를 강화시키고 확대시키는데 활용함으로써 논문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 설교학의 공동체적 발전을 위해, 조심스럽게 몇 가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의 서론과 본론의 첫 장이 조금 긴 경향(전체 25페이지 분량에서 6페이지 차지)이 논문 전체의 완성도에 마이너스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본론의 첫 장에서 “설교의 참된 목적으로서 삶의 변화”를 논의하고 있는데, 설교학적으로 이미 논의가 많이 되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요한계시록 설교에 집중하여 본론을 전개하는 것이 좀 더 논문의 가치를 증대할 것이라고 본다.

둘째, 최근 본문이 이끄는 설교 운동에서 강조하는 ‘장르에 민감한 설교’(Genre-sensitive preaching) 운동과 관련하여, (저자가 강조한 내용과 직결되는) 요한계시록이 속하는 ‘목시’ 장르에 민감한 설교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제시, 통합되지 못한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이우제 박사는 아마도 이러한 흐름과 중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계시기에, ‘시인으로서 설교자’의 역할과 목시 장르를 살린 설교의 필요성을 잘 지적하고 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목시문학이라는 장르를 따라 기록되어져 있기에 그 어떤 다른 성경보다도 사도요한을 시인으로 이해하게 될 때 바르게 해석될 수 있는 책이다...문자에 충실한 해석을 하는 것은 귀하지만, 문자주의적인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장르에 대한 무지로 인한 소치인 것이다. 목시는 내러티브로 구성된 문학 형식으로 상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목시 장르를 살린 요한계시록 설교의 방향/제언을 ‘상상력’에만 주로 국한시킨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 Jeffrey Arthurs, Steven Smith 등과 같은 설교학자들이 논의한 장르 설교, 특히 목시 장르에 대한 설교학적 논의가 연결되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이다. 혹시 성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목시 장르를 살려 요한계시록 설교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시도들(예를 들어, 이원성, 상징성, 혼합된 내러티브 등의 문학적-수사학적 특징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혹은 고난에 대한 긴장을 표면화하기, 종말론적 소망, 제자도, 즉각적 성취와 더 나은 성취 및 큰 주제들과 성경전체와 조화되는 해석과 형식 등)이 필요한지에 대해 첨언해 주신다면 논문의 공헌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셋째, 실제적으로 목회자, 신학자, 시인으로서 설교자의 정체성과 목회 장르의 성격을 살려서 어떤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으로 요한계시록 설교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모범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시인으로서 설교자가 목회 장르를 살려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 위한 ‘설교 형태’에 대한 제언을 “지나친 명제적이고, 교리적이며, 일방적 선포 방식으로 설교하기보다, 감성적이고 상상적이며 그리고 쌍방 참여적인 설교를 적용”하라고 제시하는 부분은 매우 유용한 통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요한계시록 설교에 상상력을 살려 쌍방 참여적인 설교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또한 몇 가지 질문을 첨가하자면, 박사님께서 “창조적이고 대안적 세계를 지시해 줄 수 있는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언어 사용에 착념”하라는 탁월한 제언을 주셨는데, 예를 몇 가지 들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변화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죽음 당하신 어린양(하늘 보좌에 앉으사 만유의 주로 통치하고 계시는)을 향한 ‘천상의 예배’가 설교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지...저자가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하고 주장한 것처럼, “최근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주제가 예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에 바벨론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 교회가 종말론적 예배 공동체로서 ‘승리’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부가적으로 논문에 나타난 오타를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타: 6페이지, 삶이변화를--> 삶의 변화를

15페이지, 누가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15페이지, 만주의 주시오--> 만주의 주시요

23페이지, 예가--> 예들이

24페이지, 적용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25페이지,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끝으로, 귀한 본 논문을 통해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요한계시록 설교의 방향성을 탁월하게 제시해 준 이우제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현장 목회자들과 설교학자들에게 요한계시록 설교에 대한 더 많은 조언과 학문적, 실천적 공헌을 해 주시길 소망해 봅니다.

논평

이우제 박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위한 소고: 목회자, 신학자, 시인으로서의 설교자의 정체성을 중심으로”를 읽고

임도균

(침례신학대학 대학원/설교학)

본 논문은 삶을 변화시키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우제 박사는 현대 요한계시록 설교에 있어서 두 가지 극단이 있음을 진단한다. 첫째는 요한계시록이 좀처럼 믿음의 공동체에서 설교되지 않는 결핍의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요한계시록이 설교 되는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본문에 비하여 설교가 잘 되지 않거나 설교 되더라도 요한계시록에서 한정된 몇몇 본문에 제한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 반면에 건전하지 않은 신학적 입장을 가진 설교자나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바르지 않은 종말론적 입장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연구자는 두 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편견 때문에 성경의 마지막 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 바른 성경해석적 접근이 결여 되었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는 요한계시록 설교가 성도들의 삶과 공동체에 건전한 영향력을 미치는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본 연구자는 지적한다. 이러한 논의는 합당하고 설교학자들과 현장의 설교자들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생각이다. 본 논문은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 방법을 분석하고, 핵심내용을 요약한 후,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려 한다.

이 박사께서는 신앙공동체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도들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촉매 역할을 담당하는 요한계시록 설교의 기능의 회복을 도우려는 목적을 본 논문은 가지고 있다. 또한 요한계시록 설교의 목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딤후 3:17)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생각이 본 논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선전제이다. 설교의 목적은 삶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데, 온전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변화, 성품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다른 말로 표현 한다면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는 “대항문화적 방식”으로 성도들이 살아갈 것을 안내하는 설교이다. 요한계시록을 통한 삶의 변화를 창출하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 본 연구자는 설교자에 대한 정체성의 재정립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특히, 유진 피터슨의 「묵시: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에서 소개하는 설교자가 “목회자, 신학자, 시인”로서의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여 요한계시록 설교가 변화를 이끄는 설교가 되도록 안내한다.

위에서 제시한 설교자의 세 가지 이미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이미지는 목회자로서의 설교자이다. 목회자로서 설교자는 성도들과 동떨어진 진공상태에서 천상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에 아파하고 몸부림 치는 사람임을 보여 준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신앙공동체에게 시대

의 가치와 정신에 무비판적으로 흡수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완성될 종말의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을 돕는 존재이다.

두번째 이미지는 신학자로서 설교자이다. 신학자는 하나님을 모든 경험적 실체 위에 존재하는 주체로서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이다. 신학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에 관한 묵상과 글을 쓰는데 집중하는 사람들이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는 혼동을 경험하게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신학자로서 설교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공동체를 영적으로 진단하고 나갈 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미래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시대에서도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교자는 신학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

세번째 이미지는 시인으로서 설교자이다. 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는 장르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다. 사도 요한을 시인으로 이해할 때 그의 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필자는 “많은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시인으로서 요한의 정체성을 간과하여 요한계시록을 그저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고 그에 근거하여 설교하는 우를 범하는지 모른다”라고 지적한다. 시는 객관적인 언어가 아니라 상상이 담긴 언어이다. 명제적 사고방식은 직관적, 구체적 개념을 통하여 진리를 설명하고 전달하지만 내러티브적 사고는 상상력을 이용하여 진리를 보여 주려 한다. 요한계시록 가운데는 많은 이미지, 상징, 환상, 비유, 묵시적 묘사가 있다. 요한계시록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글이 전개되고 있다. 설교자는 이러한 상상의 언어를 읽을 수 있는 시인의 눈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박사께서는 현재 강단에서 요한계시록이 균형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잘 지적 하였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장르적 측면에서 시의 언어를 통한 상상력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은 요한계시록 특성을 잘 보여준 설명이다. 또한 설교의 목적과 설교의 내용과 형식이 고려가 되어야 함에 대한 설명은 시기적절한 설명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본 논문은 요한계시록 설교를 통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좀 더 구체적인 예와 방법에 대한 제시 있다면 요한계시록 설교를 연구하는 설교학자들과 현장에서 설교하여야 하는 목회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또한 연구자의 논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 여쭙고자 한다.

먼저, 삶을 변화시키는 요한계시록 설교가 되기 위해서 설교자에 대한 정체성을 논하면서 예로 기독교 영성가로 알려진 유진 피터슨의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의 모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연구자께서 설교를 하는데 본문 형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데 있어서 요한계시록의 형식은 다른 장르의 설교와 비교할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겠는가? 이러한 이해는 설교형식에 어떻게 반영이 되겠는가?

마지막으로, 연구자께서는 설교의 목적을 온전한 사역의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디모데후서를 본문으로 인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선전제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

고 설교하는데 하나의 선입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요한계시록의 원저자가 본 서신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요한계시록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온전한 사역의 열매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셨으면 한다.

본 논문은 요한계시록을 균형 있고 건강하게 접근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촉구하고 그 가능성을 보여 주려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성경의 66권은 모두 균형 있고 바르게 다루어져야 한다는데 동감한다. 또한 설교현장에서 설교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반추하게 하는 제안이라 생각 한다. 이우제 박사께 감사 드린다.

[자유발표 3]

교회성장의 정의를 통해 살펴본
교회의 성장 방향에 대한 연구

발표



허준 박사
(침신대)

좌장



김상구 박사
(백석대)

논평1



김선일 박사
(웨신대)

논평2



임채남 박사
(하늘씨앗교회)

교회성장의 정의를 통해 살펴본 교회의 성장 방향에 대한 연구

허 준 (침신대)

1. 들어가는 말

교회성장의 요인들

조지 바나는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며 7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발견한다. 1) 친밀한 예배 2)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 3) 의지적인 영적 성장 4) 종의 자세 5) 물질투자 6) 영적 교제 7) 가정의 신앙생활에 대한 열망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삶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일관되게 삶의 현장에서 실천함을 통해 당시 사회에 큰 영향력을 주었음을 말하고 있다.¹⁾ 이와 같은 교회의 특징은 웨인 그루뎀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목적인 1) 예배-하나님을 향한 목적 2) 사랑-성도를 향한 목적 그리고 3) 전도와 선교-세상을 향한 목적²⁾과 연결되며 교회의 주요 기능인 예배, 전도, 봉사, 교육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³⁾ 교회의 목적과 기능은 교회가 교회로 인식 되어지는 본질적인 요소들이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천 강령이기도 하다. 사도행전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과 기능을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시켜 세상에 영향력을 전파한 결과 놀라운 성장을 나타냈음을 보여준다. 성경은 초대 교회의 모습을 통해 교회가 교회의 목적과 기능에 있어서 본질적인 내용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증점적으로 지켜 나가며 지속적으로 신앙의 삶에 적용하여 다양한 문화와 사회 속에서 역동적으로 영향력을 형성하며 성장하였음을 나타내 준다.

한국 교회 또한 초기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 다양한 사회적, 종교적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왔다. 1886년에 9명이 세례 받은 것을 시작으로 1890년에는 104명, 1896년에는 5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 교인수는 1901년에 이르러 8,921명에 이르게 되고, 1907년에는 18,96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예배처소는 287개에서 무려 1,022개로 성장하였다.⁴⁾ 신현광은 초기 한국 교회 성장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국 교회 성장의 다양한 요인을 1) 경건주의와 복음주의 선교 2) 사경회 3) 다양한 선교채널(교육, 구제, 의료 등) 4) 수난 5) 대부흥 운동으로 설명하고 있다.⁵⁾ 한국 교회는 그 시작부터 예배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힘들고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지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며 대부흥 운동과 사경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자신의 삶과 세상으로 흘러 보내며 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성장의 요인들은 한국 교회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한국 교회는 1970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놀랄만

1) Gorge Barna, *Revolution*, 김용환 역, 「레볼루션: 교회 혁명」 (서울: 베이스캠프미디어, 2004), 47-51.
2)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4), 867-68.
3) 교회용어사전: 교회의 기능 [教會-機能, function of church];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423.
4) C. A. Clark,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Illustrated in Korea*, 박용규, 김춘섭 공역, 「한국 교회와 네비우스 선교 정책」 (서울: 대한 기독교 사회, 1994), 84, 178
5) 신현광 “초기 한국 교회 성장에 관한 연구,”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13권 (2007:봄 193-213).

한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 1983년 한해에만 무려 60만 명의 성도가 늘어났으며 1970년대 중반에는 연간 4,000개의 교회가 개척되는 놀라운 양적 성장을 경험하였다.⁶⁾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원인에 대해 이영훈은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로 나누어 설명을 하는데 먼저 내적 요소로 부흥성회와 부흥운동, 기도에 대한 열정, 선교사들의 선교정책, 구역 예배운동, 성경번역과 성경공부에 대한 열심, 오순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성령운동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외적 요소로는 한국인의 종교적 영성, 사회 불안감의 증대, 급격한 도시화 현상을 요인으로 들며 이러한 요소들이 성장의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한다.⁷⁾

내적 요소들의 중심에는 예배 생활과 기도생활 그리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려는 영적 훈련의 모습들이 나타난다. 영적 훈련은 먼저 개인의 삶에 적용되었으며 영적 생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의미와 사명을 발견하도록 도왔다. 결국 이러한 내적 요소들은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가치를 뛰어 넘어 다른 이들을 향해 나누어져야 하는 당위적인 가치로 인식되어 세상을 향한 열정적인 전도로 이어짐을 보게 된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요소들을 본질로 부여잡고 신앙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였으며, 한국 사회의 외적인 요소들 안에서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함께 공유하며 세상에 영향력을 펼쳤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교회 성장은 신앙적이며 영적인 요인들이 문화와 사회적 요인들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어울려 작용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내, 외적 요인들은 성장에 있어서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였으며 한국 교회는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기간에 이루어진 급격한 교회의 성장은 다른 한편으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외형적 급성장은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심리와 함께 한국 교회에 수적 승리자가 되려는 열망에 자극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열심은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며 사회적, 문화적 요소와 접목함에 있어서 정교한 신학적 작업을 통해 의미 있는 비판과 깊은 성찰의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성장자체에 초점을 맞춘 성장 위주의 방법론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다시 말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유지시키며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외적인 요소로 분류된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며 성장 중심적인 가치에 치중함으로써 본질에 중점을 두는 일을 약화 시켰으며 더 나아가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교인을 모으고 더 큰 교회를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치중함으로써 효율성을 앞세워 세속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수단과 방법의 접목을 시도하며 성장을 유지시켜 나가려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장주의 의식은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과 핵심적인 기능을 지키며 삶에 적용하려는 의지를 약화시켰다. 한국 교회는 수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성장주의에 만족하는듯 보여 왔으며 성장이 멈춘 1990년대⁸⁾ 이후에도 과거에 한국 교회가 이루어낸 수적 결과와 영광의 기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였다.

이와 같이 영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성장의 요인들에 대한 깊은 논의와 성찰을 통해 긍정적이고 본질적인 요인들을 유지하며 부정적인 요소들을 갱신함으로 지속적으로 본질을 삶에 실천하지 못한 결과, 세계가 주목했던 괄목할만한 교회성장은 1990년대 초반부터 정체에 이르게 되었다. 더욱 큰 문제는 오늘날

6) 옥한음,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제자 훈련원, 2006), 22-23. 「월간 정경문화」, 경향신문사, 1984년 2월호 참조.

7) 이영훈, “한국 교회의 부흥과 교회성장,” 「성령과 신학」, 21 (2005): 196-203.

8) 한국교회는 1995-2005년 사이에 14만 4천 명이 줄어들어 -1.6%의 성장률을 보이게 되었다. 이원규, “한국 교회, 새 희망을 말할 수 있는가?”, <http://www.church.or.kr/news/articleView.html?idxno=3438>에서 재인용 (2016년 2월 11일 접속).

교회의 성장은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 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한국 교회의 성장은 잠시 멈춘 것이 아니라 이미 쇠퇴기에 들어갔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현재의 감소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가서는 성도의 수가 550만 명대로 줄어 들 수 있다고 예측했다.⁹⁾ 이러한 교회성장에 대한 예측과 통계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보여주며 한국 교회가 현 위기국면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요구한다.

논의되어야 할 점

교회성장에 대한 고민은 성장의 본질적이고 긍정적인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요구하며 이러한 인식은 앞으로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성장의 방향에 대한 논의로 그 화두를 옮겨 장기간의 교회성장 둔화 및 침체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으로 교회성장 방향에 대한 실천 신학적 접근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교회성장 방향에 대한 실천 신학적 접근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은 바로 교회의 목적과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최동규는 이 시대의 교회성장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교회성장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 성찰에 기초하여야 함을 강조한다.¹⁰⁾ 이미 한국 교회 성장의 방향에 대한 여러 논의가 선교적 측면, 교회성장의 원리적인 측면 그리고 교회의 기능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¹¹⁾ 이 논의들을 정리해 보면 교회의 본질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용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 교회의 성장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과 더불어 필자는 교회의 목적과 본질적인 기능들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 교회의 성장 방향을 교회성장의 정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학문의 정의가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만들어 나가듯이 교회성장이 원래 추구하려는 본질적인 개념이 무엇이었나 확인하며 주된 강조점이 교회의 본질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성장 방향을 발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교회성장의 대표적인 리더로 인식되는 Donald A McGavran, Peter Wagner, 그리고 교회성장학 교과서를 저술한 Thom S. Rainer의 교회성장 정의로 연구 범위를 제안하며 여기에 더해 북미 교회성장 협회회의 정의를 살펴봄을 통해 교회성장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알아보고 교회성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학자들의 교회성장에 대한 정의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교회성장의 정의 이외의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연구의 범위가 제한됨을 밝히는 바이다.

9) 최윤식, 「20420 2040 한국 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39-43.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교육부서 총인구 변화를 조사한 결과 교회의 교육부서가 198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1990년에 이르러 예장 통합에서만 38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줄었고, 기독교 성결교회는 30%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 자료를 근거로 교육부서의 감소세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1985년에 16%에서 1995년 19.7%로 성장했다가 2005년에는 18.7%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10년마다 1%씩 추가적인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2060년에는 550(이단포함)만 명대로 줄어들 수 있음을 예측했다.

10) 최동규, “한국 포스트모던 문화의 도전과 교회성장의 과제,” 「신학과 실천」, 20 (2009, No5): 108-31.

11) 최동규, “참된 교회성장을 위한 선교적 교회론의 기초,” 한국 복음주의 실천 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23권 (2011, 봄: 275-300), 진정한 교회성장은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교회의 본질 가운데 선교적 속성에 맞추어야 됨을 강조하였다. 안기성, “교회성장원리가 한국교회성장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개혁주의 교회성장학회, 「개혁주의 교회성장」, 제4권 (2009: 1-40), 교회성장 원리가 한국 교회의 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하였다. 임채남, “건강한 교회 성장에 관한 실천적인 고찰: 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 복음주의 실천 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31권 (2014:봄 105-32), 건강한 교회성장의 실제적 고찰과 기능적인 특징들에 대해 논하며 교회 성장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 교회성장의 정의

오늘날 교회성장이 문제를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회성장에 대한 이해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교회성장의 의미 파악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서로 상이한 실천방안을 만들게 되며 이로 인해 교회성장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¹²⁾ 그러므로,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며 교회성장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은 교회성장 운동을 시작한 창설자와 그의 후계자 또 이 운동에서 새로운 리더로 등장하는 이들이 정의하는 교회성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교회성장의 본질적인 목적과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교회성장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Donald A. McGavran의 정의

교회성장 운동의 창시자인 McGavran은 “교회성장은 새 회중이 형성됨을 통한 영적인 재생산(spiritual reproduction)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바로 이 방법을 통해 성장했다”¹³⁾라고 정의한다. 교회성장에 대한 McGavran의 정의는 회심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교회의 회중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성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말한다.¹⁴⁾ 이 정의는 교회성장을 이해하는 전체적인 기본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교회성장의 주요 관심 대상은 불신자(pro prospective believers)이며 그가 추구하는 교회성장의 방향은 회심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기에 자연스럽게 전도를 강조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는 전도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제자화(discipling)의 중요성을 소개한다. 회심한 신자는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배우고 삶에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¹⁵⁾ 이러한 제자의 삶에 대한 강조는 회심한 이들에게 본질적인 삶의 목표이자 실천 강령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제자화를 통해 다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어 새로운 회중이 생성되는 과정을 거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기대했던 것이다. McGavran은 크리스천에게 전도의 사명과 책임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과정을 통해 재생산의 결과를 이루어 나감으로 교회가 성장할 것을 기대했다. 이 삶에 대한 강조는 수적인 증가에 목표를 둔 신앙생활이 아닌 영혼구원과 제자의 본질적인 삶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교회성장 운동의 창시자인 McGavran의 교회성장에 대한 정의와 이해는 교회성장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나타내 주며 교회성장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교회성장의 방향을 깨닫게 해주는 본질적이며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

C. Peter Wagner의 정의

두 번째, 필자가 주목하는 교회성장의 정의는 McGavran과 더불어 교회성장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Peter Wagner이다. 그는 교회성장운동의 전도자로 강연과 세미나 및 저서 활

12) Joon Huh, “An Analysis of The Ga-Jung Church’s Evangelistic Strategies And Their Impact On Church Growth” (Ph.D diss.,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08). 본고는 필자의 박사 학위 논문 “An Analysis of The Ga-Jung Church’s Evangelistic Strategies And Their Impact On Church Growth”의 제2장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보완한 것임.

13) J. W. Pickett, et., *Church Growth and Group Conversion*, 5th (S.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73), 98.

14) Pickett, et. *Church Growth and Group Conversion*, 97.

15) Donald A. McGavran, *Eye of the Storm: The Great Debate in Mission* (waco, TX: Word, 1972), 14.

등을 통해 교회성장 운동을 널리 확산한 인물이다. Wagner의 교회성장 정의를 살펴보면 “교회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relationship)가 없는 이들을 주님과 관계를 맺도록 불러들이는 일과 책임 있는 멤버십 안으로 불러들이는 모든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다.”¹⁶⁾ Wagner의 정의에서도 교회성장의 주요 관심 대상은 불신자인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는 이들이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으로 그들을 책임 있는 교회의 회원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을 교회성장의 본질적인 사명으로 여겼다.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삶의 모습을 요구하며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책임 있는 지체가 되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¹⁷⁾ 그러므로, Wagner가 기대하는 교회성장은 구원받은 성도의 양적증가와 더불어 그들이 책임 있는 멤버가 되도록 인도되어지는 내적, 질적 증가를 통한 성장이다. 이러한 교회성장의 과정은 신앙생활의 목표를 책임 있는 교회의 일꾼이 되는 일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성숙함을 목표로 하는 제자가 만들어 짐으로서 지속적인 제자의 재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 교회는 이 땅에서 교회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와그너가 주장하는 교회 구성원에게 요구되어지는 성숙도(책임)의 목표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교회의 지상 대명령(Great Commission, 마 28:19-20)의 목표인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과 본질적으로 연결되며 교회성장 운동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 지상 대명령의 주요 목표인 제자화의 과정은 북미 교회성장협회가 제정한 교회성장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다. 북미 교회성장협회가 교회성장을 정의하기는 “교회성장은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것과 관련된 크리스천 교회의 건강, 기능, 배가(倍加), 개척, 팽창, 특성을 고찰하는 훈련이다...”¹⁸⁾라고 말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교회성장의 중요한 목표가 지상명령인 제자화를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상 대명령의 주요 목표인 제자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교회성장의 목표(goal)가 된다.

Thom S. Rainer의 정의

세 번째 살펴볼 교회성장의 정의는 Thom S. Rainer의 정의이다. Rainer는 미국 남 침례교 신학교(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의 빌리 그래함 스쿨(Billy Graham School)의 학장을 역임했으며 교회성장학 교수로 오랫동안 후학들을 양성하다가 현재에는 라이프웨이(Lifeway) 출판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며 교회성장학 교과서를 비롯해 많은 저서활동과 교회성장 컨설팅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Rainer는 교회성장을 정의하길 “교회성장은 왜 교회가 성장하고 쇠퇴하는지를 성서적, 사회학적, 역사적, 행동적 관점에서 연구를 통해 이해하는 학문이다. 진정한 교회성장은 주님의 ‘지상 최대명령’을 수행하는 제자들이 책임 있는 교회 구성원으로 증원될 때 일어날 수 있다. 이 학문은 Donald McGavran의 사역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한다.¹⁹⁾ Rainer는 교회의 성장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것을 제시하면서도 교회성장의 중점을 제자화에 두고 있다. 제자화에 대한 강조점은 McGavran과 Wagner의 교회성장 정의에서도 강조되는 것으로 교회성장은 제자화를

16) Peter Wagner, *Your Church can Grow*, rev. ed. (Ventura, CA: Regal Books, 1989), 14.

17) Peter Wagner, *Strategies for Church Growth* (Ventura, CA: Regal Books, 1989), 54.

18) Peter Wagner, The North American Society for Church Growth, *Strategies for Church Growth*, 114. 와그너는 이 정의가 제정될 당시 북미 교회성장 협회의 일원이었다.

19) Thom S Rainer, *The Book of Church Growth: History, Theology, and Principles*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3), 21. 이 책 서문에 피터 와그너는 Rainer를 교회성장의 차세대 대표자로 추천한다.

이루는 대사명의 과정과 책임 있는 멤버십을 고취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지상 대명령의 본질적인 목표인 제자삼음의 실천 모습이 책임 있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짐을 통해 이루어지며 교회성장의 핵심적인 실천사항으로 소개되고 있다. 결국 제자화의 일에 집중하는 것과 지속적인 제자가 생산됨을 통해 교회 성장을 기대한다.

Rainer는 이러한 이해와 더불어 교회성장을 시작하면서 McGavran의 주요 관심사였던 전도에 대한 관심을 재조명한다. 그는 교회성장 운동의 핵심을 영혼구원에 중점을 두는 효과적인 전도에 의한 성장으로 인식했으며 이 목표를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말하길 “우리는 교회성장의 방법과 이론들이 사회 과학에 매혹 되면서부터 이 운동의 처음 관심사였던 전도에 대해서는 흔히 간과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McGavran이 1930년대와 1940년대 교회성장에 관한 질문들을 시작할 때 대부분의 질문들은 전도에 관한 것들이었다. (교회성장의) 주요 관심은 방법론이 아니라 바로 효과적인 전도에 있었다”라고 했다.²⁰⁾ 교회성장의 다양한 원리와 방법들이 새롭게 소개되면서 교회성장의 본질적인 목표인 전도에 대한 관심이 희석되는 경향을 지적한 것이다. 그가 재조명 하려는 관점은 교회성장에 있어서 전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교회성장의 시작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이었고 교회성장에 대한 McGavran의 주요 관심이 바로 전도에 있었음을 설명한다. 영혼구원에 대한 강조점이 교회성장의 과정에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주요 주제와 관점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교회의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Rainer는 교회성장의 관심과 노력이 원래의 강조점이었던 전도의 의무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다. 그는 오늘날 교회성장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위기는 이러한 교회성장의 정의를 역사적으로 인식하는 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교회성장의 원래 주요 관심사였던 효과적인 전도와 제자화에 대한 강조로 교회성장의 주제가 다시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교회성장 정의를 통해 발견되는 3가지 방향성에 대한 연구

앞에서 언급한 세 명의 주요 학자들의 교회성장 정의를 종합해 보면 교회성장 본래의 주요 취지와 목적은 3가지의 주제로 요약되는데 1) 전도 2) 제자화 3) 재생산의 과정을 통한 성장임을 발견할 수 있다. 이 3가지 분야는 다양한 실천적 영역들을 포함하는 주제들이며 이미 실천신학에서 다루어 왔었던 주제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성장이 관심을 갖는 다른 다양한 주제들과 연계되면서 교회성장 본래의 강조점이 희석되어진 듯하다. 필자는 교회성장 정의를 통해 강조되어진 3가지 주제들에 대해 재조명함으로써 교회성장의 원래의 목적과 방향성을 재인식하고 건강한 교회성장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주제들이 교회의 목적과 본질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성경적 원리와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에 더해, 이 주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전도

교회성장의 정의에 따른 주요 주제의 시작은 전도에서 출발함을 볼 수 있다. 전도는 교회성장에 있어서 핵심 주제 중 하나이며 지속적인 연구의 대상이 된다. 교회성장은 전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시작하였고 이 원리

20) Chuck Lawless and Thom S. Rainer. eds., *The Challenge of the Great Commission: Essays on God's Mandate for the Local Church* (Crestwood, KY: Pinnacle Publishers, 2005), 7.

를 통해 성장을 기대해 왔다. 심민수는 오늘날 회복되어야 할 전도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5가지 전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1) 복음의 본질적 동기를 회복하는 전도 2) 복음의 원형을 회복하는 전도 3) 신앙적 가치와 덕을 회복하는 전도 4) 섬김과 나눔을 회복하는 전도 5) 교회의 본질적 이미지를 회복하는 전도를 통해 전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경적 가치를 담아내는 전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²¹⁾ 이와 같이 전도의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기에 앞서 전도의 본질적인 의미를 고민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며 본질을 사회적 문화적 상황속에서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은 교회성장의 핵심 주제로 계속 자리 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도를 통한 성장의 방향성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교회성장의 방향을 살펴보면 기존 신자들을 불러들여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함을 통해 교회의 성장을 지향한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이들, 즉 잃어버린 영혼들을 중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도는 불신자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시작되기에 이들에 대한 강력한 기도와 그들을 이끄는 전략에 집중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불신자를 향한 교회의 관심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도 전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 성장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회심에 의한 성장을 이루는 교회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Rainer는 그의 저서 “효과적인 복음주의적 교회(Effective Evangelistic Church)”를 쓰면서 첫 페이지에 기록하길 “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교회성장의 장서들을 다시 읽어 보아도 회심에 의한 교회성장을 이끄는 교회들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라고 고백하며 불신자의 회심에 의해 교회의 성장을 이룬 576교회의 특징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²²⁾ 그는 이동신자가 아닌 불신자의 회심에 중점을 둔 교회성장의 방향성이 실제로 적용되어 성장이 이루어진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 이 원리의 실효성과 중요성을 보여 주었으며 교회성장 본래의 관심과 초점이 영혼구원에 있음을 재강조하며 교회성장의 방향이 이 원리와 보조를 맞추어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교회성장의 방향성은 불신자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연구를 발전시켰다.

Rainer는 “불신자들의 놀라운 관점과 그들에게 다가가는 입증된 방법들(Surprising Insights From The Unchurched and Proven Ways to Reach Them)”이라는 또 다른 저서를 통해 최근에 교회에 등록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새신자들의 관점을 소개했다. 그는 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계기가 되는 요인들을 연구하며 13가지의 이유를 발견한다.²³⁾ 이러한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불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담임 목회자의 설교와 리더십이고 다른 주요 요소는 교회 멤버들의 복음 전도 활동이라는 것이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교회 리더십의 역할과 복음 전도의 기회가 교회에

21) 심민수, “현대 문화시대에 회복해야 할 목회와 전도 패러다임,” 한국 복음주의 실천 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20권 (2009, 가을: 58-88).

22) Thom S. Rainer, *Effective Evangelistic Churches: Successful Churches Reveal What Works and What Doesn't*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1996), 1. Rainer는 회심을 통해 성장한 교회들을 효과적인 복음주의적 교회로 보고 있으며 그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다.

23) Thom S. Rainer, *Surprising Insights From The Unchurched and Proven Ways To Reach Them* (Grand Rapids, MS: Zondervan, 2001), 19-22. Rainer가 여기서 말하는 새신자(Formerly Unchurched)는 최근 2년 내에 교회에 등록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들을 말한다. 이러한 새신자들 중 350명 이상의 설문문을 통해 그들을 교회에 이끈 13가지 요인을 소개한다. 그 요소들은 (1) 담임목사님의 설교(90%) (2) 설교의 교리(88%) (3) 교인들의 친밀감(49%) (4) 다른 이슈들(42%) (5) 교회 구성원의 복음 제시(41%) (6) 가족의 교회 참석여부(38%) (7) 교회의 영적 분위기(37%) (8) 교회의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25%) (9) 성경 공부(25%) (10) 자녀들의 주일학교(25%) (11)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12%) (12) 예배, 음악(11%) (13) 위치(7%)이다.

정착하는데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13가지 요인들이 한국의 실정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제시된 요인들 중 많은 부분이 한국의 새신자들의 관점과 다르지 않으리라 본다. Rainer는 새신자들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그들이 교회에 정착해서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에 참여하게 만든 요소들을 발견했고 그 요인들을 다시 불신자에게 적용할 것을 당부한다. 그는 교회의 관심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집중되어야 하며 좀 더 효과적으로 그들이 교회에 정착하며 활동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인지하여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불신자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불신자의 입장에서 전도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교회의 현실을 반영하며 그들에게 복음 제시와 교회사역 안으로의 초청의 기회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실제로 Rainer의 다른 연구에 의하면 82% 새신자(the formerly unchurched)가 만일 그들이 교회에 더 일찍이 초청되었다면 교회에 출석할 마음이 있었다고 대답했으며 소수의 새 신자들만이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는지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가졌었다고 응답했다.²⁴⁾ 결국, 전도 대상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 그리고 초청되어 온 새신자에게 지속적인 영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재생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전도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회심에 의한 성장이라는 본질적인 교회성장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대가 바뀔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불신자)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복음과 사역안으로 초청하는 일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전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도를 통한 교회성장의 방향성의 연구는 불신자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기존 신자들이 전도에 관심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Rainer는 기존 신자들이 불신자(Unchurched)를 전도하지 않는 10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1) 영적인 무기력감(Spiritual Lethargy), (2) 포용주의의 증가(Growing Inclusivism), (3) 지옥에 대한 불신의 팽배(The Growing Disbelief in Hell), (4) 분주함(Busyness), (5) 거부에 대한 두려움(Fear of Rejection), (6) 관대함(A desire to be Tolerant), (7) 전도의 습관을 잊어버림(Losing the Habit of Witnessing), (8) 책임성 결여(Lack of Accountability), (9) 초대 실패(Failure to Invite), (10) 전도하지 않는 교회에 출석(We Go to Churches That Do Not Reach the Unchurched).²⁵⁾ 이 연구는 전도에 무관심한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태도와 실상을 드러내며 이들의 전도 의지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반영하고 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날 크리스천은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Rainer는 이 연구를 통해 전도에 무관심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교회의 에너지를 전도에 집중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고쳐나갈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전도자와 전도대상자 모두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전도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계속 발전돼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전도를 통한 교회성장의 방향을 종합해 보면 불신자 전도에 대한 강조점이 창시자인 McGavran에 의해 시작되어 Rainer에 의해 재조명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Rainer는 교회성장을 효과적인 전도에 의한 성장으로 인식하며 불신자의 회심에 의한 교회성장을 기대한다. 이와 같이 교회성장은 전도를 통해 세상을 향한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며 그 방향성도 불신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전도 방법과 실천 전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24) Thom S. Rainer, *The Unchurched next door* (Grand Rapids, MS: Zondervan, 2003), 24-26.

25) Rainer, *The Unchurched next door*, 215-31.

2) 제자화

교회성장의 정의에 따른 두 번째 핵심 주제는 제자화이다. 제자화는 교회성장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으로 불신자에게 초점을 맞춘 전도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지상 대 명령을 교회가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이다. McGavran은 제자화의 시작을 개인의 회심 이후에 뒤 따르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침례(세례)받는 단계를 거쳐 교회의 멤버십으로 들어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헌신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²⁶⁾ 이 과정을 통해 성도의 내적인 성장과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왕국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자화의 과정은 단계적 성장을 포함하며 단계별 성장을 이루기 위한 훈련의 기준과 목표가 효과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먼저 이 과정의 시작 단계는 성경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훈련에서 출발한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보여주신 모범을 배워 제자의 삶에 적용함으로 지혜와 도움을 얻는다. 이러한 제자 훈련의 과정을 교회용어 사전에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는 성숙한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과정을 말한다(마 16:24). 이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나 초대교회 사도들의 헌신과 사역을 모델로 한 것으로… 그 내용과 방법은 모두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²⁷⁾고 정의한다. 제자화의 과정은 성도가 회심 후에 스승인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배우고 따르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제자 훈련의 기초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하고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여기에 더해,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 생활에 전념하는 훈련이 제자 훈련의 과정 속에 포함된다.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기도하는 모범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세우기전 산에 올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눅 6:12-16)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마 6:9-13)를 가르치셨고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눅 22:42)을 보여 주셨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범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했다(행 1:12-14).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훈련은 제자훈련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며 제자 훈련을 통해 기도생활의 필요와 유익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에 전념하므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인도되어짐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제자 훈련의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70년이 넘도록 많은 교회와 선교 단체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네비게이토(Navigator) 선교회의 제자 훈련 과정이 그 예이다. 네비게이토의 창시자인 Dawson Trotman도 제자 훈련의 기초를 성경 말씀을 배우는 훈련으로 시작하며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하고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도왔다.²⁸⁾ Dawson은 말씀을 배우는 일의 중요성에 더해 성경 암송에 대한 신앙생활의 유익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에 제자에게 있어서 성경 암송은 필수적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의 동기에 의해서 성경을 암송하는 일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기에 성경 암송과

26) Donald A, McGavran, “How about That New Ver ‘To Disciple?’” *Church Growth Bulletin* (May 1979): 265.

27) “제자 훈련,” 「교회용어사전」, 183.

28) Robert Walter Felts, “A Critical Analysis of Dawson Trotman’s Methodology of Discipleship for Contemporary Mission Strategy among North American Evangelical Mission Agencies” (Ph.D diss.,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89), 101. 이 과정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승리, 용서 그리고 준비(provision) 등을 배우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

목상을 정기적으로 훈련할 것을 강조했다.²⁹⁾ 또 그는 제자훈련에 과정 중에 기도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훈련이 정착되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³⁰⁾ 이러한 제자 훈련의 결과는 네비게이토 사역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고 발전시키는 모습을 통해 나타났다. 이와같이 말씀과 기도 훈련은 네비게이토 선교회 제자 훈련의 근간을 이루는 과정으로 인식되었으며 효과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로 여겨졌다.

제자 훈련에 있어서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도 훈련의 과정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끌게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모범(막 8:34)³¹⁾을 따르는 단계로 발전된다. 이 과정은 회심한 이후 한두 차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모범을 따라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사랑과 희생의 모범을 끊기 있게 실천하는 삶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질 수는 없겠으나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희생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훈련의 과정과 목표가 제자의 삶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설명된다.³²⁾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존귀히 여김을 받으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갓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며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이들이 이 땅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며 사랑으로 복종하는 삶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십자가를 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은 제자 훈련에서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훈련의 목표가 된다.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통해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배우고 익히며 더 나아가 주님이 명령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의 의미와 목적을 실현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제자화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제자가 아닌 주님이 주신 사명의 중요성을 깨닫고 의지적으로 훈련의 기준과 목표를 정하여 효과적으로 실천함을 통해 단계적 성장을 이루어 가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전하고 펼치는 제자화의 과정이 요구되어 진다.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 얻으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목적과 의미를 선포하는 단계에 이르는 제자일 것이다. 이러한 제자화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제자가 만들어 짐을 통해 교회는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회심한 이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본질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게 훈련함을 통해 세상을 향해 복음의 선포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성장의 단계를 포함

29) Better Lee Skinner, 네비게이토 역, 「도슨 트로트맨」(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2006), 57-67.

30) Robert D. Foster, *The Navigator* (Colorado Springs: Navpress, 1983), 346.

31) 개역 개정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가복음 8:34). 본 논문에서는 개역 개정판의 성경을 사용함.

32) 빌립보서 2장 6-8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 훈련이 교회성장에서 중점을 두는 제자화의 과정이 되어야 하며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구체적인 제자훈련의 목표와 표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재생산

마지막으로 교회성장의 정의를 통해 발견되는 중심 주제는 “재생산”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걷어가는 이들은 복음의 의미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가치를 이미 경험하였기에 이 중요성을 공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삶은 자연스럽게 재생산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며 재생산을 통해 교회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McGavran은 재생산의 과정을 통해 교회성장이 이루어지며 Rainer는 지상명령의 수행하는 제자들이 책임 있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증원될 때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지속적으로 지상 대 명령을 수행하는 제자들이 재생산됨을 통해 교회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생산하는 제자는 교회성장에서 기대하는 제자화의 결과이며 이상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그럼 재생산하는 제자는 어떠한 준비가 갖추어진 모습일까? 마태 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에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에 대해 규정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단지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명령하신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기대하는 제자는 배움과 훈련과 능력이 갖추어짐을 통해 또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며 지속적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³³⁾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의 모습은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생산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따르는 삶의 훈련이 선 요건으로 갖추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범과 가르치는 사람의 방법과 영향력이 전달되어 새로운 제자를 재생산 할 수 있는 일꾼을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제자 훈련의 목표가 단지 지식전달이나 교제 습득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재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부르셨기에 재생산에 대한 강조는 제자화 과정의 출발에서부터 기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교회성장의 정의를 통해 재생산하는 제자의 모습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재생산을 목표로 하는 제자화의 과정이 재조명된다. 오늘날 교회성장이 멈추고 교인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생산에 중점을 두는 제자화의 과정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앞으로 기대되는 제자의 모습은 회심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며 더 나아가 재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는 제자일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성장의 정의를 통해 살펴본 교회성장의 핵심적인 강조점들은 Grudem이 제시한 교회의 목적과 지상 대명령과 밀접히 연결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과 대상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기준과 목표를 세우는 일에 대해 교회성장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나아가 재생산하는 제자를 통해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핵심가치들은 교회성장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본질적인 기본원칙이 되며 이 원리들을 바탕으로 교회성장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실천 방향을 만들어갈 때 비로소 지속적으로 교회는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세상에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33) W. Edward Thiele, *Fruitful Discipleship* (New Orleans: LA Insight Press, 1994), 134.

4. 교회성장의 3가지 방향성을 실천한 예

Ed Stetzer와 Mike Dawson은 다시 부흥한 324개의 교회들을 연구 분석하며 교회의 리더십이 인식하는 부흥으로 이끈 상위 세 가지 요소를 기도, 전도, 설교(말씀)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부흥한 교회들은 전도와 기도 그리고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재조명하며 체계적이며 전략적으로 이 요소들을 교회에 접목했을 때 교회의 부흥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말한다.³⁴⁾ 다시 부흥한 교회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과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3가지 핵심 요소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계별로 사역에 접목한 결과 성장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비전을 얻고 그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기 위한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의도적으로 계획하며 불신자들을 초청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전도된 이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머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제자화의 과정을 전략적으로 사용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을 거쳐 다시 이들이 자발적이고 계획된 재생산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단계를 거치며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이다.³⁵⁾ 다시 부흥한 324교회들의 부흥 요인들은 지금까지 교회성장 정의에서 재조명하며 강조하는 원리들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러한 원리들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실제 사용되어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교회 운동 중에서 ‘가정교회’도 이러한 예로 분류된다.

1993년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시의 한 한인교회(휴스턴 서울침례교회)에서 시작한 가정교회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전도 전략을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사역에 비전을 두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³⁶⁾ 목장이란 공동체 모임을 통해 전략적인 전도가 이루어지는데 목장을 통해 전도대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이 대상자를 위해 모든 목장 식구들이 기도하며 목장내로 우선 인도되어지도록 노력한다. 목장에 정착한 전도대상자는 기존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교회로 인도되어지며 지속적으로 말씀과 신앙훈련의 도움을 받는다.³⁷⁾ 이렇게 가정교회는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사역에 두고 서로 돕고 섬기는 사역을 통해 제자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간다. 가정교회는 영혼 구원 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는 본질을 충실히 붙잡고 불신자에 초점을 두고 전도를 분업화하여 공동체의 사역으로 접목시켰으며 삶과 연결된 제자화를 통해 지속적인 재생산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제자화와 재생산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늘어나는 것은 교회성장의 본질적인 핵심가치와 방향성을 이해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성장과 퇴보를 반복하며 이어져 왔다.

34) Ed Stetzer and Mike Dawson, *Come Back Churches*, 김광석 역, 「다시 부흥한 324 교회 성장 리포트」 (서울: 요단출판사, 2010), 251-52. 이 연구는 지난 시간동안 정체나 쇠퇴를 경험하며 예배 참석 인원이 10% 미만 감소한 교회 중에 다시 최근 2년 혹은 5년 사이에 매년 최소 10%의 출석 증가가 있거나 침례(회심)받은 성도 비율이 일인당 1:35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324교회를 설문하여 다시 부흥을 경험한 교회 지도자들이 인지하는 교회 갱신과 회복에 영향을 준 요소들을 연구하였다.

35) Ed Stetzer and Mike Dawson, *Come Back Churches*, 131-53.

36) 최영기, 「가정교회에서 길을 찾는다」 (서울: 두란노 2015), 196-238. 가정 교회는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카자흐스탄, 모잠비크, 멕시코, 페루, 인도네시아 등지로 확산되고 있다. 가정교회 사역원에 등록된 가정교회는 한국 185개, 미국 52교회가 등록돼 있으며 143차에 걸친 목회자 세미나가 이루어졌다. <http://housechurchministries.org/네트워크/가정교회주소록>.

37)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사 1996), 139-44.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과 목적에 집중할 때는 성장을 경험하였고 교회의 관심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쇠퇴기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쇠퇴기에 접어든 교회들이 교회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새롭게 인식하려고 노력할 때 교회는 다시 회복되어 짐을 본다. 교회성장은 이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교회성장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교회성장의 정의에서 강조하는 전도, 제자화, 재생산에 두고 지속적으로 본질에 다가서려고 노력할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나가는 말

교회성장 정의를 통해 살펴보는 교회 성장의 과정은 복음을 먼저 듣고 배우며 다시 전해야 하는 전도의 사명을 본질적인 목표로 인식하며 시작했다. 효과적인 전도에 중점을 두고 불신자들에게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출발하여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신앙의 핵심가치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더 나아가 세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재생산의 과정을 거친다. 앞으로 교회성장의 방향성이 이러한 요소들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며 신앙생활에 실천적으로 적용하여 불신자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순환적인 사역으로 맞추어지길 기대해 본다. 필자는 지금까지 교회성장 정의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회성장의 본래의 강조점이 전도와 제자화 그리고 재생산에 맞추어져 있음을 논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교회성장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본 원리가 되며 이 핵심가치들이 교회의 목적과 본질에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를 설명하였다. 이 원리들을 바탕으로 실천 방향을 만들어갈 때 교회는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 가치를 인지하고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여 부흥을 경험한 교회들은 이 원리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교회의 성장과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치 대나무가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며 기본을 다지고 성장의 단계마다 마디를 짓고 다시 성장해 높은 대나무가 되듯이 교회성장 본래의 강조점과 방향성을 교회의 목적과 본질적인 기능에 연결해 더욱 깊이 뿌리 내리도록 심도 깊은 논의와 연구하는 과정이 요구되며 그 위에 실천적인 내용을 접목해서 성장의 단계마다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고찰하며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교회용어사전. “행정 및 교육, 교회의 기능.”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 교회용어사전. “제자 훈련.”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 심민수. “현대 문화시대에 회복해야 할 목회와 전도 패러다임.” 한국 복음주의 실천 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20권(2009): 58-88.
- 신현광. “초기 한국 교회 성장에 관한 연구,” 한국 복음주의 실천 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13권 (2007): 193-213.
- 안기성. “교회성장원리가 한국교회성장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개혁주의 교회성장학회. 「개혁주의 교회성장」, 제 4권 (2009): 1-40.
- 옥한음.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제자훈련원, 2006.

- 이영훈. “한국 교회의 부흥과 교회성장.” 「성령과 신학」, 21권 (2005): 196-203.
- 임채남. “건강한 교회 성장에 관한 실천적인 고찰: 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 복음주의 실천 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31권 (2014): 105-32.
- 최동규. “한국 포스트모던 문화의 도전과 교회성장의 과제.” 「신학과 실천」 20 (2009, No5): 108-131.
- _____. “참된 교회성장을 위한 선교적 교회론의 기초,” 한국 복음주의 실천 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23권 (2011): 275-300.
- 최영기. 「가정교회에서 길을 찾는다.」. 서울: 두란노, 2015.
- _____.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사, 1996.
- 최윤식. 20420 2040 한국 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 Barna, Gorge *Revolution*. 김용환 역. 「레블루선: 교회 혁명」. 서울: 베이스캠프미디어, 2004.
- Clark, C. A.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Illustrated in Korea*, 박용규, 김춘섭 공역, 「한국 교회와 네비우스 선교 정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Skinner, Better Lee. 「도슨 트로트맨」. 네비게이트 역. 서울: 네비게이트 출판사, 2006.
- Stetzer, Ed and Dawson, Mike. *Come Back Churches*. 김광석 역. 「다시 부흥한 324 교회 성장 리포트」. 서울: 요단출판사, 2010.
- Felts, Robert Walter “A Critical Analysis of Dawson Trotman’s Methodology of Discipleship for Contemporary Mission Strategy among North American Evangelical Mission Agencies” Ph.D diss.,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89.
- Foster, Robert D. *The Navigator*. Colorado Springs: Navpress, 1983.
- Grudem, Wayne.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4.
- Huh, Joon “An Analysis of The Ga-Jung Church’s Evangelistic Strategies And Their Impact On Church Growth” Ph.D diss.,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08.
- J. W. Pickett, ed., *Church Growth and Group Conversion*, 5th ed. S.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73.
- Lawless, Chuck and Rainer, Thom S. eds., *The Challenge of the Great Commission: Essays on God’s Mandate for the Local Church*. Crestwood, KY:Pinnacle Publishers, 2005.
- McGavran, Donald A. “How about That New Ver ‘To Disciple’?”. *Church Growth Bulletin*. May 1979.
- _____, Donald A. *Eye of the Storm: The Great Debate in Mission*. Waco, TX: Word, 1972.
- Rainer, Thom S. *Effective Evangelistic Churches: Successful Churches Reveal What Works and What Doesn’t*.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1996.
- _____, Thom S. *Surpring Inshghts From The Unchurched and Proven Ways To Reach Them*. Grand Rapids, MS: Zondervan, 2001.
- _____, Thom S. *The Book of Church Growth: History, Theology, and Principles*.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3.

_____, Thom S. *The Unchurched next door*. Grand Rapids, MS: Zondervan, 2003.

Thiele, W. Edward. *Fruitful Discipleship*. New Orleans: LA Insight Press, 1994.

Wagner, Peter. *Strategies for Church Growth*. Ventura, CA: Regal Books, 1989.

_____, Peter. *Your Church can Grow*, rev. ed. Ventura, CA: Regal Books, 1989.

<http://housechurchministries.org/네트워크/가정교회주소록> 2016년 2월 11일 검색.

<http://www.church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438> 2016년 2월 11일 검색.

[Abstract]

A Study on the Growth Direction of the Church through Definition of Church Growth

Huh, Joon

This thesis aims to recognize the purpose and core value of church growth through the study of definition of church growth and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church growth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the study. This study refocuses that the original point for church growth is on evangelism, discipleship, and reproduction. And also discuss that these core values are related deeply to the purpose of church and the Great Commission. These core value becomes basic principles of the church growth direction setting. And the church will be influential to the world and will be expected to develop constantly when practice direction is made according to it's original meaning and the purpose with these principles,

Future direction of the church which observed through the definition of church growth should suggest strategy of evangelism and practice direction to perform the purpose of the church towards the world effectively. Also, we need to set a goal and standard of life and basic knowledge on Bible as a disciples, who carry out this responsibility. And go through the process of following Christ with free will.

Moreover, we can expect the church growth through the essential calling of church and the practice of love to the neighbors and the disciples who reproduce their influence to the world. I expect the church would grow by linking main purpose and basic function of the church with focus of church growth and direction which will drive practical contents.

Keywords: Church Growth, Evangelism, Discipleship, Reproduce, Direction of Church Growth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교회성장의 정의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회성장의 본질적인 목적과 핵심 가치를 인식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교회성장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교회성장의 본래의 강조점이 전도와 제자화 그리고 재생산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조명 하였으며 이러한 핵심 가치들이 교회의 목적과 지상 대명령과 밀접히 연결돼 있음을 논하였다. 이러한 핵심가치들은 교회성장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기본원칙이 되며 이 원리들을 바탕으로 교회성장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실천 방향을 만들어 갈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전파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성장의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는 교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도 전략과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서 말씀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기준과 목표를 세우며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따르기 위한 훈련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제자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더 나아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재생산하는 제자를 통해 교회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성장 본래의 강조점과 방향성을 교회의 목적과 본질적인 기능과 연결해 실천적인 내용을 접목함으로 교회성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주제어: 교회성장, 전도, 제자화, 재생산, 교회성장의 방향성

논평

허준 교수의 “교회성장의 정의를 통해 살펴 본 교회의 성장 방향에 대한 연구”

김선일(웨신대 실천신학)

허준교수의 논문은 교회 성장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고찰함으로 목회적 방향을 제시함에 있다. 최근 한국교회의 대형화와 물량주의가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교회 성장’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 논문은 교회 성장의 원래적 의미를 규명함으로 긍정적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지닌다.

허교수는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고전적 교회 성장학의 대표적 리더인 도널드 맥가브란과 피터 와그너, 그리고 톰 레이너의 주장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의미하는 교회성장의 주요 이슈들에 천착하며 교회 사역의 핵심과 방향을 논한다. 그 동안 교회성장운동과 이들 교회 성장학자들에게 제기된 비판은 매섭고 예리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지 않고 막연한 편견에 근거한 비난들이 적잖았던 것도 사실이다. 단순히 교회 성장학을 교회의 몸집 불리거나 사람 끌어 모으기 위한 기법으로만 이해하고 불신함으로써, 20세기 선교와 실천신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이 운동을 객관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소비주의적이고 번영주의적 교회성장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거리를 두고 경계해야 함은 필요하다. 그러나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에 대한 막연하게 부정적이고 인상적인 평가를 함으로서, 실제 이 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회심과 제자도, 그리고 복음화라는 근본적 교회의 사명을 함께 간과할 위험도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군다나 허교수가 진단했듯이, 한국교회의 현실 위기 앞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의 문제로 고심하며 수고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신학적 정리와 방향 제시는 긴급히 요청되는 사안이다. 이는 신학이 대면하고 도와야 할 현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허교수의 논문은 이러한 상황적 필요성을 잘 담고 있으며, 교회 성장의 정의를 규명하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교회 성장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맥가브란과 와그너, 레이너의 교회 성장론을 설명하면서 교회성장의 3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1) 전도, 2) 제자화, 3) 재생산이다. 이 3가지는 고전적 교회성장학자들의 주된 관심과 주장들을 응축하고 있는 방향성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교회 성장학을 교세확장을 위해 동원되는 방법론들의 집대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혼구원과 제자화라는 교회의 근본적인 사역을 각성하고 갱신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필요성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는 형식적인 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첫째, 논문의 구성에서 좀 더 균형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내용 전개에

서 명료한 구분도 필요하다. 논문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분량이 13페이지인데, 서론 격(‘ 들어가면서’)에 3페이지가 할애된 것은 본론으로의 진입을 진부하게 만든다. 교회성장의 요소들은 서두에서 다루는 것은 본 논문의 논지에 잘 부합되어 보이지 않기에 연구자의 의도를 분산시킨다. 오히려 이 내용은 서론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 주제와 소 단락에 일관성이 없다. ‘2. 교회성장의 정의’에서는 교회성장학자들의 이름을 볼드체로 제시하며 단락을 구성하다가, ‘3. 교회성장 정의를 통해 발견되는...’에서는 1), 2) 로 단락을 구성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더욱 세분화된 소 주제와 소 단락이 추가되어야 한다. ‘전도’와 ‘제자화’는 추가적인 단락 구분없이 각기 2페이지 이상을 차지하는데 구획화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교회 성장의 사유 전통에서 도널드 맥가브란은 원조 격에 해당되는데 그에 대한 인용이 빈곤하다. 심지어 네 번째 페이지에서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 정의를 언급하면서도 그의 주장은 그의 주 저서들이 아닌 공 저서에 의존해서 나오고 있는데, 논의의 근거로서는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다. 오히려 와그너와 특히 레이너의 최근 저서들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논의의 보완적 균형이 요청된다.

셋째, 허교수가 왜 위의 세 사람을 대표적인 교회 성장학자로 지정했는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넷째, 실제 논의에 있어서도 대표적인 교회 성장학자들이 충분히, 균형있게 다루어져 있지 않다. ‘전도’에 관해서는 주로 레이너의 교회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 실용적 전략서들에만 의존하는 인상이며, ‘제자화’에서는 도슨 트로트맨과 네비케이토의 사역이 더 많은 논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요 교회 성장학자들의 논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4. 교회 성장의 3가지 방향성을 실천한 예’도 충분한 사례 분석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다. 에드 스테처와 마이크 도슨의 책을 간략하게 설명한 뒤, 휴스턴 서울침례교회의 가정교회 사례를 들고 있는데 매우 대략적인 기술에 그쳐서 전도-제자화-재생산의 교회 성장 프레임이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보여주기에 미흡하다.

여섯째, 사소하지만 용어들 번역에서 ‘prospective believers’를 ‘불신자’라고 하기보다는 ‘미래 신자’ 혹은 ‘잠재적 신자’로 하는 편이 더욱 긍정적이지 않을까? 또한 톰 레이너의 책 Effective Evangelistic Churches는 ‘효과적인 복음주의적 교회’ 보다는 ‘효과적으로 복음전도를 하는 교회들’이라고 하는 편이 좀 더 적확해 보인다.

아무쪼록, 이 논문을 통해서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 성장에 대한 관심과 진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이처럼 귀한 논의를 열어준 허준 교수의 노고와 기여에 감사한다.

허 준 교수의 “교회성장의 정의를 통해 살펴본 교회의 성장 방향에 대한 연구”에 관한 논평

임채남 박사 (하늘씨앗교회/해오름교회/뉴올리언즈침례신학교 졸업)¹⁾*

1. 들어가는 글

본 연구는 목적은 “교회의 목적과 본질적인 기능들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교회의 성장 방향을 교회성장의 정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교회 성장의 본질적인 개념 속에서 강조된 주요한 요소를 추출하여 교회의 본질과의 연결점을 찾아내므로 장래 한국 교회가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교회 성장의 대표적인 학자인 Donald A. McGavran, Peter Wagner, Thom S. Rainer 의 교회성장 정의를 다루었다. 이들 학자들의 정의 속에는 공통적으로 강조된 세 가지 본질적 목적과 가치가 있었다. 전도, 제자화, 재생산이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이들 세 가지 요소들이 교회의 목적과 본질에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를 살피며, 현대 교회가 교회 성장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실천할 것을 도전하고 있다.

2. 연구의 공헌점

본 연구는 오늘날 교회 성장의 지체와 정체, 나아가 침체에 이르게 된 원인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회성장에 관한 목적과 본질적인 요인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교회성장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의 공헌점은 무엇보다도 교회성장의 정의라고 하는 기본에 충실했다는 점이다. 교회성장의 기초가 되는 모본과 같은 대표적인 세 명의 학자들의 정의와 견해를 재조명하여, 본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적절했다.

또한, 질과 수라고 하는 균형잡힌 교회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교회성장의 정의에 포함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주제인 전도, 제자화, 재생산을 심도 깊게 재조명하므로, 질과 양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교회성장의 원리를 제공한다. 단편적으로 보면, 교회성장의 목적을 재생산이라고 오해하기 쉬우나 전도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제자화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끝으로, 교회성장의 본질을 연대기적으로 조명하여,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과거 성경적인 이해와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교회의 목적과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밝히고, 이와 연결된 오늘 날 변함없는 기본원리와 핵심가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교회 성장이 나아가야할 실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교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본래의 강조점들—전도, 제자화, 재생산—을 바탕으로, 발전된 실천 방향을 만들어 참다운 부흥이 이어질 것 기대하고 있다.

3. 연구의 아쉬운 점

본 연구가 기본에 충실하고 자연스러운 논리적 전개가 탁월할지라도,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엿보인다. 우선, 개념의 모호함이다. 본 연구는 들어가는 말에서 교회성장의 요인들을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특징들과 웨인 그루뎀(Wayne Grudem)의 교

1) 본 논평자는 뉴올리언즈침례신학교에서 전도학 박사 학위 수여 후, 현재 개척한지 4년 된 교회의 협동목사와 또한 개척 교회의 동역목사로 함께 섬기고 있다.

회의 목적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필자인 허 준 교수는 교회의 목적과 기능이 “교회가 교회로 인식되어지는 본질적인 요소들이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천 강령”이고, 교회 성장의 정의를 통해 발견하는 3가지 방향성을 정리하면서, 교회성장의 핵심적인 강조점들이 그루뎀의 교회의 목적과 지상대명령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교회의 특징, 목적과 본질, 그리고 기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함 있어서 용어 사용의 모호함과 혼란함이 있다. 허 교수는 웨인 그루뎀이 말한 교회의 목적에 조지 바나의 사도행전 교회의 핵심적인 특징과 연결되어 교회의 주요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자는 그루뎀이 교회의 목적을 예배, 사랑, 전도와 선교로 구분지어 제시했다고 하였다. 교회의 목적을 다루기에 앞서, 앞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번역상의 오류이다. 번역상의 오류가 아닐지라도 연구자의 언급과 웨인 그루뎀의 최초 글과는 차이가 있다. 즉, 웨인 그루뎀은 교회의 목적에 대해 하나님께 대한 사역을 예배(Worship)로, 신자들에게 대한 사역을 양육(Nurture)으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사역으로 전도와 구제(Evangelism and Mercy)라고 했다.²⁾ 예배, 사랑, 전도와 선교라는 본고의 표기에는 작은 오류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본 논평자는 본고가 동의한 그루뎀의 교회의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루뎀은 하나님, 신자들, 세상에 대한 사역의 관점에서 교회의 목적을 주장했다. 과연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배, 양육, 전도와 구제인가? 목적 속에 포함된 기능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능이 맞지 않을까?³⁾ 그렇다면 교회 존재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과 관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⁴⁾

둘째, 연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가 다소 취약하다. 본 연구자는 주요한 주장에 대한 근거와 실례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다. 하지만, 세세한 부분에 대한 역사적, 문서적 자료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본고는 서론에서 교회의 수적 성장을 추구하는 방법론에 치중하여 교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연구자가 주장하는 “성장주의 의식은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과 핵심적인 기능을 지키며 삶에 적용하려는 의지를 약화시켰다”고 주장 근거는 무엇인가? 또 교회의 수적 쇠퇴의 원인을 “성장의 요인들에 대한 깊은 논의와 성찰을 통해 긍정적이고 본질적인 요인들을 유지하면 부정적인 요소들을 갱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본질을 삶에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남는다. 그리고 교회의 쇠퇴에 대한 근거로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의 연구를 들었다.

2) 이에 관해서는 노진준의 최초 번역이 적절하다.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e Doctrine*, 노진준 역, 『조직신학(하)』 (서울: 은성출판사, 2009), 41-42.

3) Millard J. Erickson은 교회의 기능들에 전도(Evangelism), 도덕적인 계발(Edification), 예배(Worship), 사회적 관심사(Social Concern)를 포함시킨다. Millard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2nd (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Group, 1983), 1060-1069.

4)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워낙 방대한 주제이기에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하라: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권수경·이상원 역, 『벌코프 조직신학』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822. Grudem은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 하며,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George E. Ladd가 설명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에 동의한다. Ladd가 말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자,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이다.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e Doctrine*, 노진준 역, 『조직신학(하)』 (서울: 은성출판사, 2009), 30, 35-36; George E. Ladd, *The Presence of the Future: The Eschatology of Biblical Realism*, 이태훈 역, 『예수와 하나님 나라』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8), 311-323. F. F. Bruce 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명시하며, 교회의 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F. F. Bruce, *God's Kingdom and Church*, 김상배 역,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 (서울: 도서출판 두레마을, 1991), 117.

최의 연구는, 1980년부터 1990년까지 교회 교육부서 감소에 따른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결과였다. 이러한 감소추세를 근거로 기독교 인구가 2060년 550만 명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수치가 ‘수적 성장만을 추구하며, 교회 본질에 대한 논의와 성찰의 부족에 의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한 교육부서와 기독교 인구의 감소는 사회학적·인구통계학적 영향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최의 자료가 연구자의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재고해 보아야 한다. 추가로 교회 목적에 대한 정의에서 Thom Rainer의 주장과 간접인용에 대한 각주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한 편만을 강조하며, 교회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고려가 아쉽다. 본 연구는 교회성장의 방향을 이야기 하면서, 기존신자보다는 비신자를 전도하여 훈련시키고 재생산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 ‘전도 및 건강한 교회성장’ 학자로서 본 논평자는 십분 동의하는 바이다. 본고의 일관되고 통일된 주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함에 마땅하다. 하지만, 비신자 못지않게 기신자를 훈련시켜 제자화하여 교회성장을 이루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남는다. 우선, 전도하여 예수 믿으면 그는 이미 기존신자이다. 재생산도 비신자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신자에 의해 일어난다. 명확한 기준과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한 기존신자들일수록 복음전도의 비율이 낮아진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세상 속 복음전과를 어렵게 하는 것 또한 오래된 기신자들의 영향이 크다. McGavran이나 Rainer의 주장처럼, 불신자의 회심을 통한 교회성장이 순수하고 효과적이며 쉬운 길 일수 있다. 하지만, 결국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한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에 상관없이 이미 기존 신자이다. 또한 복음전도에 소홀한 기존신자를 훈련하여 전도에 대한 열정과 실천을 이루어 낸다면,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된 공동체의 재생산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의 주장대로, 회심한 이들이 훈련되어 재생산하는 것만이 제자화 과정이며,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성숙한 제자”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4. 나가는 글

본 연구는 교회성장의 기초적이고 본질적 정의가 탄탄하다.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남길 지라도 현재 한국 교회가 쇠퇴가 아닌 성장으로 다시 부흥되게 하기 위한 공헌도에 비하면 아주 미미할 따름이다. 이처럼 교회성장의 견고한 정의와 그 본질적 구성요소들에서 추출된 기본원리와 함께, 올바른 교회의 목적이 달성되고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성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자유발표 4]

개혁주의생명신학 회개용서운동
실천에 관한 설교학적 모색

발표



황빈 박사
(강성교회)

좌장



문병하 박사
(KC대)

논평1



신성욱 박사
(아신대)

논평2



채경락 박사
(고신대)

개혁주의생명신학 회개용서운동 실천에 관한 설교학적 모색

황빈 (강성교회)

I. 들어가는 글

먼저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본 글이 학문적 독창성이나 학계로의 기여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본고의 일차적인 목표는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회개와 용서”라는 주제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필자가 실시하고자 계획 중인 세미나용 교재의 일부로 활용코자 함이다. 따라서 본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학문적 논의는 충분치 않다는 점을 필자 스스로 인정한다. 다만 이 글을 통해 목회현장에서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에게 작은 참고 자료가 되기를 소망할 뿐이다.

본 글의 전반부는 개혁주의생명신학과 그 실천을 위한 7대 실천운동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회개”와 “용서”라는 용어에 대한 일반적(심리/상담학적) 해설과 성경적(신앙적) 해설로 이어진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회개와 용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먼저 한 후, 그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해당 주제에 대해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 접근으로 나아갈 것이다.

본 글은 다음 두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본 글은 회개와 용서에 대한 심리/상담학계의 연구 성과와 신학계의 연구 성과를 융합하고자 하는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적이지 않은 일반 학계의 주장이 다소 섞여 있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다소 산만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본 글은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회개와 용서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화해(화목, 화합,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결되어야 그 논의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면의 한계와 논의의 집중도 제고를 위해 부득이 화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제외키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연구자가 더욱 심도 깊게 연구하여 줄 것을 기대해 본다.

II. 펴는 글

1. 개혁주의생명신학과 그 실천을 위한 7대 실천운동

안타깝게도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고 스스로를 보수정통이라고 자부하는 교회들 가운데 적지 않은 경우 “영적인 생명력이 약화되고 세속의 가치를 따라가며, 성장이 둔화되고 세상의 비난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개혁주의신학 자체에 어떤 오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른 교리를 가졌다고 자부하면서도 그 가르침대로 자기를 개혁하지 않는” 까닭에 빚어진 가슴 아픈 결과이다(장중현, 「개혁주의생명신학 선언문」, 2010년 5월 21일).

1) 개혁주의생명신학의 핵심

개혁주의신학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

계 영광'이라는 다섯 가지 표어(five solae)로 요약될 수 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는 유명한 말처럼, 원래의 역사적 개혁주의가 지향하던 방향에서 변질되어 잘못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위에 제시된 5대 표어를 기준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살피고 스스로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 개혁주의생명신학의 핵심이다.

2)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이와 같은 끊임없는 자기개혁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성도 개인의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고자 개혁주의생명신학은 다음과 같은 7대 실천운동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개혁주의신학을 계승하려는 신앙운동이다.
-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지나치게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신학은 학문이 아님’을 강조하여 그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코자 하는 신학회복운동이다.
- 개혁주의생명신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용납하여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 회개용서운동이다.
-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시키는 영적생명운동이다.
-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主) 되심을 실현하려는 하나님나라운동이다.
-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실천을 추구하며,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킨 것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세상과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섬기는 데 앞장서는 나눔운동이다.
-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오직 성령만이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생명운동, 하나님나라운동, 그리고 나눔운동을 가능하게 하심을 고백하며, 모든 일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는 기도성령운동이다. (개정, 2014년 11월 1일)

3) 7대 실천운동 가운데 회개용서운동의 중요성

위에 표시된 7대 실천운동은 최초 2010년 5월에 선포되었다가 2014년 11월 1일에 개정된 내용이다. 당초 기도운동과 성령운동이 각각 독립적인 항목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기도성령운동으로 합해지고, 회개용서운동이 새로 추가되었다. 장종현 박사는 개정 내용의 공포에 보름여 앞서 개최된 제7회 개혁주의생명신학 포럼(2014년 10월 13일)의 주제설교를 통해, 회개용서운동이야말로 이 시대의 절실한 요청이며, 지금의 분열을 딛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 회개와 용서를 실천하지 않으면 미래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음을 역설했다. 앞에서 언급한 실천운동의 개정은 이 설교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장훈태에 따르면, 그 날 장종현 박사는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인용하면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와 용서 없이는

연합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했고,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대가 옮겨질 것이기 때문에 회개의 긴박성을 외치기도 했다”(장훈태 192). 요컨대, 다른 6가지 실천운동도 모두 중요하지만,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회개용서운동은 매우 시급하고 중차대한 실천과제가 아닐 수 없다.

2. 용어 해설

1) 회개

회개라는 단어는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다. 이 단어는 자못 심각한 죄악, 그것도 특히 종교적 죄악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일반 학계에서 회개라는 개념에 대한 연구와 언급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일반 학계와 신학계의 연구 성과를 고루 살피고자 하는 원칙을 세우고 연구에 임했으나 부득이 회개에 대해서만큼은 일반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회개”라는 무겁고 종교적인 뉘앙스가 담긴 단어보다는 “죄를 뉘우치다,” “잘못을 반성하다,” 혹은 “피해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회개”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뉘우침”이나 “반성” 혹은 “사과”등의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박요일 목사는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강성교회) 신앙교육교재에서,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회개 “즉 죄에서 돌아서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회개란 “성령의 역사로(행 11:18, 딤후 2:25) 말미암아 지적으로는 죄를 분별하고, 감정적으로는 죄를 미워하며, 의지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는 생활을 말합니다(고후 7:10-11). 즉 회개란 죄악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다’,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박요일, 2012, 34).

장훈태 교수는 개혁주의 조직신학자 루이스 벌코프의 회개관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회개는 하나님에 의하여 죄인의 의식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이며, 이전의 삶의 방향이 현명하지 못하고 잘못되었다는 자책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장훈태 189). 벌코프의 회개관이 정적이고 단회적(결정적) 회개를 강조하여 말하는 반면, 정경호는 회개의 역동적이고 연속적(과정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그에 따르면 “회개란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reawakening)이며, 자신의 지나간 죄성의 삶을 돌아보고(review), 거듭난 새로운 삶(renew)을 시작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재확인하면서 그 사명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refocus)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정경호 74-75).

철저한 회개의 성경적 사례로 삭개오라는 인물을 꼽을 수 있다. 삭개오는 예수에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눅 19:8)라고 말했다. 정경호는 삭개오의 이러한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인데, “철저한 회개를 수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행동”이라고 평가한다(정경호 75).

정경호의 견해를 활용하여 삭개오의 회개를 필자 나름대로 분석하자면, 삭개오는 기나 긴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reawakening), 과거 자신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짓을 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고(review), 그렇게도 소중한 여기던 재물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새로운 삶

을 시작했으며(renew), 이제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삶에 전혀 새로운 인생 목표를 적용하기 시작한(refocus) 것이라 할 수 있다.

2) 용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회개라고 하는 용어는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계가 아닌 일반학계에서는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는 개념이다. 하지만 용서의 경우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용서가 갖는 긍정적이 치유 능력에 대한 심리/상담학 분야의 연구가 활발해졌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용서에 대해 일반적(심리/상담학적) 해설과 성경적(신앙적) 해설을 나누어 소개한다.

(1) 용서에 대한 일반적(심리/상담학적) 해설

서구 심리학 분야에서 용서란 개념의 정의에 대해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합의는 없는 실정이다(김기범, 임효진 20). Hargrave는 용서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가능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보았고(김현경 61), Heider의 경우 좀 더 단순하게 “보복 행동을 포기하는 것”으로 설명한다(김기범, 임효진 20). 전자가 용서의 적극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면 후자는 소극적 의미의 용서를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Hargrave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좀 더 긍정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Heider는 용서란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의 태도 변화와는 상관없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는 결정을 내리는 내면적 심리상태로 본다.

이 두 사람의 입장의 중간쯤에 Maltby가 서 있다. 그는 용서란 “부당한 대우를 당한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극복하려는 신중한 노력”이라고 규정한다(김기범, 임효진 20). 그의 설명 가운데 주목할 만한 대목은 바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라는 부분이다. 이런 입장을 따른다면 용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개선까지는 기대할 수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피해자가 자신의 용서 행위를 통해 발생한 유익을 자기 스스로에게로 가져갈 수는 있게 된다. 다시 말해 Hargrave의 경우처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사랑과 신뢰가 싹트지 않을지라도, Heider가 말한 것처럼 피해자는 더 이상 보복의 의사를 갖지 않음으로써 과거의 상처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삶과 새로운 행복을 향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Maltby는 Hargrave와 Heider의 중간쯤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용서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개선 노력으로 보는 Hargrave의 입장은 McCullough와 Enright 등에게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McCullough는 용서란 “대인관계에 대한 동기가 친사회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서 가해자에게 보복하거나 회피하려는 동기가 감소하고 자애를 향한 동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김현경 61). 이와 같은 설명에는 보복을 포기하는 것으로 용서를 설명한 Heider의 입장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회복까지를 염두에 두는 Hargrave의 입장이 모두 녹아 있다. 김기범 등은 McCullough가 말하는 용서에 있어서 동기의 변화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가해자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동기를 점차 감소시킴. 둘째, 가해자와의 소원함을 지속시키려는 동기를 감소시킴. 셋째, 가해자의 가해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선의와 화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동기를 증진시킴 등이다(김기범, 임효진 20). 본고의 후반부에서 설명하겠지만, McCullough의 설명에는 용서를

단회적 사건으로 보기 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친 점진적 과정으로 보려는 입장이 담겨 있다. “점차”라는 부사어, 그리고 “증가”와 “감소”라고 하는 추세적(趨勢的) 표현 등이 그 증거가 된다.

용서에 관한 서구 학계의 연구를 논함에 있어 Enright를 빼놓을 수 없다. 김현경에 따르면, Enright가 이해하는 용서란 “상처받은 사람이 가해자에 대한 분노나 적대감을 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동정과 자비, 사랑을 베풀고자 노력하는 복합적인 심리과정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분노, 증오, 원한 등), 행동(복수, 처벌 등), 인지(비판, 비난 등)를 보다 긍정적인 정서(부정적 감정의 소멸, 동정심, 사랑), 행동(화해하고자 함, 도움을 주고자 함), 인지(비심판적, 상대가 잘 되길 바람)로 바꾸는 과정”이다(김현경 61). 이 설명의 끝부분에 보이는 것처럼 Enright는 용서를 철저히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Enright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 안석의 글에 따르면, Enright에게 있어서 용서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가지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과 판단을 극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판단을 가질 자신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힌 사람을 동정, 자비, 또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노력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용서란 “우리 자신과 우리를 상처 준 자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한 선물”이다. 안석은 Enright의 용서 개념을 전인격적(인지적, 감정적, 의지적) 변화 개념으로 파악한다. 다시 말해, 용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원한 대신 자비심을 갖는 “감정적 변화”와, 가해자는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서 그도 역시 너그러움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인지적 변화,” 그리고 복수를 피하는 대신 선의의 선물을 선사하는 “행동의 변화” 등이 복합적이고 역동적으로 동반되는 전인적 변화 과정이라는 것이다(안석 267).

이 세 가지 변화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인지적 변화인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선한 감정이 쉽게 생길 수 없으며, 미운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한 복수 대신 선의의 선물을 제공하려는 행동적 변화는 기대할 수 없기에, 과정으로서의 용서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부분은 다름 아닌 인지적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Enright는 다음과 같이 인상 깊은 말을 하고 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기억하는 것이다”(Enright 56). 똑같은 사건이지만 피해자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그 사건을 기억하기로 결심하는가에 따라 용서는 가능해짐을 적절하게 설명한 말이다. Gromet과 Okimoto 역시 용서에 있어서 인지적, 감정적, 행위적 변화, 즉 전인적 변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용서란 “가해자와 그의 행위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Gromet과 Okimoto 413).

위에서 서구 학계의 연구를 국내에 소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김기범과 임효진은 서구 학자들의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그들 나름대로 용서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간략히 내리고 있다. 즉 용서란 “행위 위반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화(火)와 해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해소시키는(releasing) 과정”이라는 것이다(김기범, 임효진 21).

한편 서구 학계의 연구 성과에 기반을 두지 않고 “용서(容恕)”라는 한자어에 담긴 뜻을 풀이를 통해 용서의 의미를 설명하는 국내 연구자로 김병수가 있다. 그에 따르면 본디 용서라는 말 보다는 충서(忠恕)라는 말이 먼저 있었다고 한다. 그는 “충(忠)이란 중(中)과 심(心)의 합자(合字)로, 자기 마음속으로 성의를 다하는 충실의 뜻”이며 “서(恕)란 여(如)와 심(心)의 합자

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과 같이 생각하는 일”이라고 풀이한다. “충”이 원리라면 “서”는 실천으로 보는 그는, “내 마음이 서 있지 않으니 너에게 다가간들 용서가 될 리 있겠는가? 먼저 내 마음이 정리되고 바로 서야 너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충서를 한 단어로 묶은 이유다.”라고 설명한다(김병수 42).

여기까지는 용서가 개인(피해자)과 개인(가해자) 간에 발생하는 것을 염두에 둔 설명이다. 그러나 용서는 때때로 개인과 집단 혹은 집단과 집단 간에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시원은 “상처를 주고받는 갈등 상황은 삶의 전반에 걸쳐 있다. 그래서 용서는 개인적인 차원의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인과 사회적 집단이나 단체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사회적 공동체 사이의 문제일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했다(김시원 105).

용서는 개인 간에도 발생하지만 그룹 간에도 발생할 수 있음에 착안하여 이를 면밀히 연구한 Wenzel과 Okimoto는 그들의 공동 연구를 통해 희생자 그룹과 가해자 그룹 사이에 일어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설명해주었다. 특히 희생자 그룹의 두 가지 요소, 즉 사회적 신분의 높고 낮음과, 그룹의 폐쇄성(혹은 동질성) 여부가 용서 과정 전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예를 들어, 희생자 그룹이 혈연, 종교, 인종 등에 있어서 폐쇄적(동질적)인 공동체인데 동시에 그들의 사회적 신분이 낮을 경우의 용서 과정과, 희생자 그룹이 서로 동질성이 낮고 느슨한 결속력을 보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를 확보한 경우의 용서 과정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Wenzel, Okimoto 656). 그들의 연구를 통해, 개인 간 용서 뿐 아니라 집단 간 용서 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분명하게 대두되었고, 집단의 특성 요소(동질/폐쇄성과 사회적 지위)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용서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2) 용서에 대한 성경적(신앙적) 해설

용서에 대한 일반적(심리/상담학적) 해설에서 용서의 주체는 피해자이고 대상은 가해자이다. 이런 구도 속에서 용서를 이해하려고 할 때, 피해자는 도덕적 우위에 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에 인간 이외의 요소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다. 따라서 용서를 이야기 할 때 그 원형이자 모범으로서 하나님의 용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용서를 빼놓고 하는 용서에 대한 모든 논의는 무의미하며 무가치하다. 용서의 시혜자로서의 피해자도 용서의 대상으로서의 가해자도 모두 하나님 앞에 범 죄하여 타락한, 그래서 양 당사자 모두가 연약한 자들임을 이해하는 것로부터 용서에 대한 참된 인식은 가능하다.

앞에서 용서에 대한 Enright 등의 심리/상담학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용서는 복수하려는 동기가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복수 자체가 금지된다. 박요일 목사는 자신의 설교 “원수와 염려는 주께 맡기라(롬 12:14-21, 벰전 5:7)”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지 말라고 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히 두 가지, 즉 염려와 복수를 금지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특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라는 로마서 12장 19절을 강해하면서 “사람들이 원수를 갚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 이 땅에 누구도 정의롭게 원수를 갚을 수 없어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세상은 투쟁과 전쟁이 계속 증가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쪽에서 원수 갚는 행위를 중지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갚아주시므로 원수 갚는 악한 행위는 감소해 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한다. 그는 계속해서 “모든 인간은 원수를 분별

하거나 바르게 갚을 수 없다. 내가 원수로 분류하였으나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또 공의롭게 원수 갚을 능력도 없다. 이것을 모르고 원수 갚으려 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범죄다.”라고 지적한다(박요일, 2016, 11-12). 복수하려는 동기를 감소하려는 감소하라는 심리/상담학적 권면과는 대조적으로, 복수 자체를 금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점을 적절히 설명해주는 강해설교이다.

복수를 하지 않는 것과 용서를 하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이 두 행동이 동일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 끊어오르는 적개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복수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행동이지만, 복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해자를 용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극적 차원에서 복수의 포기가 있어야 하겠지만, 적극적 차원에서 용서를 시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김시원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함에 있어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의 사건을 모델로 삼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할 위치에 선 자이지만, 자신 역시 예수의 피흘림을 통한 용서를 받은 큰 죄인이었으므로, 지금 자신에게 악을 행한 저 가해자에게 기꺼이 용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본인이 예수 십자가의 피흘림을 필요로 할 만큼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자신을 용서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오히려 자신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일종의 가해 행위로 받아들이게 된다. 즉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하나님에게 “왜 나를 가해자로 만드는가, 라는 피해의식이 생긴다”는 것이다(김시원 114).

그런데 한 인간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자신의 범죄함을 위한 용서의 사건으로 이해할 때, 자신은 가해자요 자신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 죄의 대가를 갚아주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보상이 죽음이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깨닫게 된다(김시원 121-122). 그 죽음의 자리에서 있어야 할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의미를 깨달을 때, 인간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 타인, 즉 가해자의 죄에 대해 용서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용서가 무엇인지 홍종관은 이렇게 규정한다. “용서란 피해자가 피해사건을 가해자 중심으로 보고 가해자를 공감적으로 이해하며, 피해사건과 가해자를 하나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보아 가해자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홍종관 61). 여기서도 일반적인 심리/상담학적 해설에서 소개한 대로 Enright 등이 언급한 “인지적 변화”가 발견된다. 즉 피해 당사자가 자신이 당한 사건을 새로운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할 때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이 인지적 변화의 핵심인데, 홍종관은 피해사건에 대해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 중심의 공감적 태도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권을 믿는 하나님 중심적 태도를 가질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다.

김시원은 용서와 화해는 서로 비슷한 듯 보이지만 이 둘 사이에는 구별되어야 할 대목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용서는 “감정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을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화해가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을지 자신의 의지로 결단하는 출발선에 놓는 일”이라고 규정했다(김시원 126). 과거의 회복이나 회귀로서가 아닌 새로운 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미래 지향적 용서를 말하고 있다. 만약 이 “출발선에 놓는 일”에 성공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화해”로 나아가는 물꼬가 트일 것이다.

김시원에 따르면, 이제 “용서에서 화해으로 넘어가는 것은 가해자의 결단에 달린 일”이 된

다. 만약 가해자의 무지와 교만함 등으로 둘 사이의 화해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출발선에 놓는 일” 즉 용서하는 일에 성공했다면, 십자가 사건을 모범으로 하여 자신도 남을 용서하려 한 피해자의 선택과 시도는 그 자체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혹시 화해에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자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변화를 시행한 피해자의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실제로 피해자의 용서가 피해자-가해자 사이의 화해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패감을 느끼며 더욱 큰 피해의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간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모두 품고도 남음이 있다. 하지만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화해(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화목”)로 나아가는 일은 어디까지나 가해자인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화해(화목)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예수) 편에서의 용서가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원리가 인간 간의 용서와 화해에도 적용될 수 있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김시원의 주장은 귀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진술이다.

3. 회개

1) 이론적 접근

신약 시대의 시작은 예수로써 시작되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서,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제사의 완성으로서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예수를 통해 구약의 시대가 종결되고 신약, 즉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신약 시대의 문을 처음으로 열어젖히는 일은 광야에서 외치며 예수의 길을 예비한 요한이 감당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친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3:2)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요한이 외쳤던 바로 이 메시지가 얼마 후 예수의 입술을 통하여서 똑같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마 4:17). 여기 마태복음 본문의 “비로소”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암시적으로 알 수 있듯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메시지는 예수가 공생애 초기에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들 가운데 가장 중심 되는 핵심 메시지였다. 김성규는 세례요한과 예수의 공식사역의 시작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로 시작된 것처럼, 베드로 역시 오순절 사건 이후 회개에 대한 설교로 자신의 공식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평가한다 (김성규 988). 이처럼 신약시대의 개시와 함께 하나님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회개, 그리고 그러한 내면적 변화의 외면적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예식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1) 회개와 세례

요단강에서 회개를 전제로 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이 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예식을 스스로 창안해 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박윤만은 이 예식을 요한의 시대에 자신들만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여 은밀하고 경건한 삶을 영위하고 있던 콤란 공동체의 입회 예식과 연결짓는다. 그에 따르면 콤란 공동체에 가입을 원하는 입회자는 “제의적 목욕(ritual bath)”을 거

쳐야 했는데, 그들은 이러한 “제의적 목욕이 입회자를 의식적 부정과 도덕적 죄악으로부터 정화하는 길”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박윤만 340).

요한의 세례가 회개를 전제로 한 죄 씻음 예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과연 쿤란 공동체의 제의적 목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설명될 수 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따르면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βάπτισμα μετανοίας εις ἄφεσιν ἁμαρτιῶν)였다. 박윤만은 이 표현의 원어적 연구를 통해 회개의 세례를 실시하는 “목적”이 죄 사함을 설명한다.

부연하자면 그는 회개의 세례(βάπτισμα μετανοίας)와 죄 사함(ἄφεσιν ἁμαρτιῶν)을 연결하는 전치사 “εις”가 목적의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치사의 일차적인 용법은 “사람과 사물 혹은 사건이 다른 대상을 향해 가지는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경우”이지만, 이차적으로(은유적으로) “어떤 일과 행동의 목적과 결과를 지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요단에서 요한이 시행한 세례는 “죄 용서를 받을 목적으로 이뤄진 내적인 마음의 변화를 드러내는 외적인 의식”인 것이다(박윤만 340-341).

(2) 회개의 시급성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회개에 대한 촉구로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그들의 회개 촉구에는 시급성이 담겨 있었다는 점이다. 회개가 시급한 이유로 천국이 가까웠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와 같은 시급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회개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회개의 필요성을 깨달은 바로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시급한 것이다.

회개는 개인에게만 시급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임을 이후정은 지적한다. 그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인용하면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호소와 요청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처럼, 교회가 자신의 참 모습을 인식, 자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한다(이후정 212). 그는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 3장 17절, 즉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별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는 구절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자신의 모습을 참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구약의 예언자들의 메시지처럼,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간절한 기다림처럼, 교회는 회개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과 귀를 돌이켜야 한다. 종교개혁은 복음으로 돌이키라는 회개의 운동이었고, 복음적 부흥운동에서도 그 핵심은 회개와 회심의 영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이후정 212).

(3) 회개운동으로서의 종교개혁

바로 앞에 인용한 이후정의 글에서 알 수 있듯, 종교개혁은 다름 아닌 회개운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루터는 타락한 교회가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성경의 본래적 가르침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즉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개혁의 깃발을 들었다. 이후정이 잘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의 “거짓된 자기 확신과 자기만족, 온갖 이기주의와 교만의 보루를 깨뜨려 부수기 위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일으켜 회개운동을 하게 했다(이후정 212-213). 믿지 않는 자들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믿는 자들이 회개해야 함을 역사 속에서 보여준 사건이 종교개혁이다.

(4)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그로 인한 충만한 삶

회개를 통해 한 사람이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돌아서고, 더 나아가 교회가 지난날의 악행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회개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삭개오의 회개는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성경적 사례이다. 그는 본래 지배국인 로마에 협조하면서 동족을 괴롭히는 세금 징수의 일을 맡아 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납부할 세금을 얼마를 더 붙여서 징수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부를 축적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더욱 궁핍해졌다. 그러나 삭개오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삭개오가 살아가던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경호는 이 삭개오 사건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새 사람이 된 삭개오. 그가 나눈 회개의 밥상은 나눔의 밥상이 되어 그 시대에 하루 하루를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가는 사람,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차려진 것이었다. 삭개오의 회개의 밥상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밥상으로 차려진 것이다. 그러므로 삭개오의 회개의 밥상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풍성한 생명이 이루어진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를 담은 밥상인 것이다. (정경호 76)

삭개오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불신자였을 수도 있고, 유대교에 속하여 그 종교적 전통을 따랐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 회개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의 진실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과 그의 이웃들의 삶에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삭개오의 경우에서 보듯,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삭개오는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만나 회개한 후 자신의 재물을 의로운 일에 사용함으로써 참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회개를 통해 삭개오의 인생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는 그에게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선물한 것이다. 이후정은 회개와 충만한 삶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절히 말한다.

많은 현대 교인들 속에서 지배하고 있는 영적 죽음은 그 뿌리를 회개 없음과 영적 무감각에서 찾을 수 있다. 참된 영적인 기도는 회개 없이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다. 새로운 생명, 성화의 삶,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충만한 영성의 삶에는 반드시 언제나 눈물의 기도와 애통과 회개가 없지 않은

것이다. 한 마디로 요약해서, 회개는 거룩한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이다. 회개는 하늘을 여는 문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출입구이며 현관이다. 하늘의 환희는 회개하는 자의 애통과 죄의 사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살아있는 자의 행복에 참여할 수 있다(이후정 213-214).

(5) 과정으로서의 회개

회개는 단회적 사건일까, 연속적 과정일까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있다. 믿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서 인생의 가장 중대한 전환을 맞게 될 때, 우리는 그 중대한 전환을 가리켜 회개라고 한다. 이러한 중대 전환으로서의 회개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결정적 방향 전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과거의 실패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때 다시 성경의 가르침과 복음의 요구로 돌아서는 회개가 요청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한 인간의 생애를 통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회개는 한 번의 결정적 방향 전환일 뿐 아니라, 중간 중간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섰을 때 이루어지는 궤도 수정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회개는 단회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연속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 장훈태는 다음과 같이 적절히 설명한다.

개혁과 신학에서는 중생과 회개를 구별한다. 그리고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도 중생을 신앙 앞에 둔다. 중생을 성화와 구별하여 중생은 순간적 변화로 보고, 성화는 긴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칼빈은 중생을 회개로 본다. 성화까지 포함하여 우리 삶의 경험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평생 동안의 영적인 투쟁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칼빈에게 있어 신앙과 회개, 회개와 죄 사함, 칭의와 성화는 따로 분리된 교리가 아니라 하나로 묶인 교리이다. 칼빈은 회개와 중생을 하나로 해석하면서 이 두 개의 교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인 동시에 하나의 유기적, 총체적 틀을 이룬다는 점에서 성화로 이해하고 있다. ... 성화 역시 별개의 것으로 다루지 않고 칭의의 지속적 발전을 회개의 실천으로 설명하고 있다(장훈태 188).

2) 실천적 접근 - 설교학적 적용(회개에 대한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회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하였다. 이제 이러한 이론적 연구를 통해 얻은 통찰을 실제 목회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접근을 할 것이다. 신기형이 말한 것처럼 회개에 대한 설교는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부담스럽다. 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설교자는 같은 인간으로서 회개를 외치는 데 대한 부담이 있고, 듣는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하는 자기 부인의 짐이 있다.” 이러한 부담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목적했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신기형 121).

회개 설교의 목적은 듣는 자로 하여금 회개토록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회개 설교는 아무리 교리적으로 바르고 설교 기법에 있어서 완벽하게 전달되었다 해도 시간을 허비한 헛수고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회개 설교에 대한 부담이 설교자와 청중 양측 모두에 있는 상태에서, 설교자가 청중들이 듣기에 거북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적절한 시기와 상황에 회개설

교를 한다면, 설교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회개설교는 회개를 불러일으키기보다는 반감과 저항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회개설교를 하고자 하는 설교자들은 신기형이 제안하는 몇 가지 주의 사항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죄보다는 본질을 강조하라. 회개 설교는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본질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욕심을 회개하라기보다, 나쁨이 얼마나 귀중한지 강조한다. 미움을 회개하라기보다 사랑이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지 강조한다. 교만을 회개하라기보다 겸손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임을 알려 준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보다 더 강조해야 할 것이다(신기형 125).

앞서 이미 인용한 바와 같이 회개는 전인격적 행위여서, 지적으로 죄를 분별하는 일과, 감정적으로는 죄를 미워하는 일,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아서는 일이 총체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박요일, 2012, 34). 회개설교를 하고자 하는 설교자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먼저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성경 본문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적 통찰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그러한 지적 분석을 통해 알게 된 자신의 죄에 대해, 그리고 그런 죄를 저지른 자신의 더러운 자아에 대해 철저히 미워하는 감정적 대처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행동(의지)적 결단과 실행이 있어야 한다. 본문 말씀을 통해 자신이 먼저 지·정·의·를 통한 전인격적 회개를 실천(적용)한 후에, 그 실천의 경험을 가지고 강단에 설 때 청중들은 선포되는 설교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고, 지금 설교자가 자신을 향해 개인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다.

강해설교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해돈 로빈슨은 자신의 설교론을 펴는 설교학 교과서에서 강해설교의 정의를 내릴 때, 성경 본문의 면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하나의 성경적 개념(a biblical concept)을 성령께서 설교자의 인격(personality)과 경험(experience)에 먼저 적용하신 후, 설교자를 통하여(through the preacher) 청중에게 적용하시는 것이 강해설교의 본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obinson 2001).

회개설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설교자가 먼저 본문 연구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깨닫게 된 성경적 진리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가운데 자신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하는 삶의 과정을 통해 더욱 “실제적으로” 검증되고 확인되어 확신에 찬 자세로 전할 수 있을 때, 회개설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설교자는 청중들을 향해 지적으로 죄를 분별하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며,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아설 것을 촉구할 수 있다. 신기형의 조언대로 회개설교에서 설교자가 표적을 맞춰야 할 것은 청중이 아니라, 청중의 죄악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교자를 위한 적절한 유익한 권면을 한다.

설교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는 모든 것을 영망으로 만들어내는 것임을 알고 설교의 표적을 죄에 맞추어야 한다. 이 죄에 대한 분노와 죄에 대한 선전포고는 거룩한 분노이며 정당한 분노이고, 이 분노로 가득 찰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두려움이 없는 예언자로서 외치게 될 것이다.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는 회개 설교는 인간적인 흔적을 청중에게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설교가 될 수 있다고 본다(신기형 132).

이와 같은 죄를 향한 분노로 가득하되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설교는, 설교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품으려 노력할 때 가능하다. 조금이라도 더 우월한 입장에서 훈계하듯 하는 설교가 아니라, 자신 또한 한없이 부족하며 늘 실패하는 인생임을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와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본문의 본 뜻 그대로 전할 때 회개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던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설교가 지녔던 능력에 버금가는 변화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확신과 결연한 자세로 행해지는 회개설교야말로, 듣는 청중과 설교자 자신 모두를 하나님 앞에 하나로 묶어 교회를 회개와 용서의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일을 할 것이다.

4. 용서

1) 이론적 접근

(1) 용서의 유익

용서하는 일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나 가해자가 회개(뉘우침, 사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더욱 그럴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겐 용서보다는 징계와 복수가 어울려 보이고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의 실현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손해 보는 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용서는 분명 유익이 있다. “용서는 위험을 품는 것처럼 분명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피해자 스스로의 유익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다(이상익 233). Gromet과 Okimoto에 따르면 가해자를 용서한 피해자는 분노가 줄어들고, 가해자를 공감하게 되며, 삶의 만족도 및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향상된 결과를 보인다고 한다(Gromet과 Okimoto 414).

Griffin과 그의 동료 연구자들은 용서의 유익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한다. 첫째, 용서를 통해 크리스천들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맛보게 되고, 둘째, 용서를 통해 성부 하나님의 용서와 성자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신 자비와 사랑을 공감하게 되며, 셋째, 창조주와 함께 보낼 영원한 삶을 미리 맛 볼 수 있다는 것이다(Griffin, Lavelock, Worthington 255).

김영봉은 분노를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분노를 잘못 표출하면 죄가 될 수 있고, 분노를 마음 안에 쌓아 놓고 있으면 병이 되므로 분노를 잘 다루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만 용서하는 일에 서두를 필요는 없는데 그 이유는 “설익은 용서는 안 하느니만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김영봉 101).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측면에서 복수는 정당한 것일 수 있지만, “인간의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홍종관의 설명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복수했을 때 [원한을] 갚은 사람도 복수를 당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다”(홍종관 65).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 선부른 용서를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겠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누구보다 피해자 자신을 위해서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용서는 분명 쉽지 않은 것이지만 고통과 분노를 용서로 이겨낸 후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자기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즉 용서는 자기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김현경에 따르면 범

죄 피해자가 겪는 스트레스 반응의 단계는 모두 네 단계로서, (1)범죄가 발생하는 동안 그리고 그 직후인 충격 단계(shock stage), (2)반복적으로 사건이 생각나거나, 마치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이 행동하거나 느끼는 “재경험”으로서의 반복재생단계(recoil stage), (3)어떤 이유로 범죄가 발생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기인단계(attribution stage), (4)피해자의 정서적 균형이 되돌아오는 해결 또는 회복 단계(resolution or recovery stage) 등이다(김현경 63-64).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피해자는 “삶에 대한 감사, 새로운 가능성, 개인적 강인성, 영성,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게 되는 심리적 성장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외상 이후 심리적 성장”이라고 부른다(김현경 64). 분명 상처는 아픈 것이지만 아픈 만큼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무조건 아프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프게 한 가해자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 때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 용서의 대상 - 타인, 자신, 하나님

① 타인

상식적으로 용서는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타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김영봉의 주장대로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야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을 지혜롭게 해소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애초에 어떤 일을 당해도 전혀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적절히 분노를 다스리거나 분노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김영봉 99).

② 자신

타인이 자신에게 범한 일을 용서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가끔 인간은 자기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을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다. 김영봉은 그의 설교문에서 같은 교회 교우에게 테니스를 치자고 하여 함께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게 되는 일을 접하고, 그 일로 인해 깊이 상심하고 자책하던 사람에 대해 언급한다. “만일 내가 불러내지 않았다면 그 사고를 피했을 것이 아닌가?”라며 스스로를 질책하며 괴로워했다는 것이다(김영봉 98).

Griffin과 그의 동료 연구자들은 자기용서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전쟁에 참여하여 아군이 죽는 것을 지켜보고, 동시에 적군을 죽여야만 하는 극한 상황에 처했던 군인들의 사례를 언급한다. 작전에 투입되었던 군인들이 참전 후에 심한 트라우마(trauma)를 겪게 되는데, “후회, 분노, 수치, 자기 비난 등과 같은 만성적인 부정적 감정들로부터 야기되는 쇠약 증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를 통해” 상당부분 완화되고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다는 것이다(Griffin, Lavelock, Worthington 254).

③ 하나님

타인에 대한 용서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Griffin 등의 지적과 관련하여 용서의 대상에는 타인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포함되며,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용서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김영봉은 그의 설교의 서론에서 “오늘은 세 종류의 용서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라고 전제한 후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용서”를 생각해보자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을 용서하자는 취지의 첫 번째 대지를 펼치면서, 성경을 펼쳐보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여 하나님께 분노를 퍼붓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 “주님,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렘 20:7, 표준새번역)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 예레미야와 같은 인물을 제시한다. 또한 욥이나 시편 저자들이 “하나님의 먹살이라도 잡을 듯이 대들며 화를” 내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김영봉 95-96).

물론 김영봉의 설교문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해를 입혀서 하나님은 가해자가 되고 인간은 피해자가 되었으므로, 피해자인 인간 측에서 가해자인 하나님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건 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생겨날 수 있는데, 그 분노가 올바른 분노는 아니겠으나 일단 발생한 분노이므로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인 것으로 보인다.

분명 김영봉의 주장은 신학적으로는 억지스럽고 다소 무리가 있는 표현일 수 있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권면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문제 상황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분을 미워하며 그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용서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공감(共感)하는 것일진대,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실제 가해자는 아니지만) 가해자로 상정된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들을 재조명할 때 문제는 새롭게 해석될 수 있고, 그 새로운 해석에 입각하여 분노를 적절히 다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김영봉의 주장은 상당히 무리가 있으며, 하나님을 용서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감성을 움직이고 공감을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나, 정확한 성경적 진리만을 강해해내야 하는 설교자의 기본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인생의 힘든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면 그것을 지나치게 자책할 필요는 없으며 선지자들이나 시편 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아픈 심정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기도를 통해 일종의 치유가 시작될 수 있음을 강조한 주장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다. 엄밀한 의미에서 결코 하나님은 용서의 대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분명 일상생활에서 이따금 사람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만큼은 사실이니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참고할 만한 충고일 것이다.

(3) 가짜 용서

고가의 상품에도 진짜와 가짜가 존재한다. 용서에도 가짜 용서가 있을 수 있다. 안석에 따르면,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 없는 가짜 용서에는 다섯 종류가 있다. 첫째, 성급한 용서이다. 원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고통스러워 빨리 용서해 버리려는 것이다. 안석은 빨리 용서하는 것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서 자기존중감이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둘째, 상대를 통제하기 위한 용서이다. 실제로는 전혀 용서하지 않았으면서 상대방을 용서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도덕적 비교우위에 서서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용서는 가짜 용서라는 것이다.

셋째, 강요에 의한 용서는 가짜 용서라는 것이다. 대부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종교

의 가르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서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는 용서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더욱 좌절하며 괴로워한다는 것이다. 특히 강요에 의한 용서는 용서를 하고도 사라지지 않은 원한 감정 때문에 용서하기 전보다 더 혼란을 느끼는 부작용이 있다. 네 번째 유형의 가짜 용서는 병적 용서이다. 자존감이 매우 낮은 경우의 사람에게 흔히 일어나는 현상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서도 자신은 좋은 대우를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당한 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원한마저도 갖지 않는 경우이다.

다섯째로, 안석은 심리적 방어기제로서의 용서는 가짜 용서라고 말한다. 실재하지 않는 가해 행위를 상상하면서 그것을 용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신의 결점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어기제로서)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는 행동 양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하면서 자신에게는 어떤 결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안석 264).

우리 주변에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긴 대화를 나눠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힘담) 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대화에 언급된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말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완벽함과 도덕적 우위를 증명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유형의 사람들과의 대화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정작 그 사람 당사자에 대한 깊고 솔직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타인의 결점을 말하고 그에 대해 용서를 선언하는 것을 일종의 심리적 방어기제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긴 대화를 하지만 그 대화 속에서 정작 자신의 아픔과 문제점들에 대해 솔직하게 나누는 것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4) 용서의 불가능성과 가능성

① 용서의 불가능성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과 부정적인 대답이 공존한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용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용서는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먼저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살펴보자. 김병수는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말하면서, 사소한 부부 싸움 중에 남편이 “입 닥쳐!”라고 하자 죽을 때까지 23년간 입을 열지 않은 아내의 사례를 소개한다. 그는 “그래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용서하지 못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성취했다는 것인가?” 라며 안타까워한다(김병수 41).

김기범 등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도 용서하지 않은 응답자들은 ‘그냥 용서가 안 된다’, ‘뉘우침이 없고 달라진 게 없다’, ‘다음에 또 그럴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용서하지 않게 되었다고 응답을 했다(김기범 임효진 권명수 189). 한편 가해자들의 입장에 대해 연구한 김시원은 가해자들 가운데 “내가 왜 용서해 달라고 빌어야 해요? 나만 잘못된 것이 아닌데.” “먼저 나를 화나게 만들었으니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간거지요, 억울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김시원 108). 그는 용서와 화해가 어려운 근본적 이유는 동일 사건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식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라

고 말한다(김시원 112).

두 연구를 비교하여 정리하자면, 가해자는 가해자 나름대로 할 말이 있고 논리가 있기 때문에 차마 먼저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런 가해자의 태도를 보면서 피해자는 왜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한 채 두 사람의 관계는 평행선을 달릴 때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용서가 가능하려면 우선 당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식 또는 해석이 같아야 하며, 가해자 측에서 먼저 진심어린 사과(회개, 뉘우침)를 해야만 용서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김영봉은 그의 설교에서 용서가 어려운 이유를 다음과 같이 풀어 말한다.

그런데 때로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그런 줄도 모르고 있을 때, 혹은 나에게 준 상처에 대해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일 때, 분노는 더욱 커지고 용서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사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상처 때문에 아픈데, 너는 말 한 마디로 짐을 벗으려고 하느냐?’는 생각에 속이 뒤뜰립니다. 때로는,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에 용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봉 100)

이만큼 용서란 쉽지 않은 행동이다. 홍종관은 용서하기가 힘든 이유로 피해자의 자기중심적 태도를 꼽는다.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당해 사건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왜곡해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용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용서의 불가능성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말한다 (홍종관 65).

홍종관의 말처럼 우리가 비록 상처받는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지금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 역시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으로 알고 자신이 입은 상처에만 집착하지 않고 사건을 좀 더 객관적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는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제 용서의 불가능성이 아니라, 용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② 용서의 가능성

용서가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기가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만 한다. 김영봉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자신의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풀어냈다.

나의 양심과 증오와 원한을 통해 내가 벌하고 있는 사람은 정작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나의 원한과 증오심으로써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음을 아십니까? 용서하는 것이 때로 죽기보다 힘들지만,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이 그 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용서함으로써 자유함을 얻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김영봉 100-101)

- 진실규명

그런데 용서가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하다.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관계가 분명해지지 않은 채 맹목적으로 용서를 선언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가짜 용서(성급한 용서, 강요에 의한 용서, 병적 용서 등)가 되기 때문이다. 이은선에 따르면 용서는 과거의 사실을 용납해주는 마음의 일인데 “과거의 사실(fact)이 자꾸 감춰지거나 조작되거나 분명하지 않을 경우” 용서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진정한 용서의 시작은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고 다시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무엇이 ‘진실(truth)’이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출발한다는 것이다(이은선 17).

- 공감적 이해와 인지적 재구성

이와 같은 진실 규명이 전제되었다면, 그 진실의 토대 위에 두 가지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홍종관은 주장한다. 첫째는 공감적 이해이고, 둘째는 인지적 재구성이다. 먼저 공감적 이해란 “자신을 타인의 입장에 놓음으로써 그의 내면세계로부터 그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을 가리킨다(홍종관 68). 그는 공감적 이해의 전형적 예로 은식기를 훔쳐 달아난 장발장을 용서한 주교를 꼽는다. “무엇이 [주교]로 하여금 장발장을 용서하게 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주교가 장발장을 공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주교는 감옥에서 갓 나온 장발장이 직장도 얻을 수 없어 그 성당을 나가면 다시 의식주문제가 그의 생존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의 딱한 사정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것이다. 장발장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나니 그에 대한 배신감도 배은망덕하다는 마음도 없어진 것이다”(홍종관 69).

용서를 위한 첫걸음인 진실 규명이 끝나고, 밝혀진 그 사실관계에 대해 공감적 이해마저 이루어졌다면 이제 인지적 재구성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홍종관은 성경 인물 요셉은 자신의 당한 일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지적 재구성을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한다. 즉 요셉이 형들의 가해 행위, 즉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노예로 팔아넘긴 과거의 사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건과 형들을 자신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편에서 보는 인지적 재구성이 필요”했다는 것이다(홍종관 72). 요컨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먼저는 진실의 규명이 필요하고, 그 규명된 진실을 토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공감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과,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권의 관점에서 인지적 재구성을 이루어낸다면, 용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이와 같은 공감적 이해와 인지적 재구성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 믿음을 통해서만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상역은 누가복음 17:4-6의 주해를 통해,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4절)에 대해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요청(5절)했으며, 다시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뿔나무를 명하여 옮길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용서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적적 사건임을 보여주는 본문 말씀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가능하려면 로마서 10:17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한다(이상역 241-242).

앞에서 말한 공감적 이해와 인지적 재구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용서와 친밀도의 관계

용서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용서를 가능하게 하고 가속화시키는 요소가 있다. 그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친밀도이다. 용서와 친밀도의 관련성에 대해 김기범 등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전의 친밀했던 관계는 가해자의 위반 행위로 인해 관계를 통한 믿음과 신뢰, 안정감 등을 깨뜨리게 하고 이것이 해/상처를 더 크게 지각하도록” 이끈다고 한다. 다시 말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종전부터 있었던 친밀도는, 둘 사이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사건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느끼는 충격과 아픔을 증폭시킬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존재하던 친밀도는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김기범과 그의 동료 연구자들은 “이처럼 친밀하고 오랫동안 알아온 관계는 해나 상처를 더 큰 것으로 지각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줌으로써 용서가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김기범 임효진 권명수 195).

이런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교회 내에서 평소 성도의 교제를 깊이 나누던 교우로부터 상처를 입을 때 그것은 모르는 세속의 사람으로부터 입는 상처보다 더 크고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둘 사이의 믿음 안에서 다져진 친밀함 때문에, 공감적 이해와 인지적 재구성이 일어나기 훨씬 용이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앞에서 홍종관이 지적한대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전제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사전 친밀함의 농도가 진할수록 회복을 향한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교회는 갈등과 그 갈등상황을 극복하는 용서를 통해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간다. 이에 대해 Griffin 등은 “에베소서 4:1-6에 나오는 바와 같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 교회는 개인 간 용서의 확장을 통해 다양성과 갈등 속에서도 한 몸을 이루어간다.”고 적절히 진술한다(Griffin, Lavelock, Worthington 253).

결론적으로,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요소들이 적절히 융합된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일만 달란트의 빛을 탐감받은 자로서 백 데나리온의 빛을 용서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바른 성경적 이해와 믿음을 갖춘 성도들이라면, 용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5) 과정으로서의 용서

용서는 유익한 것이며 그를 통해 성장케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용서는 단회적이고 단기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장기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안석은 용서에 대한 심리/상담학적 연구로 유명한 Enright의 업적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뒤 그가 용서를 4단계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Enright는 용서는 크게 개방, 결심, 작업, 발견의 단계를 거치는데, (1)분노를 개방하는 개방 단계, (2)용서하려고 결심하는 결심 단계, (3)용서작업을 실행하는 작업 단계, (4)의미를 발견하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해방되는 발견 단계 등을 거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가해자

를 용서하는 과정으로 제시된 이 4가지 단계는 “차례대로 한 단계씩 거쳐 가도록 정돈되어 있는 과정이 아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래 전에 통과했다고 생각한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안석 269).

용서를 과정으로 이해한 김영봉은 그의 설교에서 “용서는 사건(event)이기보다는 과정(process)”이며, “한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계속해서 그는 “용서를 열망하고 있으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분노가 익습니다. 분노가 잘 익었을 때 용서를 선택하면, 그 응어리는 녹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금새 녹아 버리고,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용서는 이루어집니다.”라고 설명한다(김영봉 102).

용서는 일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꽤 긴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임을 이해한 이상억은 용서를 “삶의 여정”으로 규정하고, 이 여정을 거치고 마침내 용서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6가지 요소들을 지적한다. 첫째, 스스로는 용서를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기인식 필요하다. 둘째, 상처를 받는 것도 사람 때문이지만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사람을 필요로 하므로 용서라는 여정은 반드시 사람의 지지, 즉 공동체의 지지가 필요하다. 셋째, 원수 갚는 것은 정의의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롬 12:19) 가해자에 대한 저주의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넷째, 믿음 성장과 회복을 위한 말씀 묵상과 예배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말씀 묵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인 분노와 억울함에 대해, 또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의 정서에 대해 내관(introspection)을 통해 자신을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 승화, 즉 분노에 대해 건강하게 표현하고 발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당한 것과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인과 사회 공동체의 구조적 모순을 척결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섯째, 이 모든 여정에 대한 인정과 감사가 필요하다. 즉 이러한 모든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부족하기에 다시 무너지고 다시 아플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이 지난한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족의 경건을 회복”해야 한다(이상억 244-245).

(6) 용서의 성경적 모델

성경인물들 가운데 용서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모델 인물로 자신을 애굽에 종으로 팔아 넘긴 형들을 용서한 요셉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용서의 불가능성과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때 “공감적 이해”와 “인지적 재구성”의 좋은 모델로 요셉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이미 충분히 논의를 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른 두 가지 성경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탕자를 용서한 아버지이고, 둘째는 용서(죄사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① 탕자를 용서한 아버지

김병수는 아버지의 용서를 받는 탕자 이야기를 소재로 한 렘브란트의 성화는 진정한 용서의 관계를 수평적 위치로 그려냈다고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고관대작의 대청마루 높은 곳에서서 땀 아래 죄인으로 꿇어 엎드려 용서를 청하는 탕자의 모습으로 그렸다고 상상해 보라. 어찌 용서의 감흥이 전달될 수 있겠는가? 헐벗고 지쳐서 돌아온 아들을 보고 내려와 끌

어안고 감싸주는 아버지의 낮은 자세야말로” 참된 용서의 모습이며, “반면 그 옆에 씩씩거리고 서서 분노의 샷대를 지르는 큰아들의 모습”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김병수 43). 진정한 용서는 “눈높이의 사랑”이며, 더 나아가 “용서하지 않을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이다(김병수 44).

② 예수 그리스도

안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치유를 경험하고 용서를 배우며, “나는 누구인가”하는 정체성과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하는 소명을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십자가를 통해 용서 받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화해를 위한 이야기임을 알게 되고, 자신을 화해의 대리자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안석 281).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결국 그의 사역은 용서, 즉 죄사함의 사역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죄사함의 사역은 가는 곳마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서기관과 같은 종교지도자들은 예수가 무슨 권리로 감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선언하는가에 대해 심한 반발을 보였다(막 2:7,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나 김광수에 따르면 그러한 종교지도자들의 극단적 반발은 예수가 “신적 특권을 사칭했다는 개인적 문제보다는 예수의 선언이 서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확립해온 유대교의 상징적 질서와 사회 체계를 위협하는 사회-정치적 문제가 되었다는 시각에서 볼 때” 더 잘 이해될 수 있다(김광수 55).

죄사함을 선언하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종교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라는 허울을 씌웠을 뿐 사실상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불청객의 도전으로 보고 이에 분노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중 핵심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용서, 즉 죄사함의 사역은 기존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저항과 반발 속에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예수의 용서의 사역은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그리스도 사역의 최대 역점 과제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용서하기 위해, 그리고 그 용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죄악을 저지른 가해자인 인간이 그 죄악의 대가로 감당해야 할 죽음의 형벌을 피해자인 하나님 자신이 감수함으로써 보여준 역설적 용서의 모델은 믿는 자들 모두에게 용서의 참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성경적 모델이 아닐 수 없다.

2) 실천적 접근 - 설교학적 적용(용서에 대한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적 설교자라면 용서라는 주제를 피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용서라는 단어가 포함된 성경 구절이 매우 많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 용서에 대한 대하드라마임을 의미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데 구속 혹은 속량이란 곧 죄사함을 의미한다(엡 1:7). 다시 말해 성경 각권의 개별적인 주제적 강조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중심 주제는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설교자는 성경의 어느

구절을 강해하건 그는 지금 “용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인간 용서는, 첫째, 인간과 인간 사이의 용서의 동기와 모범이 되며, 둘째, 용서받은 자들이 모여 서로 용서하고 보듬어주는 공동체, 즉 교회라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초청과 요구가 된다. 따라서 성경적 설교자라면 성경 어느 부분을 펴서 강해를 하더라도 용서라는 주제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특정 구절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더욱 구체적이고 밀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넓게는 성경적 설교(혹은 구속사적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면서, 좁게는 그와 동시에 용서라고 하는 특정 주제를 다루는 본문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견지한 채 본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용서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의 가상파트너로 저명한 신학자 R. C. Sproul을 선정하고, 그의 책 *What Can I Do with My Guilt*의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여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적고자 한다.

(1) 용서받은 사실과 용서받은 느낌

설교자는 자신의 청중들이 용서받은 “사실”과 용서받은 “느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면서 설교에 임해야 한다. Sproul은 인간은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을 토대로 한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하고 참된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죄 용서를 받았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실제로는 용서받지 않았으면서도 용서받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음을 말한다(Sproul 47-48).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과연 용서를 받은 존재인가 확신하지 못한 채,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며 뭔가 확실한 용서의 징표를 갈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설교의 청중들 사이에 앉아 있다. 그렇다면 설교자는 그런 청중들을 위해 어떻게 설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럴 때 설교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본문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구절은 요한일서 1:9, 즉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이다.

용서는 죄의 고백으로 시작한다. Sproul은 그가 오래 전 죄의 문제로 아파할 때 어느 목회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그로 인한 아픔을 토로했다. 그러자 그 목회자는 요한일서 1:9을 읽게 했다. 그런데 그 구절을 읽었음에도 여전히 죄책감이 느껴진다고 말하자 그 목회자는 해당 본문을 다시 읽게 했다. 이러기를 수차례 반복한 후 여전히 죄책감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신에게 목회자가 말한다. “당신은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군요.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느낌을 믿을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을 겁니까?” 그제서야 Sproul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단순한 성경 진리 앞에 순종하게 되었다고 한다(Sproul 50).

Sproul의 말처럼 용서는 죄의 고백으로 시작한다. 설교자는 용서받은 사실과 용서받은 느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청중들을 향해 “하나님께 죄를 자백했다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주실 것이다.”라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다만 우리가 청중들에게 확실히 덧붙여 말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며(갈 6:7), 누구도 하나님을 속이려 든다면 죽임 당함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아나니아와 삽비라, 행 5:1 이하)이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는 어물쩍 넘어가려는 잔피를 부리지 말고 아프지만 철저한 고백, 숨김없는 고백, 진실한 고백을 해야 한다. 이러한 죄의 자백을 통해 용서의 첫걸음은 시작하며, 일단 시작된 용서는 멈춰지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한다.

(2) 용서와 교만

그런데 설교자는 여기서 청중의 마음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주신다는 데도 계속해서 용서받은 느낌을 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조차 부정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교자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Sproul은 죄책감으로 괴로워서 상담을 요청한 어느 자매의 이야기를 해준다. 지난날 어느 목회자가 자신에게 그러했듯, 그는 그 자매에게 요한일서 1:9을 읽게 했다. 성경구절을 한 차례 읽은 내담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수백 번 고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여전히 용서받은 느낌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녀가 Sproul에게 요청하기를 저명한 신학자이니만큼 이런 단순한 조언보다 뭔가 더 심오한 것을 가르쳐달라고 말한다. 그러자 Sproul은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할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죄를 고백할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말했다. Sproul이 말한 그녀의 죄란 교만의 죄(the sin of arrogance)였다.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겠다고 선언하셨는데, 그녀는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니며 좀 더 뭔가 심오한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그리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해 그 죄에 대한 보상으로 뭔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 교만이라는 점을 말해준 것이다(Sproul 52).

설교자로서 청중들이 왜 죄 용서의 “사실”과 죄 용서의 “느낌”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가 이해하는 동시에, 진실하게 고백한 자에게 진정한 용서가 임한다는 분명하고 단순한 성경적 진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충분히 용서받은 것 같다/같지 않다’와 같은 자신의 느낌을 더 중요시하는 것은 또 다른 죄, 즉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인가를 명확하게 전달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을 신뢰하기보다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 뭔가 보상의 행위를 추구하려는 청중들의 비복음적 태도를 정확하게 지적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 하늘의 용서와 땅의 용서: 고백(회개)의 진정성에 대한 시금석

잠시 Sproul과의 가상대화를 멈추고, 용서에 대한 성경 본문, 마태복음 18:23-35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 바로 앞 21-22절에서 예수는 베드로에게 무한의 용서를 말한다. 그리고 용서의 실례를 보여주기 위해 23절 이하의 비유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양재훈은 이 본문의 해석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바로 앞에서 무한정의 용서가 강조되었지만, 비유에서는 도리어 단 두 번도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기모순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양재훈 870). 일만 달란트 빚진 종이 한 차례 용서를 받았지만, 그 다음 장면에서 당초의 용서가 취소되어버린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은 애초에 그 악한 종을 용서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둘째, 하나님께서 그 악한 종을 일단 용서한 것은 사실이나 그가 용서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을 보고 최종적으로는 용서가 취소되었을 가능성이다. 이에 대해 양재훈은 후자에 무게를 둔다. 앞서 최초의 용서는 “무조건적 용서”(un-conditional)이지만, 일단 용서받은 자가 그 용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용서를 모범으로 삼아 자신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용서를 실천하는가를 지켜본 후 최종적 판정이 내려지므로 하나님의 용서는 “후조건적 용서”(post-conditional)라는 것이다(양재훈 887).

이런 용서의 패턴을 우리는 주기도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 6:12).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을 획득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용서를 타인에게 베풀며 살아가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 다소 생소한 “후조건적 용서”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용서는 하늘의 용서와 땅의 용서가 역동적으로 어우러지는 형태의 용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에베소서 2:14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와 16절의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구절이 나란히 제시되고 있음을 볼 때, 분명 십자가의 용서가 하늘의 용서를 통한 수직적 화목과 땅의 용서를 통한 수평적 화목 모두를 이루기 위한 사건이었음이 더욱 분명해진다.

요한일서 1:9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죄의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드린 죄 고백(회개)의 진정성은 계속하여 이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다. 하늘의 용서가 또 다른 용서, 즉 땅의 용서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의 용서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다.

(4) 죄책감의 근원: 성령 혹은 사탄

전술한 경우와 같이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목회 현장에서 만나기란 어렵지 않다. 그런데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 청중들로 하여금 죄책감의 근원이 성령인지 사탄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Sproul은 죄와 관련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conviction)이지만, 사탄은 참소하는 일(accusation)을 하며, 성령은 그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구분 짓는다. 그리고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어 참소하는 사탄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반격의 무기 가운데, 죄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를 베푸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요한일서 1:9)보다 더 강력한 반격의 무기는 없다(Sproul 54-56).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일에 대해 사탄이 계속하여 우리의 죄책감을 부추기도록 방치하는 일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이다. 에베소서 6:14는 성도가 감당할 영적 전투와 그를 위한 영적 무장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명령한다. 개역한글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의의 호심경”(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은 사탄이 죄책감으로 우리를 심장을 공격해 들어올 때 우리를 그 맹렬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줄 최강의 보호 장비이다.

그런데 설교자는 왜 “의”의 호심경인가를 청중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의에는 두 가지 차원의 의가 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의”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윤리적 의”이다. 우리는 윤리적 의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가된 의로 구원받는다(칭의). 그러나 동시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의무가 있다(성화). 따라서 전가된 의와 윤리적 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죄책감으로 몰아붙일 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결정적으로 보호해줄 의의 호심경은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일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의롭지 않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부르짖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향해 “너는 의롭지 않다” 참소하며 우리의 심장을 찢러 들어올 때, 우리는 “아니, 그렇지 않아. 어디 찢을 테면 찢러봐.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내 가슴에 붙여주신 의의 호심경이 있어.”라고 대적해야 한다.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청중으로 하여금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설교자에게 맡겨진 역할이다.

III. 나가는 글

개혁주의생명신학이 제시하는 7대 실천운동은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생명운동, 하나님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성령운동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하면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운동이 바로 회개용서운동이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에 대해 진실된 회개를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라는 선물을 베푸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늘의 용서(수직적 용서)가 땅의 용서(수평적 용서)로 연결되기를 원하신다.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용서를 누린 예수의 제자들은 이제 각자가 짊어질 각자의 십자가를 통해 땅의 용서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신 용서의 의미요, 에베소서 2장을 통해 보여주신 화목의 참뜻일 것이다. 필자는 수많은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동료 설교자로서, 한국교회 설교강단에서 회개와 용서에 대한 바른 이론적 이해에 기반한 바른 말씀강해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또한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회개와 용서는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공동체적 문 제임을 인식함으로써, 회개와 용서운동을 통해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새로워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광수. “예수와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 죄사함을 둘러싼 대립(막 2:1-12).” 한국신약학회. 「신약논단」 (2001. 3): 39-71.
- 김기범. 임효진. “대인관계 용서의 심리적 과정 탐색—공감과 사과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권 2호 (2006. 5): 19-33
- 김기범. 임효진. 권명수. “용서의 심리학과 종교.” 한신신학연구소. 「신학연구」 (2010. 6): 168-202.
- 김병수. “내 마음이 서야 너를 용서할 수 있어—충서(忠恕).” 미래사목연구소. 「사목정보」 8권 2호 (2015. 3): 41-44.
- 김성규.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난 회개권고 (행 3:12-26).” 한국신약학회. 「신약논단」 20권 4호 (2013. 12): 985-1016.
- 김시원. “용서의 윤리와 기독교 구속론의 새로운 해석.”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신학」 (2014. 8): 105-28.
- 김영봉. “용서가 세상을 바꾼다(에베소서 4:25-32).”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2010. 10): 94-104.
- 김현경.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외상(psychological trauma) 이후 용서 체험.”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5권 1호 (2011. 6): 59-85.
- 박요일. 「강성 제1권,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기본도리」. 서울: 강성교회, 2012.
- 박요일. “원수와 염려는 주께 맡기라(롬 12:14-21, 벧전 5:7).” 강성교회. 「강성교회 주보」 제 42권 14호 (2016. 4. 3): 4-14.
- 박윤만. “예수의 죄 용서 선언에 드러난 자기이해—가버나움 집에서 죄 용서 선언(막 2:1-12)을 중심으로.” 한국신약학회. 「신약논단」 (2014. 6): 329-64.
- 신기형. “나의 회개 설교.” 한국신학정보연구원.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39권 (2007. 6): 121-33.
- 안석. “엔라이트의 용서치유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2015): 261-292.
- 양재훈. “몇 번 용서를 할까요—용서의 비유(마 18:23-35)에 나타난 용서에 대한 재고찰.” 한국신약학회. 「신약논단」 21권 4호 (2014. 12): 865-93.
- 이상억. “복음의 삶으로서 용서에 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장신논단」 46권 4호 (2014. 12): 225-250.

- 이은선. “사실적 진리와 정의, 그리고 용서의 관계에 대하여.” 새가정사. 「새가정」 (2014. 8): 15-19.
- 이후정. “회개-참된 기도와 개혁에 이르는 길.”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2014.10): 206-214.
- 장종현. 「개혁주의생명신학 선언문 해설」. 서울: 백석정신아카데미, 2010.
- 장종현. “제7회 개혁주의생명신학 포럼 주제설교”. 2014년 10월 13일.
- 장훈태. “회개와 용서 운동을 통한 청소년 선교와 목회.” 개혁주의생명신학회. 「생명과 말씀」 11권 (2015): 181-216.
- 정경호. “죄인으로 불리던 세관장 삭개오의 회개의 밥상.”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2014. 1): 68-77.
- 홍종관. “행복을 위한 용서의 역할에 관한 고찰.” 행복한부자학회. 「행복한부자연구」 2권 2호 (2013. 12): 61-77.
- Enright, R. D. “상처와 분노를 치유하고 사랑의 유산을 남기는 용서하는 삶.”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4.
- Griffin, Brandon, Lavelock, Caroline R., and Worthington, Jr., Everett L. “On Earth as it is in Heaven: Healing Through Forgivenes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014, Vol. 42, No. 3): 252-259.
- Gromet, Dena M. and Okimoto, Tyler G. “Back Into The Fold: The Influence of Offender Amends and Victim Forgiveness on Peer Reintegration.” *Business Ethics Quarterly* (Jul 2014): 411-41.
- Robinson, Haddon W. *Biblical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2d ed. Grand Rapids: Baker, 2001.
- Sproul, R. C. *What Can I Do with My Guilt*. Orlando, FL: Reformation Trust, 2013.
- Wenzel, Michael and Okimoto, Tyler G. “We forgive: A group’s act of forgiveness and its restorative effects on members’ feelings of justice and sentiments towards the offender group.”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Sep 2015, Vol. 18 Issue 5): 655-75.

황빈 목사의 논문에 대한 논평

신성욱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I. 논문의 내용정리

본 논문은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에 영향을 받은 불신자들과 차별화 되지 않는 형편 없는 삶과 교단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비극적 현실에서 개혁주의생명신학이 주창하는 7대 실천운동 중 한 요소인 “회개”와 “용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그것을 토대로 해당 주제에 대해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 접근방법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다.

발제자는 본 논문의 일차적인 작업으로, 끊임없는 자기개혁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성도 개인의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을 소개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인 회개와 용서운동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회개와 용서운동이야말로 이 시대의 절실한 요청이며, 한국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로 연합하기 위한 소중한 대안임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발제자는 회개와 용서에 대한 용어 설명과 일반적인고도 성경적인 해설과 함께, 이론적이고도 실천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별히 설교학적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하나님은 이 하늘의 용서(수직적 용서)가 땅의 용서(수평적 용서)로 연결되기를 원하셨는데,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소중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혜택의 수혜자들인 제자들은 용서를 통해 자신의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II. 논문의 장점 및 공헌

이 논문이 설교학계와 설교자들에게 주는 유익과 공헌이 몇 가지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형통이나 성공이나 축복과 같은 번영복음을 좋아하는 현대 성도들과 죄를 회개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라는 부담스런 설교를 그들에게 전하기를 꺼려하는 설교자들에게 이 두 가지 주제에 관한 설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일깨워준 점은 쇠퇴해가는 한국교회와 강단을 위해 매우 유익한 일이라 생각한다.

둘째로, 성경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죄와 용서에 관한 상담 심리학적 해설들을 통해 그들에 관한 다양한 개념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해 준 점이 유익하다.

셋째로, 하나님과의 수직적 용서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수평적 용서의 중요성을 잘 인식시켜 주고 있다.

넷째로, 역사적으로 볼 때 청교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전도설교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점을 오늘 이 시대에 절감하고 있는 바, 본 논문은 믿지 않는 자들의 회개뿐 아니라 믿는 자들의 회개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다섯째로, 회개를 단회적 사건임과 동시에 연속적 과정인 것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여섯째로, 죄에 대한 지적이나 회개와 용서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설교를 부담스러워하는 청중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곱째로, 강해설교의 정의가 그러하듯, 본문 말씀을 통해 설교자 자신이 먼저 지·정·의를 통한 전인격적 회개를 실천한 후에, 그 경험을 가지고 강단에 설 때 그 선포되는 설교의 내용이 청중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잘 알려주고 있다.

여덟째로, 다소 무리한 주장일 수는 있지만 사람들 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용서의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현실적이고도 실천적인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아홉째로, 용서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6가지 구체적인 요소들을 소개함이 좋다.

열 번째로, 설교를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회개와 용서는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공동체적 문제임을 잘 인식시키고 있다.

III. 아쉬운 점

위와 같은 장점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다음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로, 용서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일반 심리학이나 세상에서의 그것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고 있지만, 성경 자체가 뜻하는 용서의 개념을 소개함이 아쉽게 느껴진다.

둘째로, 화해를 용서의 개념과 구분하여 용서 다음에 이루어지는 단계로 설명하나, 요셉의 경우에는 용서 자체 속에 화해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셋째로, 회개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와 청중 모두에게 부담감이 있는바 신기형이 제안하는 몇 가지 주의사항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것은 구체적인 죄보다는 본질을 강조하라는 내용인데, 예컨대 미움을 회개하라고 설교하기보다 사랑이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지 강조하는 식 말이다. 하지만 청중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주제나 내용에 대한 설교 기피현상이 강단에서의 포폴리즘과 변영복음이란 괴물을 낳고 말았다는 점에서 볼 때와, 그리고 오늘 설교자들의 설교에 구체적 적용이 부족하다는 점과 또한 강해설교의 목적이 구체적 적용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해볼 때 신기형이 제안하는 내용은 다소 위험성과 문제성이 있어 보인다. 차라리 본질(Indicative)을 먼저 강조해서 소개한 다음 이어서 구체적인 문제점들(Imperative)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권고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설교의 방식이 아닐까 사료된다.

넷째로, “용서가 타인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것이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이는 용서를 너무 개인의 이기적인 개념으로 몰아가는 것이며, 성경의 주된 의도와 방향이 아닐뿐더러, 제안자가 결론짓고 있는 핵심 내용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 제안자는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용서를 누린 예수의 제자들은 이제 각자가 짊어질 각자의 십자가를 통해 땅의 용서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결론 짓고 있기 때문이다. 용서의 주목적이 용서하는 자이기보다는 용서의 대상인 타인을 위한 것이라야 주님의 뜻에 합한 것이다.

이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형편없는 모습만 보이면서 죄에 대한 진지한 자세 없이 영적 무감각 속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교회와 설교자들에게 회개와 용서의 중요성을 재고하게 함으로써 오늘 설교자들의 설교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귀한 논문을 집필해주신 황빈 목사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표한다.

황빈 박사의 “개혁주의생명신학 회개용서운동 실천에 관한 설교학적 모색”에 대한 논평

채경락 (고신대학교, 실천신학)

논평을 시작하면서 먼저 황빈 박사의 시도에 존경을 표하고 싶다. 목회현장은 신학을 부담스러워하고, 신학은 목회현장을 가버이 여기는 풍토가 있다. 이상적으로는 둘이 상호협업을 통해 발전되는 것이 당위이지만, 현실에서 둘은 꽤 먼 거리감과 깊은 괴리를 보일 때가 많다. 그런데 황빈 박사의 논문은 이론적인 신학을 현장목회에 직접 접목시키려는 시도이다. 스스로 논문의 한계를 말하기를, “학문적 독창성이나 학계로의 기여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지 않”고, “세미나용 교재의 일부”로 활용하기 위한 글이라고 밝히는데, 이것은 한계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천신학이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바람직한 방향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논문의 주요 내용과 기여

논문의 본문은 크게 네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논의의 기초가 되는 (1)개혁주의생명신학의 5대 핵심과 7대 실천운동을 개괄한다. (2)이어서 논문의 두 초점인 회개와 용서에 대한 간략한 용어 해설을 거쳐서, (3)회개와 (4)용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들어간다.

논문 전개에 큰 흐름이 두 가지 감지되는데, 하나는 신학적인 논의와 일반 학문적인 논의의 통합적 연계다. 논문 초두에 밝힌 대로, 동일한 주제(회개 그리고 용서)에 관하여 일반 심리·상담학적 논의를 먼저 소개한 후에, 이어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논의로 나아간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수평적인 확대라고 부를 수 있겠다. 둘째로, 수직적으로는, 이론적인 논의에서 시작하여 실천적인(구체적으로는 설교학적인)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회개와 용서에 관한 일반 신학과 신학적인 논의를 소개한 후, 그 주제를 설교할 때 주의사항이나 접근 방법에 간략하게 개괄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단행본으로 엮을 만한 내용을 하나의 논문에 담아내고 있는 셈이다.

회개에 관하여, 황 박사는 학자들과 목회자들의 다양한 회개 이해를 소개한다. 일반 학계에서는 용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회개에 관해서는 그 신학적인 특성상 논의가 거의 부재하다.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회개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공통된 출발점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세례는 내적인 회개의 외적인 확정으로 이해한다. 회개로의 부르심은 매우 시급한 초청이었고, 종교개혁은 곧 회개운동이었다고 이해한다. 회개는 심리적인 회심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해되는데, 삭개오가 좋은 사례다. 삭개오에게 회개의 밥상은 곧 나눔의 밥상이 되었다. 회개라는 주제가 포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논의를 소개하는 시도로 보인다.

회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황 박사는 설교적인 적용의 길을 모색하는데, 우선은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기보다 본질을 강조하는 것이 목회적인 지혜라고 조언한다. 설교적인 적용은 구체적일수록 선명하지만, 자칫 특징인을 겨냥한다는 인상을 주어 역효과를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해돈 로빈슨의 강해설교 정의를 인용하면서, 회개의 설교 역시 청중에게 적용하기에 앞서 설교자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더불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는 원리를 상기시키며, 섬기는 교회가 회개와 용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희구한다.

이어서 용서를 다루는데, 제일 먼저 용서의 유익에 대해 다룬다. 학자의 임상보고에서부터 설교자의 설교문까지 다양하게 인용하면서, 용서가 받는 자는 물론 하는 자에게 유익한 일임을 먼저 소개한다. 유익을 먼저 소개하는 것은, 논자가 초두에 밝힌 대로 이론적인 논의를 넘어 목회적인 접목을 염두에 둔 결과로 보인다. 용서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넘어, 성도들을 용서로 초대하겠다는 목회적 판단에 따른 배치로 보인다. 이어서 용서의 대상을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하나님으로 펼쳐 가는데, 하나님을 용서의 대상으로 올리는 것은 신학적으로 위험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진정한 용서와 대비되는 가짜 용서(성급한 용서, 강요에 의한 용서, 심리적 방어 기제로서의 용서 등)의 가능성을 다양하게 고찰한다.

이어서 용서의 불가능성과 가능성을 논의하는데, 용서의 불가능성은 용서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앞서 소개한 가짜 용서를 차단하고 진정한 용서로 나아가기 위한 울타리로 보인다. 본격적으로 용서의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바람직한 용서의 과정을 소개하는데, 출발점은 진실 규명이다. 용서는 허위나 느낌에 기초하지 않고 진실에 기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진실규명의 토대 위에 공감적 이해의 용서가 가능하고, 혹은 동일한 진실규명의 토대 위에 인지적 재구성의 용서가 가능하다. 공감적 이해에 관해서는 장발장에 대한 신부의 공감을 예로 들고, 인지적 재구성에 대해서는 형들을 용서한 요셉의 용서를 대표적인 예로 소개한다.

회개에서와 마찬가지로 용서에 대해서도 설교학적인 적용으로 나아가는데, 황 박사는 용서 설교가 성경적 설교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경적 설교자라면 용서라는 주제를 피해갈 수 없다... 이 말은 용서라는 단어가 포함된 성경 구절이 매우 많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 용서에 대한 대하드라마임을 의미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다.” “따라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넓게는 성경적 설교(혹은 구속사적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면서, 좁게는 그와 동시에 용서라고 하는 특정 주제를 다루는 본문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될 수 있다.” 신학적인 타당성 여부를 떠나 성경을 통전적으로 바라보는 하나의 시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개로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고, 어떤 이는 구속 역사를 골격으로 성경 전체를 가늠한다. 황 박사는 용서를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의 축으로 소개한다. 성경 메시지의 풍성함에 다가가는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용서 설교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들어가서 황 박사는, 스프라울의 설교를 토대로, 용서받은 느낌과 용서받은 사실을 구분하도록 설교할 것을 조언한다. 나의 용서받은 느낌보다 내가 실제로 주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실이 근본적임을 설교할 필요가 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 대하여 성경이 용서를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 앞에 교만이 될 수 있으며, 타인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파괴적인 죄책감은 성령이 아니라 사탄의 참소에서 기인할 수 있음을 확인해 주는 설교를 제언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논문의 강점과 개선할 점

본 논문의 제일 큰 강점은 다양한 자료의 제공이다. 용서와 회개에 관한 이론적이고도 실제적인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부분적으로 읽어도 현장 목회자들에게 일종의 ‘팁’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논자 스

스로 우려한 대로, 논문을 다소 산만하게 만들 수 있다. 많은 자료들이 제공되지만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주된 초점으로 모아지는 집중도에서는 조금 무딘 듯한 인상을 받는다. 회개와 용서에 관한 학자들의 논의를 소개하고, 그 장단점을 논의하며 보다 발전된 이해로 나가거나, 혹은 회개와 용서가 설교 현장에서 어떻게 소개되는지를 소개하고, 보다 나은 길을 제안하는 식으로 논문이 전개된다면 보다 높은 학적인 기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론에서 현장 적용까지 폭넓게 다루는 것도 하나의 강점이 된다. 앞서 소개했듯이, 회개와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론적인 논의에서 시작하여 실제 설교적인 적용까지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실천 신학의 특성상, 이론적인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적용에까지 미치지 못한다면, 그 효용성 면에서 아쉬울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본 논문은 지면의 한계 내에서 양껏 논의를 펼치고 있다. 필자 자신이 현장 목회자이기에 현장의 필요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한 연고로 보인다. 그러나 이 또한 논문의 깊이를 얇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목회 현장, 특히 설교 현장으로의 접목을 시도했다는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된다.

회개에 대해서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회개와 용서를 동시에 다루는데, 분량이나 논의의 깊이에 있어서 회개보다는 용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다. 황박사가 언급하고 있는 대로, 용서에 대해서는 일반 학계에서도 많이 다루지만 회개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부재한 연고로 보인다. 그러나 신학적인 작업과 목회적인 활용을 생각한다면, 일반 학계의 자료에도 불구하고 회개에도 용서에 준하는 정도의 무게감을 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회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이 용서를 다루게 되면, 상담 심리적인 터치 외에 영적인 회개와 각성을 요구하는 목회적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논평을 마치며

신학은 목회현장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목회현장은 신학의 지도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담론을 성도들의 목양을 위한 세미나용 교재로 정리해내는 일은, 멀고도 학문적인 환영을 덜 받을 수 있는 작업이지만,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목회적으로도 요긴한 작업이라 판단된다.